

The Book of Malachi

말라기 강해

James W. Knox 지음
김영균 옮김

KJ 도서 출판 **킹제임스**
King James Bible Publications

The Book of Malachi

By James W. Knox

Korean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 2014 by King 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말라기 강해

지 은 이 | James W. Knox

옮긴이 | 김영균

펴낸이 | 김영균

초판발행 | 2018. 1. 6.

발행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81 엘림빌딩 지하1층

전 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ib.com

표지사진 | 안성식 jetspeed@nate.com

표지디자인 · 편집 | 장한디엔피

ISBN | 978-89-89741-90-9

정가 16,000원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가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차례

머리말	005
제1부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1:1-5)	018
제2부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1:6-11)	045
제3부 너희가 찢긴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1:12-14)	091
제4부 너희의 엄숙한 명절들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리니... (2:1-4)	111
제5부 어찌하여 형제를 대적하며 배신하느냐?(2:5-10)	168
제6부 이교도들과의 혼인(雜婚)에 관하여(2:11-12)	176
제7부 이혼과 재혼에 관하여(2:13-16)	190
제8부 주를 지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2:17)	239

제9부 성경 번개에 대하여(3:1)	254
제10부 다가오는 메시아(3:1-6)	260
제11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3:7)	315
제12부 십일조에 관하여(3:8-12)	330
제13부 완악한 말로 주를 대적하는 백성들(3:13-15)	350
제14부 주께서 기록하신 기념 책(3:16-18)	364
제15부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리니...(4:1-3)	392
제16부 구약성경의 마지막 단어 - “저주:curse”(4:4-6)	423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450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안내	453

머리말

말라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에서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은 구약성경으로만 되어 있지만 그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약성경과 동일한 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가톨릭 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외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유대인) 성경과 그리스도인의 성경 속에 들어있는 책들의 나열순서는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성경은 역대기하가 마지막 책이고 역대기하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대언서들의 목적은 유대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 장소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성경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 되는 것은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성경을 읽으면 마지막으로 읽게 될 구절은 다음과 같고, 그것은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하엿더라.”(대하36:23)

신약교회는 이방인들의 때가 진행되는 기간에 생겨났고 또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데려가는 것이고 야곱의 고난의 때로부터 면제해 주시는 것이며,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때에 함께 와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약과 더불어 신약성경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약성경은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책입니다. 이 신약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그분이 율법과 예언서보다도 더 높으신 분임을 보여 줍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 아래에서의 삶을 실패로 마무리한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약시대의 끝 모습과 하나님의 아들께서 초림하시는 내용과 재림하시는 내용이 담길 신약을 위한 초석을 깔고 있습니다. 제가 말라기에 대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말라기는 제사장 제도의 실패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제도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 책 속에 아론과 레위지파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잘 감독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며 백성들에게 주님의 길들에서 교훈을 주고 본을 보이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고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도록 지켜줍니다. 말라기에는 구약의 마지막 상황에서 이들 제사장들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했는지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2. 말라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알려주던 침례인 요한이 등장하기 직전,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어떠했는지 묘사해줍니다. 이로써 말라기는 신약을 예고해 주는 셈이지요.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성전에 관련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며 갈등하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기를 거부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라기 시절의 이스라엘의 영적지도자들

은 심히 타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행하는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라고 하였습니다(마23:2-3).

3. 말라기 시절의 일들은 현재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기 직전의 상황을 특징짓는 몇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은 그분의 재림 직전에 있을 그 시대의 특징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므로(전3:15) 우리는 말라기를 읽음으로써 라오디게아 시대 동안에 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악화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인류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를 보면 유대인들의 성전예배와 희생제사제도가 바빌론 포로시대 이후로부터 다시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한편 종교의식적인 형식주의와 위선적인 모습 역시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미국과 같습니다. 교회 출석률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멋진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 음악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 전의 그 어떤 때보다도 잘 팔리고 있고 소위 기독교 소설 또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삶이라든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라든가 성경적 진리에 대한 부흥이나 각성이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멋진 예배당도 있고 그 예배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있기는 하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에 영적·도덕적으로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라기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 말라기를 우리가 공부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네 번째 이유는 말라기 역시 성경 속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께서 인간의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지침을 내리고 계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지식적으로 공부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우선적인 목적은 그분을 알도록 함입니다.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분이 무슨 느낌을 갖고 계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등등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말라기는 바빌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유대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이끌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영향력이 사라지자마자 부패가 횡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아마 희생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명절들도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헌물도 적절한 방식에 따라 제때에 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원칙을 고수하고 백성을 위해서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 주는 그러한 리더들이 없을 경우 모든 것이 졸지에 쇠퇴해 버립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쇠락현상을 미국의 대학교나 신학교나 성경학교 등의 역사에서 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들과 여러 교단들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그대로 이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굳게 서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으며 이들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보내신 헌신된 사람들이 결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을 찾아 보기가 어렵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라든가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 같은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확고한 믿음을 지닌 리더들이 계속 나타나 끊임없이 대체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신속하게 쇠퇴해 버리는 것입니다.

말라기라는 인물은 성경의 다른 곳 그 어디에서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저 무명으로 남고 싶었던 한 대언자의 필명인지 아니면 실제 이름인지를 놓고 쓸데없는 논쟁을 벌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네 장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여호와와 사자’라는 뜻인데 이 이름이 참으로 흥미로운 것이
이 짧은 책에 다섯 명의 사자(使者)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말라기 자신이 바로 사자입니다(말1:1).

두 번째로 말라기 2:7에 참된 제사장이 또한 사자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리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말2:7)

세 번째 사자는 침례인 요한인데 그의 사역은 말라기 3:1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하
리로다.”(말3:1)

네 번째 사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읽은 말라기 3:1에 보
면 같은 구절에 두 명의 사자가 있는데 한 사자가 다른 사자를 위하여 길
을 예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자는 엘리야가 될 터인데 말라기 4:5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
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말4:5)

이 책에 이렇게 많은 사자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기는 하지만
그 올바른 행위를 하지 아니한 악한 백성을 다루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지
만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백성을 다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하고 무슨 상
관이 있으실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
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두 명도 아니고 다섯 명의 사자들을
통해서 백성에게 간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보내시며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그들의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변화를 받으라고 계속해서 간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모두가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우며 친절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러한 노력을 하실 필요도 없었고 화해를 제안하실 필요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무시하고 내던져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역적이고 불순종하는 이 민족에게 다섯 명이나 되는 사자들을 보냈다고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얼마나 위대한 진리입니까?

그분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바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향하고 있는 외롭고 절망에 빠진 죄인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계십니다. 그 죄인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는 어쩌면 설교자일 수도 있고 가정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개인 복음전도자일 수도 있고 가게나 일터로 찾아오는 누군가일 수도 있으며 복음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연히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는 순간 그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웃이나 친구가 하나님이 사자가 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은 너무 선하셔서 계속해서 또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필요로 하는 자나 그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구해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보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인 말라기는 최초의 대언자인 모세의 대언이 성취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신명기 18:15-18에서 말합니다. “주 네 하나님께서 네 한가운데서 곧 네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네

가 집회의 날에 호렙에서 주 네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이 이러하니 곧 네가 이르기를, 내가 죽지 않도록 다시 주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말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말게 하소서, 하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한 것을 그들이 잘 말하였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Prophet 대문자 “P”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신18:15-18)

모세는 한 대언자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한 선두 주자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라기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율법과 대언자들의 시대를 마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22-23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그 말씀들을 상고해보면 그 안에 무언가 이상하게 삭제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혼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하였고”(행 3:22-23)

길을 예비할 사자인 선두주자는 이 베드로가 인용한 성경구절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두주자인 침례인 요한의 사역은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고 계신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속에 성령께서 삭제시킨 내용은 그가 인용하고 있는 바로 그 성경구절에 해당되는 약속된 메시아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이 동일한 진리를 사도행전 7:37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스테반

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선언했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이 사람이 바로 그 모세니라.”(행7:37)

베드로나 스테반이나 둘 다 모세가 예언했던 그 대언자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라기는 그 첫 번째 대언자였던 모세의 메시지가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라기와 신약성경을 비교함으로써 선두주자의 사역이 마무리 되었다는 세대적 진리를 보게 되며, 대언자들의 시대도 마감되었고 드디어 그 대언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시대가 동이 터 왔음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부터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간의 침묵의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며 그들의 율법과 이방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는 우리에게 또한 바빌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예배와 희생 제사제도가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경고를 받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결국 갈대아 사람들과 바빌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풀려났고 그들의 고향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거주하기 시작했지요. 성전은 재건되었고 성전예배는 다시 회복되었으며 제사장들에 의해서 희생제사도 드려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예배와 희생제사제도가 회복되었기는 하지만 의식(儀式)에 의존한 형식적 예배와 위선적인 모습이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의 죄를 억제하는 영향력이 사라진 직후, 부패가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라기 1:7-8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제단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희생제사도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오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가운데 가장 형편없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최상의 것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네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네 외모를 용납하겠느냐?”(말1:7-8)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 드리는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식으로 대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십일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말3:8)

종교의 형식은 결코 마음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외형적인 모습과 근본적 진리들을 수호하는 추종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들에 들어가면 많은 자들이 내용을 무시하거나 규칙을 어깁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예배는 무시하십니다(요4:24).

말라기에 나와 있는 메시지는 상당히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논쟁을 하시는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제사장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그리고 나서
는 백성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18에서 논쟁을
한번 해 보자고 제안을 하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
께 변론하자...**”(사1:18)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으로 나타나시는데 백성들을 초대해서 그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한번 토론해 보자고 하십니다. 이 말라기에서는 1:1에서 3:15까지가 대
화 형식으로 백성들의 죄가 잘 열거되어 있습니다. 대언자는 하나님을 대
신해서 제사장과 백성들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있고 그들은 그 심판
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거되
어있는 죄들을 보니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 흔한 죄들이어서 이 말
라기 시대를 이해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 1:1-5까지의 내용은 감사하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말라기 1:6-14까지는 제사장들의 도둑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말라기 2:1-9까지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정죄하고 있고 말라기 2:10-
16까지는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2:17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부인하는 것을 질책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말라기 3:1-6까지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 미리
예언되어있고 3:7은 그분의 백성이 타락해서 방황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말라기 3:8-12까지는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십일조와 헌물을
도둑질하는 모습을, 3:13-15까지는 죄로 가득 찬 인간이 죄 없으신 하나
님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3:16-4:6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중 남은 자들을 축복하는 내용과 사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메시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정확하게 언제 쓰였는지, 그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BC 450년부터 BC 395년 사이로
봅니다. 그 외 여러 사람의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적 증거로는 BC 516년

에 있었던 두 번째 성전의 재건과 봉헌 이후에, 즉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있었던 시기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성경적 증거는 다음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말라기 1:7-8에 보니 성전예배가 다시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2. 말라기 1:8에 보니 백성들이 통치자 즉 총독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총독은 느헤미야기나 학개에도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들 두 대언자들은 말라기와 동시대에 예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개 1:1을 보십시오. “다리오 왕의 제이년 유월 곧 그 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세텍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학1:1) 여기서 제사장 제도도 회복되어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한 그 땅에는 총독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내용이 느헤미야기 5:14에도 나옵니다. “또한 유다 땅에서 내가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의 제이십년부터 제삼십이년까지 즉 십이 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빵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느5:14)

느헤미야기 12:26은 “이들이 요사닥의 손자요, 예수아의 아들인 요아김 시대와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겐 서기관인 에스라 시대에 있었더라.”(느12:26)라고 말씀합니다.

3. 말라기에 나오는 사회적 그리고 영적상황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기 3:5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아니하였더라.”(느3:5) 이것은 말라기에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에서도 나와 있는 동일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느헤미야기 5:1-14을 보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라기가 느헤미야 시대에 같이 설교했다”라는 것에 대해

서 의문을 갖는데 그 근거는 말라기 1:8에 보면 총독에게 선물을 바쳤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느헤미야기 5:18에 보면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모든 선물들을 거절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가 아닐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라기 1:8에서는 ‘말라기는 백성들이 총독에게 희생물을 바쳤다.’라고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예를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그와 같이 병든 헌물을 총독에게 바치겠느냐?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그런 것을 바치느냐? 하는 비유를 들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지 실제로 총독에게 선물을 바쳤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것을 네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네 외모를 용납하겠느냐?”(말1:8) 따라서 이 말은 백성이 실제로 헌물을 바쳤다는 진술이 아니라 말라기에 의해서 그들의 헌물이 아주 죄악된 것이었음을 백성에게 지적하기 위해서 논거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4. 말라기가 지적하고 있는 몇 가지 일들이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있었던 사건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느헤미야기 13:7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와서 엘리아십이 도비아를 위해 하나님의 집 뜰에 방을 예비함으로써 그를 위해 행한 그 악한 일을 알게 되었노라.”(느13:7)

이로써, 말라기 대언자가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인지 아닌지의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살았던 사람인 것이 분명하고 두 번째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살았던 사람임이 분명하며 그들이 살고 있었던 영적 상황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말라기는 아주 간단한 책이며 읽기도 아주 편안한 책입니다. 어려운 단어도 없고 까다로운 내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요구하는 책이어서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라기를 읽으면서 구약적 내용을 회상할 때에는 우리에게 율법과 재판관

들과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에 관한 지식이 요구되며 또 미리 앞을 내다보는 내용을 공부할 때에는 예언적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대환난 때의 이야기라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분께서 파멸시키시는 것과 그분께서 복 주시는 것들을 다룰 때는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도 필요합니다. 교회시대의 성도들에게 제공되는 천년왕국과 그 보상 또한 짧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사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 역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머리말에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말라기 1:4에서 우리는 “만군의 주가 말씀하시노라”라는 표현을 보게 되는데 만군의 주라는 칭호는 말라기의 네 장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 속에 스물 네 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언급할 때, 만군의 주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실 때에 취하시는 칭호인데 말라기라고 하는 책의 최우선적 관심은 가장 실질적인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한 상태를 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리적인 면에서 볼 때 말라기라고 하는 책의 가장 주안점은 주님의 초림 직전에 있게 될 죄악에 빠진 영적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언적으로 보자면 재림 직전에 있게 될 때의 영적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죄와 죄인들에 대하여 전쟁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1 부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1:1-5)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 하였으며 광야의 용들을 위해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였느니라. 에돔은 이르기를, 우리가 궁핍하게 되었으나 돌아와서 황폐한 곳들을 세우리라, 하거니와 만군의 주는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들이 그들을 일컬어 사악한 지역이라 하며 주께서 영원토록 격노하시는 백성이라 하리니 너희가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경계에서부터 크게 되시리로다, 하리라.”(말1:1-5)

말씀의 엄중한 부담 / The burden of the word ‘짐(burden)’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가 싣고 다니는 어떤 무엇입니다(행 21:3).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질그릇 속에 이 짐을 싣고 다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고후4:7) 배의 화물과 관련되어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짐이라는 것은 사람을 무겁게 만드는 동시에 인간이 짐을 지고 다니는 그 일에 잘 어울리는 존재라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배가 항해할 때 짐이 없이 나가면 아주 위험합니다. 배는 충분히 물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는 올바르게 통제될 수 없습니다. 일부러라도 배의 짐 선반에 바닥짐을 실어서 배가 물 위로 높이 떠 있지 않도록 확실하게 한 후 출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의 중심이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가 물 위 높은 위치에 떠 있게 되면 균형을 잃어 뒤집히게 되므로 배의 안전을 위하여 일부러 짐을 싣게 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짐을 지고 다닙니다. 이 짐은 영적인 짐이나 마음의 짐들이 됩니다. 때로는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갈 6:2) 그 누구도 그 짐을 완전히 제거할 수도 없고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갈 6:5).

설교하시는 분들이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무거운 짐들을 다 제거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우리 짐을 지고 갈 때에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시기는 하나(마 11:30) 그분께서는 우리의 인생향해에 짐이 없다면 안전하지 못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22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분쟁을 다 재판하는 것이 모세에게는 큰 짐이었습니다. 민수기 11:11에서 모세는 자기가 너무나 무거운 책임의 짐을 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서 보내주셨습니다(민 11:16-17, 70인의 장로들).

하나님의 대언자들에게 주어진 계시들은 흔히 ‘엄중한 부담’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때로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 걸어가는데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대언자들은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어두운 미래의 운명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은 즐거운 일이 아니지요. 육신적이고 부주의한 자에게 심판이나 파멸을 선포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사악한 자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겔 33:11, 18:23, 18:32). 따라서 그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따라 살지 않고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자들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엄중한 부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엄중한 부담이라는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열세 번이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모압과 두마와 아라비아와 바다에 있는 사막에 전달한 메시지의 내용을 보니 부담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사13:1, 15:1, 17:1). 설교자들도 그들이 선언해야 할 날카로운 진리들을 언급할 때 이것을 부담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설교해야 할 부담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호세아 8:10, 나훔 1:1, 하박국 1:1, 그리고 스가랴 9:1, 12:1 등을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말씀들을 듣는 자들 역시 백성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언한 하나님의 재앙은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후가 자기의 대장 빗갈에게 이르되, 그를 취하여 예스르엘 사람 나봇의 상속물 밭에 던지라. 너는 기억하라.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따랐을 때에 주께서 그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제 분명히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았노라, 하시고 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것을 이 땅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시나니 그런즉 이제 주의 말씀대로 그를 취하여 이 땅에 던질지니라, 하니라.”(왕하 9:25-26)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백성들에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분이 주신 지침을 그대로 준수할 갈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 충격적인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이 백성이나 대언자나 제사장이 네게 물어 이르기를, 주의 엄중한 부담이 무엇이나?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무슨 엄중한 부담이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심지어 너희를 버리리라, 하라. 또, 주의 엄중한 부담이라, 하는 대언자와 제사장과 백성에 관하여는 내가 심지어 그

사람과 그의 집을 벌하리라. 너희는 각각 자기 이웃에게, 각각 자기 형제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께서 무엇이랴 대답하셨느냐? 주께서 무엇이랴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주의 엄중한 부담을 언급하지 말라. 너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 곧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하였으므로 각 사람의 말이 그에게 엄중한 부담이 되리라. 너는 그 대언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께서 네게 무엇이랴 대답하셨느냐? 주께서 무엇이랴 말씀하셨느냐? 하라.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엄중한 부담이라, 하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 곧 주의 엄중한 부담을 말하였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엄중한 부담이라,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보라, 나 곧 내가 너희를 완전히 잊으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도시와 너희를 버리고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며 잊지 못할 영존하는 치욕과 영원한 수치를 너희에게 가져오리라.”(렘23:33-40)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라기를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은 ‘도대체 이 대언자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말라기 1:1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데 도대체 왜 우리가 이책을 공부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까? 우리에게 해당하지도 않는데요?”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터이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1.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딤후3:16-17) 따라서 우리는 이 말라기 말씀 역시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공부할 이유가 됩니다.

2.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

니...”(롬15:4)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고전10:11)

3.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잠30:5)
4.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눅24:25)
5.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여야만 하는데 그분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라고 하셨으니, 말라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므로 역시 공부해야 합니다(요5:39).
6. 이 성경말씀 중에서 특히 말라기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에게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행17:1-2).
7. 말라기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룩한 성경 기록의 일부분입니다(딤후3:15).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대체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특정한 시대에 살고 있는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을 겨냥해서 기록된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대상은 한 민족, 즉 이스라엘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고 하신 말씀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

계만 해당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노라, 주께서 말하노라. / I have loved you, saith the LORD.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일4:8).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새로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 사상은 구약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상숭배로부터 이끌어 내셨고 그의 자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으며 그분은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출해 내셨고 그들을 광야를 통과하여 인도하셨으며 천사의 음식으로 그들을 매일 먹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 위의 다른 민족들과 달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율법과 제사장 제도 같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는데, 이 땅에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아주 위대하고 소중한 약속들을 포함하고 있는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율법시대와 신약시대를 구분하는 많은 성경교사들이 그들의 독자들이나 청중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화를 잘 내고 잔인하며 아주 독재자 같은 사랑이 없는 분이라는 인상을 남겨주기도 합니다. 구약성경에 있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의 노리갯감에 불과한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세상에 사랑이 등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더불어 시작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거짓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말라기 3:6에서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새로운 하나님이거나 구약과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타났던 동일한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거주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요. 만약 그분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로마서와 빌립보서에서 사랑이시라면 그분께서는 신명과 룯기와 예레미야서와 시

편에서도 여전히 사랑이셨고 사랑이신 분입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껏 너를 사랑해 왔노라.”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아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벨이 살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녹과 노아를 그 당시의 사람들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사들의 끔찍한 시절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왔노라.”라고 하십니다. 엘리와 사울과 솔로몬과 여로보암과 그리고 수백 명의 악하고 쓸모없는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왔노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나단과 엘리사와 이사야와 사무엘과 그리고 수십 명의 대언자들을 통해 너희를 꾸짖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었느냐?”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떤 기초 아래에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신명기 7:6-8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네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시므로 주께서 자신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신7:6-8)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사랑해 오셨습니다.

신명기 10:15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뒤를 이을 그들의 씨 곧 너희를 모든 백성들 위로 높이 택하셨음이 이 날과 같으니라.”(신10:15)

구약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오셔서 함께 교제하기를 갈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그 시대의 끝 무렵에 교제를 요청하실 목적으로 이스라엘에 나타나셨습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의 하나님이셨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냐?”** 무슨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에 관해 너무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인간은 좋은 선물을 받을 때는 교만하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먹고 문제가 생기면 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히 나에게 이런 짓을 하신단 말인가?”라는 식의 태도를 취합니다.

히브리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수세기에 걸쳐 기적을 베푸시고 군사적인 승리를 가져다주시고 하늘과 땅에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도 멀리 멀리 떨어져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증거도 기억해 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냐?”**라고 반문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도 타락하여 눈 먼 자와 같이 된 그리스도인에게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로부터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벧후1:9). 유대인들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된 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여 주십니다. 동시에 그들을 날카롭게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약하고 믿음은 없는데 꾀만 많고 비겁한 야곱을 예를 들어 주십니다. 야곱을 예를 통해 주님께서 결론

적으로 그분의 사랑은 결코 그들이 돈을 내고 산 적이 없다는 것, 거저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이 사랑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거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보상이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지요.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이 은혜로 주어졌음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지? / Where in hast thou loved us? 이렇게 이야기하자 주께서 답변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주께서 말씀하시노라. / Was not Esau Jacob's brother? saith the LORD 그렇습니다. 분명히 형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맏아들로서 주님의 축복에 대해서 권리가 있었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 yet I loved Jacob.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 이유가 성경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는 사랑스러운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주님의 마음을 끝만한 행동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은 자신의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염소 털을 자기 팔과 목에다 붙이고 아버지의 침대 곁에 슬며시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는 모습은 참으로 비열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도둑질 했습니다. 그는 멀리 받아 마땅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모두 살펴봐도 성령께서는 그저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 그의 임종 순간에 침상에서 비로소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보여 줄 뿐입니다.(히11:21).

그전까지는 그가 믿음으로 산 적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도 비열하고 속이는 자요, 마귀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에게 대들었던 그 자의 후손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대가를 치르거나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님을 보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는 그분이 사랑이심을 입증하는 증거였습니다.

성령께서는 로마서 9장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십니다.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때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롬9:10-13)

창세기 25:22-34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에서 대신에 야곱을 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일반적인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자연법을 제쳐놓으시고 동생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영원한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를 들면서 말라기의 첫 부분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라,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내가 너희를 뽑았노라. 내가 너희를 선발하였노라.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은 단지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다른 이유가 없노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 안에는 무언가 희망이 보입니다. 이 쓸모없는 배교한 백성에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다시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얼마든지 또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마음을 다해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말라기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그분께서는 그들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들었을 때 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소망입니다. 당신은 지금 잃어버려진 자입니다. 당신은 완전한 실패한 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신은 완전한 유죄입니다. 진노가 당신의 머리 위에 있으며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어 보십시오. 구원은 그 어떤 선행이나 올바른 행동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결코 구원의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현재가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거저 주어집니다.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좋은 소식이란 지금의 타락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은혜로 자신의 사랑을 당신에게 언제든지 기꺼이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로부터 돌이켜 그분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자, 이제 주께서 두 번째 논거를 제시하십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광야의 용들을 위해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였느니라.**”(말1: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피폐하게 만드셨나요? 예,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이끄셨나요? 네,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억압자들에게 점령당하도록 허락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예와 종들이 되도록 허락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이 구약성경의 다니엘서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와 역사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 끔찍한 내용들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에서를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는데 내가 바로 그리하였노라. 나는 그의 유업을 광야의 용들을 위해 황폐케 만들었노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겠지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에서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든지 다 똑같이 잔인하신 분 같은데요.”라고 말합니다.

에돔이 이르기를, (에돔은 에서인데 오바다에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가 궁핍하게 되었으나, 돌아와서 황폐한 곳들을 세우리라.** / Whereas Edom saith, We are impoverished, but we will return and build the desolate places(말1:4) 바빌론 포로로부터 돌아올 때 이스라엘도 에돔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만군의 주는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 thus saith the LORD of hosts, They shall build, but I will throw down(4) 여기에 나와 있는 논거는 한 민족이 징벌을 받았고 또 다른 민족은 그 징벌을 면하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논거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들은 회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은 후에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다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다른 두 민족의 조상인데 둘 다 육신적인 실패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에서)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축복하신 그 땅에서부터 떠나서 그 땅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갔습니다. 반면에 둘째(야곱)는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부터 떠나 형의 복수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야곱이든 에서든 그 두 사람 다 우리의 흠모를 받을

만한 그러한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내셔서 축복 안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대로 남아 방황하면서 결국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게 없어져버렸습니다.

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들이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사실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희들에게만 특별히 잔인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에서는 어디에 갔느냐?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지 않았느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째서 너희는 너희의 잘못의 대가로 인한 징계에 대해서는 나에게 대들고 너희가 전혀 자격이 없는데도 선물로 받았던 그 사랑은 가벼운 것으로 여기느냐? 이런 짓은 그저 다섯 살짜리 심술쟁이 어린아이의 행동이 아니냐? 아주 유치한, 사람의 아들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냐? 너희의 죄 때문에 징계를 내렸을 뿐인데, 그것에 대해 나를 정죄하면서 너희 자신의 죄는 정죄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이 상황에서 관계의 회복을 원하는 자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곤경으로부터 끄집어 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계의 눈초리로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때렸었지?’, 그것만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했어.’,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자초한 자신들의 행동은 다 잊어버리고, 그들을 포로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데리고 오셨다는 사실도 전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그들을 일컬어 사악한 지역이라 하며 주께서 영원토록 격노하시는 백성이라 하리니 / and they shall call them, The border of wickedness, and, The people against whom the LORD hath

indignation for ever.(말1:4)

여기에서 이 논쟁의 초점을 잘 간파하시겠습니까? 말라기가 하나님께서 에서를 영원토록 멸망하게 하신 사실과 또 하나 이스라엘도 멸망시켰지만 다시 회복시켰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은 원수들에게 멸망을 당했고 다른 한쪽은 아버지로부터 징계(바로잡음)를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2:16-17을 보시면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들의 역사가 얼마나 불행하게 시작되었는지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히12:16-17)

구약성경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시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분께서 사랑했던 백성에게로 돌아오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위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드렸던 기도문에 아름답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만일 그들이 주께 죄를 지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사 그들을 그 원수에게 넘겨주시매 그들이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멸든지 가깝든지 원수의 땅으로 끌고 갔을 경우 그럼에도 그들이 자기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자기들이 포로로 사로잡아 간 자들의 땅에서 회개하며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릇되게 행하였으며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고 또 그와 같이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간 자기 원수들의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 주께로 돌아와 주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자기들의 땅을 향하여 곧 주께서 택하신 도시

와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때에 주께서는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사 주께 죄를 지은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며 그들이 주께 범법하며 행한 그들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간 자들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쇠 용광로 한가운데서 곧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이며 주의 상속 재산이니이다.”(왕상8:46-51)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씨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논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너희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에도 존재할 수 없었고 지금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나의 사랑으로 너희 민족이 이제까지 존속할 수 있었다.

우리는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민족의 역사를 오바다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바다에서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들 백성을 멸망시키시고 결코 회복시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바다의 환상 계시라.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옵1:1)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심지어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오 데만아, 네 용사들은 놀랄 것이요, 이로써 에서의 산의 모든 사람이 살육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리라. 내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사한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고 네가 영원히 끊어지리라.”(옵1:8-10)

말라기가 선언한 그 진술에는 영원토록 끊어지리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지요.

자, 그러면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다음 구절들을 대조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온 산 위에는 구출이 있겠고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야곱의 집은 자기 소유를 소유하리라.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서의 집은 지푸라기가 되리라. 그들이 저들을 불사르고 삼킬 터인즉 에서의 집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으리니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욥1:17-18)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날 애돔 사람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민족은 아예 멸절되어 버렸습니다. (역사상 애돔 사람으로 마지막 남아있던 사람이 아마 해룻일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하늘의 왕국을 세울 그 소망이 점점 더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택하셨지만 에서는 미워하신 것이 아니냐? 이것으로 너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느냐?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억압자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나 그 심판을 다 치르게 된 후에는 그들이 구출 받게 될 것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에서에게는 그와 같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 반복해서 보게 되는 특징 가운데 하나를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대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동물의 왕인 용맹한 사자를 꾸짖기 위해서 작은 생쥐가 떡 버티고 서있는 모습을 만화나 우화 같은 것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주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쥐가 사자에게 대드는 모습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먼지 덩어리 같은 자들이 자신을 만드신 분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우스꽝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의 자리를 펴겠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모든 질서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인간이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불러 자신들 앞에 서도록 하고서 마치 자신이 재판관인 것처럼 하나님의 행동들을 자기들 앞에 모두 진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관이 마치 피고인을 다루듯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을 찾지 못하였노라.” 오늘날도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허물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뻔뻔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바보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은 아니겠지요.

말라기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언쟁을 벌이는 모습은 다가올 심판의 날을 미리 보여 주는 것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지요.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마7:22)

그 날에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추궁할 것입니다. (어째서 나같이 의로운 자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큰 흰 왕좌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신성하신 분의 영광스런 얼굴을 뵈히 쳐다보면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공적을 열거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그런 참람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만의 사람들이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져 있습니다.(딤후3:6).

보잘것없고 타락한 인간이 이렇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중, 그 어느 곳보다 말라기에 잘 묘사되어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참으로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롬3:18, 시36:1). 어린 아이가 어머니를 책망하는 일을 보는 것은 참으로 역겹습니다. 소년이 이제 처음 난 몇 가닥 안 된 수염을 가다듬으며 품을 잡고 아버지를 훈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하문며 “다 더해도 가장 최상의 상태에서도 허망한 것보다도 못한”(시62:9) 그 인간이 전능하신 분을 꾸짖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지적하고 있는 가장 크나큰 범죄는 살인도 아니고 탐욕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닙니다. 로마서 1:21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롬1:21)

인간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을 존경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이제껏 그분께서 계속해서 축복을 베푸셔서 그것을 향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감사치도 않습니다. 인간은 왜 그럴까요? 인간 스스로 자신을 높게 생각해서 자신들이 그런 좋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나 축복을 인간은 능히 받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좋은 것을 계속해서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화를 내고 불쾌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실 때 하나님과 다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실로 교만하고 버릇없고 무례하고 작고 별 볼일 없는 어리석은 자들에 불과합니다.

말라기 1:4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기도 하고 얼핏 보면 불길하기도 한 그것은 바로 “**사악함의 경계**”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세상에는 건너가서는 안 되는 경계들이 있습니다. 결코 빠져서는 아니 될 악한 행위와 더러운 열정들, 잘못된 감정들의 어두운 걱정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욕심이 통제되지 않는 마귀들의 동굴이 있고 그곳에서는 더러운 영들이 그들의 더러운 증오심을 단순한 자들과 조롱하는 자들에게 마음껏 표명합니다. 젊은이들이여, 그 경계선을 넘지 마십시오. “...죄인들이 너를 핍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잠1:10)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 장소들에 가면 양심들이 더럽혀지고 육체가 사탄에게 넘겨져서 쾌락만을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 왜곡되어서 원래의 기능대로 작동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대언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외칠 것입니다. 이 경계선을 넘지 마십시오. 이 멸망의 집안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다**”고 시편 16:11에 말씀하십니다. “**곧바른 자의 큰길**(잠16:17)”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만족과 수천 개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부름에 응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일시적인 쾌감이 나 쾌락을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사악함의 경계**”의 저 너머 지역으로 가면 이와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맛볼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말라기 1:4, 5에는 두 개의 경계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악함의 경계**”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경계**”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개의 경계는 똑같은 경계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사악함의 경계가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스라엘의 경계가 됩니다. 양쪽으로 나누는 국경선은 선이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리하는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서로 함께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뒤섞어 버리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서로 분리되어야 할 것들을 함께 놓아 두지 않으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항상 경계선을 그으십니다. 여러분의 영원의 시간은 이 선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든지 구원받지 못하고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당신은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중이든지 지옥으로 가고 있는 중이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길에 있든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에 있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불의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어 놓으시는 분이시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사이를 명쾌하게 분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별을 흐릿하게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크게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 / The LORD will be magnified(말1:5) 사악함은 하나님을 크게 높이지도 못하고 영광스럽게 하지도 못합니다.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사악한 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얻으실 영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의롭지 못한 행실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는 불의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크게 높임을 받으시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악함의 경계 안에서는 크게 높임을 받으시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미덕에 의해서 회복이 된 자들의 경계에서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들 백성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크게 높임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을 크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magnified; 확대경으로 확대하듯 하나님을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더 크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크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역주: 우리말로 크게 확대한다는 말은 어색하니까 할 수

없이 크게 높인다고 번역했음)

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 아이가 과학실험실에서 세포를 현미경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 세포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그 세포를 더 분명하게 보게 되지요. 그 현미경에 달려있는 확대경의 도움을 받아서 세포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아주 환상적이고 섬세하고 자세한 구석구석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모든 사물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 순간 눈에 보이는 것은 확대된 세포일 뿐입니다. 한쪽 눈을 감고 한쪽은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곳에 대면 확대경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세포가 그의 시각 전체를 완전히 채워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바짝 가까이 확대시켜서 보면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모든 삶의 부수적인 여러 이슈들과 모든 염려들과 인생의 의무감으로부터 완전히 돌이키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때 우리의 시각 안에 그분이 얼마나 더 크게 보여지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35:27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사정을 지지하는 자들이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참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이르기를, 자기 종의 행통함을 기뻐하시는 주를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시 35:27)

주님께서는 인간을 크게 높이기 위해서 택하신바(욥7:17),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왕관으로 만들었고(히2:5-8), 그분께서는 여호수아를 크게 높이셔서 그가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고(수3:7, 4:14)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해 주셨으니 이는 그가 다윗의 왕좌를 취할 때였습니다(대상29:35).

성경에 보니 인간이 스스로를 크게 높이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서 언급될 때 보면 그자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자기 스스로를 크게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요(욥19:5-6), 시편 기자의 원수들의 행동이었습니다(시35:26, 38:16).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스스로 말씀을 크게 하셨고(시138:2), 그분의 율법을 크게 높이셨으며(사42:21), 자신을 크게 높이셨고(겔38:23), 자신의 공훈을 크게 하셨습니다(창19:19).

성경의 가장 오래된 책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읽게 됩니다. “그대는 기억하여 그분께서 하신 일 곧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을 높일지어다.”(욥 36:24)

시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시34:3)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시69:30)

“나의 의로운 사정을 지지하는 자들이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참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이르기를, 자기 종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주를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시35:27)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주를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시40:16)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시70:4)

자, 여기 왕의 말씀들을 들어봅시다.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크게 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는 이스라엘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또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삼하7:26). “그 일을 굳게 세우시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크

게 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또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대상17:24)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눅1:46-47)

고넬료의 집에서 구원받은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을 크게 높였습니다(행10:46). 사도행전 19:17에, 에베소에 거주하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이 크게 알려졌더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1:20에서 발견된 바울의 소망은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빌1:20)

나는 하나님을 더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모든 관심을 그분께로 집중하게 될 때 그분은 나에게 더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그분과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면 나에게 하나님은 점점 더 커 보이는 법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을 크게 드높이는 이 행복하고 고상한 사역에 우리 모두 다 동참하십시오.

너의 눈이 보게 될 것이라/ And your eyes shall see... (1:5) 주님과 다투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아마 믿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보게 될 것이다.”

모든 무릎이 주 앞에 무릎 꿇고 모든 혀가 다음과 같이 고백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는 주님이시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의인이든 불의한 자든, 하늘을 자신의 본향으로 삼는 자든 지옥에서 종말을 고하는 자든, 그날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이 주장하신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심을 보게 될 것이다.

오, 친구여, 당신은 그 두 진영 중 어느 진영에 속하게 될 것입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거듭났나요? 저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이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믿는지 안 믿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마귀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게 당신의 믿음과 신뢰를 두었는지 안 두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분께서 완성하신 그 사역에 오로지 의존하고 있습니까?

그 누구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고 그분께서 하시고자 합니다. 그분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하고자 하는 갈망도 있으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으십시오.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이 말라기의 첫 단락 1:1-5까지의 내용 속에는 또한 예언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 그들의 땅으로부터 내쫓겼던 유대인들이 속박과 포로의 기간으로부터 결국은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과 상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며 비록 그들이 이방인들의 땅으로 멀리멀리 쫓겨 갔지만 결국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을 뿐 아니라 회복시키시리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번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말라기 1:3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내용을 분명히 해 두고 싶습니다.

그의 산들과 그의 유산이라 / His mountains and his heritage.(3)

이 문맥은 에서의 산들과 에서의 유산이라는 뜻인데 즉 에서의 후손들이 머물게 될 그 땅에 대한 이야기로 에돔 땅에 있는 세일 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바다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광야의 용들이라 / Dragons of the wilderness.(3)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위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그들이 호들갑을 떨려고 선택한 그 단어들에 의해서 다 드러나 버리고 맙니다. 그와 같은 예들 중의 하나는 흠정역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용들’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소위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용’이라는 용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소설이나 판타지 문학에 나오는 내용을 더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요정이야기나 판타지 문학 속에서 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에 그런 용들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성경에 나오는 용들도 실제적인 동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B, 그들은 자기들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파충류 중에는 용이라고 신원이 확인된 그러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지상에 있는 동물들 중에 Komodo Dragon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실제로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왕 도마뱀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실제로 용이라는 용어를 생물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도, 성경의 ‘용’을 불신하고 있는 이 박사님들이 동물원 담당자들에게 왜 용이라는 용어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지 따지지는 않는 것 같군요. 그것 참 이상하지요? 성경에 나오는 용은 비판하면서 실제로 세상에서 사용되는 용이라는 단어는 왜 비판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트롱의 성구사전의 뒷면에 정의 내리는 부분들을 가

지고 성경의 용의 거짓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트롱의 성구사전에 보면 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괴물이거나 아니면 고래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용과 관련된 열여섯 번의 언급에서 단 두 번만이 물과 관련되어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괴물 또는 고래라고 하는 스트롱의 성구사전의 내용은 성경적으로 보면 틀렸습니다. 열여섯 번 중에서 단 두 번만 물과 관련해서 언급하는데 열네 번은 전혀 수중동물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관련구절을 다 찾아보면 큰 파충류에 속한 도마뱀과 잘 어울리는 설명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로 파충류 도마뱀들이 오늘날의 용어로 용(dragon)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트롱의 성구사전보다 하나님 말씀에서 용을 무어라고 말하는지 알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함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32:33에 보면 중동지역의 광야에는 독을 가지고 있는 용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니라.”(신32:33) 그런데 이들 용들은 올빼미들과 같은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올빼미와 용들은 항상 같이 나옵니다. “나는 용들의 형제요, 올빼미들의 벗이로다.”(욥30:29)

그리고 그들은 황폐한 집이 자신들이 거처하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사야 13:22에 나옵니다. “섬들의 들짐승들이 그들의 황폐한 집에서 부르짖으며 용들이 그들의 좋은 궁궐에서 부르짖으리라...”(사13:22) 한때 아주 강력한 요새였던 지역이 황폐해져서 췌기풀과 들장미로 뒤덮이게 되면, 또 그와 같은 장소를 발견하게 되면 용들은 아주 거처하기 좋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자라며 그것의 요새에는 췌기풀과 들장미가 자라서 그것은 용들의 처소가 되고 올빼미의 뜰이 되리라.”(사34:13)

어떤 황폐한 도시를 한 바퀴 돌아보면 거기에 용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렘9:11, 10:22, 49:33, 51:37).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올빼미와 용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용(龍)도 야행성 동물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또한 용들 중에서 물에서 사는 수중 동물로 분류되는 종류도 있습니다. 이들은 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시74:13-14).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깨뜨리시며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며”(시74:13-14)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간을 제외하고 용들 또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용들과 모든 깊은들아, 너희는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시148:7) 그리고 용들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들의 짐승 곧 용들과 올빼미들도 나를 존경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에 물들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사43:20)

제 2 부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1:6-11)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이끄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거니와 너희는 이끄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도다.”(말1:6)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 내용은 6절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계시는 장면인데 그 고발장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께서 학자들을 먼저 지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을 상대로 시작한 것도 아니며 가정주부들도 아니고 희생 헌물의 짐승들을 잡는 사람들도 아니고 빵(진설병) 굽는 자나 등잔대를 만드는 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다름 아닌 제사장들 즉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좋은 지도자들은 영광의 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말씀합니다(벧전5:1-5). 그리고 다가오는 심판의 날에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히13:17). 기뻐해야 할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살전 2:19-20) 그리고 두 배나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딤후 5:17).

그러나 나쁜 지도자는 “... 더 큰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약3:1).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중의 하나는 인간은 사람을 따르고자 하는 습성이 있어서 좋은 리더나 좋은 본을 보이는 사람들은 많은 추종자들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만든다기보다는 끌

어당기는 것입니다. 멋진 지도자가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쫓 끌려(attract)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쁜 지도자가 나오면 그와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론조사를 하여 인기 좋은 사람을 앞에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 세력을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 보십시오. 이것이 확인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대중은 자진해서 행동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들의 부흥을 일으키기도 하고 지도자들이 그들을 박해하기도 합니다. 지도자들을 따라 다니는 것이 대중의 모습입니다.

일반 대중은 그들을 홀로 놔두면 돈을 벌든지 TV를 보든지 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저 이 땅에서 공간이나 차지하며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도, 사탄도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개개인의 몇몇 지도자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찾은 지도자들에게 높은 지위와 영감을 부여해서 평범한 사람들을 이끌게 합니다. 리더십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도록 지도자들에게 리더십과 영감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들 대중들이 흥분하는 것은 잠깐뿐입니다. 그래서 큰 부흥이라든가 끔찍한 전쟁이라든가 정치적인 소요라든가 하는 것들은 아주 단기간 내에 승부를 봐야만 합니다. 게으름뱅이 대중들은 무언가 오래 끄는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그들의 성품은 그러한 것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부흥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 타락은 엄청 오래갑니다. 몇 세기에 걸쳐서 타락에서 헤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430년 동안 있었던 일 등) 반면에 르네상스(renaissance) 문예부흥은 그저 십년 쯤 지나면 사라졌습니다. (유월절-홍해-금송아지:출애굽을 시작해서 홍해를 건넌 후 얼마 안 되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목격할 수 있지요.)

그래서 타락한 부패는 아주 신속하게 뒤엎어 버려야 합니다. 혁명 같은 방식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사사기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빨리 회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얼마 있다가 그들은 다시 타락하여 긴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돌아설 때도 있습니다. (예: 다윗의 초기 통치기간) 그리고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도 있습니다. (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거짓선지자 850명과 대결에서 승리하고 회개함, 요아스, 요시아 시대의 개혁)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주장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자극을 줘야 합니다. 매번 추진력을 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또 다른 혁명가가 태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세기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좋은 제사장이나 왕이나 대언자나 혹은 대제사장이 있었던 적도 있지만 그 보다는 추악하고 모자란 왕이나 제사장이나 대언자나 대제사장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좋은 왕 찾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에는 좋은 왕이 하나도 없이 전부 나쁜 왕들만 등장합니다. 남 유다 왕국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은 단지 몇 명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위로 일으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오늘날 미국의 근본주의 진영에서 토론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 오늘날의 도덕이 TV나 영화나 음악의 영향으로 패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도덕적으로 부패해 버린 이 시대상을 그러한 것들이 반영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까?
- 오늘날 교회들이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자유주의적으

로 흐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도덕한 성직자들에 의해서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권고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항상 어떤 한 시대의 부패상에 대해서 그 민족의 지도자라든가 가족의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롬1:20). 무언가 외적인 자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롬3:10) 만약에 누군가가 자극을 주면 그 자극에 반응할 만큼 충분한 빛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요1:5-9).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고 있지만(엡2:1-3) 어떤 한 사람이 죄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행1:1-8).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개개인 각각은 온 마음과 혼과 힘과 생각을 다해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유죄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두 배로 유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덧붙여 그들이 섬기도록 부름 받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죄까지 두 배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4:9은 말씀합니다. “**그 백성에 그 제사장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길들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며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그들에게 보응하리라.**”(호4:9) 이 말씀에 따르면 백성과 제사장들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잘못되었을 때 백성들도 잘못되었습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고 계신 그 책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당시에 불법의 축을 이루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사이의 갈등의 원인과 같습니다. (말라기 당시의 상황과 예수님 오셨을 때의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라기 1:6은 하나님과 제사장들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너무 교만으로

가득차서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권위를 행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조차 잊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는 법이거늘”** 그러니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낮은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명예를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십계명이라 불리는 하나님 말씀에도 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이 네게 주는 땅에서 네 날들이 길리라.”**(출20:12)

말라기 1:6을 보면 **“좋은 그의 주인을 공경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권위의 질서가 있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위에 있지 못합니다. 주인이 종보다 위에 있고 따라서 좋은 주인에게 적합한 공경과 존경을 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렇게까지 기도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아버지여”**(주기도문이라고 하는 형식의)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왜 내가 너희의 아버지로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지?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존경을 받는데 말이다.”**

좋은 주인을 공경해야 하는데 주님은 **“내가 만약에 주인이라면 종으로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아무런 존경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바빌론에서 포로생활을 하던 시절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의 스테반을 돌로 칠 때까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은 자신들의 아버지요 자신들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이 자기 아버지

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 공경하기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만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경과 두려워한다는 두 단어가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서로 깊은 연관이 있음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희생물이 어떤 것이었나를 보면 증명이 됩니다(7-8).

그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적합한 존경과 공경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 단위에 부패한 빵을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십니다. **“너희가 부패한 빵을 나에게 바쳤도다.”** 그들은 가장 최상의 것을 주님께 바치기는커녕 부패해서 자신들도 먹지않을 빵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원하지 않을 것을 그분께 드림으로써 자신들이 그분을 원하지 않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능하면 좀 멀리 두고,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을 정도만 하나님을 믿겠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늉만 내는 종교적 활동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빵을 바칠 때도 자신들의 쓰레기를 치우는 것 정도로,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것 같이 하였습니다.

“이봐, 레위, 이 빵은 썩었는데”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되겠네요.”라고 레위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으니 한번 생각 좀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진설병상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에텐동산으로까지 거슬러 가보면,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시기를 갈망하셨는데, 한 상에 같이 앉아서 식사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성경에서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식사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가 성경 여러 군데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주께서 나의 원수들의 목전에 상을 차리셨나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주님은 부활한 나사로와 함께 앉으셔서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 마지막 만찬도 함께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빵과 물고기를 불에 구워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교회 시대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교회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함께 식탁에 앉아 교제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주님께서 제정하신 경배의 방법은 주의 만찬이며 우리는 주의 상에서 둘러 앉아 교제합니다. 이 세상에서, 온 시대를 걸쳐서 가장 위대한 축제는 음악회도 아니고 교회에 배도 아니며 행진도 아니고 “**어린양의 혼인만찬**”입니다(계19:9).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먹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곱팡이가 난 빵을 상에 차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잡수시지요.”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잠깐 멈춰서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행동은 극악무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것을 갖다 바쳤는지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행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구원받은 남녀들이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 또한 똑같은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매주 그저 여유시간의 몇 분을 하나님께 잠깐 내던져 드리고 나서 재빨리 TV 앞에 가서 쇼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외식하러 나가거나 아니면 쇼핑 가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날 보통 교회의 회원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중요합니까?”라고 물어보면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답합니다.

“물론이지요,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곰팡이 나는 빵과 함께 외롭게 홀로 앉아 계시는 동안, (그런데 그 빵은 하나님 잡수시라고 그들이 차려 놓은 것이지요.) 그들은 시내로 나가서 온갖 헛된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신나게 돌아다닙니다.

8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책망하시는 것은 다리절고 병든 동물들을 희생물로 갖다 바친 것입니다. 이것 역시 바치는 자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 주는 증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무 가치 없는 것 중에서 무엇을 바칠 수가 있을까? 아이고, 이 짐승은 족보가 영 시원치 않아서 키우지 못하겠네. 이렇게 흠이 많은 가축은 그 누구도 돈을 내고 사려고 하지 않을 터이니 팔 수도 없겠고, 상태가 영 안 좋아서 잡아서 우리 가족에게 식사로 제공하기에도 합당하지 않으니...이런 짐승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고,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물로 바치면 깨끗하게 끝나는데...’

이런 헌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 최악의 것을 갖다 바쳤다는 것으로 그들은 이미 공개적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 헌물들을 통해 그들 마음속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몇 위나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단에 바쳐져야 할 짐승은 순결하고 흠 없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성경 레위기 22:17-23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의 집에서 나온 자나 이스라엘 안에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서원으로 인한 봉헌물이나 혹은 모든 자원 헌물의 봉헌물을 드리려 하되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려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신의 의지대로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 없는 수컷을 드릴지니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흠이 있는 것은 너희가 드리지 말지니 내가 너희를 위한 것으로 그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자기의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 주께 화평 헌물의 희생물을 드리거나 혹은 소나 양

으로 자원 헌물을 드리는 자는 완전한 것을 취하여 내가 받도록 할지니 그 안에 아무 흠이 없어야 할지니라.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불구가 된 것이나 혹이 있는 것이나 괴혈병에 걸린 것이나 딱지가 있는 것을 주께 드리지 말며 그런 것을 제단 위에서 불로 예비하는 헌물로 주께 드리지 말지니라. 수소나 어린양의 몸에 무엇이 더 달렸거나 지체 중에 무엇이 모자란 것은 너희가 자원 헌물로는 드리려니와 서원을 위하여 드리면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리라.”(레22:17-23)

물론 이 헌물들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흠이 없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흠 없는 어린양이십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알려져 있던 것은 모든 빵조각과 모든 음식 조각은 남자나 여자 그 누가 먹던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제공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합니다.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공급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굶주리던 시절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들은 기근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비둘기 똥까지 먹어야 했을 정도로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으나 이미 다 오래 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왕하 6:25-29).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그들은 살이 찘고 아주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행동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15에도 말씀합니다.

“...여수륜이 기름지게 되매 밭로 찻도다. 네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이매 그때에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신32:15)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모든 것이 풍성할 때는 느슨해지게 마련인데 이것이 아담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의 순간에 마음속에서는 주님을 버렸습니다. 이들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정통 교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민

음에 있어서 근본적인 교리들을 다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또 그분을 주님으로 여겼으며 그분께 늘 헌물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시간에, 형식적인 예배는 다 했으며 율법을 하나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친 희생물의 품질로 여호와를 존경하지 않는 마음을 그대로 내보였습니다. 그들이 바쳤던 그 헌물들은 쓸모없는 짐승을 갖다 폐기처분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짐승들 중에서 아주 작고 약한 것과 눈 먼 것과 절뚝거리는 불구를 갖다 바치고는 품을 잡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척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갑니다. 축구 시합이 없으면 교회를 가고, 학교에 행사가 없으면 교회에 가고, 시내에서 친척을 만날 일이 없으면 교회에 가고, 콧물을 흘리지 않으면 교회에 가고... 조금이라도 콧물이 나면 오늘은 감기 기운이 있으니 교회에 못 가겠네... 사업차 만날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가지 않고... 그저 남는 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조금 드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경배한 척합니다.

저는 팔아먹을 수도 없는 쓸모없는 자동차를 교회에다 바치고서는 자기는 새 차를 사서 타고 다니며 하나님께 헌금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함에 5달러를 넣고서 아주 흐뭇해합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 50달러짜리 고급음식을 먹습니다. 100달러를 선교헌금으로 바치고서는 자기 집 앞 잔디밭에 1000달러짜리 조각물을 세워 놓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종교적인 사람들(예배도 참석하고 하나님께 희생을 바치는 회원이라고 자칭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오,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여**”라고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 품격의 행위냐? 우리의 말이 아닌 행위가 모든 이름들 위에 있는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고 모든 혀는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영광 받으실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것입니다(빌2:10-11).

여러분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께 희생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물이 순수한 것입니까? 정직한 것입니까? 올바른 것입니까? 그리고 가치 있는 희생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으로부터 그분이 받아 마땅할 가장 가치가 있는 절대적인 최상의 것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 쓸모없고 아무도 원치 않는 쓰레기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의 희생이 어떤 종류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은 왕 중의 왕이시요, 주 중의 주이신 그분이 아니라 그들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친 것을 차마 그들의 통치자에게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십일조와 헌물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이스라엘 통치자에게 갖다 바쳤습니다(3과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와 마을과 국가에서 정한 법과 규례들을 열심히 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고용주에게 아주 열심히 순종했는데 이미 풍성하게 축복해 주신 하늘에 계신 왕께는 복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높이 존경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당신의 언어와 행실이 무언가 바뀌지 않습니까? 목사님이나 혹은 교회에 존경받는 회원들이 있는 곳에서는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않나요? 말라기 1장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의 끔찍한 죄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유16) 여호와께는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지도 않았습

니다. 이런 일은 매일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이스라엘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셨지요. 그러니 말라기 시대부터 침례인 요한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말라기를 통해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회개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400년이 지난 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제사장들은 주님께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 버리소서, 그를 없애 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매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요19:15)

그들은 주님께 경배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통치자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기는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독자 여러분! 아주 슬프게도 말라기 당시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시절에,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종교 지도자들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음을 아십시오. 이는 아주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실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고장의 성직자들, 목사들, 신부들, 장로들, 집사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들에 불순종합니다. 자기 교회에 있는 부자 과부나 힘 있고 권력 있는 기업가들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의견은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무시해 버립니다. 그들은 전도지 나누어 주는 일보다 골프치고 낚시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문 두드리는 대신에 운동시합 같은 데다 시간을 더 쏟습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나의 사

랑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절름발이요 괴혈병에 걸린 쓸모 없는 희생물을 끊임없이 갖다 바치는 것이 너무나 모순되지 않습니까?

내가 라이온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에 가서 그리고 사교 클럽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거나 동창회에 가서 식사를 한 끼 하는 것이 죄악은 아니겠지만, 나의 찬송 받으실 구속주께 바쳐야 할 그 헌물의 크기와 가치를 축소시키는 그러한 활동을 굳이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무런 의미 없는 취미활동에 시간을 다 보내면서 기도회에 갈 시간이 없다, 복음 전하러 갈 시간도 없다, 부흥회에 갈 시간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나요? 물론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물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그분께 희생물을 바쳤을까요? 물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겉보기에 아주 그럴듯한 경건한 모습을 하고 주님의 상에 나타나 만찬에 참여하나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온 희생물을 보십시오. 그들의 헌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가식적으로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5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지닌 자들이요, 영적 희생물을 바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 희생물로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롬12:1-2).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시켜서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야 합니다(롬15:16).

당신의 희생물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가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할 의무가 있는 반면에 가족과 사회에 대한 의무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딤후5:8). 우리의 자녀들도 교육하라고 명령하십니다(잠22:6). 그리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롬12:17). 이처럼 우리는 세상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요17:15, 고전5:10). 그러므로 결국 맘몬과 무엇이든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전7:32-34).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도원으로 아예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예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그들 스스로를 분리시켜서 하나님과 가족을 위해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하는 모습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승리의 삶을 사는 모습이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대한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스스로만을 섬기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임입니다. 한 지역에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집에 그대로 앉아있거나 가족들과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호숫가에 가서 하나님과 그럴싸한 시간을 보내거나 또는 그와 비슷한 핑계를 대면서 고립된 교회의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임인데 혼자 고립되어 있다면 안 되지요. 몸의 한 부분이 단독적으로 따로 떼어져있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벽돌 한 개는 아무런 십터도 제공하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두 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핑곗거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몇몇 안 되는 곳에서도 기쁨으로 모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형제들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핑계를 대면서 모임에 빠지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슬픈 일이에요. 진정으로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들의 구원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에 대한 믿음의 문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 받은 우리는 모임에 참여해야 할 한 지체(교회)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하기는 하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숙고해야 될 만한 몇 가지 점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mammon을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mammon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 ‘나는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 나는 주님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인이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직장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합니까? 당신은 직장에서도 마음대로 결근하고 나서 고용주에게 아주 교만한 태도로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은데요.

2. 예배에 참석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마음에 내킬 때만 참석하는 그런 스타일로 예배 참석하는 것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의무를 다했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직장에 가서 점심때까지만 일하고 그냥 집에 가버립니까? 뭐 어쨌거나 직장은 다녀온 것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나치게 열심히 직장에서 일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3. 당신은 교회에 꼭 제 시간에 맞추어서 가려고 계획을 세우십니까? 아니면 그저 부주의하게 아니면 일부러 지각하십니까? 당신은 직장에 제 시간에 가려고 노력하시나요? 아니면 당신이 직장에 가고 싶은 시간에 아무 때나 가나요?

4. 고용주하고 당신이 만날 약속이 있다면, 만나고 있는 순간에 당신의 아이들이 떠들거나 뛰놀거나 돌아다니도록 내버려두나요? 당신의 사장이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설마 그럴리가 없지요. 그 사람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봐 염려되어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 된 교회

의 회원에게는 왜 그와 같은 대접을 못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무례합니까?

5. 당신은 교회에서 하는 전도 프로그램에 교회가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러 갈 때 따라가십니까? 그리고 예배당 건물이나 내부 청소를 하는 데에도 참여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에 참여하는 일 외에 다른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당신의 사장님께서 근무 시간 외의 잔업을 하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완전히 끝낼 때까지 퇴근하지 말라고 한다면 아니면 특별임무를 부여하면서 토요일에 나와서 일하라고 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사장의 말씀을 따르나요? 따르지 않나요?

6. 당신이 회사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그 일을 하는 대신에 가족과 외출하기로 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당신의 사장에게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 꼭 회사에 나가야 하느냐고 따질 수 있습니까? 일요일이나 아니면 주중에 예배드리는 날 가족과의 나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왜 그 날 교회에 가지 않고 나들이를 가냐고 묻는 사람에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꼬박꼬박 교회에 가야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사장님께, 내가 집에서 가족과 함께 머물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냐고 이야기하면서 회사를 빠지십니까? 당신이 회사에 결근하고서는 사장에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고 말하면서 내 생각에는 가끔씩 혼자서 집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당신이 회사를 빠지는데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면, 믿는 자들이 모이는 데 빠지는 것이 어째서 받아들여질 만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8. 직장에 다니지 않는 친척이나 당신과는 다른 노동에 관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갑자기 집에 들렀다고 한다면, 직장에 가지 않고 그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나 나누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가지 않는 친척

이나 친구들이 찾아오면 당신은 교회에 빠질 것입니까?

9. 당신이 아무 때나 마음 내킬 때 교회에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교회에 가더라도 열정도 없고 뜨거움도 없이 그냥 가기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무리와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진지하게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도 그렇게 열정 없이 교회에 가면서 하나님보다 mam몬에 대해 더 관심을 갖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0. 사장이 당신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말할 때마다 회사를 그만 두십니까? 당신이 생각할 때 완벽하지도 않고 당신에게 있어서 많은 부족한 점이 있는 회사나 회사의 리더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시겠습니까? 아님 계속 다니시겠습니까? 당신의 뜻대로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거나 혹은 당신의 기대만큼 신앙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합당한 의무를 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도우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을 갈구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mam몬이나 사람들의 칭찬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의(義)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바로 이런 일들이 말라기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의 가족 떼에서 최악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들 자신도 원하지 않는 버려야 할 물건들을 희생 헌물로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너무도 실망하셨고, 너무도 마음이 상하셨고, 이 멸시와 존경의 결핍으로 인하여 너무도 화가 나서서 하나님은 백성을 꾸짖으셨습니다.

자, 독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최상의 것을 받고 계십니까? 여분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에서 첫 번째이십니까? 아니면 장롱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만 그분을 꺼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일요일을 다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일요일만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과 당신의 헌신과 당신의 수고와 당신의 노력에 있어서 최고의 것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나에게 더 의미 있는 일은 없다.”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시라면 당연히 그들의 최상의 것을 받아야 하지만 그리하지 못하시기 때문이지요.

제가 믿기로는 우리의 온 마음과 혼과 힘과 생각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없게 되겠지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인 척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지금 그분은 우리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밖에는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구속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삶을 복 주시는 분으로서 참으로 마땅히 누리셔야 할 그 합당한 지위를 빼앗지 않도록 합시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라기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기록하도록 하셨다고...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과 너무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서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므로 우리가 감히 그 말씀들을 그저 옛날 말라기 시절의 이야기로 폄하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말입니다.

“너희는 그분을 찾을 만할 때 찾으라.”(사55:6)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마6:33)

말라기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은 주님의 책망에 대한 반응에서 그들 마음속에 있던 완악함을 드러냈습니다. 자신들을 책망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하나님의 대언자의 외침에 대해서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항변한 내용이 말라기 1:7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 Wherein have we despised thy name?(말1:6)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 하시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느냐고 대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대언자 말라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라기가 자기 개인의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해석하여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라기 대언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라기가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여호와 의 참된 말씀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가 자신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분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라기 대언자에게 하는 말은 그가 대변하고 있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는 모르겠군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이렇게 대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이스라엘 남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꾸짖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도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었던 말이야?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지요? 하지만 말라기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설교단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야만 했고 또 사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말해야 할 경우도 많았는데, 그 말의 내용은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가 매우 악하다.” 내지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회개하기를 요구하신다.” 등이었습니다.

이런 제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이나 강도들이나 거짓말쟁이들이나 수군대는 자들이나 술주정뱅이들이나 마약 중독자들이)이 저에게 “당신이 틀렸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당신이 뉘데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야?”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완악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messenger)들의 말에 자동으로 “나는 당신과 생각이 달라.”라는 말이 나오나 봅니다.

저는 양심이 너무도 더럽혀져서 수많은 불법을 행하면서 “당신의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보고 자기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겠어?”라고 말하는 자도 보았고 그보다 훨씬 더 추잡하고 아주 패역한 말을 내뱉는 자들도 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우리가 살고 있는 이처럼 타락한 세상에서도 이런 정도로 하나님께 대든다는 것은 정말 끔찍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타락했기에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대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우리 앞에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의 지도자 집단이라고 하는 자들이 아주 뻔뻔스럽게 자신들을 한량없이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책망합니다. 자신들을 책망했다고!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멸시하다(despise)’라는 단어는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짓밟는다’, ‘깡그리 무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멸시하다(Despise)’는 ‘경시한다(contempt)’는 뜻입니다. ‘조롱하다(scorn)’, ‘경멸하다(disdain)’ 등은 가장 얕보거나 아주 깔볼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멸시

하다’ 외에 다른 형태로 ‘멸시 받은(despised)’, ‘멸시하는 자들(despisers)’ 등의 표현이 성경에서 116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한다(삼상2:30). 그분의 아들도 멸시한다(사 53:3, 눅10:16). 그분의 주님 되심도 멸시당하고(민11:20), 그분의 이름도 멸시당하시고(말1:6), 그들은 그분의 규례도 멸시하고(레26:12), 판단 들도(레26:43, 겔20:13-24), 그리고 율법도(히10:28), 하나님의 말씀(사 30:12, 5:24, 민15:31), 하나님의 지혜(잠1:7), 하나님의 책망(잠5:12, 1:30),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마저도(욥5:17, 잠3:11, 히12:5) 사람들에게 의해서 모두 멸시당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낮게 평가하고 깔보는 것이 결국 그들의 장자권도 멸시하게 만들고(창25:34), 약속의 땅도 우습게 생각하고(시 106:24, 민14:31), 주님의 교회도 우습게 여기고(고전11:22), 주님의 제자들도 우습게 여기게(눅10:16)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잔인한 마음에 의해서 멸시되는 것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도 멸시하는 경우가 있고(창16:4, 삼하6:16, 잠30:17) 가난한 자들도 무시하고(약2:6) 선한 자들도 멸시하지요(딤후3:3). 통치권이나(유8) 정부에 대해서도(벧후2:10)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결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권위에 대해서도 도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들의 종말은 결코 유쾌하지 못하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려니와...”(잠13:13)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하고 부서진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기뻐해야만 합니다(시51:17). 빈궁한 자의 기도를 또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시102:17), 그분을 믿는 어린아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마18:10), 약한 것들도(고전1:27-28) 멸시하지 않으시고 감옥에 갇힌 그분의 종들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시69:33), 젊

은 사역자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딤후4:12).

하지만 이 거룩하신 분께서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삼은 여러 가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원수의 형상들의 모습을 멸시하시고(시73:20), 악한 자들이 즐기는 명절도 멸시하시고(암5:12), 그분을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는 자들도 멸시하시고(시53:5), 비뚤어진 마음을 지닌 자들도 멸시하시고(잠12:8), 십자가의 수치도 멸시하십니다(히12:2).

말라기 1:9에 보니 주님을 멸시하는 죄 말고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은 다음의 몇 가지 범죄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멸시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하나님께 간구하라. / And now, I pray you, beseech God

하나님의 대언자가 제사장이나 설교자들이나 영적 리더들을 불러서 기도 좀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죽이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라고 간청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아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영적인 복지의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설마 그런 지침을 내리시겠어? 그럴 리가 없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들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그들과 하나님과의 참된 그 어떤 교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관계로 교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저 이론에 불과하고 이름에 불과하고, 명칭에 불과하고, 멀리 있는 어떤 힘에 불과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역사의 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함께 걷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하라. / that he will be gracious unto us.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역시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과 똑같이, 같은 필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인간을 향해 은혜로우셨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약시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라 사람을 다루셨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들을 다루신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옛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은혜)을 받은 것처럼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자기의 노력으로 획득하거나 또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인간이 선한 것을 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명백히 표현된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제발 우리에게 은혜롭게 대해 주소서**”라고 하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덕적 의의 수준에 결코 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패역과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께서 퍼부으신 진노의 위력을 우리는 견뎌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사항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야 말로 이 말라기 대언자가 외친 외침의 내용이었습시다.

이렇듯, 하나님을 멸시한 죄에 추가된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길들을 자기들의 길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성경의 다음 구절을 보니
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수단을 통해 지금까지 있어왔나
니**”.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했는데 영과 진리로 행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섬
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단으로 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타고난 재능으로 섬겼습니다. 제단과 성
전은 더 이상 신성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소는 그저 일터였을 뿐입니
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성소에서 행하는 일을 그들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진설병의 빵을 굽는 일이나 목수의 일이나 낚시하는 일이나 혹은 대장간
의(smithing) 대장장이의 일을 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과 똑같이 제사장은 하나의 직업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일 곤혹스러운
것이 직업이 뭐냐는 질문입니다. 달리 할 말이 없어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할 수 없이 목사라고 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신성한
장소에서 인간적 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일을 행함으로써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마저도 개의치 않았습다. 그런 식으로 해도 백성들
은 기뻐했는데 이유인 즉 그들에게 아무런 압력이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
하게 경고하는 일이 없으니까 함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반역자가 규례를
엄격하게 적용해 봤자 얼마만큼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
하는 자에 의해서 이미 땅에 떨어진 그 통치의 규범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었을까요? 법이 있는 등 마는 등 적당히 다 눈 감아주고 다 봐 주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라는 대언자를 통해서 하신 책망을 반복하고 계십
니다.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이루어졌도다. 대언자들은 거짓**

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렘 5:30-31)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맨 처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이 책무에 있어서 실패를 하자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절쯤 오니 대언자들도 그들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어 제사장 모양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즉,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그들을 대신하기 위한 대언자들도 타락해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께는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죠. 잘 나가고 있는 그 나라의 번영을(boom 호황) 낮추십니다(lower). 망하게 해야 정신을 차리니까, 그것밖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엉망이 되자 대언자들이 그들의 직무를 대신하기 위해서 나타났지만, 그 대언자들마저 다 엉망이 되어버리니 하나님께 남아 있는 대안이라고해야 그저 심판을 하는 것뿐입니다.

예레미야서 23:25-28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 대언자들이 말한 바를 들었거니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대언하며 이르기를,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하는도다. (제임스 닉스의 젊은 시절에 미국에도 그와 같은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지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연설 중의 하나가 “나는 꿈을 가졌노라”입니다.) 이 일이 어느 때까지 거짓들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마음속에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자기 마음의 속임수로 말하는 대언자들이로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바알로 인해 내 이름을 잊은 것 같이 저마다 자기 이웃들에게 자기 꿈들을 말하여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 이름을 잊게 하려고 생각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꿈을 꾸는 대언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신실히 내 말을 말할지니라. 알곡에 비하면 겨가 무엇이냐?”(렘23:25-28) 참 대언자와 거짓 대언자를 비교할 때 가라지와 알곡으로 비유했지요(chaff :

wheat).

저는 제가 잠을 자다가 꾸었던 꿈이든 아니면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환상을 보았던 간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단에서 그리고 우리의 방송에서 더러운 꿈꾸는 자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아닌 꿈꾸는 자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3:3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자기 영을 따르는 어리석은 대언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6절로 내려가 보면, “그들이 헛된 것과 거짓 점괘를 보고 이르기를, 주가 말하노라, 하였으나 주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그 말을 확증할 것을 바라게 하였느니라.”(겔13:6)

이들 소위 대언자라고 불리는 자들은 자신이 꾸며낸 망상 같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들었다. 성경을 읽을 필요 없다.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에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지난밤에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모든 남녀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제 말을 잘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페이지들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셔야 하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밤 여기에 100명의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거나 자기 스스로 무어나 된 것처

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속이려 하는 자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1987년에 5월에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었고 또 다른 사람은 “1988년입니다.”라고 했었지만 우리는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그 날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추종자들은 그들이 아직도 거짓 점쟁이들이 아니었다는 듯이 계속해서 그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진지하게든 진지하지 않게든 간에 그 누군가가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거나 성경에 기록되어있는 것을 뛰어 넘는 더 대단한 계시를 주셨다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결코 감명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근본주의 목사들이 어리석은 은사주의자들을 비난할 때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했었는데, 오늘 날에는 근본주의 목사들도 이런 짓을 합니다. 은사주의자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와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런 일들은 아주 영적인 것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주장하지요.

창세기 1:1부터 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닌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들었다는 것은 당신의 영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당신의 영이 당신에게 주는 자극에 관심을 두고 귀 기울이는 것을 보니 참으로 거짓된 마음을 지녔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곡이며 인간들의 상상과 백일몽(daydreams)은 가라지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인간의 길로 대체하는 것 즉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 범죄를 살펴봅니다.

세번째, 죄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씩 변형되어 다른 방식으로 반복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느냐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중히 여기시겠느냐? / Will he regard your persons?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그분이 너희 외모를 보시겠느냐?’로 번역했습니다. ‘person’이라는 단어가 번역하기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어떤 때는 인격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외모라고 하는데 이 문맥에서 보면 제사장이라거나 영적지도자들이라는 외적 직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대우를 해 주실 것 같으냐는 말입니다.)

주께서 여기 너희의 외모에서, ‘너희의’라는 소유대명사, 소유격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단지 어떤 사람은 높이고 어떤 사람은 낮추는 그러한 일반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기서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이들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특별히 여기며 잘난 척하고 자기가 무어라도 되는 것처럼 구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책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자기들을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했지요. 이들은 신약성경에서 바리새인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처럼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동은 전부 의롭다고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봐주고 인정해 주려고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들을 보고 아버지(father) 아니면 신부님 혹은 목사님이라고 부르며 존경을 표하든지, 그들의 반지에다 입 맞추기를 열망하고 그들에게 칭찬을 퍼부으며 숭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어떠한 인간 앞에서 엎드리거나 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어떠한 지위나 여건에 대해서도 존경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대언자든지 제사장이든지 통치자든지 교황이든지 아니면 민중이든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언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왕중의 왕이시며 주들 중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그 누구와도 자신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항상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외적으로 종교적인 모습은 있지만 내면에 사랑과 순종이 결들여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은 가인과 함께 일찌감치 사라졌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외적인 종교의식과 행위에는 크게 관심을 보이고 마음의 문제에 관해서는 무시해 버리더군요. 우리는 수백 명의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입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그럴싸한 말들을 사용하면서, 미사를 진행하고 성소를 빠져나가고 나서는 젊은 소년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가톨릭 사제들의 소년들에 대한 성적 학대가 미국에서는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서 가톨릭 사제 하면 미소년 성적 학대를 떠올릴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스페인 영화에서는 신부들의 성적 타락을 풍자한 내용들이 단골 소재로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창동 감독이 만든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성적으로 타락한 장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예수님에 대해 입바른 이야기를 잘도 늘어 놓는 기독교 목사들이나 근본주의자라고 주장하는 목사들이 간음에 연루되고 도둑질에 연루되

고는 아무일도 없다는 듯이 그 다음주에 또 버젓이 설교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저기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유명한 방송 설교자가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버젓이 방송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 했으니 그를 용서해 주자고 하는 일이 마치 연극처럼 벌어집니다.

10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중시하고 계시는 지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표현 되었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에서 헌물도 받지 아니하리라.”(말1:10) 그러니까 순서가 네 안에 있는 것, “IN YOU” 즉 내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고 그 다음에 외적인 예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쁜 마음은 나쁜 헌물을 드리도록 만듭니다. 방향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인간을 불쾌히 여기시면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을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인간은 외적인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요. 비록 겉모습은 그럴싸하더라도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의롭고 곧바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성경에 일치하는 행동을 할지라도 마음의 상태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헌물이 되었던 봉사가 되었던 일이 되었던 실행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아벨도 자기 양 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창4:4-5)

이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진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벨과 가인 즉 사람이 먼저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거나 거부당하고 나서야 그들이 바친 헌물이 받아들여지거나 거부당합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의롭다면 그의 헌물도 올바릅니다. 어떤 사람이 악하면 그의

헌물도 악한 것이지요.

이 점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많은 선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구약에 있는 그 희생물들은 아마도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 살고 있던 구약시대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수단이었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진리로부터 먼 이야기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0:4, 11에 기록하기를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4)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11), 아벨시대로부터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사람들이 바친 헌물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미 나온 자들이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예물로 드릴 때만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놀라우신 주님이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물과 관련지어서 이 진리를 상고해 보십시오. 만약 바라바나 베드로나 마리아나 삭개오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헌물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말라기 1:10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의 책망을 받은 그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거부하셨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의 헌물 역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저는 영원토록 구원받았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희생헌물로 바쳐짐으로써 저는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지요(히2:9, 딤후2:6).

그러나 한 희생제물이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희생물에, 자기 자신의 믿음을 올려놓지

않는 사람은 죄 가운데 죽어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껏 드러진 희생헌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헌물은 갈보리 산에서 드러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헌물 또한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의 죄에 대한 회개와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당신을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면 헌물 역시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헌물을 가지고 나아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쩌면 너무 사소한 것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닌가? 혹은 지나치게 전문적으로 자세하게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현재 지옥에 가 있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로마 가톨릭 사제였던 요한 칼빈과 그의 스승이었던 제롬은 이 명백한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2:9에 말씀합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지금 현재 지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희생헌물이 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15-16에 말씀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이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은 아버지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다음 두 구절을 또 보세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

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요일2:1-2)

성경에 분명히 “이 세상은 아버지께 속해있지 아니한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디모데전서 2:5-6을 살펴봅시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딤후2:5-6)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희생헌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못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6에서 말씀합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엡1:6)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린 그의 희생물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을 때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의 아들을 신뢰하고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신 그 희생물을 신뢰하기 전까지는 당신을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셨나요?

오늘날 의도는 좋은데 부주의한 설교자들이 잘못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받아주실 때에 하늘나라에 가지요. 이는 당신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해하기 쉬운 것은, 요1:12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을 받

아들이는 자라고 할 때 ‘receive’라는 단어입니다. ‘accept’라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인데,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실제 구원의 역사는 그 조건 아래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 후에도 원칙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을 어떤 남자든, 여자든, 소년이든, 소녀든 간에 열심히 해 보아도 그 행위가 행해진 그 순간 그들의 마음상태가 올바르지 않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티끌만한 호의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시편 51:6, 17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보소서, 주께서는 속 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6)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17)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돈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수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는 당신을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신6:5, 30:6).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사랑의 샘으로부터 흘러 나와야지 의무감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라기가 설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도 겉보기에 아주 화려하게 종교행위를 다 갖추고 죽 펼쳐 보이지만 내부 즉 마음속에는 그 겉으로 치장한 종교행위에 걸맞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딤후3:5) 그들의 경배는 단지 헛된 쇼에 불과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 For from the rising of the sun even unto the going down of the same

아주 아름답고 시적인 표현인데 ‘모든 곳(everywhere)’을 표현할 때,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땅은 해가 뜨고 지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시19:1-6).

내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크게 되리라. / my name shall be great among the Gentiles.

이 한 가지 선언에서부터 위대한 진리 세 가지가 흘러나옵니다.

1.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경계를 훨씬 넘어서서 펼쳐집니다.
2. 신약 경륜 아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의 확장은 부수적인 계획이나 나중에 세워진 계획이 결코 아닙니다.
3. 히브리민족은 모든 민족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역순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라기 시대에 살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행위를 시늉만 내고 있었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시늉만 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은 그분의 이름을 온 땅에 가지고 가서 그분의 영광을 극에서 극으로 바다에서 바다로 온 사방으로 펼쳐 보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즉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주님으로부터는 마음이 멀어진 채로 바쁜 스케줄 중에서 시간을 잠깐 내서 하나님께 형편없는 헌물이나 바치는 정도로 만족하며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업무로 복귀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복음을 들고 멀리 선교사역을 하려고 생각지도 않았고 그래야 한다는 부담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습

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 가운데에서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장사 잘 되나? 사업은 어떠냐? 얼마 벌었어? 너는 내가 새로 산 집 보았냐? 멋진 마차를 가졌군!” 이런 대화만 나누었습니다. 온 이방세계가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문제될 것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무역을 하는 노정 중에 낙타 한 마리가 거꾸러졌다는 소식이 더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일에만 관심이 있었지 이방인들이 다 죽어 지옥에 간다는 사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는 척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런 상태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유사점을 발견하지 못할 독자가 과연 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빛을 보내소서**”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빛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끝난 후에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를 먹으려고 잠깐 머물러있기는 하지만 선교를 위한 기도회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손을 잡고 악수하면서 “**오늘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설교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설교였습니다.**”라고 칭찬하면서 그 선교사역에 직접 참여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초청받아 오신 연사가 온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빵이 없어서 지금 굶어죽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더라도 그 설교자는 정오쯤이면 설교를 끝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배가 점심식사가 늦어지면 꾸르륵 꾸르륵 하면서 항의를 하니까 빨리 끝내 주어야 합니다. 생명의 빵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설교에도 그들은 점심식사가 늦기 전에 설교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랍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의 영적 상태를 말해 줍니다.

그때나 이제나... 옛날 말라기 시대나 오늘 날에나... 해가 뜨고 지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는 그자들에게 그분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이름을 떨치는 데 항상 관심이 많은 반면에(창11:1-10)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일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6절에서 제사장들은 그분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11절에서 이방인들은 아직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성경교사들이 아주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상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원래의 계획이 실패하자 신약교회의 성도라는 새로운 대체 프로그램을 들고 나오셨다고 주장합니다.

이 교리는 분명히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약속이 가득 차 있고 신약성경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견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 즉 창세기 12장 이전의 성경의 계시들을 살펴봅시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내용은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다 해당되었습니다. 창세기 1-11장까지 기록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모든 인류 전체가 다 연관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동일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진 모든 인류에게 다 가가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종족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종족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2.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라는 한 분이시며, 유일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민족들의 통치자로서 나타나 계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민족 신이 아니시고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민27:16, 렘32:27).

3.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주목을 받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과 민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중보자로서의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4.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으며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의 계시를 중재해서 알릴 때가 도래했었습니다.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 그러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정죄 받은 것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려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롬1:81-32).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두셨다고 즉 포기해 버리셨다고 롬1:24에 나오는데 진리를 거부하는 모든 인간에 대한 언급이지 단지 히브리 민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이유 때문에 정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심하게 정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큰 빛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롬 9-11장).

5. 성경에서 아주 눈에 띄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 라합, 모압 여인 룗, 시리아 사람 나아만, 시바의 여왕, 니느웨 사람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빛을 비추어서 이방인들에게 비추시기를 의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6.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분의 왕가의 제사장이 되도록 명령하셨습니다(출19:5-6).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중재자로서의 기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스스로 제사장으로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제사장(중재자) 역할을 맡았다면 한 편에는 하나님이 다른 한 편에는 모든 민족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7. 율법에 나와 있는 여러 조항은 이 진리에 모순되기는커녕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실을 더 확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민족들에게 자신을 알리도록 의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타국인들도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똑같은 근거에 의해서 이스라엘에게 동참하도록 기대되었습니다(출12:48, 민9:14). 그들은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헌물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민15:14). 그들은 재판관들 앞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 받았습니(신1:16). 타국인들은 이스라엘의 과부와 고아들처럼 주님으로부터 똑같은 사랑의 보살핌을 약속받았습니다(신10:18).

8. 신명기에 분명하게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타국인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신29:11). 우리는 때로 참으로 놀랍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천년 왕국 기간에 이방인들이 율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구약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백성들 곧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네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를 함께 모아 그들이 듣고 배우고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지니”(신31:12). 이 진리는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 확고하게 서 있습니다.

9. 시편 백여 군데에 걸쳐서 하나님의 축복과 공훈이 모든 민족에게 다 넘칠 것을 말합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예문들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66:1, 4입니다. “모든 땅이여, 너희는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시66:1)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께 노래하며 그들이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시66:4)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은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왕들은 선물을 바치리니 참으로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리며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리이다.”(시72:10-11) “주께서 자신의 구원을 알리시며 자신의 의를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보이셨도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집을 향한 자신의 긍휼과 진리를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시98:2-3) “오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베푸시는바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의 친절이 크고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시117:1-2)

10.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한 기도문을 생각해 봅시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강한 손과 주의 뚝은 팔로 인하여 먼 지방에서 온 타국인에 관하여는 만일 그들이 와서 이 집에서 기도하거든 그때에 주께서는 하늘들에서부터 곧 주의 거처에서부터 들으시고 그 타국인이 주를 부르며 구하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하사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집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대하6:32-33)

11. 이사야서에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진술이 나와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그분의 종이요,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는데(사40-53),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을 전하고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사43:21). 주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명백하게 선언하시는 것 몇 가지를 살펴보십시오.

“그 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사 11:10) “내가 떠받쳐 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베풀리라.”(사42:1)

“나 주가 의 안에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붙잡고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 주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고 어둠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 집에서 나오게 하리라.”(사42:6-7)

“그분께서 또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스라엘에서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이것은 네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사49:6)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백성을 향하여 내 군기를 세우리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팔로 안아 데려오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오리라. 또 왕들은 너를 기르는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왕비들은 너를 기르는 어머니가 되리라.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며 네 발의 먼지를 핥으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네가 알리라.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사49:22-23)

“이방인들이 네 빛으로 나아오며 왕들이 네 솟아나는 광채로 나아오리라.”(사60:3) “또 내가 그들 가운데 표적을 세우고 그들로부터 도피한 자들을 민족들에게 곧 다시스와 불과 활을 당기는 룯과 두발과 야완과 또 멀리 떨어진 섬들 즉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섬들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밝히 보이리라.”(사66:19)

12. 예레미야서도 이 주제에 관련지어 한 목소리를 덧붙입니다. “오 주여,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고통의 날에 나의 피난처시여, 이방인들이 땅 끝에서부터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분명히 우리 조상들이 거 짓된 것과 헛된 것과 유익이 없는 것들을 상속받았나이다. 사람이 신이 아닌 것들을 자기를 위해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그런즉, 보라, 내가 이번에 그들에게 알리리니 곧 내가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리리라. 그리하면 내 이름이 주인 줄 그들이 알리라.”(렘16:19-21)

13.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의 증인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43:10, 12, 44:8). 다음과 같은 합당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바, 누구에게 증인이 된다는 말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사43:21)

그분의 찬양을 누구에게 보이신단 말씀일까요? 어디를 향하여 영광을 보일까요? “모든 민족들은 함께 모이고 백성들은 집결할지니라...”(사 43:9) 여기에 관객(모든 민족)이 있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14. 구약성경에서 다른 모든 신들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있고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모든 숭배의 형태가 끊임없이 정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경배와 구원이 오직 유대 민족만의 사적인 전유물로 될 것을 의도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역과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만을 경배해야 했고 그분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올바른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사장 국가이기는 하지만, 이방인들이 처음부터 배제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빛과 땅의 소금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 1:11

의 책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을 당신이 선택한 종의 역할로부터 제쳐놓으셔야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제쳐놓으신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르셔서 택함 받은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어둠으로부터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그분을 찬양하도록 임무를 맡기셨습니다(벧전2:9).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기능은 일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전가되어, 그 교회는 증인이 되었으며 제사장이 되었으며 종이 되었으며 빛이 되었으며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과 이스라엘의 지위가 완전히 넘겨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언약신약 지지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현재 이 시대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복된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는 숭고한 책임을 떠맡게 된 것입니다.

말라기 1:11의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질 것이라는 그 선언은 신약교회가 선교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선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시 주님께로 회심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언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 이름이 크게 되며...”(말1:11) 이 말씀은 교회시대의 선교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마지막 시대에 회복된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예언입니다. 집과 가족을 떠나서 잊어버려진 자들에게 진리를 가져다주려고 나선 신실한 남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하였기 때문에 온 세상에 거듭난 민

는 자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와 인도까지, 그리고 뉴기니와 호주까지, 노르웨이와 이탈리아, 아프리카의 심장부까지, 남아메리카의 저 남쪽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은 멀리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십니다.”라는 초청입니다.

용기 있는 성도들이 아마존 지역에서 그리고 알라스카의 극지방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이슬람이라는 아주 견고한 요새들이 있는 원수들의 뒤에서, 말라위나 디트로이트 같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서, 과테말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리고 프랑스의 사치스러운 지역에서 복음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얗게 된 추수할 들판에서 추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거리, 루마니아의 시골 마을, 잠비아의 자그마한 오두막, 미국에 있는 큰 감옥들이 그 하얗게 된 추수할 지역이고 그곳에서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들의 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십대의 한 무리가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있고 몰도바에서 한 무리의 여인들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고넬료 같은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설교자들이 시장터에서 크게 외치고 있으며 저 네덜란드에 있는 조그마한 집에서는 한 가족이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간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고 또 찬미를 받습니다. 낮의 빛이 비치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세주로서 경배를 받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어다...”(대상16:25, 시48:1, 145:3)

이제 왕국이 세워져서 충만한 은혜가 실현되면 주님을 아는 지체로 온

땅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위해 향을 드리고 정결한 헌물을 드리리니”(말1:11) 에스겔서 40-48장 사이에 보면 천년 왕국에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경배제도가 회복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는 희생제사가 회복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 사실은 구약의 희생제도는 경배의 행위였지 구원의 행위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좌에 앉아 계시게 되면 히브리 민족들이 드렸던 그 경배제도 가운데 다른 여러 측면들이 다 회복될 것입니다.

말라기가 예수님께서 왕위에 앉으실 그 시대의 경배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 중 우리가 깜짝 놀랄만한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찬양이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경배를 이스라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경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드렸던 그 경배의 스타일이 천년 왕국 기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모든 민족에게 다 가르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의 심판을 잘 견뎌내서 살아남게 되는 사람들은 회심하여 여호와에 대한 신앙심을 가지고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드려지는 그 헌물은 순결한 헌물이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이 이교도들 가운데서 크게 되리라. / for my name shall be great among the heathen(말1:11) 한때 벌거벗고 다니던 야만이었으며, 한때 식인종이었고, 한때 마귀들과 마리아의 동상에 경배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 마약 중독자요, 창녀들이요, 모하메드를 추종하던 자들이었으며, 어머니 지구를 경배하는 자연 숭배자들이었던 자들이 지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드디어 시베리아와 아이슬랜드와 콩고와 네팔의 산악 저 높은 곳에서도 그분의 이름이 크게 높여집니다. 안데스 산맥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랄 산맥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미국의 차이나타운에 이르기까지, 희망봉에서 베링해협에 이르기까지, 정글에서, 사막에서,

바다의 섬들에서, 그분은 찬미 받으실 것입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갈색인이든 붉은색인이든 어떤 색깔을 가진 사람이든 간에 그들은 마음을 모아 세상의 구원자이신 분에게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 세계에 걸쳐서 복음을 조롱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어마어마한 대중 가운데에서 불려냄을 받은 아주 작은 소수의 무리일 뿐입니다. 대다수는 복음을 거부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가 지나가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게 되면 단지 몇 시당하는 소수의 무리가 아니라 어린양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모든 노래는 다 그분을 위한 찬양이 될 것이며 모든 경배의 장소들에서 그분의 존귀를 위한 경배가 바쳐질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참되신 한 하나님께만 그분 자신의 사랑스러우신 아들의 이름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날입니까?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Even so, come, Lord Jesus.

제 3 부 너희가 찢긴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 왔느니라(1:12-14)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상의 열매 곧 그분의 먹을 것은 업신여겨도 된다, 함으로 내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또한 이르기를, 보라,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하며 그 일을 향하여 코웃음을 치고 찢긴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그러나 속이는 자 곧 자기 양 떼 중에 수컷이 있는데도 서원한 뒤에 부패한 것으로 주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나는 위대한 왕이며 내 이름은 이교도들 가운데서 두려운 것이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말1:12-14)

12절의 “it”은 주님의 이름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불러내었노라. 그런데 너희는 내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 But ye have profaned it.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도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하였구나. 이교도들 가운데서 내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라. 이교도들은 내 이름을 모르면서도 나를 두려워 하는데, 내가 택한 백성에게 내가 베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이름을 알고 나의 길을 알고 나의 말씀들을 알고 나의 특별한 축복들도 이미 알면서도 나를 멸시하는 마음으로 대하는구나!” 이와 같은 내용들이 로마서 9-11에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소경이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방인들이 누리는 관계보다도 더 못하다, 이방인들이 그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다는 사실이 굉장히 치욕스러운 것임

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방인들은 받아들이시면서 히브리인들을 멸시하는 자로 간주하신다면, 일반 히브리 백성들은 물론 제사장, 서기관, 레위 사람들은 더더욱 그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상의 열매 곧 그분의 먹을 것은 업신여겨도 된다, 함으로 내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 But ye have profaned it, in that ye say, The table of the LORD is polluted; and the fruit thereof, even his meat, is contemptible. (말1:12)

무언가 속되다는 것은(profane은 히12:16의 에서가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을 때 에서에 대한 평가로 쓰인 동사로, 여기에서는 ‘더럽혔다’로 번역했음) 신성한 것에 반대되는 개념을 말합니다.

이 신성하다. 거룩하다(sacred)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바쳐진 어떤 장소나 사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속되다(profane)는 것은 전적으로 세속적인(profanity)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세속적이라는 표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킨 채로 사용하는 속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무시한 신성모독적인 발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존경심을 갖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가볍게 써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끔찍한 죄는 미국에서 매일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의해 셀 수 없이 많이 저질러집니다. 가련한 피조물들이 걸핏하면 “Oh my God”하고 내뱉는데 만약 그때마다 1페니씩 모은다면 아마 이 지구 상에서 제일 빨리 부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데 대해서는 10계명에 이미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7입니다.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출20:7)

(역자 첨언: 이 “Oh my God”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줄담배를 피우면서 늘상 텔레비전의 드라마나 시트콤 등을 보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기초생활보호대상 연금이나 받아먹고 살면서 빈둥대는(moocher) 자들입니다. 그들은 입버릇처럼 심심하면 “Oh my God”이란 말을 대놓고 내뱉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상태요, 담배에 중독되어 찌든 상태에서 자기 친구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가십거리를 주워들고 와서 이야기하면 깜짝 놀랐다는 듯이 허풍을 떨면서 “Oh my God”(오 마이 갓! : 아이쿠, 저런 일이 다 있나!)이라고 맞장구치며 내뱉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야 거둬나지 않은 사람들이니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설교를 하면서, 맹세를 하면서,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분의 거룩하신 인격과 그분의 거룩하신 말씀과 그분의 명령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뱉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신성모독적인 말보다 훨씬 더 큰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간음을 저지르면서도 일요일에는 강대상에 서서 예수님에 관해서 설교하는 목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자들이 집사들의 모임에서 봉사한다고 할 것이고 동성애자들이 교회 성가대에 서서 노래도 부를 것이고 자기의 빛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자들이 교회에서 예배 안내 위원이랍시고 봉사할 것이고 주일학교에서 여자가 남자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그 일들을 할 때 얼굴에 미소를 가득히 지으면서 여러분들의 눈을 바라보며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I just love the Lord.).”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설교자로서 감옥이나 구치소, 청소년 범죄자들의 교도 보호시설, 양로원,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아닌 직업인으로서 실내 근무나 야외 근무의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죄로 물든 그들의 습관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지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가요?” “아닙니다.” “왜 아니지요?” “제가 워낙 술을 좋아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술을 끊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술 먹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괜찮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지요.

“혹시 구원받고 싶으신지요?” 물었더니 “아니요, 나는 구원받고 싶지 않습니다.” “왜 구원받고 싶지 않지요?” “에~ 제가 마리화나를 즐겨 피우는데요. 나는 이 마약을 너무나 즐기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것을 그만두어야 할 것 같아서요. 마약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보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들이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서 마약중독으로 살면서도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옹호하는 자들은 만나게 됩니다. 이런 짓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 시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들의 죄를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신들의 죄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을 말라기 시대에 보셨고 “너희는 내

이름을 더럽혔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분의 찬송 받으실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결코 인정하신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인정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7절에서 경멸한다(contempt)는 단어를 보았는데 12절에 이렇게 설명되어있습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12절 “주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상의 열매 곧 그분의 먹을 것은 업신여겨도 된다, 함으로 내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그들이 멸시한 것은 그 상(床)이었습니다. 그들의 부패한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상을 부패하도록 이끌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이 더러웠기 때문에 그 분께 바친 빵도 더러웠고 그것이 결국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예배도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도 만약 그 활동에 연관되어있는 사람들이 정결하지 않다면 결코 거룩하거나 순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 교만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그럴듯하게 비난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들이 주님의 상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상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자기는 그 상에 앉아서 먹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선자들은, 나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 교회에 가면 위선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법이지요.

교회에 가면 가십거리나 수군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고는 본인은 교회 밖에서 수군거립니다.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더러운 짓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주의 상이 부패되었다.”라고 비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는, 그 부패의 원인을 제

공한 이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성령은 부패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아니지요. 그분의 말씀도 부패의 원천이 아닙니다. 그분의 진실된 백성도 부패의 원인자가 아니지요. 부패한 자가 하나님의 상을 부패시킨 것입니다.

BC 400년에(말라기 시대)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 대신에 다른 것을 그 백성에게 주셨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다고 그분의 이름을 멸시했고(6), 그분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었고(6), 그분께 부패한 헌물들을 바쳤고(7), 그들은 부패한 헌물을 가져왔고(8),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더럽고 위선적이고 죄악이 가득하고 신성모독적인 생활방식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고 한다는 소리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치사한 하나님이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대하는 것도 싫습니다.”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셈이지요.

그러나 사실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곤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이상 성막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경배를 드려본 적도 없는 자들이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한 것을 하나님께서 경배로서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자들과 똑같은 부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설교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정치가가 되고자 출마한 사람이 진실되고 참된 성경

신자라면 사람들은 그에게 말할 기회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하고는 아예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나 시민으로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거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기도하면 안 된다. 학교에 성경을 가져오면 안 된다.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종교적인 차별이다. 등등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쌓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우주선이 땅에 떨어져 폭발하고 엉망이 되면 그제서야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지 않으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고 “도대체 이런 일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느냐...”고 따집니다.

하나님이라니! 이제껏 하나님 소리만 나오면 하지 말라고 하더니 왜 갑자기 이러한 경우에만 하나님을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으로부터 그리고 당신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을 나가라며 떠나보냈고 쫓아내고는, 왜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참되신 진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를 갖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거나 혹은 마귀의 괴롭힘에 내버려두시면, 인간들은 그분이 자신들을 잘못 대한다고 하며 비난을 하거나 저주를 하지요. 이것이 바로 말라기가 살던 당시의 모습이지요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예수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의 다스리심을 거역하는 모든 자들은 불 호수로 던져질 것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 Ye offer polluted bread upon mine altar 더럽힌다는 말은 ‘깨끗하지 못하게 하다’, ‘죄로 물들게 하다’, ‘속되게 하다’ 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것들과(민18:32), 거룩한 장소와(겔7:22), 거룩한 땅을(렘7:30—

31) 더럽히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더럽혔고 피로 땅을 더럽혔으며(애 4:14, 호6:8) 제사장들도 성소를 더럽혔습니다(슥3:4). 그런데도 이들은 주님과 대언자들과 논쟁을 벌였고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우겨댔습니다. 말라기와 이들의 논쟁은, 이들이 예레미야와 벌인 논쟁을 연상시킵니다. “어찌 네가 이르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으며 바알들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할 수 있겠느냐?...”(렘 2:23)

더럽힘(pollution)과 관련된 55개 성경구절 중 신약에서는 단 두 곳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상들과 연관된 것은 더럽히는 것이고(행 15:20)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더럽혀져 있다고 합니다(벨후 2:20). 사도행전 21:28은 바울이 거짓에 의해 고소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상의 열매 곧 그분의 먹을 것은 업신여겨도 된다. / the fruit thereof, even his meat, is contemptible.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백성이 순수한 경배를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기록하신 하나님은 영광과 진리로(요4:24) 경배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 외의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는 주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주께서는 그들이 그분을 멸시하고 또한 “은혜의 영광에 무례히 행하고”라고 하시며 진리의 말씀도 무시한다고 말씀하십니다(히10:29).

업신여긴다는 단어는(contempt) 멸시하는(despising) 행위를 의미하며 그 무언가를 천하고 더럽고 쓸데없다고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표현 중 하나인 것입니다.

교만하고 느슨한 자들은 옳은 것을 업신여깁니다(시 123:3-4). 동시에 올바른 것들에 대해 경멸하는 말을 해댑니다(시 31:18).

바울의 말하는 능력이 형편없는 수준을 넘어 업신여겨져도 될 만하다

고 비판 받았습니다(고후 10:10).

옛 사람들은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공개적으로 대들도록 허락을 받을 경우, 그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경멸이 뒤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에1:18).

주님께서는 통치자들은 업신여기실 것이며(욥12:21, 시107:40) 또한 사악한 자들에게도 그리하실 겁니다(사 23:9). 주님의 경멸하심은 영원한 경멸이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구절,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1. 우리는 주의 상을 멸시한다.
2. 우리는 주의 상을 무의미하다고 간주한다.
3. 우리는 주의 상을 쓸모없다고 생각한다.
4. 우리는 주의 상을 미워한다.
5. 우리는 주의 상을 경멸한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이상합니까? 오늘날 우리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안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경배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하고 있으니깐요.

종교의식에만 몰두하는 자들의 진짜 모습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또한 이르기를, 보라,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무감에 젖어 드리는 죽어있는 종교의식을 예배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황이 세운 교회에서 미사는 드리지만 피곤합니다. 감독교회

(역주-미국에서 영국 성공회를 칭하는 말)의 구원받지 못한 주교가 강론할 때도 피곤해하며 듣고 있군요. 또한 사람들은 자유주의자인 감리교 목사가(이 양반은 복음 전도지에 나와 있는 구원의 계획도 깨닫지 못합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도 피곤해합니다. 헬라어를 인용하며 장로교 예정론이나 유아세례를 읊어대는 교회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척하지만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밤늦게 19금 영화 보느라 피곤한 자들도 근본주의 교회에 앉아 성경의 진리가 담긴 훌륭한 설교를 들으면서 잠들어 버립니다. 십일조를 안내면 절대 안 된다고 위협하는 침례교회 역시 피곤한 자들로 가득합니다.

말라기 당시의 유대인들도 예배에는 참석했고 온갖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있었으나 이들 역시 그것들을 지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을 싫어했지요.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도 예배가 지겹다고 생각합니다.

라오디게아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 가기가 정말 지겹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늘 성경을 매일 읽어왔어. 하지만 내용이 너무 구식이야. 지루하지.” 자동차 경주, 골프, 인터넷, 댄스, 도박, T.V. 등은 결코 구식으로 낡아지지 않습니다. 영화에도 질리지 않아요. 다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루해합니다.

이는 이들 모두가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뜻이지요. 이들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나 영원한 것과 성령님과 관련된 것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와 사랑에 빠져있다면 지루해하지 않을 겁니다. 여자도 자기 남편을 사랑한다면 지겨워하지 않겠지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들 때문에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자신은 하나님이 지루하다고 여겨진다고 하면 그것은 그의 마음이 그분을 떠나 마귀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미 주의 올바른 것들을 버린

것입니다.

그 일을 향하여 코웃음을 치고 / and ye have snuffed at it 코웃음이란 보편적으로 멸시의 상징입니다. 이 웃음소리는 들나귀가 내는 소리지요(렘2:24, 14:6). 저는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권면했지요. 자신들의 죄값을 지불하신 분을 섬기라고 했더니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계산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찢긴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왔으니 / ye brought that which was torn, and the lame, and the sick; thus ye brought an offering 8절의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최상의 것이 아닌 2류, 3류 혹은 4류 중의 헌물을 가져온 것에 대해 정죄하고 계십니다.

어휘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문제는 짐승이 아니고 그것을 가져오는 마음자세입니다. “이같이 헌물을 가져왔으니”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분은 짐승이 아닌, 그것을 가져온 사람에 대해 지적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should I accept this of your hand? saith the LORD. 이 말씀에서 인칭 대명사에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 손에서” 이 말은 그러니까 자기들은 최상의 것을 갖고 하나님께는 하급 헌물을 바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했으니, 이것이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비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왜곡된 생각을 바로 잡으시고자 하십니다.

잠시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런 헌물도 받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거니셨을 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 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시매”(마4:23-24) 이 말씀에서의 백성들은 경배행위를 보여준다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행위를 보였을 뿐입니다.

헛된 종교에 빠져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속이는 자 곧 자기양떼에 수컷이 있는데도 서원한 뒤에 부패한 것으로 주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 But cursed be the deceiver, which hath in his flock a male, and voweth, and sacrificeth unto the Lord a corrupt thing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속임수까지 쓰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의 집에서 나온 자나 이스라엘 안에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서원으로 인한 봉헌물이나 혹은 모든 자원 헌물의 봉헌물을 드리려 하되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려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신의 의지대로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 없는 수컷을 드릴지니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흠이 있는 것은 너희가 드리지 말지니 내가 너희를 위한 것으로 그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자기의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 주께 화평 헌물의 희생물을 드리거나 혹은 소나 양으로 자원 헌물을 드리는 자는 완전한 것을 취하여 내가 받도록 할지니 그 안에 아무 흠이 없어야 할지니라.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불구가 된 것이나 혹은 있는 것이나 괴혈병에 걸린 것이나 딱지가 있는 것을 주께 드리지 말며 그런 것을 제단 위에서 불로 예비하는 헌물로 주께 드리지 말지니라.”(레22:17-22)

이 명령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헌물을 가져온다면 이것은 법규위반의 문제보다는 그 헌물을 가져올 자의 마음 상태를 보여준다고 봐야 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 행위는, 결국 그 행위를 하는 인간이 헌물을 받으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먼 곳 어딘가에 신이 계신지는 모르나 그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내가 하는 것을 볼 수도 없으며 관심도 없고 관심이 있더라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자, 기원전 400년경에 살았던 한 에브라임 민족에 속한 부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편은 헌물을 고르기 위해 자기 목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점도 없고 흙도 없는 첫 새끼 한 마리가 있고 저기에는 늙은 절름발이 숫염소가 있는데 저 늙은 염수를 주께 희생물을 드려야겠군. 눈이 하나 안 보이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등은 굽고 배는 튀어나왔으니 내게는 필요가 없어!”

그의 아내 예셀리아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이봐요 영감, 그건 당신 짐승 중 최악이잖아요. 그걸 성전으로 데려 가려는 거예요?”

“왜? 안돼? 마나님! 어차피 쓸모없는 짐승이야. 데려가면 금방 죽여 태워 줄거야”

“하지만, 여보!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잖아요. 최고로 좋은 걸로 바쳐야죠.”

“오!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뭔데?”

“3년간 흉년이 든 데다 당신은 관절염으로 내내 고생하고 있잖아! 게다가 하늘 저 먼 곳에 계신 분이 이 낮은 땅 위에 무슨 관심이라도 있는지 당신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란 걸 아시잖아요. 당신이 이런식으로 막 말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시는 걸 당신도 알 텐데요.”

“그만하시지. 난 이 짐승을 갖다 줄 거야. 따라 올 테면 오고 싫으면 말아!”

이렇게 해서 그는 나쁜 마음으로 나쁜 짐승을 성전으로 데려갔는데 그와 똑같이 마음이 부패한 제사장이 그 병든 짐승을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받아서 제단에 바칩니다.

“오, 하나님 이 헌물을 열납하소서, 오 하나님 이 헌물을 열납하소서!”

이런 헌물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찌 느끼실 지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요. 오늘날에도 아동학대를 일삼는 사제가 미사를 집전하고 간음을 저지르는 여인이 특송을 부르고 사기꾼은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을 외쳐대고 소위 선교사란 자가 성도들이 애써 일해 보내준 헌금으로 사역 대신 시간을 낭비하고 사람들은 목사 눈앞에서 마귀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오늘날의 기독교계 모습을 보실 때도 동일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요. 그들은 죄악한 방식으로 경배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도 약하고 어리석어서 그 사실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 대해 저평가를 하는 자들이 저급한 헌물을 바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말라기 시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신성모독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역시 하나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당신이 무엇을 가져왔는지, 왜 그것을 가져 왔는지를 알고 계실 뿐 아니라 만약 당신이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당신이 무엇을 가져갈 수 있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첫째, 그분께서는 당신이 무엇을 가져왔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나니야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의 아내도 이 일에 은밀히 관여하였더라.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야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 차서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 있었을 때에 네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속에 품었느냐? 네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아나니야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행5:1-5)

둘째, 그분께서는 당신이 그것을 왜 가져왔는지도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별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히4:12-13)

셋째, 그분께서는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였다면 당신이 무엇을 가져올 수 있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고후8:12)

우리는 이런 거짓 헌물들이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에서도 정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 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수24:14-15)

이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 있을 때 거짓신과 우상들과 이집트 사람들의 형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그 자손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올 때 이들 신들을 가지고 나왔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우상들에 매달렸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생애 마지막 순간 백성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신들을 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므로 이와 같은 행동이 옳바르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16-18절을 읽어보십시오.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 큰 표적들을 행하시며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통과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신 바로 그분이시니이다. 주께서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나이다. 그런즉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수24:16-18)

멋지게 들리네요. 말을 옳게 하는군요. 맞는 말이지요. 마땅히 할 말을 하기는 했는데 거짓 신들의 우상들을 섬기는 백성의 입에서 나온 것이니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24:19-22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가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라고 선포합니다. 주를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리 말했을까요? 답을 들어보시지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므로 너희 범법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뒤에라도 돌이키사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를 위해 주를 택하고 그분을 섬기리라 한 것에 대해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니라.”(수24:19-22)

이어서 23절을 보시지요. “그가 이르되, 그런즉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하니”(수24:23)

여기 보니 이제(Now)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목하세요. 40년 전이 아니고 이집트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이들은 현재 “우리가 주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진영 안에 거짓 신들을 두고 옷 속에는 형상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경배의 모양이 있었지만 내면으로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 그 어떤 사랑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부패한 헌물을 바치려는 자들에게 신실한 대언자를 통해 저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조심하라! 너희는 주님을 속일 수 없느니라. 헌물을 주께 드리려면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물어보라. 완전하고 받으실 만한 헌물이 아니라면 차라리 가져오지 않는 것이 나으니라.

나는 위대한 왕이며 / For I am a great king 그렇습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I AM’은 자신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지요, 알파와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고 영원한 신적 존재이심을 계시하시고자 택하신 이름입니다. 그분은 시간의 경계 밖에 거하시기에 과거도 미래도 없는 분이시며 자신의 손으로 모든 창조세계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위대한(great)이라는 수식어는 그분의 모든 속성에 다 해당되는 올바른 칭호입니다. 이분은 보상에 있어(창15:1), 능력에 있어(민14:17), 공홀에 있어(민14:18), 행위에 있어(신11:7), 이름에 있어(수7:9), 구원에 있어(삼상19:5), 친절에 있어(왕상3:6), 구출에 있어(시18:50), 선함에 있어(시31:19), 힘에 있어(시33:17), 영광에 있어(시138:5), 계획에 있어(렘32:19), 아름다움에 있어(슥9:17) 그리고 그 외 수 없이 많은 분야에 있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왕이란 그분께서 모든 것에 대해 주권을 지니신 절대 통치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골 1:16-18)

이분은 영원하신 왕이시며(딤후1:17), 왕들의 왕이시고(딤후6:15), 성도들의 왕이시며(계15:3), 영광의 왕(시24:7)이십니다. 제니 이 후세이(Jennie E Hussey)라는 작사가는 ‘나의 인생의 왕으로 당신께 왕관을 씌워드리니,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노래했지요.

다니엘서 2:44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군요.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

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단2:44) 우리는 영원하신 왕께서 다스리실 왕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날을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 saith the LORD of hosts. 이 이름은 싸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구약성경에 245번 등장하는바 그 중 말라기에 24번이 나오며 사무엘상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군(hosts)이란 하늘의 군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host(역주-무리, 혹은 군대로 번역됨)는 주로 군대를 언급합니다.) 몇 번은 예외적으로 하늘의 무리(별들)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 따라서 옛 사람들이 숭배한 것은 하늘에 있는 천체가 아니라 그곳을 장악하고 있는 정사와 권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땅위의 통치자는 물론 하늘을 장악하고 있는 존재들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군대 중 다수는 타락하지 않았으며 재림 때 주님과 그분의 교회와 함께 말을 타고 올 것입니다(아6:13).

내 이름은 이교도들 가운데서 두려운 것이니라. / and my name is dreadful among the heathen. 실로 그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두려움의 대상임을 쉽게 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겠거든 성경을 옆에 끼고 여러분이 믿지 않는 지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교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죄를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갖는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죄인들은 무서워서 하나님께 다가오지 못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결코 무서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생활로 그리고 우리의 말로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림으로써 또한 거짓 없는 사랑으로 가득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진리를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내 이름은 이교도들 가운데서 두려운 것이니라.”라는 말씀은 강력한 책망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너무 가벼이 여겨 그분의 임재 하에도 떨지 않았고 쓸모없는 헌물을 그분께 가져왔으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마음은 더러운 상태로 그분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민족들은 주님께 대해 건전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었지요. 이분은 히브리민족이 잘 섬겼어야 했던 그분이지요.

이번 장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희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 내 이름이 이교도들 가운데 두려워다(is dreadful)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시제에 주목하십시오. 반면 11절 끝 부분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다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이 이교도들 가운데서 크게 되리라(shall be great).” 어둔 밤이 지나면 해가 떠오르기 마련이지요.

제 4 부 너희의 엄숙한 명절들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리니……(2:1-4)

“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 명령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마음에 두려 하지 아니하여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심지어 저주를 보내어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미 그것들을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너희 씨를 썩게 하며 똥 곧 너희의 엄숙한 명절들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리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취하여 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 언약이 레위와 함께 있게 하려고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보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말2:1-4)

하나님께 희생헌물을 드릴 때 짐승들의 내장 안의 똥이 냄새나고 더러우므로 그 똥을 신속히 거두어 묻거나 태우는데 그 똥을 타락한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르고 그 똥들과 같이 내다 버리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파트에서는 성령께서 말라기 대언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더 깊게 다루려고 하십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명백한 진술로 보아서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되어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도록 되어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신성한 의무를 세속적인 직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장 강력한, 아주 심한 표현으로 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잘 지키도록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렇지 못했기 이들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이 내용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너희가 만약 내 명령을 들으려하지 아니한다면 / If ye will not hear,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영적지도자들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독자여러분들의 이해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교단들을 천 개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그 중 한 개 정도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이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저 종교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구태 의연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성경은 설교 본문을 제공해 주는 원천으로 설교하는데 필요한 말씀을 뽑아 쓸 정도의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독교 그룹에서는 성경을 그저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할 뿐인 책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자기 교회 회원들이 동의하지 못할 것들을 담고 있는 책으로서 껄끄러운 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황을 추종하는 자들이나 몰몬교도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인간의 전통보다도 더 수준이 낮은 아주 성가신 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리교나 장로교나 루터교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오역으로 가득 차 있어서 신뢰하기 어려우니, 성경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더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온종일 시간 보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강단에서 손에 들고 흔들어 대면서 외치는 도구에 불과하며, 교회에 가져가서 부적처럼 손에 들고 다니는 물건이거나 아니면 그저 그들이 늘 외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미국 국기를 사랑하고 옛 성경 바로 그것을 사랑합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자신들의 신분 즉 근본주의자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정도로밖에 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그 말씀 하나 하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크리스천은 미국에서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들 모든 기독교 단체들과 기독교와 관련이 없는 수백 개의 단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과 똑같지요!

“너희가 만약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한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다 진리라고 실제로 믿는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이 이끄는 어떤 모임에 자기도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축복받은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기뻐하고 매우 즐거워하십시오. 그 교회에서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지 않더라도 같은 마음을 품고 그 교회 지도자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주 드물고 아주 소중한 회중을 찾은 셈입니다. 엄청난 보배를 찾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아주 사랑스럽게 형제로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30-31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이루어졌도다.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렘 5:30-31) 그들의 영망이 된 영적상태를 지적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법을 만들고 자신들의 기준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고 대신에 탈무드로 교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땅의 통치자로 스스로 나서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님 되심을 찬탈해 버렸습니다.

말라기가 기록 된 지 사백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그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로부터 시작해서 침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은 이유는 말라기의 시대 그대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필요한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그들의 영적 상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대언자인 말라기에 의해서 선포되던 그 상태와 동일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낸 아주 무겁고 힘든 짐을 사람들에게 지웠다고 말씀하셨고(4), 그저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종교적인 예배 의식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고(5), 자신들을 사람들 앞에서 드높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사용하는 것도 지적하셨고(6),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다음과 같이 특별한 호칭으로 불러 달라고 요구했는데(예를 들면 랍비라고 불러 달라든가, 선생님이로, 경외로우신 분, 박사님, 신부님, 아버지 등등)(7-10) 그것도 주님이 지적하셨고, 제사장 계급이 평신도 계급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거짓 사상을 사람들에게 교리로 만들어 가르치는 행위도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11-12).

그리고 사람들을 유대교로 개종 시켰는데, 이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자신들을 추종하도록 돌이키는 것에게로 돌이켰음을 의미합니다(15). 그리고 주님께서 꾸중하신 것은, 그들이 지키기 힘든 규율을 만들어 내고 어려운 규범도 만들어 내고 속박하는 서원을 만들어 내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우선시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16-23).

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은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더러운 것이었으며(24-28),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가 없게 만들어 버린 것도 추궁하셨습니다(막7:13).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 그들을 따

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들을 따라서 당연히 듣지 않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려 하지 아니한다면,** / And if ye will not lay it to heart.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이 진리를 늘 되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생명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이유가 그들의 나쁜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문장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실패한 이유 역시 그들의 악한 마음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것을 마음에 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마음에 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지만, 그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영적인 상태와 잠언 4:20-23의 지침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라,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것들은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잠4:20-23)

(역주-우리말의 한계로 인해 heart를 일관성 있게 하려고 마음으로 번역을 하는데 heart를 심장이라고 해도 의미가 얼마든지 통합니다. 심장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 왜냐하면 그 심장에서 생명의 피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의학적인 면에서도 맞고 영적인 것으로 적용한다면 인생의 문제(issues of life)들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life도 경우에 따라

서는 인생이나 생명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번역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과 건강한 마음이라는 것은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요.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인간의 삶도 역시 부패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7:21-23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막7:21-23)

오늘 당신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종교(요즘 사람들은 종교라는 말 대신에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음)의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아무런 대상이 없는 그저 맹목적인 믿음(우리 나라 기도원에서 “믿습니다!”라고 힘 있게 외치는데 무엇을 믿는지 모른다는 것)으로 일종의 자기 신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전적으로 지성의 문제일 뿐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은 완전히 배제되어있습니다.

종교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사실은 종교적인 의무를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깨끗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 And give glory to my name.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신해도 좋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성경적 경배 대신에 종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에 가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드높이고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단 하나의 이름이 있을 뿐입니다(빌2:9). 우리는 늘 그

리 되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을 단 하나의 이름이 있을 뿐입니다(사45:23, 롬14:11). 우리 모두는 그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바벨탑에서부터 실패한 인간이, 오늘날은 교회의 강단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펼침으로써 하늘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용이 없는 짓입니다.

자기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즉 교황이 받는 높임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근본주의 신문의 발행자들이 받는 높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이름을 드높이는 어리석고 추잡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무런 효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주술사라든가 마술사라든가 이방종교의 제사장이라든가 목사라는 사람들의 이름에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찬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이 가로채이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다음의 말씀들을 통해 상고해 보십시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사48:11)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고전3:21)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고후10:17)

온 땅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어떤 영광도 사람에게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이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영예와 존경을 받는 것보다도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깊이 박혀 있는 인간 죄의 뿌리 때문입니다. 이 악한 죄는 사탄의 마음속에서 이미 발견된 불법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

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롬1:20-21)

어두움은 인간 본연의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어두움이 침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계시를 받고 나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할 때입니다.

이와 같은 어두움이 임하는 현상이 목동이라든가 농사꾼이라든가 목수라든가 아니면 어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일어났다고 해도 아주 끔찍한 일인데,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일어난다면 그 민족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써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0:23에 말씀하십니다.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지요.

말라기 시대에 살고 있던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 400년 후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의로운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들이 받은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마저도 주님께서서는 저주하셨지요. 그들이 행한 선한 행위는 그저 사람들에게 과시용으로 선한 척해서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자 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또 서로서로 칭찬했던 그들의 행위들은 그들이 속으로 무시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들을 구출해 낼 수가 없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들이 뒤따라 나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 상당히 민감한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에 아주 거친 용어와 아주 무모한 듯한 위협이 있다는 것에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에게 심지어 저주를 보내어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미 그것들을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너희 씨를 썩게 하며 똥 곧 너희의 엄숙한 명절들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리니...”(말2:2-3) 아!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을 얼마나 저주하시는지를 잘 모를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요. 인내의 하나님께서는 의(義)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친절하신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들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옥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또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사45:6-7)

하나님께서서는 저주를 보내십니다. 이 저주는 그들이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벌주실 때에 가차 없으십니다.

종교 오락방송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짓을 하는 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입니다. 참 하나님은 이미 100년 전에 주요 교단들로부터 떠나셨고 1980년대 은사주의로부터도 이미 떠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거대한 대형교회의 예배에 초청받으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이 즐긴다고 하는 발렌타인 같은 파티에는 안 가십니다. 할로윈 파티에도 안 가시고요. 크리스천 학교 댄스 파티에도, 여러분들이 모이는 연합 새벽예배 모임에도 안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크면 클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의 90%는 무시한 채 설교를 하며 이교도들이 합성을 지르는 소위 말하는 경배센터 같은 곳, 죄에 대해서 지적도 하지 않고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지도 않는 곳, 죄인들이 교회에 출석해서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찔림도 없이 그저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싫어하십니다. 즉, 당신들이 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곳에서 아주 편안하게 느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가 받은 복들을 저주하리라. / I will curse your blessing.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은 인간이 누리는 축복을 저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택할 수 있겠어요? 아주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이 로마서에 나타나는 대로(大路)(전도할 때 사용하는 말씀의 연결 구절들)를 90마일로 달려갑니다. 처음엔 (롬3:10)의 의인은 없다고 시작하여 ▶(3:23)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5:12)한 사람의 죄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6:23)젖값은 사망이다. ▶(롬5:8)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10:9-10)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전도자가 이런 식으로 로마서의 몇 구절을 서둘러 찾아 읽어주며 순식간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됐습니다.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며 자신의 기도를 따라 하라고 합니다. 초특급으로 그리스도인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며 듣는 이들을 몰고 가면, 그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채 따라하게 됩니다. 그들이 죄도 고백하지도 않고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도 고백하지 않고 거짓 종교에 대해서도 아무런 고백도 없이 “당신은 이제 하늘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라는 선언만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 그 누군가는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인간이 경배라고 부르는 그것을 하나님은 저주하노라.” 그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인디언들이 그들의 거룩한 담배를 피우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배를 받아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교도들의 종교 의식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교도적 종교에 대해서는 저주를 하실 것입니다.

힌두교도가 셀 수 없는 수많은 신들에게 경배를 드리겠다면서 가족과 집으로부터 홀로 떠나서 기도와 금식을 하며 순례를 하는 경우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하겠습니까? 그가 하는 하늘나라로 갈 많은 길들에 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존중해 줄 것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이교도들의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아주 경건한 불교 신자가 신성한 옷을 입고서 자기보다 덜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고상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외적인 악한 일들을 다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헌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이끄는 길을 더 넓혀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교적 종교에 대해서는 저주를 하십니다.

한 진지한 로마가톨릭 신자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서 피를 질질 흘리며 무릎으로 기어서 산에 올라와서 참회의 기도를 몇 시간씩 읊으며, 가톨릭 사제에게 윤간을 당한 자기의 아들에 관해서 입을 다물고서 거룩한

어머니 교회인 가톨릭교회의 명성이 더 이상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보기에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생각되는 빵조각과 포도주를 먹고서는 그 빵조각을 의지하여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헌신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이와 같은 이교적 종교에 대해서도 저주하실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자신들의 사랑스러운 어린 아이에게 흰 눈처럼 깨끗한 옷을 입혀 교회에 데려가서 카톨릭 신부 앞에 세우고 그 신부가 아이의 이마에 물을 뿌리며 “자,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소리를 기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주 고상한 제스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행복해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와 같은 이교도적 행동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아마 몇몇 독자들이 바로 이 순간에 느끼고 있는 감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라기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요엘이나 아모스 같은 대언자들의 외침을 들었을 때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원합니다. 미워하시고 저주하시고 징죄하시고 상처를 내시고 죽이시고 태우시는 그런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거룩하신 하나님보다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하고 똑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거나 저주하시거나 징죄하시는 것을 볼 때 당신은 아주 불편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균형 잡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하나님만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은 때로는 미워하시고 저주하시고 징죄하시고 죽이시고 태우시는 하나님도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것을 인정하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을 인정했다

가는 어떻게 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4:12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잠14:12)

잠언 21:2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잠21:2)

시편 119:104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명철을 얻으므로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시119:104)

우리는 잠깐 멈춰 서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의 메시지가 더 이상 선포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불신자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거나 책망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학교도 설교자도 교회 회원들도 다음과 같은 잘못된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좋은 것이다. 진지하다면 괜찮다. 어떤 종교든지 경배만하면 그들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유일한 복음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다원주의를 허락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며 타협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종교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종교들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들이나 형상들이나 우상들에 관련된 구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종교들과 우상들이 수없이 많은 무리들에게 미친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인간이 종교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된 빛을 받은 채로 창조된 존재이며(요1:5-9),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채로 태어났고(롬1:20-21), 이 두 가지 본능 즉 빛과 지식에 근거해서 행동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제공 받은 채로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말

하고 있습니다(롬12:3).

성경은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시간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종교란 자신의 창조주를 경배하는 올바른 경배를 대체하기 위한 인간의 알팍한 수단이라고 설명합니다. 가인은 무신론자가 아니었지요. 가인은 종교적이었습니다. 가인은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헌물을 하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져온 헌물 즉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저주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에덴에서 멀리 떠나갈 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로부터 계속해서 인간은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전능하신 분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관계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대신에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만들어 내거나 그런 일에 가담을 하였습니다. 즉, 그분 앞에 출두해서 나아가는 것을 대신해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적 활동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담이 금지된 열매를 먹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그분의 임재 아래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을 푸시(push)해서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을 해 줍니다. 종교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실행을 갖춘 조직된 제도로서의 종교의 기원에 관해서 성경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상이나 우상숭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씀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스스로 신들을 만들었고 사물

들을 신이라고 불렀으며, 그와 같은 신들을 경배하는 도구들을 창안해 만들어 내기도 했는데, 인류 초기부터 그러했다는 것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종교로 대체하는 이와 같은 것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은 문화는 이 지구 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종교 때문에 인간이 더 나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은 없습니다. 종교가 가르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나 종교가 제시하는 윤리적인 여러 가지 규범들이나 또 종교의 영향 아래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진 여러 가지 선행들,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성경의 저자이신 분에 의해서 전적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신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시려고 합니까? 성경에 우상이나 신들이나 다른 모든 경배의 제도들에 관한 수백 구절의 언급이 있지만, 단 한 가지 긍정적인 진술도 없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참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아닌 것은 모두 거짓으로 간주되고 모든 다른 신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모든 우상숭배는 죄악이고 해로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고 인간에게도 올무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대 자유주의적 사상에 의거해서, 심지어는 근본주의 교회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까지도, 성경은 관용을 베풀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포용하지 않는 배타적인 책이며 적대감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레즈비언이라든가 아동 학대하는 자들이라든가 매스컴을 장악하고 있는 거물들이라든가 할리우드의 모든 회사 운영자들이라든가 영화 스타들이라든가 대학학장이라든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런 정치가들 모두가 당신이 교회에 다니는지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간다고 해도 내버려둡니다. 그들은 당신이 현대 세상에 동조하든 아니면 구식 방법으로 살아가든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화를 낼 때는 당신이 성경을 믿음에 있

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믿을 만큼까지 성경을 믿을 때입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할 때입니다.

1. 모든 종교는 헛된 것이다.
2. 하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3. 그 외에 다른 모든 길들은 불타는 지옥으로 이끌 뿐이다.

이렇게 전하면 비로소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리 그래함이나 펄 로버슨이나 잭벤 임프 같은 설교자들이나 사람들로부터 창피당하기를 원하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를 절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이유입니다.

회교도들이나 몰몬교도들이나 Toad Lickers(두꺼비 핥는 자들; 어떤 종교 단체인 듯)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디오피아의 황제 숭배자들(Rastafarians)이나 동양의 도교나 가톨릭이나 유일신교나 이런 모든 종교들을 믿는 자들도 다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관용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이야기 하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대적하지 않고 뒤로 물러설 것입니다. 언론 단체들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공격을 멈추고 부드럽게 대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멍청한 사람들은 당신에게 현금도 보내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크고 놀라운 심판 날에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평화적 공존이라고 하는 철학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우상숭배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경계 바깥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우상숭배에 대해서까지, 그들과 전쟁을 해서라도 쳐부수라고까진 하지 않았지만, 대언자들과 사도들의 메시지를 보면 전혀 타협 없이 참 한 분, 참 하나님에 대한 계시에 근거하지 아니하

는 모든 종교 활동은 모두 정죄를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종교야말로 다른 모든 악한 일들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악으로부터 떠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교가 없어서 사회가 부패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종교행위를 할 때 오히려 사회가 부패하는 것이지요.

더 많은 예배당을 지으면 지을수록 교도소도 더 많이 지어야 합니다. 종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많이 팔면 팔수록 포로노도 더 많이 팔립니다. 종교가 반응하면 할수록 사회가 더 부패합니다.

여기에 바로 냉철하면서도 단호한 진리가 있습니다. 종교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여러분들을 더 낮게 만들어 주지 않을 것이며, 다음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을 불 못으로 데려 갈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진리에 의해서 불이 지펴졌을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빛과 어두움을 연합시키는 모든 시도를 경건치 못한 배교로 간주하고 영적인 간음으로 정죄합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의 종교를 수용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단호한 태도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우상숭배 사이를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심판하셨던 갈멜산에서 극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450명의 사람들이 바알에게 기도와 헌물을 바치며 경배를 하는 범죄를 저질러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와 영적인 모험과 경배제도와 희생 제도 같은 것들은 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래 계시하셨던 것을 왜곡시키거나 더럽히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음의 세 가지 요소가 이 진술이 진리인 것을 입증해 줍니다.

첫째, 모든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빛 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둘째, 권력을 가진 자

들에 의해서 진리가 고의적이고 의식적으로 억압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들 권력자는 독재자나 대주교와 같이 큰 권력을 가진 자들도 있고 목사라든가 부모 정도의 작은 권력을 가진 자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들이 자신의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억누르는 것입니다. 셋째,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사탄의 작태 때문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인간이 머무르게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의해서 어떤 형태의 종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행복한 청년이 자기의 돈을 UN아동기금(UNICEF)에기부를 했습니다. 그 청년과 자기의 어린 아이를 불에다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별거 벗은 야만인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의 회원이라고 주장하며 종교인으로 사는 자나 영들을 부리는 정글의 주술사나 하나님께 모두 정죄받습니다. 예정론을 신봉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자신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관계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는 다정다감한 할머니나 알라를 위해서 민간인들을 살상하는 모슬렘 전사나, 둘 다 하나님께서 쳐 놓으신 울타리 밖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텔레비전을 통해서 세뇌(洗腦)를 당하고, 두려움 때문에 비겁하게 자신의 마음을 단호하게 갖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압력 때문에 입을 다물고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 진리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평생 교회를 다녔다는 것 때문에 감각이 무디어진 사람들에게 꼭 이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요14:6)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진리들을 포용할 만큼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구절을 그저 읊으면서 입술로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성경 구절에 전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자들의 틈 속에, 그런 교회에 당신이 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사역에 대한 완전한 믿음 이외에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일도 없다.”라는 선언을 받아들이실 만큼 충분히 믿으시는지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행4:12)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아주 진지하고 건전한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형태의 경배행위를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당신은 이해합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대부분의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얼굴을 붉히고 당혹스러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종교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제도의 일부이며 악한 세력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으며 사람들을 죄악에 묶어 놓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준비 과정이다.”라고 하거나 “그리스도는 종교적인 추구의 최종 성취이다.”라고 하거나 혹은 기독교는 그 어떤 형태이든 간에 종교와 관련이 있고 종교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그 어떠한 증거도 성경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과 진리를 찾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항상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구도자들 역시 살아있는 참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 그들의 길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찾을 때까지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신들을 만들거나 사물을 신들로 둔갑시켜 경배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행위가 아무리 진지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주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만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로마서 1:18-25에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의 역사를 요약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의 의도를 그 누구도 오해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종교란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었으나 거부해버린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입니다. 창세기 11장은 하나님 없이 하늘에 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갈망의 기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상 체계들과 다른 신들에 대한 모든 경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예롭게 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다 제거해 버리실 것임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우주에 유일한 참 주님으로서 받아들여질 것이요, 존중될 것입니다.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리로다.”(합2:14)

“그가 또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의 끝들까지 지배할 터인즉”(시72:8) 땅의 가장 끝부분도 그분의 소유물이 될 것입니다(시2:8).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슥14:9)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슥14:16) 이사야서 60:1-9도 보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1-22장을 보십시오. 결국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은 이 세상의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양은 세상의 죄들을 분명히 다 제거해 버리실 것이며 그분만이 홀로 그날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유일신으로 시작해서 유일신으로 끝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고, 맨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대언자들이 “그때에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 드리실 때라.”라고 예언한 모든 것들을 다 성취시키실 것입니다(고전15:24).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 당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고전15:28)

그 때에는 부처도 없고 모하메드도 없고 공자도 없고 교황도 없으며 주술사들도 영매자들도 마술사들도 없을 것입니다. 신유나 치유자들도 없을 것이요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만든 메리 베이커 에디도 없을 것이고 몰몬교의 조셉 스미스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롬11:36)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기적들과 배반당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사망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십계명과 산상설교와 성경에 있는 위대한 도덕적인 교훈들 때문에 성경을 조롱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거부당하는 이유는 다른 모든, 철학과 종교 교리들 위에 심판자로서 우뚝 앉아 있는 단 하나의 최종적 절대적 진리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18세기와 19세기를 풍미했던 그 위대한 선교 운동이 파산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이 좁은 길을 선교사들이 내다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유주의 사상이 신학교나 교단이나 소위 선교사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선교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전 세

계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을 불러 회개시키지 않았고 유일한 구원의 길로 돌아오라는 복음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갖고 있는 도덕적 가치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하여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누룩이 침투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으로 교육, 주택, 식량, 의복, 경제성장, 그리고 다른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이익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3세계의 문화와 서양의 돈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고 집을 제공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보낼 수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테레사 수녀의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은 10분도 안되어서 차라리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더라면 할 것입니다. 침대를 주어 편안하게 쉬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당신은 당신 친구들이 헛된 이교도적인 종교 의식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대신에 그들이 죄 가운데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종교인들에게 “내가 너희가 받은 복들을 저주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대신해서 입을 여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들만으로도 이 책의 독자들 중 궁지에 몰리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읽게 될 나머지 내용들로 아마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성경 그 어디에서도 다음에 말씀 드릴 내용만큼 충격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존중하면서 주님은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보다 더 충격을 가하는 그 어떠한

선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신 분이라고 했던(아5:16) 그분에 의해서 선언된 그 엄청난 약속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대변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씨를 썩게 하며 똥 곧 너희의 엄숙한 명절들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리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취하여 가리라. / Behold, I will corrupt your seed, and spread dung upon your faces, even the dung of your solemn feasts; and one shall take you away with it. (말2:3)

거룩함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잘 인도해야 할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게 되셨는지를 삼중 위협 속에서 보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레위 사람들의 씨를 더럽힐 것이다. 하나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아버지들의 죄들에 대한 대가를 자식들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삼 세대와 사 세대에 이르러 해당되는 자들이, 그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한 참혹한 결과물을 거두어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여기서 오랫동안 제사장 지파에 의해서 향유되었던 특별한 특권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레위의 사람들이 타락함으로써 레위의 반열에서부터 떨어져 나오는 부산물로 얻게 될 축복에 대해서는 결국 축복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종말이 덜 비참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7:11-17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올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 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멸기

세택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또 있었겠느냐?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이 일들이 말하는 그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시는데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맡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주께서 유다에게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 대하여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멜기세택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므로 그것은 더욱 더 분명하도다.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택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느니라.”(히7:11-17)

따라서 영원하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레위지파가 아니라 유다지파의 사자로서 섬기게 되신 것이지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 언약이 레위와 함께 있게 하려고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보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말2:4)

말라기 2:6-7에 따르면 레위지파가 처음에 선택된 이유의 일부는 레위 지파의 조상들의 영적인 성품이 위대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언약은 그들과 함께였느니라… 이는 / My covenant was with him … for(말2:5) 거룩한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지위를 얻게 한 레위지파에게는 분명히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몇 가지 장점들을 살펴보시지요.

그가 두려움으로 나를 두려워하며 내 이름 앞에서 무서워하였으므로… (2:5)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서는 불법을 찾을 수 없으며…(2:6)

그가 화평과 공평 가운데서 나와 함께 걷고…(2:6)

많은 사람을 돌이켜 불법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2:6)

레위지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출발했다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 네 가지 분야에서 모조리 실패했음을 말라기는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선포하신 저주는 자신에게 바친 그 희생제물(동물)로부터 남겨진 똥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바치고 있는 자들의 얼굴에다가 뿌려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주석가들의 쟁탈전을 읽고 있노라면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애를 써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식의 표현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 말하는바 그대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똥이라 했으므로 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신약에서도 똥을 배설물이라고 번역했지요.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빌3:8)

혹시 여러분들은 레위 사람들이 무슨 사역을 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들은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아침 일찍 제단에 도착합니다. 살코기와 뼈들을 태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불을 지핍니다. 그것들을 재로 만들어야 하니까 아주 세게 불을 지펴야 했지요.

그들이 해야 할 일들 중에는 도끼로 장작을 패고 그 장작을 옆에다 쌓아 놓는 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을 지펴야 하니까요. 그와 같이 계속 불이 꺼지지 않게 지필 때 사람이 견뎌야 할 뜨거운 열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짐승들의 여러 부위를 잘라내면서, 흔들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 번제 제단에 희생물을 드릴 때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면서…그들 몸 구석구석 모든 땀구멍에서 흘러내리는 그 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옛날로 치면 백정들이 짐승을 잡는 일에도 불까지 지펴야 하는 직업이니까 여간 힘이 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의 부위(다리, 가슴, 내장, 간, 기름 등등)들이 엄청난

게 많은 양으로 성막주위에 쌓여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전 지역에서 황소와 염소와 양을 끌고 몰려옵니다. 양이나 염소 떼가 음메~하며 우는 소리나 두려움으로 인해 각종 짐승들이 울부짖고 날뛰는 소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각종 짐승들이 뿜어내는 악취로 가득 차게 됩니다.

평소 초장에서 자기 주인과 지내던 분위기와 달리 가축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울어댑니다. 짐승들이 먹은 것들을 되새김질하면서 내는 쉼은 냄새와 똥냄새가 뒤섞여 엄청납니다. 어떤 짐승에게든지 되새김질이나 배설물을 배출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곳에 모인 짐승들은 모두 흥분하여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반복합니다. 아주 낮은 주변 환경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들이 도살당하는 순간에 울부짖는 소리 때문에 신경들이 날카롭습니다. 한마디로 짐승들의 아비규환입니다.

그 짐승들을 하나씩 하나씩 레위 사람들에게로 데리고 오면 그들은 그 짐승들을 다 죽여야만 하고 피를 다 뿜아내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위별로 조각조각내야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위들은 큰 불을 지펴서 다 태워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타는 냄새 또한 엄청나게 뿜어 나올 것입니다.

이들 레위 사람들은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하는 일들은 인간들에게 요구되는 체력에 관한한 최고의 힘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런 작업은 더럽습니다. 이 일은 뜨겁습니다. 피가 튀는 일입니다. 힘이 짝 빠지고 지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년퇴직은 50세였습니다(민 4:3). 그들의 나이가 오십 정도가 되면 힘은 다 소진되고 몸은 망가졌을 것입니다.

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와 하나님을 멸시한 일들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제쳐두고, 그들의 임무에 대해서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었나요?

주일학교 교재들을 보면 그 그림속의 레위 사람들은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요? 기독교 영화에서도 도살장의 장면들을 정확하게 묘사해 놓은 것은 없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희생헌물로 드려지는 동물들을 도살하여 피를 튀기며 부위별로 나누는 것과 오물들을 불태우는 것)에 대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는 가운데 그와 같은 힘든 노동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지겹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진 듯한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한 레위사람이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속자에게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기뻐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거나 한 번도 사랑을 해 보지 못했다면, 그는 자신의 인생은 고된 노동 가운데 피가 난무하는 환경과 구역질 나는 냄새들을 참아내야 하는 직업을 가진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겠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똑같이 힘든 일을 놓고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너무나 무거운 인생의 짐입니다.

문제의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레위 지파들을 매일매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겨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화가 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과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살한 짐승의 똥을 가져다가 레위지파의 얼굴에다 발라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취하여 가리라. / And one shall take you away with it. (말2:3)

셋째, 삼중 저주의 내용은, 그 희생제물을 드리는 날에 모든 수고가 끝나고 마지막에 남은 쓰레기들과 함께 그들도 다 치워 버려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짐승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데 있어서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에서 동물들의 내장들을 다 꼬집어 내놔는데 그 내장들이 얼마나 빨리 썩겠습니까? 악취는 물론이고 그 썩은 내장을 먹기 위해 달려드는 곤충들과 날짐승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것들을 빨리 치워 버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신속히 태워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세균들로 인해 전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민족 전체가 말살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눈으로 그 레위인의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 보십시오. 악취를 풍기는 내장들을 내다 태우려고 수레에 잔뜩 싣고 밀고 갑니다. 그의 양 손은 수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셀 수 없이 많은 벌레들을 쫓을 수도 없습니다. 수레의 무게와 악취, 벌레들을 견뎌내야 하는 그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괴로움으로 인해 그의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쓴 뿌리가 마음 속에 가득차게 되면 그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레위지파로 태어나 평생을 이 짓을 해야 한다고 투덜대는 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섬뜩하고 지겨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 거룩한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사실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작업은 죄의 더러움이 공허이 많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되고 있는 것을 예표하는 것인데, 이 영적인 진리가 그 아론의 후손의 마음속에는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 더러운 작업이, 곧 하나님께서 인간의 더러운 죄를 다 제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은혜가 넘칠 텐데 그러한 영적인 것은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그 작업 전체를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내가 이런 짓거리나 하려고 태어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들을 그들이 지금 옮기고 있는 그 짐승의 동같이 더럽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지기에 적합지 않은, 끌어내어 다 태워 버려야만 하는 가치 없는 쓰레기 더미로 간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사람들이 영적 오염의 원천이며 도덕적 질병의 원천이라고 간주하십니다.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질병이 하나님의 선민 안으로 급속히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가 쓰레기 더미를 대하는 그 방식과 똑같이 그들을 대해주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너희들이 희생제물로 드러지는 동물들의 똥을 갖다 버리듯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에다 내던져 태워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왕상14:9-10). 이것이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증오의 선명한 그림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전에 제가 목사님들, 교사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호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당신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의 생명과 혼과 가족들을 우리에게 위탁

하셨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바치라고, 그들을 영적 희생물로 바치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불쾌하고 더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역자들은 교인들의 잘못된 습관과 실패와 실수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등등을 매일 사역 가운데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매주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뒤에서 혈똥은 이야기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파헤쳐 비판하는 것이라든가 조롱이라든가 꾸짖는 일이라든가 자신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고소하는 자매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역을 해 보니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판판이더군요. 이것은 아주 더러운 직업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내다 태워 버려야 할 냄새나는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사역자 여러분이 주의하지 않으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사역(하나님께서 피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들이는 일)을 하겠지만, 아마 점점 그들을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야, 십년이 지났는데 변한 것이 한 개도 없네!” 이렇게 되면 사역자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하고 달콤한 향기를 올려 드리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아니게 됩니다. 사역은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이 되고, 우리는 정말 하기 싫은 불쾌한 일을 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친구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지치지 말고 당신이 하는 사역을 경멸하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쓴 뿌리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데까지 이른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강단에서 설교합니다. 병원에도 심방을 갑니다. 예배드리는 시늉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역과 성도들을 멸시하는 마음이 이미 생겼습니다. 그를 낙심시킨 그 성도들처럼 그

또한 더럽혀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형제, 자매님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빛나가고 있는 백성들을 돌보는 동안, 주님의 시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한 내 언약은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었노라. / My covenant was with him of life and peace(말2:5)

한때 주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서 좋은 덕을 발견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레위가 영적으로 좋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5:1-13에 기록되어 있는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레위의 후손들에게 생명과 화평을 약속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5:1-13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에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브올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를 붙잡아 해를 향하여 주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연합한 자기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또,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의 눈앞과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로 오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 곧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으니 이에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치니라.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이만 사천 명이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내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게 함으로써 내가 내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

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는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화평의 내 언약을 주나니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가 그것 즉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얻으리라.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였느니라.”(민25:1-13)

지금 이 사건 기록은 하나님께서 레위의 자손들과 맺은 언약의 역사적인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약속이 신명기 33:8-10에 다시 반복되어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축복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위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주의 돌땀과 우림이 주의 거룩한 자에게 있기 원하나이다. 주께서 그를 맛사에서 시험하시고 므리바의 물들에서 그와 다투셨나이다. 그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나이다, 하였으며 자기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녀들을 알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언약을 지켰나이다. 그들이 주의 판단의 법도를 야곱에게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향을 드리고 전체로 드리는 태우는 희생물을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이다.”(신33:8-10)

이 초창기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약 하나님께서 한쪽 방향을 택하셨는데 나의 아버지가 다른 쪽 방향을 택할 경우 나는 아버지 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내 눈은 주님만을 향하여 지키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길을 택하시고 내 어머니가 다른 쪽 길을 택할 경우 나는 어머니에게 눈길을 주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만약 내 형제나 내 자매가 다른 쪽으로 가게 될 때 나는 내 친족들의 방향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노라. 나는 가족마저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겠다.”라고 한 것은 레위 지파의 하나님을 향한 충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제도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냥 아무

유고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서 있는 자세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에게는 결코 눈길을 주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의 개인적인 가족관계나 친분관계를 버리면서까지도 그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향한 충정으로 출발했던 레위지파 사람들이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도 아니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들 레위지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대변하기 위해서 서 있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더럽힘에 대한 하나님의 순수한 증오심을 대변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그저 또 다른 위선적인 죄인들의 무리에 지나지 않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지요.

독자 여러분, 제 말씀 좀 들어 보십시오. 오늘날 죄를 지적하는 것은 환영받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죄에 대해서 지적하다가 여러분의 혈육 가운데에 어떤 사람과는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어떤 진리의 위치에 서있게 되면 가족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비방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도대체 누구를 찾아 가시려는 것입니까? 사랑을 얻기 위해서, 칭찬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도대체 누구에게로 향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향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이런 모든 질문들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어라고 말씀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셨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말씀해 놓으셨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행실을 해야 할지도 말씀해 놓으셨고, 어떤 사람이 내 친구가 되어야 할지도 말씀하셨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피해야 할지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모든 것이 너무도 명명백백합니다.

설교자로서 저의 동료가 되시는 여러분이여,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을 바라보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한 사람의 레위 사람이지만 나중에 타락해 버린 레위 지파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굳게 입장을 견지하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참된 진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그 얼굴에 똥을 다 발라버릴 정도로 가치 없는 자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창기에 순수했던 레위지파 사람들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지 오늘날 타락한 제사장들의 모습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굳게 서서 가르치며 본이 되는 삶을 사실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신이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친구여, 모든 일을 다 끝내고 난 후에도 여전히 굳게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한 내 언약은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었노라. / My covenant was with him of life and peace(말2:5)

이번 장(章)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들과 체결한 다양한 언약들을 다 일일이 깊이 있게 공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짧게 몇 마디 언급하고 싶습니다.

1. 언약은 항상 일방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먼저 시작하시고 그 언약의 조건과 언약의 기간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 버리십니다. 그것들은 인간이 성취할 어떠한 것도 인간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요.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칼빈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한 개인의 구원이 언약이라고 명명된 적은 성경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구원은 선물이지 언약으로 체결한 것이 아닙니다.

2. 한 언약으로부터 얻게 되는 유익은 그 언약을 받는 자가 계속해서 죄를 짓거나 반역 상태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 언약의 유익을 제쳐놓거나 아니면 아예 제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껏 부정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지금부터는 레위 지파와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그 언약의 이유들을 살펴보고 진정한 제사장의 바람직한 특성들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들 특성들은 5절과 6절에 잘 열거되어 있습니다. I gave them to him for 내가 그들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말2:5)

1. 그가 나를 두려워했다. He feared me.
2. 그는 내 이름 앞에서 두려워했다. He was afraid before my name.
3. 진리의 율법이 그의 입에 있었다. The law of truth was in his mouth.
4. 그의 입술에서 불법이 발견되지 않았다. Iniquity was not found in his lips.
5. 그가 나와 함께 걸었다. He walked with me.
6. 화평 가운데 걸었다. in peace
7. 공평 가운데 걸었다. In equity
8. 그가 많은 사람을 불법으로부터 돌이키게 했다. He did turn many

away from iniquity.

여기까지의 일을 레위가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1. 그가 나를 두려워했다. He feared me.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장에게 바라고 계신 가장 고귀한 특성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1800년대 말엽에 성경교사들과 성경 주석가들이 휴머니즘의 영향에 굴복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단지 “경건한 경외심이다.” 아니면 “부모에 대한 존중이다.”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덜 위협적인(daunting) 분으로 만들고 인간은 덜 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으로 세상들을 존재하게 할 수 있는 창조주이시며 단 한순간에 그 세상들을 다 해체시켜 버릴 수 있는 분이시며 그의 손바닥에 물들을 다 움켜질 수 있는 분이시며 그 물로 산들의 꼭대기에 있는 땅까지 다 덮어버릴 수 있는 분이시며 인간 안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분이시며 순식간에 생명을 호흡을 거두어 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 위층에 계신 분” 정도가 아니시고 그저 가볍게 이야기하는 “아버지” 정도가 아니고 “저 하늘에 계시는 큰 두목” 정도가 아니고 그저 “더 높은 권능” 정도가 아니며 “모든 것의 제일 원인” 정도로 불리는 분이 아닌,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인간들은 그분 앞에서 떨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열거한 말들은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사용하는, 하나님을 깎아 내리는 말들

입니다. 어린양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마저도 오직 은혜의 왕좌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중재를 통해서만이 그분께 다가설 수 있습니다.

참된 제사장은 하나님을 덜 두려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그분을 더 드높이고 더 크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그분의 영향 아래 사람들을 두어야 합니다.

2. 그는 내 이름 앞에서 두려워했다. He was afraid before my name.

두 번째로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고귀한 성품은 주님의 이름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온 힘을 다하여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제사장은 교훈으로 가르치고 본으로 가르치며 모든 위에 있는 그 이름이 사람들이 맹세할 때 써먹는 이름이 아니며 서원할 때 써먹는 이름도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언급될 그런 성질(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든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다든가 하는 식이나, Oh, My God!이라고 외쳐대는 것)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름은 항상 찬미 받아야 할 이름이며 최고로 품위(dignity) 있게 다루어져야 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3. 진리의 율법이 그의 입에 있었다. The law of truth was in his mouth.

세 번째로 말라기 대언자는 사람들에게 마음과 혀를 제대로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레위의 자녀들, 즉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요구 받았습니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아니면 경배에 있어서나 일상생활의 대화에서 그들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항상 은혜로워야했으며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들이어야 했습니다(골4:6). 그들은 집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해야 합니다(신6:4-9).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주님의 교리와 일치하고 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4. 그의 입술에서 불법이 발견되지 않았다. Iniquity was not found in his lips

네 번째로 칭찬할 만한 제사장의 특별한 성품은 죄악된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아니하는 입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혀로 저지를 수 있는 죄의 목록이 아주 많이 나와 있고 추악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갖추고 있는 덕 중에 세 번째로 다른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진리를 말하기는 하나 네 번째의 덕목 즉 악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인간만이 속에 두 가지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보낼 수 있고 똑같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생산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굴복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함으로써 혀에서 맛이 없고 맛이 고약한(unsavory) 것들은 다 제거되어 아주 좋은 것들이 생산됩니다. 문제는 진리를 말하기는 하나 그 진리를 말한 입을 가지고 남을 헐뜯고 비판하고 군대는 사람들, 즉 혀로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진리만을 말하고 악은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5. 그가 나와 함께 걸었다. He walked with me

다섯 번째로 아주 따뜻하고 행복한 말씀이네요. 그가 나와 함께 걸었기 때문이라. 이것은 에녹이 보여주었던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모스에서 말하고 있는 한 마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하지 않고서 어찌 같이 걷겠느냐? (암3:3)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들, 제자의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요일이나 휴일에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려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세속적인 의무와 세상적인 야망을 포기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 파묻혀 있다가 일요일 날만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내 주님과 함께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약간의 여유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경주를 달리는 것은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무언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그분의 지시를 기다리는 약간의 불안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출발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밀치고 나아간다는(빌3:14) 말씀은 분투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상태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우리의 혼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차분한 상태라는 느낌을 줍니다. 사랑하는 친구, 신뢰하는 친구와 복된 인생을 함께 산책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인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매일 매일의 삶을 통해서 구원자 되시는 분과 함께 한다면 그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클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 화평 가운데 걸었다. in peace

여섯 번째로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하면서 그 가운데 무엇인가 첨가

되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은 ‘평안한 가운데’ 걸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함께 걷기는 했지만, 불신과 당혹스러움 가운데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화평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알고 계신다는 완전한 확신 가운데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안전하게 뒤따를 수 있다는 신뢰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평안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찬송가들이 작사되어 있지요. “나는 동산에 도달했노라. 그분께서 이끄시는 그곳으로 나는 따르리. 예수님께서는 골짜기를 통과하며 나와 함께 걸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끄시리라.” 그리고 인생을 통해서 여호와와 함께 여행하는 자의 만족감에 대한 찬송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7. 공평 가운데 걸었다. In equity

레위 제사장에 대해 주님께서 하신 일곱 번째 칭찬은 공평입니다. 남녀를 적절하게 다루는데, 그들의 경제적 차이나 사회적 신분에 전혀 상관없이 공평하게, 친구든지 원수든지 똑같이 대하는 태도야말로 하나님께 딱 어울리는 특성입니다. 편견과 자신의 선호를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영적 지도자들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든가 부자라든가 인맥이 좋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베푼 호의를 나중에 되돌려 줄만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대접을 해 줍니다. 차별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차별적인 호의를 베풀어서도 안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기반 위에 서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자들 앞에서도 역시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대우 받아야만 합니다.

실제에 있어서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다’ 또는 ‘올바르다’라는 단순한 사전적 의미를 넘어 정의를 베풀되 사심과 편견 없이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모두를 공평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은 바르게 일을 하는 셈이지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편견 없이 대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정의와 이성에 합당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공평을 알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잠1:3-4, 2:9). 하지만 어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공평으로 수고한다고 해도 이 세상이 너무도 타락해서 그 사람의 그의 노력과 실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전2:21). 이 세상은 공의가 뒤로 물러선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는 뒤로 물러가고 정의는 멀리 서 있나니 진리가 거리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사59:14)

옛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서는 불법을 찾을 수 없으며 그가 화평과 공평 가운데서 나와 함께 걷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불법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말2:6) 이렇게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대언자들이 살던 시대에 와서는 그 상황이 아주 크게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집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집 통치자들 곧 판단의 공의를 몹시 싫어하고 모든 공평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하노니 너희는 이 말을 들을 지어다.”(미3:9)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영적 지도자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신분에 따라서 그들을 차별대우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부자이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합법적이고 올바른 어떤 것을 해서 아주 호의적인 대접을 받았

다면 이것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또 가진 것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무정부 상태의 혁명을 일으켜서 부자나 권능 있는 사람들을 죽였다면 그것도 불공평한 것입니다. 잠언 17:26에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의인을 벌하는 것이나 공평하다고 통치자들을 때리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니라.”**(잠17:26)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에 모든 사람은 공평한 대접을 받게 되며 모든 공의와 보상은 적절하게 분배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존귀한 대접을 받지 않을 것이며 부당한 대접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부당한 대접을 받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평한 사회는 그분의 재림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의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며 자기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사11:4) 이것이야말로 그분의 왕국이 세워지면 있게 될 모든 사물의 질서입니다.

“주 앞에서 기뻐하라.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도다.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공평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로다.”(시98:9) **“왕의 능력이 또한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오니 주께서 공평을 굳게 세우시며 야곱 안에서 공의와 의를 집행하시나이다.”**(시99:4)

이 땅에 있는 부패한 심판들과 공평하지 못한 대우와 억압으로 인해 많은 싫증들을 느끼고 계시지요? 그러나 그분께서 돌아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평이라는 주제를 더 확장 시켜서 공부하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외모를 중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언급된 구절과 우리에게 동일한 원칙대로 행동하도록 말씀하시는 구절들을 다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8. 그가 많은 사람을 불법으로부터 돌이켰기 때문이다. He did turn many away from iniquity.

영적 지도자들의 고상한 특성들의 목록 중에 마지막 여덟 번째는 그의 말과 행위가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길을 내버리고 좁은 길로 걷게 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훌륭한 간증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영적 지도자를 보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날들 즉 야곱의 고난의 날에 있어서조차도 의롭고 신실한 제사장들이 있게 될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또 그가 그 언약을 대적하려고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아첨하는 말로 부패시킬 터이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공적을 세우리라. 백성 가운데서 깨닫는 자들이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줄 터이나……”(단11:32-33)

그리고 다니엘서 12:3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단12:3) 이것이야말로 진리를 선포하는 모든 자들이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은 단지 진리이기 때문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그 진리가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기 위한 기쁨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지요 (살전2:13).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를 다루는 텔레비전에서도 신앙 방송에서도 기독교 서점에서나 심지어는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들에서조차도, 당신이 죄를 짓거나 당신이 사악하거나 당신이 더럽혀졌거나 동성애자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술주정뱅이거나 거짓말쟁이거나 살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고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종교 현상이 이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은 모습을 한 늑대들이 말하기를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고 감정은 더 이상 감정색이 아니고 흰색은 더 이상 흰색이 아니고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마음이 넓으시다.”라고 하는데, 제 말 좀 들어 보십시오.

설교자들은 여러분을 불법으로부터 돌아서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교사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교사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날 어떻게 하면 거대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악한 삶을 살고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면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리 인기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레위기 10:8-10엔 영적 지도자들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나 혹은 너와 함께한 네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구별을 두고”(레10:8-10)

만약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곳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당신은 그러한 목사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드려야 합니다. 만약 그 교회의 청년들에게 성적인 순결에 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다면 그런

목사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혹시 당신이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감리교 신자든지,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장로교 신자든지, 자유주의 침례교도든, 자유주의적인 회중교회에 속해 있든, 자유주의에 속한 공동체 교회에 속한 목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은 붙었지만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띤 교회의 설교자든지, 또는 자유주의 그리스도교회에 속해 있는 신자든지, 남침례교단에 속한 자유주의적 설교자든지, 가톨릭이나 성공회 소속 사제들이든 간에 내가 하는 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의 분명한 의미를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 밑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셨으면 사임하고 직장 얻어서 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괜히 놀란 척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이나 내가 살고 있는 곳이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바람피우며 음탕한 짓을 하면서도 교회는 갑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나 다른 사람의 남편하고 놀아난 사람들도 교회에는 갑니다. 자기의 사업파트너를 속이는 사람들도 교회는 갑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설교하는 목사들은 그들의 천하고 사악한 짓들이 죄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짐작이라도 하게 될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설교자나 사역자나 제사장이라면, 그들이 가르치는 그 백성이 더러운 것과 더럽지 않은 것 사이를 구분 할

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록한 것과 기록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보여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자유주의자가 아니다.”라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이 근본주의자라는 것에 대해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당신이 성경신자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옳은 것을 위해서는 굳게 서있고, 당신은 확실한 기준도 가지고 있고, 확신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설교를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사십분 설교하는 내내 격분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외친 내용이 성경에서 그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아무리 근본주의자라고 해도, 당신 자신의 시간도 다른 사람들의 시간도 낭비한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제껏 정말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세속적인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카우보이들이 신는 장화를 신고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다, 쇠로 된 안경테의 안경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강대상에서 색깔 있는 와이셔츠를 입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들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지도 않는 수백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떠들어 댁니다.

이것은 성경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고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당신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당신에게도 우리의 견해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를 성경에서 찾아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7:8-10을 보십시오. “네 성문 안에서 분쟁하는 일이 일어나 피와 피 사이에, 청원과 청원 사이에, 때리는 것과 때리는 것 사이에 네

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주 네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재판관에게 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재판의 판결을 네게 보여 주리라. 너는 주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여 줄 판결에 따라 행하되 그들이 네게 알려 주는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할 것이니”(신17:8-10)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적지도자들로부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제도를 세우신 목적이었습니다.

에스라 7:10을 보십시오. “이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이스라엘에서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더라.”(스7:10) 이 에스라는 말라기 2:6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제사장의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18:18로 가 보시면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계락을 꾸며 예레미야를 치자. 율법이 제사장에게서, 계락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말씀이 대언자에게서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말 중의 어떤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말자, 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입을 막자며 음모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보니 사악한 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대언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비방하고 명예를 실추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예레미야로부터 멀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한 가지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것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자신이 사는 날 동안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학개 2:11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관하여 물으며 이르기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있는 그분의 사역자들에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분을 섬기고 있는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성품들의 목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해 봅시다. 앞에서는 구약의 말라기에서 찾아보았는데 이번엔 신약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5-6은 말씀합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계1:5-6).

이 말씀에서 보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결과가 따르는데 첫 번째,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구원자의 사랑을 받습니다. 모든 자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으니까요. 두 번째는 그분의 피로 씻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9-10에 덧붙이시기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라고 하십니다.

이 문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

속하실 때 우리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 보니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제도가 다시 시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렇게 제사장들로 지명 받은 사람들이 옛 민족이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반열에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근거해서 제사장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는지 혹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벧전2:5)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공혹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공혹을 얻었느니라.”(벧전 2:9-10)

모든 믿는 자들이 제사장 직분을 지니고 있다는 이 위대한 교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교리입니다. 평신도들 위에 성직자 계급을 드높이는 것이라든가 주님의 몸 된 모든 지체들이 다 동일하게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견해를 거부하는 행위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진리를 한 곳으로 치워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서서 그 거룩한 민족의 동료 백성들을 대신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섬김은 교회시대를 넘어서서 심지어는 천년왕국시대에도 우리가 참여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6은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계20:6)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2:5-6에 나와 있는 목록들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그(레위)가 나를 두려워하였고
2. 그가 내 이름 앞에서 두려워했으며
3. 진리의 율법이 그의 입에 있었으며
4. 그의 입술에는 불법이 없었고
5. 그가 나와 함께 동행했으며
6. 화평 가운데
7. 공평 가운데
8. 그가 많은 사람들을 불법으로부터 돌이켰느니라.(말2:5-6)

이 모든 진리 하나하나가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리이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말2:7)

이 말씀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남녀 누구든지 제사장에게로 와서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신성하고 엄숙한 책임입니다. 또한 복된 특권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돕는 기회일 뿐 아니라 소망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지파의 실패는 정말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상실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희생제사 제도를 멸시하기에 이르렀으며 백성들에게 기록하신 분에 대한 지식을 더 이상 나누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대언자는 그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레위의 언약을 썩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말2:8)

큰 특권에는 큰 책임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사명을 잘 받아들이서 순종하면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워지지만 어떤 사람이 그 임무에 실패하고서도 계속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게 되면 많은 자들이 더럽혀집니다(약3:1). 히브리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태도가 넓게 퍼졌습니다. 이제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국과 미국의 역사를 다 살피지는 않을 것이나 미국과 영국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자유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 부인함으로써 신학교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그 결과 강단에서의 사역에도 악영향을 끼쳐서 한때 위대한 민족이었던 미국 민족을 부패시켜 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높임을 받았던 미국인이 지금은 얼마나 저급한 상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 이같이 미국인들의 영적 도덕적 수준이 낮아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리더십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힙니다. 말라기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400년 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마15:6)**

처음으로 성막을 세우면서 시작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가 말라기 2:7-8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마땅했던 그 제사장들이, 그 민족을 생명의 길로 인도했어야 했던 그 제사장 계급이, 그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타락해서 이교도들과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들의 헛된 고백인 “나도 믿는 사람이야, 나도 교회에 다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두 번이나 이사야서 29:13을 인용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사 29:13)

구약 제사장들이 실패한 것은 탈무드라는 자신들의 교리를 거룩한 성경말씀보다 더 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교회들은 사역자들과 교단의 교리들을 거룩한 성경보다 더 위에 놓았다가 실패합니다.

“그러즉 너희가 내 길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한쪽으로 치우쳤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온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말2:9)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율법에서 공평하게 하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하면서 살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와 같은 엄격한 법에 매어 있지 않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4에 따르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교회에 부자들이 오면 “어서 오십시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니까 “아무데나 앉든지 가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편향된 행위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와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높여주고 반면에 남루한 옷을 입고 온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말씀이지요. 이와 같이 편향된 태도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행위를 하나

님께서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자들의 삶 속에 있는 아주 끔찍한 모순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의 핵심 역시 편향적인 태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대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성취입니다. 불공평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생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율법의 어떤 부분들은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반면에 율법의 어떤 부분들은 무시하며, “아, 이것은 구식이야! 너무나 제한적이야! 아,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제멋대로 그렇게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이 내용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23에서 그 죄를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마 23:23)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것과 저것 두 가지가 다 균형 잡혀야 하는데 편향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외형적인 종교 의식은 중요하다고 다 행하고 내면의 것을 무시했습니다. 율법의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행위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 많아서 힘 안들이고도 수천 개 수만 개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기도는 하는데 복음은 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도둑질은 비판하지만 술이나 독주를 마시는 문제는 내버려둡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낙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담대하게 외치지만 간음하고 있는 여인이 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자랑하는 신학교에서 발렌타인 축제가 열립니다. 결코 바지는 입지 않는다고 자랑하는 여자가 남들에 대한 험담은 아무런 생각 없이 잘합니다. 자기는 교회에 가서 섬기기 위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자기의 특근을 포기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뒤에서 목사의 욕을 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행하되 저것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누구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모든 순간에 다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실패했을 경우 무조건 다 용서하시는 것도 아니지요.

주님의 계명들 중의 일부는 아주 본질적이어서 중요하지만 몇몇 계명들은 좀 한 쪽으로 제쳐놓아도 별 상관없다고 하는 태도는 아주 위험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못지켰다면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성취하지 못한 진리라고 해서 이것은 별것 아니라고 여기지는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내 길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한쪽으로 치우쳤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온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말2:9)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제사장에 대한 존경심을 잃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바칠 빵의 상을 멸시켰으니(1:12) 그들의 행위가 더 조롱당할 행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아주 천한 자가 되었습니다. ‘천하다(base)’라는 말은 낮다, 바닥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을 높은 수준으로 올리라는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는 아무런 도전의식이 없이는 결코 도달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얼마나 바닥 아래까지 가라앉았던지 그 땅의 시민들이 아예 아래로 내려다보아야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들을 높이 쳐다보아야 했지만 이제는 너무 타락하여 아래로 내려다 볼 수밖에 없는 처지까지 되었습니다.

소위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악한 삶을 살고 못된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삶의 본을 본 뒤 모든 진리로부터 떠나게 되어 지옥에 가는 이도 허다합니다.

목사들이 도둑질을 하고 집사들이 혼외정사를 하고 가톨릭 사제들이 아동을 성적학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간음을 저지르고 사역자들이 옳지 못한 행동으로 감옥에 가고, 이들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마저도 모두 다 경멸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올바른 분별력이 없습니다(고전2:14-15). 그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주신 사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은 품위 있는 삶을 살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목사가 도덕적으로 나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가 무너지면 모든 사람이 다 상처를 입습니다.

어느 마을에 정말 선하고 경건한 기독교 지도자가 많이 있는데도 그들은 무시하고, 마을 사람들이 한 못된 목사의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주 공평치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훌륭한 목사에게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목사가 간음했다 하면 뉴스에 떠들썩하게 다루어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느 목사가 음란한 행위를 하여 체포되었다는 뉴스를 보면서 “그래도 그 사람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훌륭하고 착한 사람들이잖아.”라고 말 할 일은 없습니다.

어떤 한 교단의 한 사역자가 아주 못된 짓을 한 것이 세상에 드러나면 모든 교단의 모든 사역자들이 다 한꺼번에 싸잡아져서 도매금으로 명예가 손상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 저 사람은 참 훌륭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주님을 위해 본이 될 만한 삶을 살던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버리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실족하고 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육신의 욕심에 자신을 내어주기 전에 멈추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회개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목사직을 다 내려놓고 아무도 당신을 모르는 어두운 곳으로 가서 당신의 간증을 망쳐버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괜히 피해 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땅에 곤두박질친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땅에 곤두박질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지도자들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것은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북미 전역에 걸쳐서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목사로 안수하고, 남성 동성애자들이나 여성 동성애자들을 교회 지도자로서 포용하고, 처형해야 마땅한 아동 성학대자들을 사회에 다시 환원시켜 계속 사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미국이나 유럽 가톨릭에서 아동 성학대자들을 다시 사제직에 복귀시켰지요.), 남의 아내와 함께 사역하던 교회에서 도망쳤던 자를 얼마 후 다시 목사로 선출하는 일들은 특별한 이야깃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교회에 갈 필요가 있어? 왜 교회에 가야 하지?”라는 질문을 하도록 충분한 원인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교회를 다스린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관심을 두지 않는 성경말씀에 평범한 대중이 관심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이커라는 남자 목사가 테미라는 여자 목사와 부정을 저지르고, 제리 파웰이라는 미국의 근본주의 목사가 베이커의 것을 훔치고, 스웨거트라는 목사가 뉴 올리언즈에서 스트립쇼에 나타나고, 해지라는 목사는 옛 마누라를 새 마누라로 갈아치우고, 오랄 로버츠라는 목사는 그의 아내 자리를 자기 학교 여학생과 바꿔치기하고, 메이어라고 하는 여자 목사는 자기 남

편이 주부처럼 앉아서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가운데 남자처럼 설교하고, 제익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가족에 관해 쓴 책을 팔아먹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대주교는 주교를 위해서 적당히 변명해 주고, 주교는 그 밑에 있는 사제를 적당히 변명해 주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경멸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정말 합법적이고 제대로 된 부흥회에 참여하도록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파한다고 입술로 떠들어 대는 자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질병은 모든 시대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의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백성들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5 부 어찌하여 형제를 대적하며 배신하느냐? (2:5-10)

“우리 모두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냐?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더럽힘으로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대적하며 배신하느냐?”(말2:10)

이 구절은 자유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성경구절입니다. 모든 민족들과 언어들과 백성을 무차별적으로 다 섞어서 하나의 전 세계적인 체계로(요한계시록 17장의 큰 창녀로 알려져 있는) 만들어 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구절을 찾아냅니다. “우리에게 한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하는 이 진술은 모든 사람들을 다 연합시켜서 하나의 혼혈사회로 만들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는데 이 혼혈사회는 결국은 큰 표범인 적그리스도가 대환난 기간에 주도하게 될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라며 세계정부를 주장하는 자들은 바벨탑을 세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심판의 결과(언어를 나누어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짐)를 뒤집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한 언어를 사용하게만 된다면 가난과 전쟁은 끝나게 될 것이라고 진지하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UN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온 인류가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면 모든 가난과 전쟁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설을 통해서나 그들의 노래를 통해서나 하나님이 없이도 인류가 하나만 된다면 이 지상에 천국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주제와 외침의 주제는 다름 아닌 우리 모두는 다 한 아버지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 모두에게는 한 아버지만 계신 것이 아니냐? 지난 올림픽 때의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구호와 같이 인류는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하면서 조심스럽게 읽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성경을 곡해하는 이런 일들은 성경의 모든 구절은 그 문맥 안에서 읽어야 한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는 이 진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말라기 1:1로 돌아가서 다음 구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말1:1) 따라서 말라기 2:10에서 우리에게 한 아버지가 있다고 할 때 그 우리가 누구냐? 도대체 우리가 누구입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지요. 말라기 1:1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대상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여기의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이지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곡해해서 세계정부라든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소속되어 있는 남녀노소는 물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혈통을 추적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각 사람들 모두는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축복과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한 이 내용은 제사장들을 향한 또 다른 책망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내용은, “우리에게 한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다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너희 지파의 제사장 계급이 나머지 다른 지파 사람들을 그렇게 배신하고 엉망진창으로 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책이지 인류애를 발휘하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당신들이 어떻게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어찌 그런 마음을 품느냐?” 르우벤지파에 속한 르우벤의 후손들도 레위지파의 후손들처럼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구절의 하반절의 경우에는 모든 인간에게 다 적용이 가능한 말씀이기는 하나 문맥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인류 전체에 해당한다고 해도 교리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요. 그러나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똑같이 창조하셨다는 문맥으로 쓰인 것입니다.

이 두 진술, 즉 “우리에게 한 아버지가 있지 않으며 한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냐?”에서 “한 아버지가 아니냐”는 진술은 교리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논거를 세우기 위해서, 즉 “이러할진대 너희는 왜 그러냐?”라는 논거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진술된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어째서 우리 각자가 자기 형제를 그렇게 기만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는 대언자를 통해서 그들이 혈족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왜 서로가 서로를 잘못 대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10절은 과도기 역할을 하는 구절인데, 1-9절까지의 내용은 제사장들이 그의 형제들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형제들에게 죄를 지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11-16절까지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결혼 서약을 지키는 데 실패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이 논거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율법의 진정한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주어졌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야곱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스런 인도 하에 형제간에 제대로 대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다 공통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형제지간의 인간관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언자 말라기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그들 형제끼리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의 열매는 형제들 간의 올바른 관계로, 이러한 십계명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으로 요약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료 인간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정직함과 옹졸함으로 대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율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한 사람이 율법에 일치해서 살고자 한다면 그는 자신의 형제 혹은 동료 인간을 적합하게 대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의 질문에 답하신 것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마22:36-40)

성령께서는 로마서 13:10을 기록하실 때에 이 진리를 바울로 하여금 다시 반복하여 기록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13:10)

이제 우리는 이 문맥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고 또 이 구절의 본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fatherhood of God’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

하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이런 식이 되고 맙니다. 그 결과 보편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이는 어떤 뜻인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창조주인 것은 사실이며 이는 히브리 민족에게 속해있는 인간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다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인간이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첫째 포인트인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의 기록을 인용할 수 있는데 그 기록은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9:4에서 다음처럼 말씀 하신 바 있습니다.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마19:4-5) 이는 창세기의 기록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내용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창조 행위는 첫 부부, 즉 아담과 이브에게만 한정된 것이고 그 후 각 개인의 형성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여하신 바 없다.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뒤로는 자동적으로 생산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창조하신 것이냐?’ 그러나 다음 성경구절을 읽어보면 한 개인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로 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 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시100:3)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골1:16-17)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시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우므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중에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에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시139:13-16)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은 DNA 구조가 잉태하는 순간 이미 다 형성되었다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절들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생명을 가진 자들의 창조자이십니다. 당신은 우연히 진화 과정으로 생겨난 부산물이 아니며 인간의 생식활동 중에 드러난 산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지 어찌다가 진화된 것도 아니고 인간이 생식행위를 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아주 귀한 개체이며 지혜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주의 깊게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아니라, 오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롬9:20)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새와 짐승과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그것들의 아버지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식물과 기어 다니는 것과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 받았습

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물들의 아버지는 아니시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계시한 진리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출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유대인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민족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던 유월절 그 날 밤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집합적으로 하나님의 맏아들이라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의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서 요한복음 1:12-13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지만 유대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이라는 한 민족 전체가 맏아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교회의 지체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언급되었는데 그것은 개개인이 새롭게 출생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분을 맏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요1:12-13)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요일3:1-2상)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갈4:6)

저는 앞에서 언급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자동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홍수 이전에 있었던 그 존재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창6) 불리는 종족이 있었다

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함 가운데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노아시대의 홍수로 인해 다 죽어서 지하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들의 그런 마지막 운명을 누가 원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어둠 가운데 쇠사슬로 묶여 잡혀 있고 영원한 멸망을 위해 예비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유1:6)

제 6 부 이교도들과의 혼인(雜婚)에 관하여 (말2:11-12)

“유다는 배신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안에서는 가증한 일이 저질러졌나니 유다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 즉 그분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느니라.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선생이나 학자나 혹은 만군의 주께 헌물을 드리는 자라도 주께서 야곱의 장막들 가운데서 그 사람을 꼬집어내어 끊으시리라.”(말2:11-12)

이 구절에는 구약 시기에 발생했던 사건들을 요약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말라기라는 책은 우리에게 참으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어떤 진실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창세기 3장의 인간 타락 이래로 인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든 그 어떤 형식으로든 그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결코 개선되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진화가 아닙니다.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은 계속해서 꾸준히 악화되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대체로 이와 같은 일이 진행되다가(꾸준히 인간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면 잠시 죄가 사라지는 것같이 되다가 다시 타락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를 살펴보면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진 이후 이스라엘의 회복기간에 사악한 일들이 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크게 매를 맞고 바빌론 포로로 붙잡혀 갔었던 이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하였으면서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저질렀던 그 죄악들을 똑같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말라기 역시 바빌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지르는 죄들을 목격하는데, 자기보다 앞선 모든 대언자들이 보았던 죄들을 다 목

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고통을 당하거나 어떤 민족이 큰 어려움을 당하면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틀렸음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항상 죄는 되풀이 되었지 완전히 고쳐진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사탄이 천년 동안 지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어떤 짓을 하는지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천년 동안 갇혀 있었음에도 풀려난 즉시 그가 중단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 2:11-12에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 주변에 살고 있는 이교도 민족들과 상호혼인(intermarriage)을 하는 죄를 다시 저지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서는 이와 같은 행실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사기 시절에 이와 같은 잡혼(雜婚)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가 기록되어있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민족으로 하여금 잡혼으로 생긴 처자식을 버려야 한다는 쓰라린 분리를 요구한 내용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지속적인 효과가 없었습니다. 얼마 뒤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 민족은 또다시 안목의 정욕을 뒤따르는 불순종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11-12절에서 이교도들과의 혼인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며 더러운 짓이며 가증스러운 짓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구절들에서 여호와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하심을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행위는 분명히 범죄라고 정의내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버렸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히브리인들이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는 여인들과 혼인하기를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짓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을 내리치는 행위 즉 따귀를 때리는 행위나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짓은 인간에게 가장 친밀한 관계, 즉 부부관계를 하나님의 축복의 경계 바깥으로 몰아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부부관계를 축복했는데 그런 짓을 하면 축복하실 수가 없으시니까 그것은 바깥으로 몰아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마귀들의 생활방식에 따라 살도록 가르치는 행위이며 한 인간의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한 민족의 미래를 망쳐버리는 행위입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순결을 더럽혀서 선민이 지금 다 더럽혀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민족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셔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이 순결을 잃고 더럽혀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주님을 격노케 하였으니 그 행위야말로 그분을 향해 있는 사람들이 그분에게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명백하게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11절의 어휘의 표현을 보면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해석은 성경 참조구절들을 찾아보면 각각 다 유효하며 또 성경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앞의 성경구절에 보면 셋째 줄에 “which he loved”라고 했는데 which가 앞에 나와 있는 Lord(주님)를 받으면서 he가 유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거나, which가 앞에 있는 유다를 받고 he가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유다는 그가 사랑하는 주님을 더럽혔도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holiness는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토론의 주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유다가 무

슨 짓을 했느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여기의 he loved 했을 때 he를 Judah로 보면 유다는 사랑했습니다. ‘주의 거룩하심’을, 그러니까 which라는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와 있는 주의 거룩하심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한때 유다 민족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으며 이교도들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교훈을 아주 높이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보다 이상한 타국 여인을 더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네요. ‘유다는 사랑했다.’ 여기서 유다가 사랑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보면 과거시제이지만 말라기가 기록된 당시로 보자면 현재시제가 될 터이니, ‘주의 거룩하심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유다가 사랑한 주의 거룩하심이라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의 유다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단순한 감정(emotion)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자기 마음에 감정으로 사랑했는데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 아닐 수가 있겠는가?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 하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망가졌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남편을 사랑한다고 맹세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아이들을 소홀히 하고 자신을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 완전히 넘겨 줘버립니다. 이 땅의 남녀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이들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맞습니까? 사랑은 사랑이나, 그들 자신을 향한 사랑과 쾌락을 향한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미미한

사랑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으로는 사랑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사랑이 가능하냐? 라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은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하 17:32-33, 41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여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취하여 산당들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니 이들이 산당들의 집들에서 그들을 위해 희생물을 드리니라.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고 또 어디서부터 민족들을 사로잡아 왔든지 그 민족들의 관습대로 자기들의 신들을 섬겼더라.”(왕하17:32-33)

41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민족들이 곧 그들의 자손들과 그들의 자손들의 자손들이 주를 두려워하고 또 자기들의 새긴 형상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이 행한 대로 이 날까지 행하느니라.”(왕하 17:41)

주님도 두려워하고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잡신도 섬기고,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잖아요. 신약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8과 4:8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약1:8)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약4:8)

다음으로 이 구절의 셋째로 가능한 해석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아까 he를 유다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주님의 거룩함을 더럽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가 주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셋째 해석에 따르면 주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사랑하셨는데 유다는 하나님의 성품의 거룩함을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혔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절대적인 의로움을 멸시합니다.

유다는 이방인들의 억압 하에 있던 잔인한 속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기를 원했으나 이방여인들의 따뜻한 품으로부터는 구출하지 않았으면 하고 이중적인 마음을 품었습니다.

오늘날도 구원을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면서 이 세상에서 적당히 즐기는 것도 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유다의 사람들이 타국 신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솔로몬의 생애를 연구해보면 어쩌서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는지, 그 이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순결한 씨를 보존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상에서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하고 구분된 백성 하나를 택하셨습니다. 이 민족은 메시아를 보낼 민족이며 그리고 왕국을 세울 민족입니다.

둘째, 주님께서 이방신의 딸들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향해 있는 남편의 마음을 거짓 신이나 그녀가 경배하는 이교도의 신에게로 돌이켜 버릴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와 함께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 어디에서도 한 남자가 자기와 다른 종교를 가진 여자와 결혼해서 그 여자를 자기 신앙으로 회심시켰다는 얘기는 찾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고백했던 믿음을 포기하고 여자의 신앙으로 돌이켜 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해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史實)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게 되면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육체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3:27-28에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민족(교회를 말함: 벤전2)에 속한 시민들도 이방인들(외국인: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같은 이유입니다. 고린도후서 6:14-16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명예를 같이 떼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후6:14-16)

성령께서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다른 신을 경배하는 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 믿지 않는 자로 인해 믿는 자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아예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이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이미 약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교도 여인과 결혼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충성심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교도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을 했다면 이것은 ‘이미 여호와로부터 그들의 마

음이 떠나려 가버렸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잘못 시작된 것은 결국 잘못된 것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1-4에 보면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라. 주께서 전에 이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자기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이들에게 굳게 붙어 사랑하였더라. 그에게 아내들 곧 왕비 칠백 명과 첩 삼백 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의 아주 구역질나고 형편없는 사례는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당연히 경고 역할을 했었어야 하지만 슬프게도 그와 같은 역할을 못 했습니다.

히브리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이 아닌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아내를 얻어서는 안 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 당시에 이미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꾸중을 들은 바 있었습니다. 에스라 9:2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기와 자기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들을 취함으로 거룩한 씨가 스스로를 그 땅들의 백성들과 섞이게 하였나이다...” 그 땅들은 에스라 9:1의 가나안 사람, 헷족속, 브리스족속, 여부스족속, 암몬족속, 모압족속 이집트 족속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씀들을 선포했지요. “그때에 또 내가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아내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을 보니 그들의 자녀들이 아스돗 말은 절반쯤 하나 유대인들의 말은 하지 못하며 다만 각 백성의 말을 하므로 내가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며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또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라. 전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들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느13:23-26) 이렇듯 이스라엘 자손들의 잘못된 혼인은 하나님 앞에 매우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것이 심각한 죄인 이유는 그들이 피부색이 서로 달라서라든가 머리 촉감이 다르다 등의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배우자가 종교적인 영향을 끼쳐서 그 자녀들의 신앙 형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당신이 몰몬교도들이나 마리아를 경배하는 가톨릭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회교도나 무슬림과 결혼하게 되면 누가 자녀를 키우겠습니까? 이방 여인이 자녀를 기를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이 될 것이며, 다음 세대는 결국 타국 신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면 당신도 신앙을 포기해야 하고 자녀들의 혼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되며 나아가 민족의 혼 또한 모두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는데도 믿지 않는 여인이나 다른 신앙을 가진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나중에 태어날 자기의 아이들이 어미의 종교를 따라 자라나게 될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까? 빛이 어두움과 결혼하면 거의 모든 경우 어린 아이들은 어둠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교도와의 혼인이 이혼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 실제로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바, 누가 그 자녀들을 맡게 될까요? 주로 어머니가 자녀를 맡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평하지 않은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는 말씀은 아주 심각한 경고이며 반드시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 중에, 자신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지 않은 남자와 결혼했다가 나중에 남편이 거듭난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입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 중에 몇몇 분은 구원받지 않은 여인과 결혼했으
나 나중에 그 여자가 거듭난 경우가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애에 그와 같은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임을 잊어서는 안됩니
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경우의 대부분은 믿는 자는 적당히
타협하거나 자신의 믿음을 완전히 포기해 버리는 경우까지 생겨나는데,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보다는 그 여인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의 자녀들이 로마가톨릭, 아니면 이교도의 가정에
서 자라나게 되는지요? 이것은 부모의 한 쪽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녀의 혼이 당신의 잘못된 결혼 때문에 치러야 할 엄
청난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는 이와 같은 짓을 하는 자를 끊어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The
LORD will cut off the man that doeth this.(말2:12) 참으로 무서운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끊는다는 것은 죽이거나 처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땅에 속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명
심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약속은 다 물리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거나 율법을 어김으로써 언약의 땅에서 그들의 종족이 하나님으로부
터 지속적으로 보호받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형에 해
당하는 죄로 간주하십니다. 따라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혼인한다는 사실은
심각한 범죄인 것입니다.

다음 구절이 바로 이 해석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주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짓을 행하는 자를 야곱의 장막으로부터 끊어 내시는데 그들
이 누구냐? 선생이나 학자나 / The master and the scholar, out of
the tabernacles of Jacob.(말2:12) 이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내는 것은 하

늘나라로 가는 것에서 끊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책에서도 아니고 영원
으로부터 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막은 지상에 있는 것이고
성막은 야곱이 거하는 일시적인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규
례는 한 민족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른 신을 믿는 자와 결혼함으로써 여호
와의 거룩함을 더럽힌 자, 즉 이방인과 결혼한 자는 성막을 깨끗하게 지키
기 위해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 영어 단어들 가운데 원래의 의미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질되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학문의
분야에서 전문가일 경우에 그를 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학자라고 번
역하는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스승이라
고 하는 사람은 전문가이고 학자라고 번역하는 사람은 전문가 밑에서 공
부하는 사람입니다.

(역자첨언 : 이와 같이 의미가 뒤바뀐 것, 예를 들면 scholar 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성경에서는 학생인데 학자인 것처럼 뒤바뀐 경우가 영어에
종종 있습니다. 다른 예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먼저 “Thank you(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you are welcome
(천만에요)”라고 답합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 방문하면 “You are welcome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상대방이 “Thank you(감
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무슨 스승의 반열에 올랐다 해도 상관하지지 않
습니다. 당신이 무슨 학자라고 해도 상관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무슨 상당한 업적을 이루고
상당히 유명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판을 단순히
거두어 가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스승이 되었든 학자가 되었든, 특별한 사
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간에, 이와 같은 짓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똑같이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만군의 주께 헌물을 드리는 자라도 / and him that offereth an offering unto the LORD of hosts.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자가 형식적인 경우에는 결국은 끊어버리십니다. 말라기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바치는 그 헌물이 죄로 말미암아 공허한 헌물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일치하게 종교적 행위가 실행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순수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말라기 대언자가 바라보니 당시에 스승이라고 하는 자나 학자라고 하는 자등 아주 유명한 자들이 주님께 헌물을 가져오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께 헌물을 바치는 데 줄을 서 있습니다. 여기서 만군의 주, 그 하나님은 다름 아닌 자신의 권능을 사용해서 모든 다른 신들을 다 파괴해 버릴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찾아는 왔지만, 나무나 돌들로 만든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아내가 집에 있습니다.

그들이 헌물을 가져왔는지 가져오지 않았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물을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는 상관없습니다. 희생물을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죄악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해보아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지만 정죄 받았습니다. 이 민족은 이집트의 많은 신들이 하나님께 다 멸망당했다는 사실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다곤신이 넘어졌다는 사실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불레셋인들은 하나님은 산지에서도 하나님이시고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진리를 놓쳐버렸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보내셨습니다. 반면에 바알은 자기가 거짓된 신임을 입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우상을 파괴했고 결국은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입증했으나 백성들은 그 우상들이 혹시 자기들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미친 짓이지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듭난 자가 어째서 죽은 마리아에게 기도하며 도자기로 된 우상들 앞에만다다라 촛불을 켜놓는 로마가톨릭 여인과 결혼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 짓을 하면 그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 거듭난 자가 물몬교의 창시자인 조셉스미스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分別력이 없는 여인과 왜 결혼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 짓을 하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지요.

성경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는 남자에게 마음을 주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구원한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 예, 제임스 형제님, 나는 그런 식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을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닐지도 모르고 아주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상당히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필요할 때는 기도도 할 수 있고 회중과 함께 찬송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당신의 육

체의 욕심을 따르다면, 그것으로써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반드시 받아들이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7 부 이혼과 재혼에 관하여(말2:13-16)

“또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주의 제단을 덮으면서 또한 이런 일을 행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다시는 헌물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선한 뜻으로 받지도 아니하시느니라.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된 까닭이니이까? 하는도다.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네가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네가 그녀를 대적하며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네 짝이요 네 언약의 아내니라.”(말2:13-14)

자, 이번에는 더 나아가서 혼인과 관련된 민족적인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 볼 텐데요. 다시 한번 성령께서는 그의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경건한 시도를 무효화하는 죄들이 있다는 것ですよ. 그러니까 결코 아무리 경건하게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보니 다루어야 할 주제가 혼인과 재혼과 관련된 것으로, 정말 아주 부글부글 끓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험을 감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 이유는 오늘날 혼인이나 재혼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언급하면 사람들이 시끌벅적 부글부글 논쟁이 벌어지고 난리가 잘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혼과 재혼에 관련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저와 생각이 일치하는 사역자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더라도 자세한 부분까지 깊이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논쟁의 여지가 많아지는 주제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제가 친애하는 형제자매들 중에 이혼하신 분이나 재혼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께 좀 몇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훌륭한 종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랑스러운 자들 중에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만약에 과거를 돌이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 모두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그대로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결혼의 실패로 인한 아픔은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부분에서 다른 심각한 실패를 많이 경험한 자로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근본주의 진영에서 다른 죄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이혼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다른 이혼이나 다른 죄를 짓는 것이나 모두 똑같은 죄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독립침례교회 협의회 회칙을 보니까 구원받기 전에 이혼한 경우도 회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회원가입 서류가 그 전에는 구원 간증 정도로 간단했는데 많이 복잡하게 해 놓았더군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출간하는 것을 3년간 미루어 왔습니다. 마음 속에 꺼려지는 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에게 그 어떠한 고통도 상처도 가져다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 소망은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추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격려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혼과 재혼’이라고 하는 주제를 성경적으로 다루다보면, 이 부분에서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는 분들에게 어쩔 수 없이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 좀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들과 복음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이 이혼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설교나 팸플릿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

실, 그리고 이혼과 재혼에 관해서 성경적 진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가득 앉아있다고 하는 사실에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이혼에 관해서 사역자들이 정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혼도 증가추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가르쳤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번째나 세 번째 혼인을 하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빨리 알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빙자해서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책을 잘 읽고 깨닫는 바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실수로 인해서 야기된 상처와 혼돈을 가지신 분들에게 제가 더 큰 고통을 드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믿어주시길 바라며, 이 주제를 언급하려는 저의 의도는 오로지 그 누구도 이와 같은 경험이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밝힙니다.

우리가 이미 저질렀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저질러 놓았든 간에 주어진 환경 아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보도록 하십시오.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긍휼을 기뻐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도록 하십시오. 과거를 잊고 앞으로는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자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무시하거나 다시 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덜 죄악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낱알이 드러낼지라도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과거에 넘어진 그러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열려있는 그와 같은 섬김의 기회를 계속해서 활용해서 섬겨야 하고, 그와 같은 섬김의 기회를 성경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록하심을 행사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쓴 뿌리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13절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눈물로 덮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의 슬픔의 표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지하다면 그것은 진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진지한 불교신자도 엄청나게 많지요.)

매일 남자 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진술되어있는 사실을 거스르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그 결과가 그들의 삶을 뒤 흔들면 그들은 제단으로 나아가서 눈물을 흘림으로써 그 모든 뿌려놓은 결과들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라기 2장에서 보니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잘못을 저지른 그 자녀가 하나님께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훌쩍훌쩍 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슬픈 모습으로 그들의 목소리의 톤을 높여 울부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높이 펼쳤습니다. 가장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진지하게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들을 전에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치셨습니다. 그들이 온 것은 단지 순간적인 고통을 없애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함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 그 너머를 보고 계십니다. 그들은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슬픔 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한 슬픔, 고통을 없애 달라는 슬픔일 뿐입니다(유다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과 같은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 눈물은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도전장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조롱했던 자들의 철없는 울부짖음입니다. 그들은 죄의 삯인 사망으로 대가를 치르게 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가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오늘날 현대 인들은 정말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현물엔 더 이상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무시해버리십니다. 그들의 우는 모습도 무시해 버리십니다. 울부짖음도 무시하십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실 텐데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문맥을 보시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이혼입니다.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부인들과 ‘이혼’ 해 버렸습니다. 이 불순종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축복을 거두어 가셨고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응이 너무 무거운 짐이 되자 그들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과 힘든 것들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따뜻한 햇볕을 보내고 행복을 보내 달라고 뇌물로 바치기 위해서 현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아내와

다시 화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죄를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행동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을 거두어 달라며 하나님을 속이고자 거짓눈물을 흘리고 헌물을 가져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계속해서 거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이 아주 편치 않다고 해서,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뒤바꿔 버리실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갈6:7).

나는 목사로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혼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혼하는 사람들도 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부모에게 반역하는 아이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파산소송을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갠기 싫어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전에 다니던 교회의 목사에게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온 도시에 그에 대해 수군거리다가 자기의 삶에서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현재는 헌신되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수확의 법칙을 좀 무효화해 달라고, 자신이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일이 없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빕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순간적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싼 값에 팔아치웠습니다. 후일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데는가를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운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저지른 행동으

로부터 나온 그 현재의 불행이라는 결과 때문에 울었습니다.

히브리서 12:16-17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 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히12:16-17)

에서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 죄 사함? 회개? 아니었습니다. 여기 구절을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팔았고 축복을 상실했습니다. 그 후 그는 그 축복을 다시 달라고 울었습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용서와 회개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옛날에 받지 못한 것을 지금 받으면 안 되겠냐고 우는 것이지 그는 회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은 물론 자신의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크나큰 손해(damage)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억울하고 속상해서 울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실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손에 있는 그것을 선한 뜻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리라.

주님, 제가 여기 헌물을 가져왔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닌데요.

그렇다면 나는 그 헌물을 원하지 않는다.

주님, 여기 나의 희생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희생물을 바치고 나면 나에게 순종하겠느냐?

아닌데요.

그렇다면 떠나라.

주님, 제 눈물을 보십시오.

너는 나를 섬기기를 원하느냐?

아닌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나에게 왔느냐?

제가 보니까 임신한 것 같은데 임신하고 싶지 않거든요. 제발 임신 안 되게 해 주세요.

제가 회사에서 도둑질을 했는데 감사가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안 잡히게 해 주세요.

저는 그냥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댔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그 사람 돈을 사취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네요. 제발 남편이 떠나지 않게 해 주세요. 저는 돈도 필요하고 집도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직장에서 불륜을 저질렀는데 이제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불륜 상대 여자가 제 아내에게 말하겠대요. 제발 그녀가 그런 짓을 못하게 해 주세요.

이런 쓰레기 같은 일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죄를 짓다가 들켜서 그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니까 이제 와서 하나님하고 협상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급하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듣고싶어하지 않을 말을 제가 당신께 하겠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음과 같은 제목의 옛 찬송시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당신이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구원받을 까요? 아니지요. (어떤 사람이 간증하기를, 한 시간 동안 눈물 콧물을 흘렸는데 제가 보기에 자기감정에 운 것이지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았

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눈물 콧물 흘린 것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고백이 당신을 구원하지는 않는다. 성경 잠언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진술되어있습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공휼을 얻으리라.”(잠28:13)

탕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돼지우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가야지.” 그러나 그는 여전히 돼지우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 더럽고 수치스러운 장소를 떠나서 고향을 향해 갔을 때 비로소 그의 회개는 유효했습니다.

말라기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 상당히 진지한 모습을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이 가고 있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종교행위는 다 무효라고 선언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아니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것입니까?”라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어째서입니까? / Yet ye say, Wherefore?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이런 말을 들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라고 말은 했지요. 그리고 헌물도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행실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자 아주 이해 못 하겠다는 표정으로 말라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서로가 응시하면서 수군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잔머리를 굴려봤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잖아, 그러면 된 것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죄송하다고 말한 그 일을 또 하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헌물을 받지 않으시는지를 물었고, 그에 대해서 말라기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된 까닭이니이까? 하는 도다.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네가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네가 그녀를 대적하며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네 짝이요 네 언약의 아내니라.”(말2:14)

아마 이 세상에 이혼과 재혼에 관련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또한 그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사람들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혼과 재혼에 대해 많은 견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방법이라든가 침례를 받는 방식, 믿는 자들의 구원에 대한 보장에 대한 것 등처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관련 구절들을 수도 없이 읽었음에도 다양한 견해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과 재혼에 대한 견해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혼과 재혼에 대해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혼과 재혼에 대한 논란들이 있지만 그것은 성경이 무어라 말씀하시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바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이 문제 되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 자체는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포함한 몇몇 화제에 관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화제의 당사자들의 견해를 존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이나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한다면,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호하거나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결정지어야 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혼에 관한 하나님의 견해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혼에 대해 하나님은 반대의 뜻을 가지고 계시지만 어느 선에서까지 이해하고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가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갈망을 충족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지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라기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남녀 각각 한 사람씩 이혼을 위해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이 이혼법정에 나와 있는 이유는 고소한 자와 기소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된 자가 자신의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누군가가 이 사건의 명확한 증언자로 나서서 증언해 준다면 쉽게 밝혀지겠지요. 놀랍게도 이 법정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증언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쪽의 증인이 아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으시고 공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반대 증언을 하기 위해서 남편의 편을 들지도 않으시고 남편에게 반대 증언을 하기 위해서 아내 편을 들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중앙에 서 계시고 진리를 선언하실 뿐이지요.

이 단어가 창세기 20:1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여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거하며 그랄에 머물렀더라.**”(창20:1) 이 성경 구절에서 보니 한 도시가 이 쪽에 있고 또 한 도시가 저 쪽에 있는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31:48에서 주님께서서는 재판할 때에 이와 같은 위치에 앉아 계

신다고 합니다. 라반이 말하기를, “이 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되느니라,…”(창31:48) 그리고 49절에서 그는 덧붙이기를,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주께서 너와 나 사이에 살펴보시기를 원하노니”(창31:49)라고 했습니다.

이 말라기의 성경구절에서 남녀가 서로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증언자로서 정중앙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 재판장에 나와 있는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네 청년 시절의 아내라”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젊은이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속에 숨어있는 속 뜻은 이런 것이지요. 이 커플은 상당기간 이미 결혼 생활을 지속해 왔다. 그러니까 “네 젊은 시절의 아내”라고 부르겠지요.

그들은 부부로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아주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녀의 외적인 미모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그녀의 마음은 불안감에 지배당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남자 역시 세월의 흘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자도 늙어가고는 있으나 상당한 물질적 안정을 어느 정도 확보 했고 그 결과 더 젊은 여인을 끌어들이 수 있는 위치에 올라 있습니다. 그 젊은 여인은 그의 사라져가는 자신감을 조금씩 일으켜 줄 수 있는 여인일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그의 양심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부부가 되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왔었던 생활방식도 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한 한 약속들마저도 싹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그의 아내가 요조숙녀라는 사실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처음으로 욕망이 스쳐지나갔을 때에는 상당한 죄책감을 느꼈었는데 이제는 무뎌져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은밀하게 바람을 피우던 것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불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는 수치도 거리낌도 없이, 그는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자신의 젊은 시절의 언약, 결혼 서약을 다 내 썩개치고 자신의 말을 명예롭게 지키는 것도 다 포기하고 아내와 이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 그는 자기를 도와줄 경건치 못한 변호사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혼을 응원해 주는 경건치 못한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에 대해서 세속적인 승인을 해주려고 하는 경건치 못한 판사도 찾았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자기의 죄들을 정당화하는 것을 도와줄 설교자도 발견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남편의 뜻대로 잘 되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하나님의 대언자가 들어 서서 여호와를 대신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혼소송의 당사자인 그 남녀의 정중앙에서 말라기는 그가 품고 있는 모든 계획을 다 고발합니다.

그 옆방에서는 어떻게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여기에는 수치도 모르고 죄책감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뻔뻔한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남편에게 밤낮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남편이 하는 말에 싫다고 해왔고 소리 지르면서 대들었고 입에서 독설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차라리 양젖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는 그런 악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물이 계속 떨어져 바위를 구멍 내듯) 계속 종알댔고(잠27:15) 끊임없이 남편과 다투었는데(잠25:24), 그 결과 남편이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녀가 결혼한 그 남자를 이와 같이 속임수로 대한 결과 사탄이 그 기회를 틈타도록 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1-4에서 남녀 각각 상대방의 권리를 빼앗아서 속이지 말라고 했고 기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부가 방을 따로 쓰지 말고 사탄이 기회를 타지 못하도록 경고를 합니다. 이 여자는 사탄이 틈을 타도록 기회를 제공했고 결국은 자기가

그 남편으로 하여금 집을 나가도록 원인 제공을 하고는 남편이 집을 나갔으니까 나는 이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도 잘 손질하고 화장도 예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혼 법정에서 판사가 그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녀는 극도로 겸손한 어조로 부드럽게 판사에게 답변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그녀에게 질문할 때 그녀는 아주 부드럽고 점잖게 “네 그렇습니다.” 혹은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하고 답변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여자가 그렇게 싹 바뀌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인은 이러해야 한다고 하는 하신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남편을 위해서도 아니고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 죄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스스로를 돕기 위해서, 즉 이혼을 쟁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하나님의 대언자 말라기가 등장하여 그 여인의 속에 있는 모든 음모들을 파헤쳐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 2장 문맥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 이혼 소송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결혼서약을 깨뜨리고 있는 모습을 모두다 보고 계십니다. 이 죄악 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 쇼를 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배신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남자나 여자가 결코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고 서로를 용서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사이에, 이들이 원치 않는 증인이 되어 영과 진리로 증언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말라기의 지금 본문의 내용입니다. 눈에 보이는 말라기라고 하는 대언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신하였느니라.”

저는, 지금 제가 논하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종류의 반응들을 보일 것을 알고 그 다양한 반응들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며 잘 돌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 상당수가 이혼하고 재혼하신 분들입니다. 대부분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기 전에 발생했던 일이고 혹은 이혼한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것을 배우기 전이거나 혹은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셔서 바르게 살도록 돕는 것에 대해서 무지했던 시절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다하더라도 제가 이혼과 재혼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말 할 때에, 저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참으로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혼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잔인한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아내도 이혼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제발 그런 설교 좀 하지 말라고 야단입니다. 제가 여기 이혼한 사람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이혼에 관한 곱고려운 설교는 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사람이니 마음에 조금은 상처가 되겠지요.

그럼에도 진리는 꼭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서...’ 또는 ‘그런 죄를 현재 짓고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지었던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이런 설교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죄들이 교회 안에서 더욱 만연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굳게 진리를 외치고자 서야 할 목사들이 그리하

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교회들이 철저하게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A라고 하는 형제가 동성애자 아들을 하나 두었다고 해서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는 설교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B라고 하는 자매가 술주정뱅이 딸을 두었다고 해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설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C라고 하는 형제가 아직 갚지 않은 다량의 빚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남의 것을 도둑질 해서는 안 된다는 설교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같은 이유로 R형제와 L자매 각자가 세 번씩 결혼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혼과 재혼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자,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을 죽였다면 저는 아마 제 나머지 인생을 항상 평안하지 못하게 보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은 죄입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이겠지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명성을 망치는 일을 했다면 계속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것은 한 목사가 제가 저지른 잘못을 지적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뒤로 뒤로 물러나서 미끄러져서 결국은 너무도 넓은 길로 나와 버려서, 그 결과 오늘날 누군가가 이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아내를 내버렸거나 아니면 자기의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들이 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불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가 도덕불감증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최근 50년간 미국 문화는 혼전 섹스에 대한 수치심을 없애버렸습니다. 사생아를 낳아도 창피한 줄을 모르고 간음이나 간통이나 이혼이나 낙태나 동성애나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중독이나 심지어는 옷을 서로 바꿔 입는

것(반대성의 옷을 입는 것, 여성은 남성 옷을 입거나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 행위)들에 대한 수치심도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입장을 바꾸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날 미국 국민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기로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우리 서로 관용을 베풀고 이해합시다.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을 갖고 살아갑시다.” 이런 사탄적인 구호를 내걸고서 성경적 진리의 거룩한 기초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목사들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기는커녕 그들이 타락하는데 있어 응원단장의 역할을 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짓을 하는 것도 정말 형편없이 나쁜 것인데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포용되고 있는 것은 더 나쁜 일이고 이 모든 일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대변한다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악에 대적하여 굳게 서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지요. 말라기 시절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모습과 오늘날의 설교자들의 모습이 유사점이 많아 구분이 안 되는군요.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사야서 56:10-11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짓지 못하는 도다. 그들이 잠자고 눕고 줄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사56:10-11) 아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월에 어떤 목사 한 사람이 강단에서 설교를 했는데, 3월에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도망을 쳤고, 6월에 도망친 아내와 이혼을 하고, 10월에 다른 여인과 재혼한 다음에 크리스마스 즈음에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듯이 버젓이 다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더군요.

목사의 아내와 간통을 저질러 함께 도망을 쳤던 남자를 그 교회의 성도들 중 반이 따라가서 그를 도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왜 잘못이 없냐고요?

“그들은 서로 사랑했잖아.”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믿고 있잖아.”

“목사가 그 정도 한 것은 괜찮잖아?”

“도대체 우리가 뭘데 함부로 판단해?”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이와 같은 쓰레기 같은 이야기가 ‘말로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에서 떠들어 대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아주 어이없는 말되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혼과 재혼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생각은 다음 두 문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네가 그녀를 대적하며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네 짝이요 네 언약의 아내니라. / yet is she thy companion, and the wife of thy covenant.**(말2:14) 이 말은 현재시제로 되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에 나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내버릴 수도 있고 한 여자가 자기 남편을 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두 현재시제로 된 단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무리들과 혹은 율법사들이나 재판관들이 너희의 결혼을 무효화해서 너는 자유다. 이렇게 이혼을 허락해 주어도, 이혼 법정에서 그렇게 판정이 났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남자에게 그 여자는 너의 동료요, 너의 아

내”라고 선언하십니다.

‘현재시제(Is)’를 쓰셨지요. ‘Was/였다’가 아니고 ‘used to be/그랬다’가 아니고…. 그 결혼 서약이 발설되던 그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끈으로 꼭 묶어 놓으셨습니다. (스페인어의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는 ‘수갑’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묶어(bond)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결혼을 했으면 죽을때까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 결합은 다 끝났습니다.”라고 선언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녀는 여전히 그녀의 첫 남편의 동료라고 선언하십니다. 다른 여자가 차지해서는 안 되는 그 지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더라도(그녀의 남편이 재혼했더라도) 배신에 의해서 내쫓긴 그녀가 여전히 언약을 체결한 그 남자의 아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 중 많은 논쟁이 되는 그 말씀들을 상고해 봅시다. “누구든지 이혼 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마5:32) 법적으로 이혼한 여인이 만약에 두 번째 남편의 아내가 돼 버리면 그녀가 합당한 이혼서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관계를 간음의 관계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을 인정하지 않으시기에 그녀가 재혼을 하면 그녀는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다음 구절도 조심스럽게 읽어 보십시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그녀를 대적하여 간음하며 또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느니라, 하시니라.”(막10:11-12)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이 아내와 이혼을 한 다음에 다른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는 간음을 저지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간음이 되려면 한 가지 이유 밖에 없지요. 그 이혼이 합법적이지 않

음으로 그는 여전히 첫 번째 아내와 결혼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 때는 다른 여자를 받아들인 것이 당연히 간음이 되겠지요. 아니 이혼을 한 여인이 자기 자신을 두 번째 남편에게 내어 주었다면 어째서 그것이 간음이라는 유죄가 될까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교회나 어떤 종교나 어떤 율법사나 어떤 규례나 어떤 판사보다도 더 높은 권위자가 “그녀는 두 번째 남편이 아닌 여전히 첫 번째 남편의 아내”라고 규정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높은 권위자이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자인 말라기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지상에 오셨을 때에 그 예언자가 400년 전에 했던 말을 다시 반추하게 했습니다. 재혼은 간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그 첫 번째 혼인이 구속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은 이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는 분도 계시겠지요? “목사님은 제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요. “저는 그 문제에 관한한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이미 받았어요.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명한 박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분도 이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을 사용하고 계신데 무슨 말씀을 그리하셔요?”, “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이혼하고 싶어서 했나요? 상대방이 잘못했지!” 등등의 말을 하는 분도 계시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항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의 저자가 이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정확한 말씀들을 바르게 강론해야 하는 저의 의무를 실행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6:17-18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율법의 일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남편에게 버

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눅16:17-18)

이 시대는 끔찍한 도덕적 타락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신 이 분명한 말씀들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반기를 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신 바가 무슨 뜻인지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구절도 이것보다 더 분명할 수는 없습니다. 말라기를 읽어보면 모든 혼돈은 사라져버립니다. 왜 두 번째 결혼이 간음이 되느냐, 그것은 첫 번째 결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네 짝이요 네 언약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남녀가 결혼 서약을 하고 혼인관계에 들어가면 한 육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준엄한 경고와 함께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마가복음 10:7-9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막10:7-9)

즉 결혼할 때 둘이 한 육체가 되어버린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요”라는 그 말씀도 지속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 집을 샀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둘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녀들을 낳았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둘이 아닙니다. 그들이 서로 싸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러다 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이혼을 하고 판사가 이혼을 허락했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사실은 이런 외적인 환경이 바뀌었다 해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말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말2:15)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금방 우리가

인용한 진술에 동의하셨고 그것은 아담 이래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아담이 결혼하면서부터 그 결혼제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 Yet (첫번째 결합한 후에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도 심지어 이혼을 한 후에도 여전히) **그분께는 영(靈)의 여분이 있었으되 / had he the residue of the spirit**. 만약 여기에 있는 영의 여분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령님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모두가 다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견해에 동조하게 되는 셈이지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영은 사람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 말의 해석은 만약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합법적으로 결혼한 아내로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수술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수술/operation’이라는 말은 골로새서 2장의 영적할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남녀가 결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두 육체를 한 육체로 만드시는 영적 수술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합하는 데 있어서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것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관계가 되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판사나 종교사무국에서 발행한 이혼 허가증이나 판사가 사인을 한 어떤 이혼 허가 서류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신 영적인 묶음을 결코 없애거나 부인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합해 버릴 수도 있지만, 어떤 여자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자신을 내어 줄 수도 있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한 영의 여분은 남아 있습니다.(육체적으로는 그들이 갈라졌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관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의 영적 역사(operation)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 And wherefore one? 어째서 오늘

날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결혼의 묶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 That he might seek a godly seed. 가족 안에 이혼이 발생하면 어린아이들에게 해가 됩니다. 한 사회에 있어서 이혼은 그 다음 세대에 많은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나 국가라는 정부보다도 먼저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결혼제도가 분명히 서야 도덕적 질서가 잡힌 사회가 세워집니다. 평생 결혼이 지속되는 거룩함이 사라져버리면 인류의 문화는 완전히 붕괴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지역교회처럼 작은 것일 수도 있고 한 국가처럼 큰 단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든 크든 간에 결혼제도가 충분히 존중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안전하고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어떠한 공동체도 결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그토록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 / Therefore take heed to your spirit. 이 문장으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결혼 문제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에 주의하라. 부부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들은 다음과 같은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살살이 조사를 합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실패와 상대방의 결점을 확대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관계에서 빠져나갈 것인지 그것을 머릿속으로 궁리합니다. 파트너를 대체하거나 바꿔버립니다.

이혼의 단계가 이렇게 되어가지요.

세월의 시험을 잘 견디어낸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결혼 관계는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으니까요. 양 당사자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잘 깊이 있게 검토해보는 그

런 가정을 말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기의 마음 상태를 잘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에 있으며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속에 넓게 부은 바 되도록 허락하고 있는 영적상태인지 아닌지 살피십시오(롬5:5).

목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그 남자와 이혼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여자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녀의 이 답변은 갈라디아서 5장에 따르면 성령 안에서 걷고 있지 아니하고 육체 안에서 걷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언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기 때문이지요.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남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자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없습니다. 여자도 남편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기쁨은 당신과 주님과 의 올바른 관계에서만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이 땅의 그 어떤 인간도 당신이 갈망하는 그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한 여자가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라고 할 경우 그녀가 의미하는 바는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살지요.”라는 뜻입니다. 남자 쪽에서 만약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는 지금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목격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육신적이고 이기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남자들이 자기 아내들에게 화를 내고 거칠게 대하고 깔보고 무시하며 사랑을 뺏 방식으로 아내를 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도 가고 직장에도 가서는 거기서 만나는 다른 여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신사로서 항상 아주 멋지게 행동을 하지요. 이것만큼 악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에 갔는데 다른 남자의 아내에게 친절할 수 있다면 당신의 아내에게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바로 잡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아주 덩치 큰 남자들이 징징대면서 “오, 당신은 내 아내를

잘 몰라서 그래, 그 여자 정말 나를 막대하거든!”이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아내를 개보다도 더 못되게 대합니다.

‘성경의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요구할 때마다 사랑을 쟁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막무가내의 남자들이지요.

드디어 그의 못되고 거친 행동의 희생자가 된 그의 부인이 집을 싸가지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독재자 같은 남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녀가 나를 버리고 나갔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따르면 그녀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직장에서 사귀었던 그 여인과 결혼할 권리가 생긴 셈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실까요?

많은 여자들이 텔레비전 앞에 둘러앉아서 쓰레기 같은 프로그램을 들여다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출연하여 상담하는 프로그램들이 요즈음 성행합니다. 그리고 네 번씩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는 마약중독자들이 만들어낸 영화 같은 것들을 늘상 보고 지내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내용들을 계속 마음과 생각에다 집어넣다보면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순종하는 아내로 주부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남자와 사는 거야. 낭만도 없고 재미도 없거든!”

남편은 온종일 밖에 나가서 죽어라 일을 해 돈을 벌어오고 여자는 자신이 사들이는 온갖 쓰레기 같은 물품들의 값을 제대로 대지 못해 신용카드 빚만 늘어가는 상황인데도 ‘남편은 내 욕망과 필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여자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남편이 주중에 하루를 택해서 바깥으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하룻밤을 날 잡아 교회의 청년과 함께 교회 일을 섬기는 것들을 한

다고 하면 그 여자들의 불만은 두 배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매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쓰레기 같은 프로그램에 심취해 있는 자나 사회적 소통(social networking)을 통해서 서로 만나서 의견 교환이나 하는 자들은 그들이 하던 짓들을 계속하며 불뿔을 향하여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자매님은 정신 차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당신의 관심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바로하고, 징징거리는 것을 그만두고, 교회에 가서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당신 남편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당신 남편에게 계속해서 트집을 잡고 속임수로 대한다면 그는 집을 떠나거나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집을 떠나고 나면 당신은 목사인 저에게 와서 “그가 나를 버렸어요! 이제 나는 살 좀 빼고, 머리로 잘 만지고, 힘 좀 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돈 많은 남자에게 나를 사 달라고 시장에다 나를 내놓아야겠어요. 재혼해도 되겠지요? 목사님? 남편이 나를 버렸거든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신에게 회개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군요.

그러면 아마 제게 화가 나서 뽀로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당신을 격려하는 그런 여자들에게 상담하러 가겠지요. 그들은 아마 “목사도 남자라서 그래 그가 뭘 알겠어!”라고 할 겁니다.

당신은 새로운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 년쯤 지나서 아마 그 남자는 “아! 그녀와 결혼하기 전에 전남편에게 전화라도 해볼 걸”하면서 후회하겠지요.

우리 앞에 지금 놓여있는 성경구절에서 “**주님께서 네 영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therefore’라는 단어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알려주는 논지는 당신의 영이 더 이상 자유롭거나 독립적이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당신의 배우자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당신들이 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매력에 끌려서 결합하고

또 지적(知的)으로 서로 의사소통이 잘되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안에서 신비스럽게 역사하셔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둘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녀를 해치면 당신을 해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죄를 지으면 그것은 곧 당신에게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에베소서 5:28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 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엡5:28)

말라기가 전능하신 분의 아주 확실한 경고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지니라.”**(말2:15) 그런데 그 여자는 너무 천박해요. 그래도 그러지 말라. 그 여자가 얼마나 고집쟁이인데요. 그런 여자도 버려서는 안 되느니라. 그녀는 아주 제멋대로 행동한다고요. 그래도 안 되느니라. 그렇지만 우리 부부는 너무나 서로 달라가지고요. 그래도 안 되느니라.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안 되느니라. 그렇지만 저는 구원받았는데, 그녀가 저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도 안 되느니라. 그러나 이 여자는 직장에서 만난 여자인데요. 그래도 안 되느니라. 그녀가 나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래도 안 되느니라. 둘이 하나된 것을 하나님이 나누기 전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방향입니다. 그녀가 그렇다면 반대로 남자도 그렇습니다. 그가 나한테 너무 저질스럽게 행동해요. 그래도 안 되느니라. 그가 얼마나 소리를 질러 대는데요. 그래도 안 되느니라. 그는 항상 일만해요. 일벌레예요. 그래도 안 되느니라. 그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도 안 되느니라.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안 되느니라.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어요. 그래도 안 되느니라. 그런데 제

그리스도인 친구부부가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거라는데요. 그래도 안 되느니라.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 For the LORD, the God of Israel. 만약 그분께서 주님이시라면 그분의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그분께 복종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내어 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느니라. / saith that he hateth putting away 당신은 주님의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혼에 관련된 신약성경의 구절들을 놓고 수없이 많이 논쟁하고 해석해도 모두 휴지에 불과합니다. 모든 교단에 속한 학자들의 의견들을 모두 모아놓아도 다 쓸모가 없습니다.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 절대적인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없앨 수 없습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중에서 당신들이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을 해서 당신들의 삶이 불행했거나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고 인정해 주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것을 오해할 수는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무시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해하지 못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내어 버리는 것을 미워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그 이혼소송을 진행시킬 경우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짓을 미워한다.” 왜 이혼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온갖 사정들이 다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이혼 소송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어 버리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이혼 소송을 먼저 한 사람이 겪었다고 내세우는 온갖 불쾌한 마음들과 생각들의 무게를 다 달아보시기는 하나 그래도 여전히 미워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국의 전역에 걸쳐서 약 50만 명의 크리스천 목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내어 버리는 것을 미워하신다는 설교가 안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직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처해있는 영적 도덕적 상태가 정확하게 말라기 시대의 상태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노라. 사람은 자기의 폭력을 자기의 옷으로 덮느니라. / for one covereth violence with his garment, saith the LORD of hosts 폭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는 사회적 도덕적 법을 어기는 모든 행위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상해를 입히는 폭력 쪽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기 쉽지만, ‘violence’라는 어원이 ‘violate’와 똑같습니다. ‘violence’라는 단어는 율법을 어긴다는 뜻이므로 여기에 언급한 폭력은 모든 온갖 종류의 범죄를 다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어떠한 행동에 제약을 가하거나 또는 그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것들을 폭력행위 또는 범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너무 타락해서 끔찍한 범죄 정도를 저질러야 폭력적이란 용어를 사용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에서 의미한 바는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모든 행동에 대해 성경은 ‘violence’라는 용어를 씁니다.

성경에서는 한 남편이나 아내를 내어 버리는 행위도 폭력이라는 범법 행위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내어버리는 행위를 폭력적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정당화하기 위해서 별별 용어를 다 동원해서 변명해 봐야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지지 않

습니다. 그것을 그럴듯하게 꾸며 내용물을 감추어보아야 하나님께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명사, 부사, 형용사) 75번이나 사용되었는데, 최초로 사용된 때는, 노아 당시에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창6:11-13).**”에서였습니다.

이 폭력이라는 단어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으로 정의 내려져있고(신28:31, 레6:2-4, 미2:2, 욥24:2, 등), 심판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폭력이라 하며(전5:8), 이웃을 미혹시키는 것도 폭력이라고 나와 있고(잠16:29), 율법에 어긋나는 어떤 것이라도 다 폭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슥3:4). 그런데 주님께서 말라기에서 음행이라는 단어에다 이 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행위는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즉 재산을 탈취하는 것과 심판을 왜곡시키는 것, 이웃을 미혹시키는 것, 법에 어긋나는 것과 같은 범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보다도 도시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시55:9, 예7:23, 등), 그리고 술은 폭력을 더 증진 시킨다는 사실(잠4:17), 부자는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말6:12)(우리나라에서도 실컷 두들겨 패고 돈을 던져 준 부자가 있었지요.), 그리고 폭력적인 사람들은 같이 모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시86:14)(조폭의 기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나쁜 행실들은 자기의 배우자들에게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폭력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시11:5).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눅3:14). 이사야서 53:9에 예수님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두 가지 진리를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폭력적인 사람으로

부터 의인을 구출해 내실 수 있다는 사실과(삼하22:49, 시18:48) 결국 폭력을 행사하는 자는 악이 그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시140:11).

하나님께서서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반복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들의 힘과 위대함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지니라.”(말2:15)

두 번씩이나 배우자를 배신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이는 굉장히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 거듭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 가정과 교회들, 그리고 학교에서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추방되고 없습니다. 사랑만 할 줄 아시는 하나님만 있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겨우 몇 번 언급될 뿐 그들의 책 선반에서 그래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다루고 있는 책을 몇 권이라도 발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책은 거의 팔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빠 안녕하세요?”라는 책이나 팔리지 “징계하시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용감하게 미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벌벌 떨거나 징징거립니다.

그들은 달콤하고도 부드럽게 자신의 고충을 이야기하는 현대주의 목사들만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믿음을 입으로만 고백하는(성경을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절하는 교회 회원들) 자들에게 달려가서 그들과 함께

심리치료 회의(session)에나 참여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슬픈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면서 “이봐요. 제임스 형제!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번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도 성경을 믿고 있지만 성경을 적혀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생명을 파괴하고 혼을 파괴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거부감이 들게 만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저는 이런 부정적인 하나님 말고 기독교 방송국(TBN)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하나님을 원하거든요.”

여러분들!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언가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많은 것들 심지어 사람들조차도, 죄 없으시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5:6-7에서 주님은 악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笏)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시45:6-7) 영원하신 성경보다, 지옥을 향하여 가는 이 문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분들을 더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그리스도께서 악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경배가 아닌 것, 즉 우상숭배를 미워하신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4:3-5입니다. “이는 그들의 사악한 행위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들이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가서 분향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 사악한 행위를 행하여 내 분노를 일으켰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나는 일찍 일어나 나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보내며 이르기를, 오 내가 미워하

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며 또 자기들의 사악한 행위에서 돌이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지 아니하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렘44:3-5) 오늘날 목사들과 설교자들과 사제들과 주일학교 선생들과 부모들이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도, 불교도, 몰몬교도, 프로테스탄트도, 이교도들도, 마리아 숭배도 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믿음을 키우고 생명을 키우는데 있어 고귀하고 유익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모든 종교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참된 종교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종교라 할지라도 그 종교가 만약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헛된 종교 의식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마저도 가장 높으신 분은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21-22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명절날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비록 너희가 나를 위하여 번제 헌물과 너희의 음식 헌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며 너희의 살진 짐승으로 드리는 화평 헌물도 내가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암5:21-22)

당신은 성경의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당신 교회 목사가 그분을 만난 적이 있나요? 당신 교회의 설교자가 그분을 언급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너무도 현실에서 멀리 떨어져서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힌두교보다도 더 많은 신들을 신전에다 얹혀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스터 로저스도 섬기고, 캡틴 캥거루도 섬기고, Barney(플레이 보이 잡지에 나오는 바니 곶)도 섬기고, 예수도 섬기고, 산타클로스도 섬기고, 부활절 토끼도 섬기고, 마리아도 섬기고, 그리스도도 섬기고, 이의 요정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미키 마우스도 섬기고 모두 다 섬깁니다.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심지어는 프로 운동선수들도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이들이 섬기는 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

고 하는 것은 그들은 아주 멋지고 달콤한 말만 하고 누군가와도 다투지 않고 무언가 단정적인 말은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관용하는 멋진 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짓 우상숭배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속임수와 거짓맹세를 미워하신다고 말라기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속임수와 거짓 맹세는 다름 아닌 말라기 2장에 나와 있는 이혼과도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으로 자기 이웃을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속8:17)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또 다른 목록이 있는데 이번에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군요. 혹시 여러분은 어리석은 우화 중에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은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그것은 인간의 희망사항일 뿐 잠언 6:16-19에 따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 여섯 가지를 미워하시며(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미워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분께서는 진정한 의가 결핍된 분이십니까?) 참으로(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진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이는 다 사람들이지요) 사악한 상상의 피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이것도 사람들이지요)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그것도 사람이지요)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역시 사람이지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들에게 들러붙은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도 미워하시고, 살인하는 사람들도 미워하시고, 사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도 미워하시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미워하시고, 형제와 싸움을 부추기는 자도 미워하시고, 그분은 그들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랑이십니다. 완전한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한 전적인 증오를 동반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 자녀를 사랑하면 당신의 자녀를 납치하는 그 성도착자를 당연히 미워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내를 사랑하면 그녀를 겁탈하려는 짐승 같은 자를 미워할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를 사랑하신다면 그 친구의 돈을 훔치는 자를 미워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신의 목사를 사랑한다면 그 목사를 망치려고 드는 혀를 지닌 자를 미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폭력을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시11:5), 개인들도 미워하시며(말1:3), 민족들도 미워하시고(호9:15),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도 미워하십니다(렘12:8). 돈을 주고 산 거짓종교도 미워하시고(사61:8), 거짓교리를 갖고 있는 파당도 미워하십니다(계2:6).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미움을 다 놓치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부끄럽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분보다도 교인들을 더 신경쓰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군요.

말라기 2:16에 하나님은 내어버리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어버리는 것을 단지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정도도 아니고,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면, 이것이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라면, 그분의 미움의 표현은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죽기까지 강렬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미움은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제 머리로는 그것이 얼마나 큰 미움인지 도대체 상상하기가 어렵군요. 그러나 먼저 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러한 행동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제가 쓴 이 책을 읽고 있는 중이라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현재 당신에게 죄를 짓고 있는 상태거나 이제껏 죄를 지어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 서약을 어기는 것보다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가할 수 있는 더 큰 범죄는 없습니다.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 상대방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신실치 못한 배우자를 가지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의 간증은 죽음으로 배우자를 잃어버린 자들의 상태와 거의 같은 정도의 충격과 비슷합니다. 그것은 너무도 크고 심한 악입니다.

성경은 전도서 5:4-6에서 경고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네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네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네 입이 네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말며 또한 너는 천사 앞에서, 그것이 실수였노라, 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인해 분노하사 네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전5:4-6)

결혼서약을 깨뜨림으로써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그 자들은 그 일이 다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당신에게 저지른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응보를 가져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13:4에서 우리는 경고를 받습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

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히 13:4) 만약 어떤 남녀가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두려운 하나님의 위협 앞에서 이것을 그냥 넘기지 않고 잘 생각해 본다는 것은 잘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서서 쓴 뿌리를 부여잡고 복수를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을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혼과 재혼에 관해서 토론하면 항상 예외적으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외적인 경우가 어느 경우냐에 대해서는 주석을 쓰는 사람들의 숫자만큼 결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구원자께서 하신 말씀을 상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독립침례교회 협의회 규칙에 보면 구원받기 전에 이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목회자로서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마5:32)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하시니라.”(마19:9)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그녀를 대적하여 간음하며 또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느니라, 하시니라.”(막10:11-12)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눅16:18)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그러나 그녀가 떠나거든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라. 또한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전7:10-11)

이 다섯 구절을 다 보니 진지하게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동의할 만한 몇 가지가 나옵니다.

1. 이 다섯 구절 중에서 ‘음행을 제외하고’라는 표현은 딱 두 구절에만 나오는군요.
2. 주님께서는 간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음행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혼이 허락되는 조건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음행이 어디까지인지를 해석하는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3. 그런데 이 다섯 구절 그 어디에서도 재혼은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신실치 못한 배우자를 내어버릴 수도 있는,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논쟁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재혼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구절에서도 재혼을 허락하는 것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신 것이 아니신가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결혼과 관련지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단 한 번의 결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믿었다면 그 결혼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애를 쓸 것입니다.

둘째: 질서 있고 품위 있는 사회를 보전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믿는 바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속에서 두 번에 걸쳐서 예외적인 경우를 허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음행의 경우에는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음행이 결혼 전에 한 음행인지 아니면 결혼한 후에 한 음행인지에 대한 논쟁은 지금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구절에 관해 여러분들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죄(음행)를 지은 배우자를 용서하도록 허락하실까요?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또는 그 죄를 지은 배우자와 당신이 화해하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음행을 이유로 아내를 내어버릴 권리를 당신에게 주신 그분께서, 당신에게 큰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서 아내를 용서하도록 하시고 관계를 회복토록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혼이 지속되도록은 하시지는 않으실까요? 저는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증을 통해 그분의 충분한 은혜로 그리 하셨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부인의 음행으로 인해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사람 앞에서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용서해야만 합니다.”라고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저는 아내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녀의 마음을 다 파괴시켜버린 남편을 가진 여인에게 “당신은 남편을 용서해야만 합니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두 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독자 모두에게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음행이라는 범죄마저도 덮으실 수 있도록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죄와 그 어떤 해악과 그 어떤 범죄보다도 훨씬 더 권능이나 그 범위가 넓고 크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듭났다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당신에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31-32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남편이나 아내가 우리에게 죄를 졌을 경우에 이 구절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여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이런 것은 아주 우리의 마음을 극심하게 상처내지 아니하는 작은 죄들에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시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엡4:31-32)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께 지은 죄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것이 기준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배우자를 내어 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또한 당신에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도 있겠지요. 어떤 분은 제가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셔서 그러합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정말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이신 그분께서는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십니다. 그분께서 야고보서 4:4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일부가 세상을 사랑하거나 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갈망할 경우 그것은 간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중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유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엡4장).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신부로 여기시고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엡5). 이렇게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지요? 당신도 그분의 놀라운 그 은혜에 동참하시렵니까?

로마서 5:3-5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신실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아내를 가져서 겪게 되는 고통, 환난,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슬픔을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런 아내가 없다고 해서 그러한 경우에 계신 분들의 상황을 가볍게 취급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은 꺾어 보지 않아도 끔찍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경이 주장하는 것을 믿을 수 있거나 아니면 믿으려고 노력하십니까? 당신이 신뢰한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믿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서 5장은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롬5:5)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해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사실상, 로마서 5:20은 말씀하십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 안에 살아계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인격으로 내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셔서 당신에게 범죄하는 그 배우자를 용서하고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만큼 당신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는 성경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실족시키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유지시키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반대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렇지만 말이지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문제들은 놔두고, 두 가지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다른 것들을 더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부를 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셨습니다(사54).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아니하고 창녀 짓을 했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그 상하신 마음을 이야

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찌서 그녀를 내어 버릴 수밖에 없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모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행동을 그분께서 하셨습니다. 즉 그분은 다른 아내를 택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내는 여전히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지요. 아버지의 신부가 아닙니다. 그 다루기 힘든 신부의 마음을 되돌리도록 애를 쓰셔서 결국 그분의 노력은 보상을 받아서 아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결혼 관계는 영원한 화해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4:4-8의 아름다움이 탁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당황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를 만드신 이는 네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는 네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주가 너를 부르되 마치 버림받아 영이 괴로운 여인 곧 젊어서 거절당한 아내를 부르는 것 같이 하였도다. 네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아주 잠시 동안 너를 버렸으나 큰 공화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조금 진노하는 가운데 내 얼굴을 잠시 네게 숨겼으나 영존하는 친절로 네게 공화를 베풀리라. 주 네 구속자가 말하노라.”(사54:4-8)

아버지께서 직접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와 정혼하셨다는 사실을 앞서 언급했습니다(고후11). 그런데 그 신부가 처녀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정결케 하시는 피로써 그녀의 순결성을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신실하지 못했고 많은 실패를 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실한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안식하고 있는 것은 그분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내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내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수차례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이 방식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적지도자로서의 지위에 적합지 아니한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고 영적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봐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 중 다수가 말라기가 설교하고 있었던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혼을 하면 그 목사의 경력은 그것으로 종말을 고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교단을 불문하고 이혼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용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짐베이커라는 사람은 PTL ministries의 옛 책임자였는데 테미 페이라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1992년에 끝장이 나더니만 재혼했고,

존해기라는 사람은 산 안토니아의 코너스톤 교회의 목사였는데 1975년에 첫 번째 결혼이 끝장나고 다음해에 재혼했고,

노엘존스라는 사람은 로스앤젤리스 근처의 레퓨즈 도시 교회의 목사였는데 1990년대에 이혼을 했고 지금은 싱글로 남아 있습니다.

클라렌스맥클랜던이라는 사람은 남부 캘리포니아의 한 원로 목사인데 2000년에 16년 동안 함께 결혼생활을 한 부인과 이혼하고 재혼했습니다.

조이스메이어라는 사람은 조이스 메이어라는 선교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1966년에 첫 남편과 이혼하고 1967년에 재혼했습니다.

로버트A 술러라고 하는 사람은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수정교회의 원로 목사인데 1984년에 이혼하고 같은 해에 재혼했습니다.

찰리스스탠리라는 사람은 애틀란타의 제일침례교회의 원로 목사인데 2000년에 44년 동안 함께 결혼 생활했던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싱글로 남아 있습니다.

로버트틸톤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세계로 뻗어가는 중앙 교회의 말씀의 전 책임자인데 두 번 이혼하고 재혼했습니다.

리차드로버츠는 자기 아버지 오렐 로버츠를 대신해서 사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아내와 이혼한 후에 자기 아버지가 세운 오렐 로버츠 대학교 여학생과 재혼했습니다.

제가 언급한 위의 모든 분들이 다 성경적 참된 복음 사역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독교계 유명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혼과 재혼을 많이들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혼이나 이혼과 상관없이 계속된 사역들을 통해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교단에 속해서 교제를 하든지 슬프게도 정말 영적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말라기 시대와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약간의 분량을 더 할애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의 스태프들 중 많은 이가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편지나 전화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질문에 다 답변을 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이제껏 우리가 보고 들은 것보다도 뭔가 더 덧붙여진 것들이 자꾸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째, 제 생각에는 그의 배우자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전적으로 그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는 그의 생애의 나머지를 상대방의 배신 때문에 범죄자로 낙인 찍힐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제 의견으로는 한 여인이 상대방의 범죄와 범법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이혼한 경우라고 한다면, 역시 그녀가 그녀의 남은 인생 전부에서 죄인으로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죄 때문에 상대방이 범죄인 취급을 받아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친구약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과 계명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전적으로 배우자의 불법 때문에 내버림을 당한 여인이나 남편이라면 속박에 묶여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자, 줄을 잘 치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전적으로 완전히 상대방 때문에, 유일하게 그것이 이유일 때, 본인은 이혼할 사유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임을 이해하십시오.

물론 저는 구원받기 전에 범한 죄들도 똑같은 죄이고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 죄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기 전에 이혼도 하고 낙태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죄인 줄을 그때는 몰랐겠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이혼한 것은 괜찮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그의 자녀들이 태어났다면 그가 거듭난 후에도 그 아이들은 그의 자녀들이지 않을까?

제 생각에 어떤 사람이 재혼을 한 후에 거듭났고 자신의 범죄를 깨닫고 나서 재혼한 부인을 내버리고 첫 번째 부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기 전에 했던 잘못들 중 고쳐야 하고 고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갚지 않았는데 그것을 갚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결코 바로 잡을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두 번째 아내와 이혼하고 첫 번째 부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 이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오류를 범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으려고 시도한다는 마지막 성경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죄를 옷으로 덮으려고 하는 시도는 첫 번째 죄인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그

의 아내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요. 그들은 무화과나무의 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어서 그들의 죄를 덮으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모든 비슷한 시도들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실패해 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부터 우리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것이지요. 그분은 하늘에 있는 왕좌에서도 인간의 마음 속 깊은 곳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옷 조각으로 덮는다면 우리의 범죄를 그분의 지켜봄으로부터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빛을 어둡게 한다거나 우리를 위장하고 이름을 다른 가명으로 고쳐 쓴다든가 어디로 이사하여 숨어버린다고든, 이런 짓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의 눈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그 덮는 옷이 무엇이든 간에 거룩하신 분께서 그분의 눈을 우리의 위에 두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동마저도 더러운 누더기가 됩니다(사64:6).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가 더럽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을 선행으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덮으려고 하는 선한 행동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에덴동산에 덮개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이 원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발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죄 없는 양의 피를 흘림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숨을 곳도 없고 그의 잘못을 덮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는데 그가 대적하여 죄를 저지른 그 하나님 손에 의해서 덮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발견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분의 은혜가 당신을 더 놀랍게 만들고 그의 긍휼이 당신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현물로 바침으로써 덮개를 마련하여 당신에게 제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렇게 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전해진 가장 위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벧전4:8).

이 단원을 마무리 하면서 위에서 언급된 ‘배반’이라는 단어에 대해 잠깐 생각해 봅시다. 기만하는, 속이는, 또 배신하는... 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만 발견되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신뢰하였으나 그 사람에게 아주 심한 잘못된 대우를 받는 경우로,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신을 당한 사람들이 신음하며 고통스러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타격이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곳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이 불쌍한 외침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혹독한 환상 계시가 내게 밝히 드러났나니 이르시되,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노략하는 자가 노략하는도다.**...”(사21:2) “**땅의 맨 끝 지역에 서부터 나오는 노래가 우리에게 들렸으니 곧 의로우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노래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나의 쇠약함이며, 나의 쇠약함이며,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하는 자들이 배신하였고 참으로 배신하는 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하였느니라.**”(사24:16)

“**오 내가 광야에서 여행자들이 묵을 곳을 얻어 내 백성을 버려두고 그들을 떠나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들이요, 배신한 자들의 모임이로다.**”(렘9:2)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백성들의 꼴도 보기가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밤에 심히 울때 그녀의 눈물이 뺨에 흐르는도다. 그녀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녀를 위로하는 자가 그녀에게 없으며 그녀의 모든 친구들도 그녀를 배반하고 그녀의 원수가 되었도다.**”(애1:2)

자, 이 문맥에서 배신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한 여인이 자기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지원을 받고 보호를 받기를 기대했는데 그의 서약이 신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한 여자는 자기를 위해서 열

심히 일하고 그녀와 그녀의 모든 복지를 위해서 애를 썼던 그 신실한 남자
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고 아주 악한 구혼자를 찾아서 그 남자를 버렸습니
다. 이와 같은 행동을 하나님께서 배신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의 신부인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 그분이 겪었던 그 엄청난 괴로움과 상한 마음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녀가 이 모든 일을 행한 뒤에 내가 말하기를, 너는 내게로 돌아오
라, 하였으나 그녀는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타락한 이스라엘이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간음을
행하였을 때에 내가 그것들로 인해 그녀를 버리고 그녀에게 이혼 증서
를 주었으나 그럼에도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또한 창녀 짓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녀가 자기의 행
음을 가볍게 여겼으므로 그 땅을 더럽히고 돌과 나무줄기와 간음하였거
늘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가 온 마음으로 내
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단지 거짓으로 돌아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타락한 이스라엘은 배신한 유다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 하였느니라.”(렘3:7-11)

“오 이스라엘의 집아, 마치 아내가 분명히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떠
나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배신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렘3:20)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
니라.”(렘5:11)

말라기처럼 스바냐도 역시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
난을 합니다. “그녀의 대언자들은 경솔하고 배신하는 자들이요, 그녀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침해한 자들이로다.”(습3:4)

그 백성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같이 언약을 어기며 거
기서 나를 대적하고 배신하였도다.”(호6:7) “그들이 주를 대적하며 배
신하였도다. 그들이 낯선 자녀들을 낳았으니 이제 한 달이 그들과 그들

의 뭇을 삼키리라.”(호5:7)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들 거짓 영적 지도자들 즉 그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이 해를 끼친 자들을 다 끌어내리실 날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럼에도 내가 주의 심판들에 대하여 주께 아뢰고자 하오니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니이까? 어찌하여 크게 배신하는 자들이 다 행복하니이까?”(렘12:1) “심지어 네 형제들과 네 아버지의 집도 너를 배신하고 참으로 그들이 무리를 불러 네 뒤를 따르게 하였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들을 믿지 말지니라.”(렘12:6)

하나님께서서는 긍휼이 많으시며 그분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분께서는 기록하시고 의로우십니다. 하박국 1:13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합1:13)

말라기에 따르면 때가 오리라 하였는데 실제로 때가 왔으며, 역사가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듯이 때가 올 것이며, 모든 대언자들이 예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충에 대해서 두려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제 8 부 주를 지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2:17)

“너희가 너희 말로 주를 지치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분을 지치게 하였느냐?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눈앞에서 선한 자며 그분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거나 혹은 이르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말2:17)

말라기라고 하는 책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몇 가지 아주 희망차고 즐거운 진리들을 전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나쁜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말라기 강해 제 2장은 대언자가 백성들을 꾸짖는 상황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자신들이 절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어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使者)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분을 지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33:3에 “**너희는 나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전화기를 아예 끊어버리고 그들의 음성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역을 일삼는 자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 그들의 하나님을 그토록 진노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대언자(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데)를 몰아세우는데 그것은 간접적으로 그 대언자를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어떻게 네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었다고 말하느냐?”라며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 의를 가지고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감히 네가 그런 말을 하느냐? 감히 네가 무슨 근거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무례하고 증오에 찬 선언을 한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대언자에게 대들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

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아주 크고 또렷한 바, BC 400년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오늘날 우리에게나 똑같은 삼중외침이 들려옵니다.

1. 너희가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눈앞에서 선하다.
2. 너희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3. 너희가 말하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세 가지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신문과 내용이 거의 똑같군요. 오래 전에 말라기에게 항의했던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날 죄인들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시간이 3000년이나 흘렀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다니, 오늘날의 현대주의자들이든 자유주의자들이든 인문주의자들이든 그들은 한참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셈이네요. 나아진 것이 없으니 말이에요.

악을 선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아주 나쁜 일이지요. 그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더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잘못들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선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그분께 이것이 얼마나 불쾌한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들이 동성애자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나면 그녀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음행을 저지르는 십대들이 사생아를 낳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생아를 낳은 행위에 대해 그것이 성경적인 용어로 음행이라고 하면 화를 냅니다. 또 죄악가운데 살고 있는 십대들에게 그들이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셨다면서 거짓말로 위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당시의 여론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

마나 경건치 못한 일인지를 말하는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하는 자뿐이었습니다. 그 밖의 나머지 사람들은 죄인들도 의로운 사람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이런 사실이 당신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미국의 여러 가지 상태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무슬림들이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 경찰 그리고 시민들에게 폭탄으로 테러를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목사가 설교 중에 이슬람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목사는 아주 중요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극단적인 성직자로 낙인찍히며 비그리스도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를 받습니다. 이렇듯 폭탄 테러범들은 용서를 받게 되고 그것을 항변하는 목사는 극단주의자라고 비난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위에 서 있는 목사가 그 간음을 저지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는데, 목사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보이지 못했다면서 함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개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만큼 죄인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여 외치게 되면, 언론과 교회들과 사람들이 다 한패가 되어서 그와 같은 당신의 목소리에 대해서 항변하면서 당신이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은 속이 좁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견해이고, 교회 일치 운동이야말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준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마약밀매 거래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지 않고 술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나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내어 쫓지 않고 용납하지만, 성경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세상에서는 술주정뱅이나 매춘하는 자, 결혼을 세 번이나 하는 자들,

마약중독이나 담배, 술에 빠져 사는 자들, 아주 거칠고 더러운 입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주께서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며(삼상15:22), 자기 길에서 곧바른 자들을 기뻐하시며(잠11:20), 기도할 때 곧바르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잠15:8),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렘9:24).

성경 말씀을 어기며 쓰레기 같은 삶을 살면서 수치스러운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들은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목사들이 그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미치광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모든 패역한 자들이 “심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즉 판단 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말라.”라는 구절을 아무 때나 잘 인용을 하지만, “죄의 삯은 사망이라.”라는 구절은 전혀 인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해 온 세상이 지금 사악함 가운데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단지 사랑일 뿐이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그러한 교리를 제시하는 사악한 자들과 미혹시키는 자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에 간섭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신론자(理神論者) 또는 유신론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때 이 지상에 있는 일들에 관심을 가졌던 그분께서 지금은 딴 일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엘리야 시절에 바알 숭배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지요. 응답이 없는 그들의 신을 조

롱하면서 “야, 너희 신들은 아마 여행을 갔나보다! 아니면 누구를 쫓아다니는가 보군? 아니면 무슨 다른 일로 바쁘거나, 잠이 들었거나... .그래서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는 귀찮아서 관심도 없는가 보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자 놀랍게도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에 대해 이러한 이교도적인 견해를 채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관심이 있어? 아담에게도 물어보자. 가인에게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소돔 사람들에게도, 고라에게도 물어보고, 다윗에게도 물어보고, 아합과 이세벨에게도 한번 물어보자. 유다에게도 물어보고 헤롯에게도 물어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물어보자. 그리고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그 부자에게도 한번 가서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당연히,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말라기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잘못된 거짓 기준에 너무나 오랫동안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스스로의 신이다. 결국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융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취해서 인간에게 주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휴머니즘사상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승인하는 인장을 찍었다라고 가르치는 종교적인 왜곡에 대해서 말라기와 같이 크게 저항하는 외침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경고를 해 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지고 인간의 도덕과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치해 버리면 당신은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입니다. 물론 그 기준이 좋은 기준일 수도 있고 높은 기준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것

은 인간의 기준일 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인간의 의의 기준으로 대체해 버리면, 인간이 걸어가는 코스는 당연히 악을 저지르는 것이기에 당신 또한 부패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악을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고는, 하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들을 받아들이고 승인해 주신다고 여기게 됩니다.

오늘날 운동경기에 힘을 내라고 응원하는 여자들(cheerleader)이나 가수나 댄서들이 육욕으로 가득 차 있는 대중 앞에서 거의 벌거벗은 채로 아주 묘한 자세를 취하면서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 다닙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에게 사람들에게 내보일 멋진 아름다운 몸매를 주신 것에 대해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당신에게 농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어머니라고 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자기 딸에게 피임약을 주며 내보내기 전에 딸과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도와주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안전하게 섹스를 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것도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말하는 것이지요. 물질 하나도 치유할 수 없는 목사가 몇몇 멍청한 사람들을 땅에 밀쳐 눕히고서는 “자, 박수 치시다. 치유 받았다고 소리치면서 박수 치세요.”라고 외치고는 그들에게 돈을 받아서 산 BMW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벌하시진 않을 거야.’라고 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상법 11장에 나온 ‘파산이 아니다.(It is not Chapter 11 bankruptcy)’를 악용해서 돈은 뒤로 다 빼돌리고 파산한 것처럼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It is not Section 8 housing.’도 술수를 써서

손해를 피해 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사생아는 사랑스러운 아이가 아니고 불법의 열매입니다.

치어리더들이 경기장에서 대중 앞에서 추는 춤은 음행입니다. 불륜은 사랑이 아니고 간음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가련한 자가 아니라 술주정뱅이일 뿐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악을 선이라고 부르기를 그만 두십시오. 그 누군가가 괜찮다 좋다 해서 그것이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라기 2:17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들의 짓거리들을 지쳐 계십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들이 말라기 시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도 계속 행해질 것이나,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의의 기준을 강요하시고 그분이 선포하는 그 강령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당신의 종교를 나한테 강요해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지 않은 것 같소? 내 목구멍에다가 당신의 믿음을 쑤셔 넣어야 하는 일이 옳은 일이오?” 이렇게 복음전하는 자들에게 빈정듭니다. 글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분의 권능과 권위를 행사하셔서 그분의 종교와 의의 기준을 당신에게 강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하더라도 봐주시지 않으시겠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무조건 행복하기만을 원하신다니까!”라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분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라기와 그의 본을 따르는 자들이 듣게 되는, 그들을 모독하는 말들은 다음 몇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말은 가장 사탄적인 자들이 이 땅을

더럽히는 데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지만 여자처럼 드레스를 입고 성경을 부인하면서 진리를 대적하고 혼들을 파괴시켰던 유명한 수정 교회의 로버트 술러라고 하는 목사가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로버트 술러가 이야기한 것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기독교라고 하는 것발 아래에서 시행되는 것들에 그 어떤 유익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복음사업에 있어서 비생산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전략차원에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고 죄악이 가득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 주려고 시도하는데, 이 전략은 굉장히 거칠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이것은 기독교라는 이름하에 인간에게 행해지는 가장 파괴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로버트 술러의 주장은 인간에게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그대로 말해 주는 것은 기독교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복음전파에 있어서도 아주 비생산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죄 이야기를 해 주면 안 되고 사람들의 비참한 타락한 상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술러는 교회에서 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 사람을 끌어 모아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죄라는 단어를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

그의 말을 우리가 꼭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를 말하면서 로버트 술러와 비슷한 입장과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 로버트 술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이 사람이 휴머니스트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표현은 자기 스스로를 권위의 자리로 드높이는 행태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언자들은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대언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무어라 말했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배교한 목사들은 무어라고 말을 합니까? “제 생각에는 말씀입니다.” 혹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분석을 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인격을 공격한다.”라며 탄식합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나쁘다.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밤낮 공격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알게 됩니다. 그는 아담은 동정하면서 그리스도는 대적합니다. 타락한 인간을 동정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의견을 동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을 표명했지요.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성품은 파산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은 불법 가운데 잉태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시51:5). 인간은 태어나 자마자 올바르게 가지 않고 빗나갔다고 말씀하시지요(시58:3). 그것은 마치 감각을 모르는 양과 같이 빗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사53:6),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롬7:24-28)고 말씀하시고, 최상의 상태에 있더라도 인간은 결국 헛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시39:5, 62:9).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우리 시대의 목사들은 타락한 인간의 그 병적인 교만을 옹호하기를 원하고 악을 하나님의 눈에 선하다고 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생산적이라고 하는 용어와 사업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복음을 생산 활동과 사업에 연관을 시켰는데 이 사람은 사람의 혼을 물건 취급하여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복음을 사업이나 생산 활동으로 여겨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이 목적인 사람입니다. 이러한 유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다가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그들의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하려는 복음은 딱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한 타락한 자가 또 다른 타락한 자를 설득해서 그의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소를 짓고 계신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러한 거짓 복음을 들은 자는 자신의 양심을 인두로 완전히 지저준 그 사람에게 아주 좋은 설교 들었다며 돈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괜찮다. 그 정도는 죄도 아니고 다 용서 받는다.”라고 말하며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죄책감을 없애주고 결국은 자신의 금고는 불리는 장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참된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를 아주 잔인하고 비생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비생산적이라고 한 것이 자기가 소득을 올리는 데 있어서 비생산적이라는 말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제대로 말한 셈이 됩니다. 그 사람은 복음 전한답시고 돈을 벌어야하는데 그런 식의 복음을 전하면 돈을 벌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인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가 비생산적이란 말을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 보아야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야기했다면 그는 명칭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동일한 복음을 사도행전 2장에서 전했는데 수천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먹혀 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주 잘 역사해서 몇 달도 되지 않아 만 명의 사람이 구원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나서 얼마 있다가 다소 사람 사울도 구원받았고, 이디오피아의 내시도 구원 받았고, 이탈리아 출신의 고넬료도 구원받았습니다. 그 복음전파로 인해서 유대지방이 완전히 뒤흔들렸습니다. 로마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와 고린도와 데살로니가 지역도 그 복음의 물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복음의 원수들이 이 복음전파로 인해서 그 세상이 완전히 뒤집

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복음은 폭발적이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생산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로버트 솔러라고 하는 사람은 “유익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신이 자기 나라 즉 기독교적인 기초 위에 부(富)를 쌓은 미국에서 풍요로움을 마음껏 향유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말한다는 것이 “복음전파가 아무런 이익을 가져온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오히려 그가 말하는 “이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물로 뒤덮여있는 회교도 지역과 불교 지역과 시크교도 지역과 힌두교도 지역에 가면 해당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산업이 발전하고 부가 창출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검은 대륙에서 비취는 빛이라고 해봐야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간 그 선교지에서 흘러나오는 빛 뿐, 그 이외의 지역은 캄캄한 것이 현실입니다. 복음이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기꾼(로버트 솔러)은 주장하기를, 기독교의 전략은 죄로 가득 차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실 그대로를 알려주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전략이기에 자신은 이 전략을 확고하게 거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그는 답변하기를 “나는 크리스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교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한번 물어 보십시오. 그는 “그것은 아주 거칠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님이 아닙니다. 그는 부활하신 그분을 꾸짖으면서 부패한 인간은 드높입니다. 이 자는 속이는 자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혼들이 그가 주장한 자기애(自己愛), 즉 자기를 사랑하라는 주장을 따르고 있고 성경을 반대하는 입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적하여서 말을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파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

2:17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일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당신의 죄들을 다 버린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이 주님과 동행하도록 허락하시며 그분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죄 문제를 다루지 아니한다면 지금은 물론이고 영원히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를 지배하는 마귀의 설교자들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는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은 죄인이다. 왜냐하면 당신 보고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제 말을 잘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 뒤에다가 온갖 직함들을 잔뜩 붙이고 나서(박사님, 원장님, 총회장님, 당회장님, 이사장님, 총장님... 등등) 한다는 소리가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파괴적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당신은 그런 목사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정죄해 버릴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사악한 길들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도 정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2:48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요12:48)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게는 심판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

하고 조롱합니다. 그 말씀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 고칩니다. 이런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공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자신들의 도덕과 자신들의 의의 기준과 자신들의 철학 사상으로 대체시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대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들을 뒤따르지 마십시오. 그들을 뒤따른다면 그들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이마 위에 표를 하나 붙여주시고 아무도 그에게 복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담과 아담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켰을 때 주께서는 온 인류를 정죄하셨습니다. 이 일을 잘 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공물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의(義)의 기준에 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심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물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저는 그들이 하는 헛된 정죄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이들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 마을을 오래 전에 떠나셨다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정죄하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은 벌써 백 년 동안이나 우리 신학교에서 자취를 감추었지.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교회 같은 대형교회에선 환영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불뭇을 예비해 놓은 그런 하나님은 우리 같이 세련된 회중들에게는 이미 낡은 구식일 뿐이야. 징계의 막대기를 들고 있다는 그런 스타일의 하나님은 이미 퇴물이야. 그건 아주 원시적인 근본주의에 불과하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갖고 있지 않지.”라는 말이 그들이 하는 자랑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언젠가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산자와 죽을 자를 심판하실 때를 기다리시면서 지금 하늘의 영광스러운 왕

좌에 앉아 계십니다. 지식의 말씀들로부터 당신을 빗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가르침을 듣기를 당장 중단하지 않는다면(잠19:27), 당신의 사악한 길들로부터 돌아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부활하신 그분께 당신의 믿음과 신뢰를 두지 아니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이 예비한 지옥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며, 불뭇의 고뇌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당신에게 생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그런 일이 생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구원받으십시오.

에스겔서 8:12의 말씀들을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아, 이스라엘의 집 원로들이 어두운 곳에서 저마다 자기 형상을 둔 방들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그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겔8:12)

3000년 전에도 현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존재했군요. 그리고 에스겔서 9:9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의 불법이 심히 크고 그 땅이 피로 가득하며 그 도시는 사악함으로 가득하니(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 거룩한 도시가 패역한 도시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 땅을 버리셨으며 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을 잘 들어 보십시오. 이 사회에서 타락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도덕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지고 인간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아주 명쾌하고 직설적인 하나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지요, 그분은 당신의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당신

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밤에 마음껏 길거리를 활보할 수 없는 이유는 강대 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서는 사악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심판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최악된 육체의 모든 욕정들을 스스로 억제하고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회는 살인, 강간, 절도, 외설(猥褻), 낙태, 근친상간, 아동학대, 도둑질 등을 하는 사람들과 복지기금을 받아먹으며 뇌물이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다른 모든 악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정당만 바뀌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찾기 전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치만 잘하면 이런 문제들은 다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45,000개가 넘는 시민단체들과 도덕을 함양시키자고 외치고 의를 드높이려고 해 봐야 결국은 세금을 더 올리고 교도소를 좀 더 짓자는 말밖에 안 나올 것입니다.

도덕은 인간의 가치입니다. 도덕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도덕을 어겼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영원히 지속적인 대가를 치르는 않습니다. 반면에 전능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면 그것이 영원한 고통을 가져올 것입니다. 죄를 재갈 물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기를 거부한다면 사악함과 패역함이라고 하는 홍수의 물결로부터 그들의 땅을 결코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고하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제 9 부 성경 번개에 대하여(말3:1)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하리로다.”
(말3:1)

말라기 3장 본문에 대해서 평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앞서 이야기했던 죄의 가장 중요한 예를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하려고 하는 시도는 아주 비정하기까지 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들의 소경인 인도자들이 제시한 거짓말을 마음에 품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세속적인 대학교(기독교 학교가 아니라 일반 대학교)에서 무신론자들과 자유주의적인 교수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지상 그 어느 곳에서도 오류가 없는 성경의 본문은 없다.” 이렇게 다 오류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학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좀 올바른 답이라도 들어 보려고 하면, 세속적인 일반 대학교에서와 똑같은 내용들이 신학교 교수의 강대상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세속적인 대학교수들)과 하나님의 대변인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신학대학교 교수나 목사)의 유일한 차이점은, 세속적인 일반 대학교 교수들은 “이 세상에는 단 한 번도 완전한 성경이 존재해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신학교 교수들은 “오류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성경이 단 한 번 역사에 있었지만 원본과 더불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한 성경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오류가 없는 성경을 우리 손에 들고 있다.”라고 말하

면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아주 격렬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로서 우뚝 선 완전히 정확한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진지하게 믿고 열정적으로 선언하는 바입니다.

이번 장에서 명시받고 거부당하는 킹제임스 성경의 정확성을 한 부패한 성경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책은 “성경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성경관을 가진 사람들, 즉 모하메드라든가 칼 마르크스라든가 엘톤 존 이라든가 아돌프 히틀러라든가 피터 로즈(야구선수)라든가 마릴린 먼로 같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말라기의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하리로다.”(말3:1)

마가복음 1:1을 조심스럽게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2-3절도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바,(대언자들이란 복수에 주목하십시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한 것 같이”(막1:1-3)

2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 3:1에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3절은 이사야서 40:3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 구절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사40:3)라는 말씀인데요. 권위역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은 마가복음 1:1-3에 왔을 때에 한 인용문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원천으

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는데, 한 구절(1:2)은 말라기에서 인용되었고 또 다른 구절(1:3)은 이사야서에서 인용되었기 때문에 그 구절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바”**라고 복수를 썼습니다. 이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간단한 것 같은데 어째서 그것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구절인지는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NIV(the New International Version), ASV(the American Standard Version), RSV(the Revised Standard Version), Good News For Modern Man, the Living Bible 같은 성경의 학자라는 자들이 이렇게 간단한 성경구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NIV라고 하는 성경은 마가복음 1장을 다음과 같이 해 놨네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주목하십시오. NIV는 ‘예수님에 관한(ABOUT)’이라고 썼는데 이것은 당신이 막 읽으려고 하는 복음서는 마가의 작품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줍니다. ‘예수님에 관한’이라는 구절은 마가가 예수님에 관한 무엇을 기록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the gospel of Jesus Christ)”**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이라고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지요. 이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마가의 손에 의해 기록되기는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지 마가가 창작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NIV 2-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언자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니라. 내가 너희 앞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너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 사막에서 부르는 자의 목소리가**

있으니 주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하여 길을 똑바로 하라.” 이것은 실수보다 더한 것입니다. 왜?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말라기 3:1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NIV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언자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니라. 내가 너희 앞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너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분들은 그 본문을 번역할 때에 두 군데 서로 다른 원천으로부터 인용문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열두 살 정도만 되어도,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아는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부패시키는 무지한 실수를 저지르는 대신에 마가복음 1:1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대언서들에 기록된 것처럼”이라고 복수를 썼습니다. 그 인용은 대언서 이사야로부터만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진리를 찾고 계신다면 NASV나 NIV 등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다른 역본을 찾을 이유가 없지요. 당신은 정확하고 진리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의 번역본, 즉 킹제임스 성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은 단 하나의 오류도 입증되지 않은 채 우뚝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만약 단 하나의 오류라도 있었다면 찾아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성경을 뒤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고, 우리가 완전한 성경을 갖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어쩌서 자기가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면서 NIV 성경을 팔아먹고 있단 말인가? 그 이유

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NIV는 그렇게 분명하게 오류가 많이 있는데도 왜 목사들과 복음전도자들이 NIV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경이 목수가 망치를 사용하는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이 존귀하거나 보배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아닙니다. 어찌면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도 아주 좋은 사람들, 목사들도 많던데요?” 자, 우리의 이야기는 동그라미를 그리듯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말을 하고 행동하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인간이다. 인간이 기준이라는 생각은 말라기 2장에서 인문주의 사상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NIV에 기록된 마가복음 1:1-3 같은 거짓말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런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사람이 선하고 좋은 사람입니까?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반 성경적 철학이 얼마나 깊이 우리의 사고에 침투해 있는지 아시겠지요? “...너희가 이르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눈 앞에서 선한 자며 그분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거나 혹은 이르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말 2:17하)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에 지쳐버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골적인 거짓말을 담고 있는 가짜 성경을 홀리 바이블, 거룩한 성경이라고 부르는 데 만족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현대 성경 번역본들을 인쇄하고 팔고 사고 읽으면서, 잘못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짓말과 거짓 진술들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행위는 이미 오래 전에 대언자 말라기에 의해서 고발된 인간의 타락한 마음상태를 명확하게 보여 주는 예가 될 것입니다.

제 10 부 다가오는 메시아(3:1-6)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하리로다.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전디겠느냐?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서겠느냐?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니라.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의 안에서 주에게 헌물을 드리게 하리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같이 이전 시대에서와 같이 주에게 기쁨이 되리라. 내가 심판하려고 너희에게 가까이 임하리니 곧 내가 마법사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품삯으로 품꾼을 억누르고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를 학대하며 타국인을 쫓아내어 그의 권리를 빼앗고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적할 신속한 증인이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말3:1-6)

이제부터 말라기 3장을 주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도무지 이 구절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군요. 예를 들면,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이라. 그런데 내가 보낸 그 사자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라. / Behold, I will send my messenger, and he shall prepare the way before me”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명사가 여러 개 나와 있는데, “내가(I)”도 나오고 “그(he)”도 나오고 “사자(messenger)”도 나오고 “내 앞에서”할 때 “내(me)”도 나왔는데 그 중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

까? 아 그거야 예수님은 “내(me)”가 아닙니까?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니까 예수님 앞에서 침례요한이 선두주자로 왔으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me에 해당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 맞다면 구약에서 그 사자 즉 침례인 요한을 보내고 계시는 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앞에서” 할 때 “내(me)”하고 “내가 보낼 … 것이라.” 할 때 “내가(I)”하고 똑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내는 분도 예수님이시네요 선두주자를 보내시겠다고 선포하신 그 동일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바로 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 앞에서” 할 때 “내(me)”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I)”는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그리고 “나의 사자”라고 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는데 그 사자가 길을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냐 하면, “내(me)”, 즉 “하나님(God)” 앞에서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분께서는 신약에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취할 방법은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육체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나타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결론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미가 5:2에 비슷한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헬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미5:2)

이 문장 속에서 누군가가 베들레헬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 태어날 분은 영원 전부터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53-58에 보면 또 다른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다투다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네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또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네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 하매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존귀를 돌리면 내 존귀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존귀를 돌리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라. 그럼에도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되 나는 그분을 아노니 만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아직 오십 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요 8:53-58)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정확해 보이지 않는 문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보통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라고 해야 문법에 맞는 말인데, 그분은 불타는 그 가시덤불 앞에서 모세에게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셨던 바로 그 이름을 자신에게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가 나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말해야 합니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 AM(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분이 너를 보냈다고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시기를, 자신을 ‘I AM’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Jesus said unto them,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Before Abraham was, I am.)”(요8:58) 그러자 그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하나님이라고?”라고 하며 거의 미친 듯이 흥분하여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I AM”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을 때 그들은 그분이 무엇을 주장하고 계신 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처음으로 존재하게 되신 분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2천년 전 베들레헴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을 뿐, 그분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히브리서 10:5, 7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히10:5)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며,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히10:7)

따라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고 이미 살아계셨던 “나(me)”가 마리아의 태속에 몸을 준비하였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35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네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네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눅1:35)

그런데 새로운 역본들의 번역자들은 예수님을 “것(thing)”이라고 부르는 것을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것(thing)”이라는 단어를 “거룩한 것(Holy thing)”에서 “거룩한 분(Holy one)”이라고 고쳤는데 그것은 옳지 못한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단지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된 인간 그릇일 뿐입니다. 그 마리아의 몸 안에는 인간의 거처가 하나 형성되어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하거나(고전6:16) 성막이라(고후5) 하기도 합니다. 단지 그 거룩한 것(holy thing) 안에 영원부터 계신 분이 들어가 계셨을 뿐입니다. 그분은 이미 존재했었던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셨습니다(히10:5-8).

그분이 거룩한 것(그 몸) 안에 거하기 위해 오셨을 뿐입니다. 성경은 일

관성 있게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 Behold, I will send my messenger, and he shall prepare the way before me(말3:1)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1, 2장을 통해서 살펴본 모든 것, 즉 대언자인 말라기가 꾸짖었던 모든 그들의 죄악과 꾸짖음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께 도전적으로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의 사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 사자는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오실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불신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의 성취를 확실히 지연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단 하나도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그리고 오신 후에도 고난을 받았습다. 히브리 민족이 필요 없는 고통과 고난을 수세기 동안 견뎌야 했던 것은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깨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딤후 2:13)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들로 인해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북쪽 10지파는 수세기 동안 갈대아 지방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고 남쪽에 있는 두 지파는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복되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

문에 그들은 2000년 동안이나 고통 속에서 지내야 했고 앞으로도 그들에게 최악의 상황이 닥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어둠의 날 뒤에 또 다시 태양이 떠오를 것이며 왕국은 세워질 것입니다.

“너희가 찾는 주님 / and the Lord, whom ye seek,”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이상한 문장이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구절들 중에서 말라기가 선포하고 있었던 그 대상이 되는 백성들이 주님을 찾고 있었다는 내용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며 아마 두 가지 다 맞는 내용일 것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는데 이 말씀의 문맥은 6절에 이어지는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분께서 돌아오는 그 날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실로 그분을 찾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에는 영적인 견해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고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화평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화평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찾는 것은 실제로는 주님인 셈이지요. 사람들은 사랑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따라서 그들이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은 사랑이신 그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이 되었을 때 사실로 입증됩니다. 즉 어떤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그는 자기가 평생 추구하고 갈망했던 것이 다름 아닌 그분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알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이 책을 지금 여기까지 읽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여기까지 읽어 온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못한 채 그저 대충 훑어보며 여기까지 왔다면, 아직까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에 당신의 믿음과 신뢰를 두지 못했다면 당신이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혼 깊은 곳에서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죄들을 회개하고 그분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신뢰한다면 당신의 혼이 구원을 받아 당신이 평생 찾고 갈망하던 그것들이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갑자기 자기의 성전에 오시리라. / shall suddenly come to his temple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이성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구절임이 문맥적으로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오십니까? 성전에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오신 주님은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성전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입증됩니다.

그런데 오시는 방법이 “**갑자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신약성경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내용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을 넘어선 어떤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언젠가 있을 그날에 모든 원수를 다 굴복시키시고 동쪽 문으로 들어오셔서 다윗의 왕좌위에 앉으셔서 의와 평강의 왕국을 세우시리라는 사실을 알기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교회시대의 신비는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다룸이 교회시대에는 중단되어 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예민한 사람들조차도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교회시대에 대한 계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가시던 길이 왕좌를 향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다 보니 그분의 제자들마저도 의심과 혼돈 가운데에서 그로부터 돌아서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이교도들의 속박으로부터 구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물리적인 약속들을 성취해 줄 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들을 개개인 각자로부터 제거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메시아는 기다려 본 적도 없고 갈망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부활 하신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던 두 사람의 대화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셔야 할 분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었어요. 이 모든것 외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지 오늘이 사흘째인데 말씀이죠...” 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3:1-6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 중의 일부는 초림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에 앞서 사자가 올 것이라는 예언은 침례인 요한에 관한 예언으로 초림에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내용들은 주로 재림에 관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분이 갑자기 성전에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열두 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방문하셨던 것을 이 구절의 성취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분께서 태어난 지 약 30년쯤 되었을 때 있었던 이 일을 갑작스럽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요. 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성전에 가셨던 것은 공개되고 예정되었던 일이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재림에 성취될 예언으로 그분은 언젠가 그분의 성전으로 돌아올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의 소망은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의 사전 선포가 있었고, 9개월의 임신 기간이 있었고, 은밀한 출생이 있었고, 그 때에 목자들이 그것을 도왔지요. 2년 후에 현자들이 나타났고, 이집트로 의 피난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박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되기까지 조용히 지낸 12년이라는 침묵기간이 있었으며, 양아버지인 요셉과 함께

그의 목수가게에서 18년간 일하신 시간이 있고 나서 침례인 요한이 그분의 가실 길을 미리 예고하며 선두주자로서 그는 선포하고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셨고 3년 반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초림은 갑작스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성전에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길을 걸으셨고 마을들도 걸어 다니셨고 여러 고을들도 다니셨고 이웃 마을들도 다니셨고 시골도 다니셨고 낮은 언덕들도 지나 다니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라기의 갑자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곧 언약의 사자이신 분이라. / Even the messenger of the covenant. 이 구절은 조금은 종잡을 수 없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전성으로 읽다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은 채 읽고 넘어가게 될 터인데, 사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자가 누구인지 아마 확실하게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서 1절에서 읽은 “사자를 보내리니”라고 했을 때 그 사자는 그 길을 예비하는 선두주자인 사자였습니다. 초림 때에 침례인 요한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며(마 11:14) 재림 때에는 엘리야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예언입니다.

개인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언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 쪽으로 가야합니다. 초림 때에 있었던 개인의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언약은 재림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사자는 언약과 관련된 문제와 함께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언약을 맺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전체와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대표는 노아였습니다. 또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과 언약을 체결하셨고 다윗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왕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언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 구절의 문법적 구조로 볼 때 1절에 나와 있는 그 사자와는 동일한 인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두 번째 사자는 자신의 성전 안으로 오시는 분, 그러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요한/엘리아) 그가 내 앞에서(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길을 예비하는바, 그리고 주께서(하나님의 아들)는 너희가 추구하는 분이신데 자신의 성전에 오시리니 그분은 다름 아닌 언약의 사자이신바(하나님의 아들), 너희가 그분을 기뻐 하리라.”

너희가 기뻐하는 그 언약의 사자. / whom ye delight in 이 표현은 이 성경본문 구절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있다는 점을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두 사자, 즉 앞에 나와 있는 침례인 요한이라는 사자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두 사자에 대해서 잠시 동안 기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선두주자였던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는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였느니라.”(요5:35) 그러나 이는 잠시 뿐, 그들은 침례인 요한을 결국 박해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반겼던 것도 그분께서 길들에서 또는 회당에서 그들을 치료를 하셨을 때 뿐이었습니다. 평범한 이들이 그분의 말씀을 기꺼이 들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곧 귀를 닫고 예수님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요1:11) 한때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사람을 없애소서!”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는 시저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살려주어

야 하는데 누구를 살려 줄까? 했더니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라고 했습니다. 바라바는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 대신에 살인자 바라바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재림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영원한 축복들을 그들 위에 제공해 주실 것이고 그때에 백성들은 예수님을 기뻐하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보라, 그가 오시리니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노라. / behold, he shall come, saith the LORD of hosts. 이 구절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라기의 관점에서 보면 침례인 요한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엘리야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번이나 “보라,”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3:1에는 “보라,”라는 표현이 두 번 있는데 저는 이 두 번의 표현은 초청에 있어서 부르심이 있을 후 잠시 멈추었다가 또다시 부르시는,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두 번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림은 말라기 3:1의 일부분을 성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오직 재림에만 적절하게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 But who may abide the day of his coming?(3:2) 여기에서 그분이 오신다는 것은 재림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실제로 그분이 첫 번째 오셨을 때에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견디어냈습니다. 초림 때에는 땅이 크게 흔들리는 일도 없었고 정치적인 구조의 큰 변화가 있었거나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여정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이 구절이 초림과 관련지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단 한 가지 경우일 텐데 그것은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사내아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섬뜩하고 끔찍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조그마한 지역에만 타격을 입혔던 사건임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죽인 사건이 말라

기가 지금 이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성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은 상당히 불길하고 어두운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믿는 성도들의 복된 소망이 아니며(딤후2) 우리가 기쁨의 환성을 지르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눈 깜짝할 사이(고전15)에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될(빌3) 휴거(살전4)를 언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 누가 견디겠느냐는 이 말은 아주 우리를 전율케 하는 그 어떤 것입니다. 이는 두려움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내용은 많은 사람이 약속되신 메시아께서 오시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갑자기 자신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게 될 때에는 아마 그분이 지나간 뒤에 파괴 흔적이 남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면 다윗의 왕좌 위에 앉으시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에서 전 세계적인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소망하고 있는 것은 이 땅으로부터 떠나 하늘에 가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지구)에 남아서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고 계신 내용은 ‘그분께서 갑작스럽게 이곳에 오시게 됐을 때 너희들이 견디고 남아서 이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을 해야만 되는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분의 오시는 날을 견딜 수 있으리요?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누가 서겠느냐? / But who may abide the day of his coming? and who shall stand when he appeareth? 이 두 번째 문장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미래의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헤롯이 서 있었습니다. 서기관들도 예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서 있었고 빌라도도 서 있었고 율법사들도 서 있었으며 배교자들 즉 믿음이 없어 마음이 상실한 자들도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

실 때에는 아무도 그분 앞에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불타오르는 불꽃으로 숨을 내 쉬실 때,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의 칼이(히4:12-13) 그분의 입술로부터 나오게 될 때에(계19:15), 즉 그분의 다시 오심의 광채로 인하여(살후1) 수천 명이 소멸될 것입니다(말4).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과 그분을 주님과 왕으로 모시고 있지 못한 자들은 순식간에 끊겨져 버릴 것입니다. 손을 대지 않고 깎아 낸 돌이(단2)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을 다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눅20:18).

이 대환난은 너무도 끔찍한 것으로 인류의 역사에 비견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대환난보다 더 큰 고통과 고난이 있고 사망자 수도 훨씬 더 많을 것이며 자연재앙이 일어나는 수준도 천 배 이상이나 더 강력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언자들이 대언한 주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 날이 가깝기 때문이니 곧 주의 날이 가깝기 때문이라. 그것은 구름 낀 날이요, 이교도들의 때가 되리로다.”(겔30:3)

“슬프다 그 날이여! 주의 날이 가까우며 그 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멸망같이 이르리로다.”(욥1:15)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 날이 매우 가까우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라. 이 날은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으로 인함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의 여러 햇수에 이르도록 다시는 없으리로다.”(욥2:1-2)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날이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 그것은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해 도망하다가 꿈을 만나거나 혹은 집으로 들어가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도다. 주의 날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심지어 너무 어두우므로 그 날에는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암5:18-20)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이르렀도다. 그것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니 곧 주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로다. 그 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요,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요, 성벽을 두른 도시들과 높은 망대들을 향해 나팔 소리와 경고 소리를 내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와 그들이 눈먼 자들처럼 걷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또 그들의 피는 티끌같이 쏟아지며 그들의 살은 거름같이 쏟아지리로다.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그들의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그가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신속히 제거하리라.”(습1:14-18)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 밴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살전5:2-3)

오늘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자적의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두 번째로 오실거라고 하는 성경적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왕께서 자신의 왕국을 그 모든 죄악들로부터 정결케 하셔서 결국은 의와 화평 가운데 왕국을 세우시게 될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심판하신 후에 왕국을 세우신다는 것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주의 날은 노아의 홍수 이래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단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게 될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37과 누가복음 17:36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이러했던 것처럼…이러

이러하리라.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처럼 되리라.)” 자, 그때에 어떠했나요? 수백만이 죽지 않았습니까? 주의 날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루에 수백만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그분은 폭풍과 더불어 오시는데 원자폭탄에서 일어나는 그 폭풍효과와 같은 정도의 폭풍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새까맣게 타 버릴 것이라고 나훔 2:10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14:12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밧로 설 때에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소멸될 것이요,”(스 14:12) 원자폭탄의 열기에 녹아버리듯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내리치실 끔찍한 칼 앞에 서 있을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당신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당신은 주의 날을 맞을 준비가 되어있나요? 저는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무나 기쁩니다. 제 구원 안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어질 그 진노로부터의 구출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는 그분께서 정련하는 자의 불같고 세탁공의 비누 같으시기 때문이라. / for he is like a refiner's fire, and like fullers' soap 여기에 나오는 불과 비누는 깨끗하게 하는 도구이지요. 세탁공과 관련지어서 유일하게 언급된 또 다른 성경구절은 마가복음 9:3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은 주 예수께서 변화 산에서 변형되었던 것과 관련하여 언급된 단어인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 위의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되었더라.”(막9:3)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 And he shall sit as a refiner and purifier of silver. 이 말씀은 이 세상 역사를 통

해서 개개인에 대해 주님께서 해 오신 것을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대환난의 시련은 거룩한 민족을 아주 보배로운 금속으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스가랴 1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정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죄와 부정함이 제거될 것이라고 하시며(1) 모든 우상숭배의 흔적을 다 제거할 것이며 거짓 대언자들을 다 정결케 할 것이라고(2) 하셨습니다. 이 정련하는 불로 인해서 히브리 민족의 2/3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를 망연자실하게 하지만, 그러나 스가랴 13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의 삼분의 이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삼분의 일만 그 안에 남으리라.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제하듯 그들을 정제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 이시니이다, 하리라.”(슥13:8-9)

이 놀라운 결과는 주님께서 여호사밧 골자기에 앉아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마25, 요엘3). 그날에 유대 민족은 옛 율처럼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욥23:10)

그 두려운 시간에 마음이 이미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 자들은 주님 앞에서 안전하게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 청년 세 사람이 느브갓네살을 경배하기 위해서 세운 바빌론의 그 우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하고 세상으로부터 물들기를 거부했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들은 그 대가로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졌지만, 그들은 그 불에서도 안전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들은 불로부터 전혀 해를 입지 않은 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믿는 남은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생길 터이니, 신비

의 바빌론이 온 땅을 지배하면서 그의 형상이 경배를 위하여 세워지게 될 그 날에 이와 같은 시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시련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가운데 마음이 정결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짐승의 형상 앞에 절을 하는 대신에 죽음을 택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바로 이 남은 자들, 이러한 믿음의 남자와 여자들과 함께 왕국을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돌아오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원수들을 태우시게 될 불과 관련된 진리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27-30을 보면, 사람들이 사방에서 다 소멸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찬송을 부르며 거룩하고 엄숙한 가운데 아주 기쁨에 차 있는 모습을 한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니 메시아와 함께 거룩한 산에 오르는 자들입니다.

“보라, 주의 이름이 그분의 분노로 불타오른 채 멀리서부터 오며 그 것의 엄중한 부담이 무겁도다. 그분의 입술은 격노로 가득하고 그분의 혀는 삼키는 불 같으며 그분의 숨은 넘쳐흐르는 시냇물같이 목의 중간에까지 이르러 허무함의 체로 민족들을 체질하리라. 또 그분께서 백성의 턱에 재갈을 물리사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시리라. 너희는 거룩한 의식을 지키는 밤에 행하는 것처럼 노래할 것이며 또 사람이 피리를 불면서 가되 주의 산으로 들어가 이스라엘의 능하신 이에게로 갈 때처럼 마음속으로 즐거워하리라. 주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목소리가 들리게 하시며 자신의 분노의 격노와 또 삼키는 불의 불꽃과 흠여지게 하는 것과 폭풍우와 우박과 더불어 자신의 팔로 내리치심을 보이시리라.”(사30:27-30)

말라기 3장에서 발견되는 똑같은 진리가 이사야서에도 등장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능하신 이가 말하노라. 아, 내가 내 대적들로부터 떠나 짐을 털고(제거하기 위해서)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리라. 또 내가 내 손을 네게로 돌려 네 찌꺼기를

정결하게 제거하며(정제과정) 네 모든 주석을 치워 버리고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조언자들을 처음 시작하던 때와 같이 회복하라. 그리한 뒤에야 네가, 의의 도시 신실한 도시(축복의 결과), 라 불리리라. 시온은 판단의 공의로 구속을 받으며 그녀의 회심하는 자들은 의로 구속을 받으리라.(개인이 심판을 견디고 통과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범법자들과 죄인들은 함께 멸망하고 주를 버리는 자들도 소멸되리니”(사1:24-28)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실은 그 대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제멋대로 날뛰거나 사탄이 자신의 날을 주장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인간도 아니고 사탄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심판의 날인데 그 대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교도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은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분노를 그분을 찬양하도록 사용하실 수 있으시며(시76:10) 마귀들에게 피해를 입히도록 허락하실 수 있으십니다(욥1).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정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그분께서 앞서서 감독하십니다. 그분은 이 모든 과정을 시행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확고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네 백성(이스라엘)과 네 거룩한 도시(예루살렘, 교회는 거룩한 도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에게 칠십이레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범법은 십자가에서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죄들을 끝내며(할렐루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들을 다 종식시키셨습니다.)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나는 이미 주님과 화해했음)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이 의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단9:24)

다니엘에 의해서 예언된 70주 중 한 주만이 남아있는데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주께서는 이 작업을 대환난이라고 하는 정련자의 불로써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히12:11) 야곱의 고난의 때나 뒤이어 오게 될 왕국 시대만큼 이 말씀이 정말 실감나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의 안에서 주에게 헌물을 드리게 하리라.”(말3:3)

여기에 정련하는 자가 타오르는 불로 정련하는 목적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라기 1장과 2장에서 말라기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제사장들의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살펴본 바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예언적인 이야기가 나오네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며 그의 영광의 왕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것이며 레위의 아들들을 정결케 하셔서 레위지파의 아들들이 정화된 마음으로 의로움 가운데 헌물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시대 이래로 마음의 상태에 따라 헌물이 받아들여질지 아니할지가 결정되었습니다(창4장, 히11장). 마음의 상태가 나쁘면 그 헌물도 나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제도가 회복되기 전에(겔40-48) 그 헌물을 바치는 자들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는 환란이 끝나갈 무렵 이 계획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은을 정화시키는 분처럼 앉아 있을 것입니다. / He shall sit as a refiner and purifier of silver(말3:3) 이 구절은 성경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구절이 될 것인데, 그들은 이 구절이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역할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어떤 그룹에 속해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은을 제련하는 과정

을 관찰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왜 그것을 관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은을 제련하는 과정에 대해서 상당한 호기심이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곧 그는 은을 제련하는 기술자를 자신의 그룹 사람들 앞에 불렀고, 그들 앞에서 은 제련사는 은 한 조각을 들더니 불 정중앙 위에다 올려놓고는 계속해서 열을 가했습니다. 은 제련기술자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장 뜨거운 지점에 은을 두어야 하는데 그 지점이 바로 불 중앙 이기에 은을 불의 정중앙에 두고 붙들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은 제련과정을 관찰하던 사람이 그 기술자에게 사람들이 은이 정련되는 시간 내내 불 앞에 앉아있어야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은 제련기공이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은을 붙들고 앉아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은에 눈을 고정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을 제련하는 시간이 약간이라도 더 지나면 그 은은 망쳐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은이 제련되는 시간 내내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관찰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또다시 은 제련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이 완전히 정제되었다는 그 순간을 당신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변했습니다. “오, 그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 은에서 제 모습이 비치기 시작할 때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것을 관찰하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뜨거운 장소에 우리들을 매달아 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은을 제련하시고 정련하시는 사람처럼 앉아계신다.”

오, 주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불 가운데서 지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 가운데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요,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께서는 단 한 번도 사

랑스러운 눈길을 우리로부터 떼신 적이 없으며 우리를 그 불 가운데 조금도 더 길게 놔두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우리에게서 우리 주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한 대환난의 목표입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같이 이전 시대에서와 같이 주에게 기쁨이 되리라. / Then shall the offering of Judah and Jerusalem be pleasant unto the LORD, as in the days of old, and as in former years.(말3:4)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아주 좋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9장과 역대기하 5-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자신이 받으실 만한 헌물을 불사르기 위해서 불을 보내셨습니다. 이는 그 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말라기가 부주의한 그 민족을 꾸짖을 때는, 그 시절이 이미 과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아주 올바르게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시절은 옛날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때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영적인 부흥을 맞이했던 추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슬프습니다. 하나님께 바쳤던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었는데 그것이 예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겠지요.

저는 1940년대에 미국을 휩쓸었던 위대한 부흥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위험들이 휩쓸던 시절, 엄청난 집단의 남자와 여자들이 교회에 몰려와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그 때는 단지 텐트 아래 모일 때도 있었고 가건물에서 모일 때도 있었고 오두막집 같은 곳에서 기도회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한 민족(미국)이 대공황에 의해서 겸손하게 되고 세계대전으로 인한 두려움에 떨면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숨을 곳을 발견했

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사람들의 영적인 관심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슬펐습니다. 미국의 우상이 곧 물질주의가 되어버렸고, 심지어는 목사들과 전도자들도 물질을 우상으로 여기는 시대가 도래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던 시절을 옛날 일로 되돌아 볼 수밖에 없는 처지군요. 옛날, 전에 있었던 날들, 이런 표현들은 너무나 슬픈 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서글픈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때(then)”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단어는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우리가 옛날 좋았던 시절부터 얼마나 멀리멀리 와 버렸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을 붙들고 계시며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완전히 끝장 내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 때’는 왕국 시대에 있게 될 이스라엘의 부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가와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대적하여 신속한 증인이 되리라 / And I will come near to you to judgment; and I will be a swift witness againsts(말3:5) 이 불길한 경고 속에 담겨진 부정적인 약속과 대조적으로 신약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살펴봅시다.

말라기에 보니까 이 선민은 계속해서 자신의 아버지께 죄를 지어 그분을 진노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그들에게는 두려운 무엇이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오시는 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적하는 증언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딤후1:2) 신실한 증인으로서(계1:5) 여러분을 고소하기 위해서 서신다면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날,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딤후3:16)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생명을 내려놓고(요일3:16) 보배로우신 피를 흘리셔서(벧전1:18-19) 자신의 교회로 형성될 자들을 사셨습니다(행20:28). 그분께서는 이 믿는 자들을 그분 몸 안에다 넣으시고(고전12:12, 엡5:22) 영존하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며 결코 그들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히13:5-6).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다 그들을 선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롬8:28-29).

거듭난 자들은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죄를 짓는 것은 그들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고 스스로에게도 해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짓고자 한다면 그들은 분명 죄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처럼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2:1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2:1)

저는 사람들을 속박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신실하기는 하나 두려운 옛 언약의 여러 가지 제약과 새로운 언약의 영광스러운 자유의 차이를 전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

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없으며 그 구원자에 의해서 내던져질 수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주신 약속을 잘 살피봅시다.

만약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 아버지가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그 진노 안에서 그분이 정당하게 행동하려고 하실 때에, 그분과 함께 계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정을 옹호하기 위해서 계십니다.

If-(만약 죄를 짓는다면) 꼭 죄를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지요.

Any man-(누군가가) 이 책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이 다 포함되지요.

Sin-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하지요.

We-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Have-우리가 죄를 짓기 전까지는 없었는데 죄를 지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계시지요.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계시는 분입니다.

An advocate-변호자이신데 우리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대가를 이미 치른 변호자이십니다.

With the Father-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바로 앞에 계십니다.

Jesus-하나님이며 사람이신 그분은 육체가 되셨고 완전한 사람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Christ-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범죄의 대가를 치르신 기름 부으신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The-이 정관사는 다른 자가 없이 유일한 분이라는 뜻이지요.

Righteous—유일하게 의로우신 분,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려고 오셨을 때 그 분 외에 다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지요. 그 누구도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순간이라도 어떤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구원자께서는 자신의 그 깊은 변함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죄를 지은 이 사람을 처벌할 만한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그 모든 형벌을 이미 다 완전히 치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그러셨고 사람들이 그분을 못 박을 때에도 그러셨고 무덤으로부터 걸어 나오실 때에도 그러셨으며 여전히 의로움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분의 의로움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통과 하도록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의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단 한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연속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의 연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증언은 있지만 그들을 위해 변호해 줄 변호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게는 교회를 대신하여 **끝없이 중보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의로우신 변호자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라기로 되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죄의 목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려고 너희에게 가까이 임하니 곧 내가 마법사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품삯으로 품꾼을 억누르고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를 학대하며 타국인을 쫓아내어 그의

권리를 빼앗고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적할 신속한 증인이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말3:5)

여기에 대단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 I. 마법(Sorcery)
- II. 간음
- III. 거짓 맹세
- IV. 품꾼을 학대하는 것
- V. 과부를 억압하는 것
- VI. 고아를 억압하는 것
- VII. 타국인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
- VIII.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I. 마법 :

마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술이나 악한 영들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는 것처럼 하거나 또는 악한 영들을 부리는 권능을 덧입었거나 그 권능을 이용해서 점을 치는 행위들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와(출7:11) 바빌론의 왕들도(단2:2) 그들이 신뢰하고 있었던 마법사들이 있었지요. 신약성경에도 보면 바보(Paphos 행13:13)라는 지역과 사마리아(행8)지역에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마법사들이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마법행위를 받아들인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49:9-12의 시절과 예레미야서 27:9-10 시절까지는 히브리인에게 이와 같은 미신행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라기 대언자는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마법사들을 심하게 다루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21:8에 보면 이런 마법사들은 영원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계21:8) 계시록 22:15에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계 22:15)

참으로 슬픈 일은 젊은 남녀들이 일요일 날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듣고서는 집에 가서 마법사들이나 마술을 부리는 자들이나 또는 점치는 자들을 영웅시하는 책이나 영화들을 본다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지역교회들에서 보면 젊은이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헌신은 별로 없고 혼돈만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II. 간음 : 간음은 결혼 서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sober(원래 ‘맑은 정신을 가지고’라는 뜻입니다.)를 현대 미국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않는’이라는 의미로 좁혀서 사용하고, violence는 폭력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행위가 ‘violation’입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간음이라는 단어도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한정시켜 좁은 의미로만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용어를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떤 한 사람이 간음을 저지를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1)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육체적이든 성적이든 혹은 낭만적인 어떤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모두 간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간음은 주의 말씀에 아주 명료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출20:14)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범죄는 주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혐오스럽고 사회에 너무나 큰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 아래에서는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레위기 20:10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레20:10)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은 아주 진노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간음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끔찍한 범죄를 수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지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어긴 자들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직접 이 문제를 다루시겠다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방인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 아래에서 살고 있지 않기는 하나,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간음을 죄로 여기지도 않고 이것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결국 결혼의 가장 신성한 부분을 망쳐버리는 죄악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잠언 6:32-33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명철이 부족한 자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망하게 하며 상처와 불명예를 얻고 자기의 치욕을 씻지 못하리라.”(잠6:32-33)

이 말씀은 상당히 심각한 말씀이며 모두가 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임재 아래 우리의 변호자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

하고 계신다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간증을 잃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대가로 우리의 간증을 상실하거나 우리의 가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며 우리의 명성도 잃어버릴 수 있고 기회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용서 받는다고 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이 간음을 저지른 후에 용서는 받았으나 그 대가로 자식도 죽고 전쟁도 치른 것을 들 수 있지요.)

간음으로 잠깐 어떤 스타일을 맛보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가 얼마나 길게 여파가 미칠 것인지를 생각하면 정말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2)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간음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넓은 의미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행위로 옮겨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한 갈망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기에 우리는 오류를 범할 수 없습니다. “옛 사람들이 말한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네게서 내버리라. 네 지체 중의 하나가 없어지고 네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네게 유익하니라.”(마5:27-29)

우리가 성경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진리가 숨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간음을 금하셨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행위가 아니라 간음을 저지르려고 하는 마음

에 정욕을 지닌 갈망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마음에 저지른 죄도 행위로 나타난 죄와 마찬가지로 지옥으로 그 사람을 보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분께서는 모든 종류의 포르노와 모든 외설적인 광고와 그와 같은 문학도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을 읽고 보는 것도 다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구원을 받았어도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죄가 아닌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라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마음먹는 것도 죄이므로 그러한 생각을 빨리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마음만 먹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여전히 살아있고 과부나 고아가 생기지도 않았고 당신도 감옥에 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래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입니다. 다만 그 생각에 따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죄를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간음을 저지르는 생각만으로는 부부관계를 망친 것도 아니고 자녀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것도 아니고 기독교의 명성에 누를 끼친 것도 아니기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간음을 저지르려는 생각도 간음입니다. 죄입니다. 다만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면 더 심한 죄가 되겠지요.

3)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의 간음의 정의

우리는 말라기 2장에서 이미 간음의 정의를 공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자신의 침실 안에 불러들이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것을 간음으로 간주하시는데 그것은 그 부부의 첫 번째 결혼관계가 종식된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18에서 분명

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눅16:18)

4) 우리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 깊은 상처를 받으셨을 때 사용하셨던 표현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거짓 신들이나 우상들과 연합을 했을 때 영적 간음을 저지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8-9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이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간음을 행하였을 때에 내가 그녀를 버리고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었으나 그럼에도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또한 창녀 짓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녀가 자기의 행음을 가볍게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돌과 나무줄기와 간음하였거늘”(렘3:8-9) 이처럼 나무와 돌을 신들로 만드는 행위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겔서 23:37에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간음을 행하였고 그들의 손에 피가 있으며 또 그들이 자기들의 우상들과 간음을 행하고 또 자기들이 내게 낳아 준 자기들의 아들들로 하여금 그 우상들을 위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그들이 소멸되게 하였느니라.”(겔23:37)

성경학도들이라면 신약성경에서 이 심각한 진리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4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약4:4) 따라서 성경에서는 간음이라는 죄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성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III. 거짓 맹세

맹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속적인 표현을 할 때나 저주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속적으로 속된 표현을 하신 적도 없고 저주를 하신 적도 없지만, 맹세하신 적은 있습니다(출17:16, 삿2:15, 창26:3, 히3:11,18등).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엄숙한 용어로 자신의 의도를 진술하는 것인데 자기가 말한 것을 명예를 걸고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겠다고 맹세로 말씀하셨습니다(행2:30). 그분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씨를 복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히6:13-16).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맹세하지 말라고 상당히 강력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인간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건들을 미리 내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마5:34-36, 약5:12). 그리고 내다볼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위로 옮길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할 때는 좋은 의도로 할지라도 결국 대부분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아무도 거짓맹세하지 말라고 요구하셨고 거짓맹세하는 죄는 훨씬 더 크게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 깨진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한 것이었다면 그 죄가 훨씬 더 가중됩니다. 레위기 19:12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레19:12)

“나는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과 이야기에 대해서 무언가 더 무게를 두고 권위를 더하려고 합니다. 한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더 믿으려고 하던 때도 있었지요. 과거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짓말을 옹호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 시대에 살던 말라기나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놀라운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만든다면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죄가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률제도는 주로 성경의 원칙에 의거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사람들은 자신의 손을 성경 위에 올려 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맹세를 해 왔습니다. 모세 5경에서도 몇 군데에 걸쳐서 거짓맹세하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너는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신10:20)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져서,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고 상기시켜 줘야 그것은 공허한 옛 유물이 되고 말았거나 이미 다 지나가버리고만 옛 풍습이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진실만을 말하라.”라고 해 보아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거짓맹세하는 자들을 처벌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은 처벌하실 것입니다.

IV. 품꾼을 학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고 하신 그 범죄 목록 가운데 네 번째는 ‘**품꾼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생기기 오래 전에, 노동운동이 있기 훨씬 전에, 파업이 있기 훨씬 전에, 그리고 노동부라고 하는 부서가 생기기 훨씬 전에, 정의로우신 하나님과 거룩한 성령이 있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창조되지는 않았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뛰어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 아래 훨씬 더 많은 기회와 부를 얻기도 하나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분명히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도 재산도 많이 갖게 될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데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간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꿈꾸는 이상일 뿐, 가인과 아벨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과 거짓 대언자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들이 평등한 적은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모아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다고 칩시다. 100년도 채 안 되어서 그 부를 재분배하기 전의 모습으로 똑같이 되돌아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UN에서 만여 가지가 넘는 많은 행사를 벌여도 보고, 록 콘서트를 열어서 사람들의 의식을 고취해 보겠다고 시도해 보기도 하고, 수십 년 동안 TV를 통해 인간은 평등하다고 떠들어 댔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고용자가 있고 노동자가 있습니다.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고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초기 시절 앞 몇 장에서 발견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대교회의 회원들 중에서 몇 사람이 자발적으로 실천했던 것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교회의 모든 사람이 동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운동으로, 누구든 참여해야 한다고 강요된 적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몇 달 가지 않아서 끝났을 것이고 몇 년도 안 되어서 자기 재산을 모두 내 놓고 서로 공유하자는 일은 아예 없었던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트 계급을 다 끌어내고 노동계급을 위로 높이자는 노동운동을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산을 많이 소유하거나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밑에서 노력하고 애쓰며 일하는 사

람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대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품꾼은 일정하게 정해진 기간에 어떤 일정한 일을 하도록 명령을 위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계약 기간은 하루일 수도 있고(욥14:6), 몇 년이 될 수도 있고(사16:14, 21:16), 심지어는 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 20:3-12). 그는 계약 기간이 끝날 때 받을 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욥 7:2).

하나님은 품꾼을 고용한 자가 그 노동자에게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4:15은 말씀합니다. “그의 품삷을 그가 일한 날에 주고 해가 그것 위로 지지 말게 할지니 그가 가난하므로 그 품삷에 마음을 두느니라.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주께 부르짖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까 염려하노라.”(신24:15)

레위기 19:13 역시 동일한 명령입니다. “너는 네 이웃을 속여 빼앗지 말고 강탈하지 말며 고용한 사람의 삷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라.”(레19:13)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시123:2) 시편 123:2에서도 종들은 임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합당하고 완전한 임금지불이 되지 않으면 도둑질이 되며 주님을 진노케 만드는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도 임금을 착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자가 적게 받은 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몹시 화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절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도둑질이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오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 환난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심판을 가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너희 부자들이, 너희

에게 임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 쳐서 숨겨 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약5:1-4)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만드시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고 친절하게 대접을 받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엡6:9)

부자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가치가 있고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여기고 번영을 누리며 교만으로 높아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태로부터 만드시고 복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와 같은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주인들에게 그들에게도 진짜 주인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네가 네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리는지 잘 봐 두었다가 나도 그와 같이 너를 대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골로새서 4:1의 말씀입니다.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계심을 알라.”(골4:1)

V, VI, VII.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타국인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

나머지 V, VI, VII의 세 가지의 범죄는 다 엮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과부와 아버지가 없는 자들에 대한 억압과 외국인을 정당하게 대하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고아, 과부, 타국인 이 세 그룹은 성경에서 26번이나 함

게 묶여서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무력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 국가 즉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굳이 이러한 궁핍한 혼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명령들을 하실 필요까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있는 나라들이니까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재산의 일부로 간주하던 시절들도 꽤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주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영향을 끼쳤던 문화권에서만 여자가 친절과 존중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회교도 국가나 이교도 국가들에서보다 주님의 음성이 오랫동안 들려왔던 곳들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더 높다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하실 겁니다. 이는 성경에서 남편이 죽은 여인들을 잘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비 없는 자들을 잘 돌보고 먹이라는 명령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고아들의 운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거나 노예가 되거나 범죄자로 살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이나 선교사들이 파견된 지역에 고아원이 세워졌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기독교적 진리가 남아 있는 곳이라면 배고픈 어린아이들을 어떻게든 먹이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벌임으로써 많은 이들을 죽게 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이방인들을 죽

인 것뿐이지 실제로 외국 사람이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이스라엘을 찾아왔을 때엔 항상 환영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당시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였습니다. 어떤 민족일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연합되기를 갈망하고 참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은 환영을 받았고 사랑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필요를 다 공급하고 계셨습니다. 그분께 어떤 배고픈 이민자들이 몰려온다 해도 다 먹이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빵을 보내실 수도 있었고 도시락 한 개로 5천명을 먹이실 수도 있었고 어떤 나라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민족들보다 더 처지는 민족들에게는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과부들을 소홀히 대했고 고아들은 내팽개쳤으며 외국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이 범죄가 주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시편 68:5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이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분은 자신의 거룩한 거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시68:5) 그분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너희는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어떻게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요, 내 진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들은 아버지 없는 자가 되리라.”(출22:22-24)

이 불행한 그룹의 혼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주라고 신명기는 말씀하지요. 그들은 음식과 옷을 제공 받아야 했습니다(신10:17-18). 그리고 십일조에서 모든 필요를 채움 받아야 했고(신14:28-29, 26:12-13),

칠칠절(오순절) 명절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제공 받아야 했고(신16:11-14), 수확할 때 한쪽 모퉁이는 그들 몫으로 남겨 두어야 했으며(신24:19-21), 심판 받을 때에도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다(신27:19).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규례가 다 무시당했습니다. 말라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4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2:38-40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분께서 자신의 교리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인사 받는 것과 회당의 으뜸가는 자리와 잔치의 맨 뒷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겔치레로 길게 기도하니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막12:38-40)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많은 통치자들과 종교지도자들이 과부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데 권력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데 동참했던 자들이 치러야 할 지옥이 문자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과부를 돌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전 장을 할애한 디모데전서 5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믿는 어떤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거든 그들이 그들을 구제하게 하고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라. 이것은 교회가 참 과부인 자들을 구제하게 하려 함이니라.”(딤후5:16) 디모데전서 5장의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참 과부인 과부들을 존경하라.”(딤후5:3)

말라기는 야고보서 1:27의 말씀을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약1:27)

Ⅷ.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제 우리는 말라기 1:6에서 다루었던 그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도다,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말1:6)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아주 강력하고 적절한 동기가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언가를 두려워하면 그것이 분노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루게 마련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자유주의자들이나 불신자나 대형교회를 추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그저 하나님을 사랑스러운 아빠(cuddly daddy) 정도로 여기며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를 내려주는 원천 정도로 생각하는 등 사용자 친화적으로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을 그런 정도로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을 두려움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어라고 말씀하실까요?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욥28:28)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시19:9)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행한 일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타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낸 삶은 지옥 불에서 종말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함은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시111:10) 오늘날 성경에 대해 무지한 설교자들이 스스로가 너무나 똑똑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아직도 배워야 할 필요가 있

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잠1:7)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남자나 여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셈입니다. 경배 센터에 앉아서 자신들이 입고 싶은 대로 입고 있는 사람들이나 자유주의 교회를 다니거나 로큰롤(rock and roll)이나 구경 다니는 사람들과 지적인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 우리는 교리논쟁은 싫어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교리를 강조하는 것들은 싫어하거든요. 등등” 이렇게 떠드는 자들과 지적인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성경과 하나님에 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각 있는 대화를 나누려면 무언가 알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쓰신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2:3-5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네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에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잠2:3-5) 이 말씀에 따르면,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장엄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진리와 빛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잠8:13)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뵈게 됩니다. 악을 중성화시키는 자들이나, 교만과 자기 사랑을 마치 미덕인 것처럼 자랑하고 좁은 길과 넓은 길을 구

분할 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앞선 세대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와 처녀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는 현대주의의 물결을 저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니 대부분의 기존 교단들은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상이 공격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가지 교리가 만약 땅에 완전히 떨어지게 되면 죄를 지적하는 설교나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설교는 더 이상 없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면 거듭났다고 주장은 하지만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고 자신의 삶의 방식이 조금도 바뀌지 않은 사람들로 교회들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적반하장으로 그와 같은 행동들이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도 아니라는 식으로 비판할 것입니다. 수정교회라든지, 목적이 이끄는 삶의 교회라든지, 남겨진 자들의 교회, 기적으로 치유하는 교회, 여자 목사가 이끄는 교회, 경배와 찬양을 매일 하는 대형교회라든지, 가정사역기관이라든지, 크리스천운동 팀이라든지, 댄스 운동교회 등은 미국의 변질된 기독교 운동들의 명칭들입니다. 결국 미국은 성경적 기독교의 타오르는 장작불을 다 꺼버리고, 욕심과 교만이라고 하는 우상에 미쳐 버린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잠9:10)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지금 읽은 잠언 구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헛수는 짧아지리로다.”(잠10:27) “주를 두려워함이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을 지닌 자는 흠족히 지내고 재앙으로 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잠19:23) 이 말씀에 따르면 죄가 사망을 가져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죄로부터 보호받게 되고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이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길 가운데서 걷지 못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던 골치 아픈 일들과 문제들을 피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의 두려움 속에 강한 확신이 있나니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 샘이라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잠14:26-27) 여기서 말씀하시는 강한 확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확신을 통해 자신감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확신에 찬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시다. 사탄이 쳐 놓은 올무가 결코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줍시다.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도록 합시다.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잠15:16) 부(富)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부를 획득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키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목표는 만족하고 기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만족과 기쁨은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살 때에 나오는 결과물들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이니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잠15:33) “궁핍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잠16:6) 여기에도 또 반복되어 말씀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실을 단 한 번만 말해도 그 말씀의 효력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속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은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특별히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네가 호렙에서 주 네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말을 듣게 하여 그들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며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셨으므로”(신4:10) 오늘날 성경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이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없는 사람들이 결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로 걷도록 가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사실을 깨닫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1940년대, 50년대, 60년대에 걸쳐서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에 가족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그것은 그들은 성경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이 자라나서도 교회를 갔지요. 그러나 1970년대와 80년대의 교회들은 성경을 더 이상 존중하지도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제3세대, 즉 손자 세대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간음과 음행과 마약과 알코올과 더러운 영화와 그리고 남녀가 옷을 제멋대로 바꿔 입는 것과 신성모독 등이 난무하는 삶을 살면서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니는 교회의 모습을 보니 경배를 인도한다는 사람이 긴 머리 카락을 휘날리며 귀고리를 달고서 이리저리 뛰어 다닙니다. 그의 머리 위에 있는 전광판에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문구가 번쩍이고 교인들은 그 경배의 리더를 따라 그 문구를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아주 소수의 남은자의 무리에게는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는 이들도 그 소수의 남은자의 무리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하

나눔은 이 때에 성경을 믿는 성도들의 편을 드십니다.

“다만 그들 속에 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항상 나를 두려워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잘되기를 원하노라!”(신5:29)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삶에 복을 주셔서 이 지상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와 같은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들과 자기들 뒤에 있을 자기들 자손의 복을 위하여 영원히 나를 두려워하게 하리라.”(렘32:39) 왕국 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원시시대의 사고방식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구식 사고방식은 계몽된 현대사회에서는 빨리 버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곤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화평을 이루어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에, 이 왕국에서 그분의 경이로움을 향유하면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두려워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떤 몇몇 독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생각은 구약적인 개념일 뿐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진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덮여져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생각은 구시대적 발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분명히 선언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31은 말씀합니다. “그때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곁으며 크게 늘어나니라.”(행9:31) 사도행전의 갓 세워진 신약교회들을 보면,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은 화

평을 알고 있었으며 성경적 진리 가운데에 자라나고 있었으며 성령의 내 주하심으로 인한 충만한 축복을 향유하고 있었고 교회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죄가 만연하는 이유를 로마서 3:18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문제는 고린도후서 7:1에 아주 완벽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이 약속들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얻게 되는 신약의 구원이 가져다주는 다양한 종류의 이익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가된 그 거룩함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표출되도록 하자.) 육과(우리의 외적인 잘못된 행위) 영의(우리의 내적인 잘못된 생각)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그런데 이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또 정결하게 하자고 했네요.).”(고후7:1)**

말라기 3:6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문 중의 하나입니다.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 For I am the LORD, I change not; therefore ye sons of Jacob are not consumed.”**(말3:6) 이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행위는 그분의 인격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분의 행동은 그분의 속성이 표출된 것일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분이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그분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즉 성령의 통제 아래 자기를 내어 맡기고 성경에 순종하는 가운데 걷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이 자기의 본성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도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포기하실 필요도 없으며 올바르게 거룩하게 의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가이드가 필요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분께서 행하시는 행위들은 오로지 그분의 속성에 의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나는 주니라.”라는 말씀을 163번이나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는 빌이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알게 되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기질을 가졌는지는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나는 페르시아의 왕이다.”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과 그가 부자일 것이라는 것과 왕이니까 능력도 있을 것이라는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괄하여 알게 하는 진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으시며,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등,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진술이 바로 “나는 주니라.”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놀라운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바뀌지 아니하노라.”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놀라운 진술은 당신으로 하여금 절대적이고 완전한 믿음을 그분 위에 올려 놓도록 해 주지 않습니까? 전혀 변하지 아니하는 이런 분을 우리가 믿으면 얼마나 안전하

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삶을 성경말씀 위에 건축하도록 해 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선포(칙령)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내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확고하게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아주 단단한 반석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제껏 계신 그대로 항상 계셔왔고 앞으로도 그리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하신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진리이고 100만 년 후에도 진리일 것입니다. 모든 언약과 예언과 경고와 보상과 말씀들은 영원히 진리일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19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데도.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민23:19) 사람들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 결코 죄의 흔적이 없이 진리로 가득 차 있으시며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분은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십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디도서1:2).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일 점 일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마5:18) 모든 축복의 약속의 말씀, 모든 두려움의 위협의 말씀, 모든 성도에 대한 간절한 기대, 죄인들을 향한 모든 불길한 경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17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약1:17) 여기에서 회전이라든가 변화라는 말은 해시계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해와 시계판에 있는 시간을 알려주는 숫자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아주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시계바늘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생기는 그림자에 의해서 시간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분은 모든 예언의 말씀들도 다 성취시키십니다. 그분께서는 언약을 다 존중하시며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입장을 맞춰주려고 망설이시지 않으십니다. 대다수의 타락한 인간들이 그분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은 돌이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거나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과격하고 지나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소위 과학자라고 불리우는 그들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수정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사과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갱신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개정도 아니하십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13:8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에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흥분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그분께서 여전히 동일한 마음자세를 지니고 계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때 이 땅에 사셨던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나약한 혼을 대해 주셨던 그분께서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껏 향유하십시오. 사복음서에서 선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대로 오늘날도 계시고 시간이 다 흘러가 영원한 처소에 거하게 될 때에도 그분께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제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제가 좋은 남편이 아니었던 날들도 있었다고 얘기 하겠지요.

저는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세운 기준에 맞게 일관성 있는 훈육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가정에서 법을 제공하는 자나 사령관 노릇을 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신실하고 일관성 있는 본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 아이들은 제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던 날들이 많았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저는 훌륭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좋은 목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행하라고 주신 그 임무에 대해서 제가 자격을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꾸준히 잘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신실하려고 애를 쓰고 친절하고 은혜롭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제 성도들을 믿어 주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와서 교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제가 행동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아마 그들은 “아니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겠지요.

저는 제가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매 순간 그분이 되고자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정확히 동일하게 계십니다. 그분께는 나쁜 날들이 하나도 없으시고 자신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날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목표한 바를 향해 활을 쏘서 맞히지 못하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매일매일 진리이시며 하나님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항상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서 구원을 받으려면 물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다가 또 갑자기 생각을 바꾸셔서 가톨릭 일곱 성사들과 염주를 굴리며 기도해야 구원받는다고 하셨다가 다음 날은 교회에 등록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당신은 아마 구원에 관한 소망을 다 잃고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자신의 칙령을 결코 바꾸지 않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선언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확고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1:12)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요구 조건을 결코 바꾸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일단 자기 자녀가 된 자를 다시 타인이 되도록 내보내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문들이 그분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도, 공산주의의 위협도, 동성애가 난무하는 사회의 광기도, 이슬람 파시스트들(fascists)의 살해 위협도 교회는 다 견디어 낼 것입니다. 천개가 넘는 어떤 운동단체들이 일어나서 성경적 기독교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없앨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진리이지요. 노아 당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결코 다시 물들의 홍수를 보내서 땅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즉 당신이 피로 씻김을 받아 죄를 용

서받은 채로 이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영원토록 구원받은 채로 보내게 될 것이며, 피로 씻긴 채로 보낼 것이며, 죄를 용서받은 상태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죄사함을 얻지 못한 채로 떠나간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통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영원히 구원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뀌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경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조롱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말라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으신 이유는 그들이 헌물과 희생을 바치는 데 있어서 율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1,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말라기 3:1에서 그분께서는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확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하지 아니하였느니라.”**(말3:6) 야곱의 아들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분명히 소멸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모든 아브라함의 아들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그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와 번영과 건강과 장수와 그리고 그들의 원수들로부터의 구출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그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국을 그 백성에게 넘겨주시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그분의 변하지 않는 신실함입니다.

저와 함께 잠깐 생각해 보시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0년 동안 계속해서 죄를 지었는데도 단지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

축복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이 5년, 10년, 혹은 30년 동안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구원하셨을 때 그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 으로부터 빼앗아 가시겠습니까? 믿는 자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그가 행하는 선행이나 행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이 온전하신 그 성품과만 관련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제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좋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생을 갖고 있는 것은 제 행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제 행위가 하나님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롬11:29).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실 당시의 그들의 상태는 도덕적 파산과 영적인 부패로 점철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완전한 멸절로부터 남겨 놓으시겠다고 하신, 단 하나의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 그들에게는 구속(救贖)받을 만한 특성이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어떤 요소도 없었으며 심지어는 신실한 자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 때문에 그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의 상태는 노아가 살던 시대보다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은 수세기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았고 승리를 맛보았고 율법도 받았고 제단들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도 하였고 예언자들도 보내 주시는

등 모든 혜택을 누렸었기 때문입니다. 노아 당시 홍수로 멸망한 사람들은 이런 혜택들을 전혀 받지 못했었지요.

말라기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는 아합과 이세벨이 사악한 마음으로 바알을 우상숭배 했던 때보다도 훨씬 못했습니다. 그 어두운 시기에 엘리야는 이교적 영향력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자 하는 칠천 명의 남은 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구약성경이 점점 마무리되어 갈 무렵의 말라기 시대에는 칠천 명의 남은 자들은 커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앗을 남겨 두어야 할 이유가 단 한 가지, 자신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밖에는 남아 있지 않았었습니다.

자, 아주 유의해서 들어 보십시오. 오늘날 이 땅에 히브리 민족이 살아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존은 전적으로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지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단원을 마무리하면서 대환난 시기(야곱의 고난의 시기)를 볼 수 있는 것은 말라기 3:6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예레미야애가 3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애가에 보면 진노의 날에 어떤 한 사람이 무언가를 앞서 내다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의 저자는 자기 주변에 파멸과 파산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자신들의 왕(예수 그리스도)을 그 민족들이 거부한 것에 대한 대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공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애3:22-23)

분명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 He is the Lord. 따라서 그분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마음껏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분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 / The Lord's mercies. 그분께는 긍휼이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긍휼에 의해서 완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소멸되지 않는다. / We are not consumed.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멸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멸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소멸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신실함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 Because.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분의 동정심 / His compassions. 우리의 창조주 안에서 발견되는 사랑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가상의 신과 그분을 완전히 구별시켜 줍니다.

소멸 / Fail 인간이 해왔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바꿀 수 없었고 앞으로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 They are new every morning.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주, 아무리 여러 번에 걸쳐서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그분의 선하심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러니 말라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위대한 신실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다만 신실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행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것이 이면 충분합니다.

제 11 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말3:7)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심지어 너희 조상들의 날들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말3:7)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류 전체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실패와
쇠퇴의 반복입니다. 다만 아주 드물게 짧은 부흥의 기간이 들어 있을 뿐입
니다.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네 신들이니라, 하므로”(출32:4)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속박의 땅으로
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간의 방황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기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과 불신에 대해서 진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죽음에 임하게 된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심하
게 꾸짖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몰래 가지고 온 우상을 의지
했기 때문입니다(수2).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마음이 이교도들의 허황된
우상들에게 있음을 보고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했
습니다.

우리는 주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셔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
을 주신 후인 사사들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타락이 만연해 있었는지 읽게
됩니다. 이 사사 시대는 영적으로 병이 든 엘리와 끔찍하게 타락해버린 그
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사무엘기와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를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녔으나 그 말씀들을 거부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사악

함과 패역함에 놀라게 됩니다. 대언자들의 호소와 외침 그리고 책망의 소리가 높아진 것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버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방국가들의 공격과 기근과 포로로 잡혀가는 연이은 불행도 이 민족의 완악한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사1:2-5)

“이스라엘이 곁길로 갔을 때에 내게서 멀리 떠나간 레위 사람들 즉 자기들의 우상들을 따라 나를 떠나 곁길로 간 자들은 자기들의 불법도 담당하리라. 그럼에도 그들이 내 성소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 그 집의 문들에서 책무를 맡아 그 집을 섬기며 백성을 위해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잡고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리라.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 앞에서 그들을 섬겨 이스라엘의 집으로 하여금 불법에 빠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려 그들을 쳤나니 그들이 자기들의 불법을 담당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겔44:10-12)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다 정죄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는 반면에, 자유주의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볼 기회도 없던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인간의 시작은 올바랐고 계속 그 올바른 상태에 머무를 수 있었으나 인간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원래의 자신의 좋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이를 거부하고 잘못된 상태에 있기를 선택했습니다.

아담은 올바르게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분명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발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죽옷을 주셨고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가인도 올바르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발적으로 잘못된 헌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선을 행할 것을 호소하셨지만 그는 이를 거부하고 자신이 보기에 옳은 것을 가져옴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안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라.”(전7:29)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53:6)

“내가 잃어버린 양같이 길을 잃었사오니...”(시119:176)

하나님께서 인류 타락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인간의 첫 출발 상태이니 올바르게 출발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 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의 행동을 유발

시켰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롬1:20-25)

로마서 7장 9-10절은 이런 진리를 덧붙입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시작은 올바르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는 죽었도다(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을 내가 알았나니”(롬7:9-10)

인간이 겪은 재앙에 대해 지극히 높으신 분을 정죄하는 것은 성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과 재앙은 결국 스스로가 거룩한 길들로부터 돌아서서 생겨난 것으로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버린 자들이며 길을 잃어버려 빗나가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 길을 잃었도다.”(벧후2:15)

죄가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1:14에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아담으로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함됩니다. 예외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원래는 올바른 출발선 상에 있었으나 자신의 욕심으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만나니”(약1:14)

우리는 선한 목자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양들이 도둑맞은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이며 그 양들이 험준한 바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울타리라는 안전한 지대를 스스로 떠나버린 문제투성이 양들입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것들 중의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아흔아홉 마리를 남겨 두고 산으로 들어가 길 잃은 그 양을 찾지 아니하느냐?”(마18:12)

따라서 골1:23에 나와 있는 경고는 바로 이 성경적 주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골1:23)

그리고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이 타락한 것에 대해, 그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범법한 것에 대해 비난하시고 꾸짖으십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하게 대하시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진노로 대하시기도 하며 그들이 돌아오도록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놓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구원의 길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폭군 같은 괴물이 선언한 두려운 칙령 때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명을 주시는 분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타락한 아담을 부르시던 그 목소리로부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인 아들을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 계시록 22장에서 성령께서 마지막으로 초청하는 목소리까지 주님께서서는 항상 반역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늘 갈망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21 말씀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갈망은 그분의 백성을 자기 품에 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서 그분의 고통과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요5:40)

누가복음 13:34에는 다음과 같이 슬픔으로 가득한 정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처럼 분명한 진리들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피자는 없을 것입니다.

왜 인간이 정죄를 당합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시점을 넘어버렸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 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요3:19-20)

인간이 정죄를 받는 것은 그들이 피할 수도 있었던 그 어둠 가운데 머물렀다고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흔히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겪어 보았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죄의 속박 가운데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변명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무슨 심리학적인 말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살인을 저지르고 속이고 거짓말하며 그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유는 단 한가지, 그들이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고 나서도 계속해서 담배와 싸웁니다. 이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의 폐가 다 썩을 때까지 담배를 피웁니다. 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를 주님께서 온전히 지배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 분노를 폭발시켜 법정까지 이끌고 갑니다. 그는 진노가 제공하는 감

정의 걱정을 즐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중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구원자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은 마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병자라고 주장하며 어차피 지옥으로 갈 의사의 가치 없는 충고를 들먹이며 계속 마약을 합니다. 마약을 함으로 인한 정신의 쾌락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죄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반면에 죄를 사랑하는 자들은 스스로 평생 그 죄에 찌들어 있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잠언 1:22-25은 아주 큰 확신을 가져다 주는 말씀인 동시에 엄한 정죄의 발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비웃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 확신을 줄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고, 비난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으로 단순한 자가 되도록 정해진 것이 아니며 악한 세력들에 의해 속고 조종당하는 운명으로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포로가 되도록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거룩한 모든 것들을 경멸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며 조롱하는 자, 교회에 앉아 의로운 설교를 조롱하는 자, 깨끗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비웃는 자 그리고 곧바른 자들의 마을을 돌아다니며 조롱하는 자들은 모두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올바른 길의 반대편에 서는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결코 어리석은 삶을 살다 죽도록 삶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텔레비전을 끄고 현관을 박차고 나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삶보다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가득 찬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며, 오히려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기를 선택한 이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잠1:23)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매 순간의 선택에 대해 꾸짖고 계십니다.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꾸짖음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약과 술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고 얼마든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시지만, 그들은 어쩔 수 없다고 변명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에게 저 마을로 가면 일할 곳이 아주 많이 있다고 알려주면 “당신에게는 나를 도와줄 만큼 충분한 사랑이 없다.”라며 징징댑니다. 교회를 세우고 무료 보급소를 세우고 학교도 세우며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준다고 해도 그들이 죄를 사랑한다면 다 헛된 일에 불과합니다.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스스로 돌이키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의 마음을 보시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죄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과 나쁜 습관을 이기려 하는 마음을 보시는 순간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그 책망에 대해서 스스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구출하거나 도와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어거스틴과 칼빈, 제롬 이 세 사람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누구도 강제로 하늘나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으로 살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유순한 자, 조롱하는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이 책망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스스로 돌이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약속을 해주실 것입니다.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내가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기록하시고 진실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성령께서 약간의 정도가 아니라 쏟아

부으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성령이 부어지면 그의 어리석음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 엄청난 성령의 부으심은 조롱하는 사람들의 쓴 뿌리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부어짐은 어리석은 자의 마음을 보배로움 믿음으로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이나 교육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14년 동안 정식 신학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은혜로 구원받는 교리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교리가 성경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소위 선교사라고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뒤에 상당히 많은 타이틀을 달고 다니는 신학 교수가 아이에게 물을 뿌리는 세례가 그들의 이마를 적시는 것 외에 뭔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어렴풋이 생각합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난생 처음으로 성경을 읽은 죄수가 세례가 죄를 씻는다는 말이 없음을 알아차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알기 원한다면 꼭 회개할 필요는 있으나, 반드시 교회에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분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한 인간의 삶과 가족의 삶과 교회와 민족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 일까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당신이 만약에 예정론자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인간이 만든 교리에 아직도 매달려 있습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입니까?)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은 인간이 의지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잠1:24) 나의 친구여, 들어보십시오. 왕 중의 왕이신 분께서 한 가지 진리를 세 번에 걸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참으로 불쌍한 교회들이 반드시 듣고 믿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할지 묻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의 결혼을 망치고 아이를 잃고 그들의 간증과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당신의 정신과 의사들을 해고하십시오. 당신에게 능력을 부여한다는 목사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친구들을 사귀십시오. 곤은 척추 같은 의지 대신 흐물거리는 젤리 같은 의지를 가진 목사가 있는 소셜 클럽 같은 교회를 떠나십시오. 자신들을 패배자로 칭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과 불평을 일삼는 이들의 모임에 더 이상 참여하지 마십시오.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채 명칭만 충고나 하는 상담자들을 다 제쳐놓으십시오. 당신에게 달콤한 얘기만 해 주는 책은 내던지고 성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 피 흘리신 그 분에게 매 순간을 바치는 것 대신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셨다면 회개하십시오. 자신에게 어떤 신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다 알게 될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십시오. 당신이 그분께서 뭐하고 말씀 하셨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 신비의 능력으로 당신이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지를 그분께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불행을 설교자가 엉망인 탓으로 돌리지 말고, 당신의 실망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도 마십시오. 또한 당신의 잘못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탓으로 돌리지도 말고, 국가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훔쳐서 당신에게 주지 않았다고 정부를 비난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의 부모가 당신에게 나쁘게 대했다는 비난도 버리십시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버리십시오. 어쩔 수 없었다는

말도 멈추십시오.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당신이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도 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아직 해야 할 일은 문제가 당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늘 박해를 받고 있다는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한 남자를 살펴봅시다. 그는 아주 쌀쌀맞은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친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절제하지 못한 채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가족은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는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친구가 많고 적절한 소비습관으로 가족 부양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훌륭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고 돈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민하고 웅졸한 이 남자는 그렇게 하는 대신 오히려 화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적이기 때문에 친구가 많고,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을 사랑한다면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신에게 돈을 주었을 것이라는 얼토당토않은 근거를 들어서 말이죠. 어쨌거나 이 남자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으로 꼭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삶은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 여성을 살펴봅시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괴롭혀서 남편을 다락방 꼭대기까지 몰아 넣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도 그녀와 함께 살기보다는 차라리 자동차에서 지내기를 원합니다. 한때는 그녀도 다른 이들에게 친절한 말을 건넸었지만 이제는 너무 오래되어 사람들은 그녀가 언제 그렇게 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에는 자녀들과의 관계도 친밀하고 행복하고 완벽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녀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들에게 다가가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어떻게 희생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는지 가르침을 구했더라면, 그들은 기꺼이 그녀를 기쁨으로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교만으로 가득하여 남편과 불화의 상태인 것은 자신의 탓이 아니고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 역시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관계가 어그러진 것은 자신의 탓이 아니라 남편과 자녀의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녀 역시 꼭 이렇게 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렇게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아까 그 남자에 대해 조금더 얘기해 볼까요? 그는 돈이 조금만 있으면 술을 마셔서 취합니다. 결국은 세금을 내는 다른 시민들이 그를 위해 식료품도 사주어야 하고 주택비도 보조해야 주어야 하고 의료비까지 내 줘야 합니다. 그는 그의 결혼 생활도 망쳤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까지 망쳐버렸습니다. 그는 아주 좋은 경력을 쌓을 수 있었던 기회조차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가 마음이 내킬 때 들르는 교회에는 아주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초청에 응하기 전에는 그들 중 상당수 역시 술꾼이었지만 그들은 회개했고독한 술을 마시는 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주 예수님께 마음을 내어드렸습니다. 이들은 그 남자에게 술병의 노예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구출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주고 가르쳐 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삶을 살 이유가 없었지만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을 제공하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길로 걷고자 하는 이들에게 더 풍성한 삶을 제공하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기쁨, 평화를 주십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고 욕망을 선택

하며 아주 복잡하고 절제 없는 문란한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빛과 생명을 제공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사람들은 어둠과 사망을 좋아하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3:20을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사람은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들어오고자 하시지만 주님과 인간 사이에는 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문을 두드리시며 부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제한 없는 자신의 힘을 문을 부수는 데 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문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과 식사하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할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만일 사람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한다면 주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일관성 있게 제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목하게 지내시려면 인간 측에서 먼저 회개하고 주님을 찾아야 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갈망해야 합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 Return unto me, and I will return unto you, saith the LORD of hosts.”(말3:7) 이보다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미 조건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도 거절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너무나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너무 멀리 가서, 너무 오래 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깨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이 관계는 당신이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회

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이까? 하였도다. / But ye said, Wherein shall we return?”(말3:7) 문제는 말라기 시절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꾸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버린 자들의 뚜렷한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죠. 한때 진리 안에서 걸었던 자들의 대부분은 그 좁은 진리의 길을 단번에 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과정이 있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자들의 대부분은 점진적으로 떠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떠날 때마다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방황하는 자들마다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무 지나친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그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기 어려웠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만나게 되는 세속적인 친구들이 그런 그의 생각을 지지해 줍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사자(使者)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는 바로잡혀야 할 필요가 있구나. 네가 영적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노라.” 그가 답합니다. “제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저는 정당합니다.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육신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타락한 이들을 회복시키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시하거나 부인해버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들을 그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그가 회개할 것 같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성경에 따른 삶을 사는데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었다면, 그는 지금 같은 방식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도시이든 마을이든,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 서서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소리쳐 보십시오. 종일토록 그들은 당신과 다툼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당신이 그들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당신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이 멀어 자신의 상태를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이 옳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제 12 부 십일조에 관하여(말3:8-12)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십일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십일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어 삼키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못하리라. 또 너희 포도 나무가 때가 이르기 전에 자기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심히 기쁜 땅이 되므로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 받은 자라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말3:8-12)

아마 이 성경구절만큼 욕심 많은 설교자들이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는 것보다도 들어오는 돈을 지키는 일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 위 성경구절을 꼭 차게 집어 넣은 결과,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성경구절이 마치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과 관련된 신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 성경에 있는 구절로도 신약의 우리에게 영적인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1:1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말1:1)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저는 당신이 젖을 떼고 유아실에서 나와 본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에 참

석했던 그 날로부터, 말라기 3:10의 말씀이 교회를 위한 교리인 것처럼 수없이 많이 들어왔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라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한 다음에 우리는 다음의 구절을 적절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 하겠느냐? / Will a man rob God?”
(말3:8)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칠 만큼 뻔뻔하고 무모할까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영적 상태는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너희가 내 것을 훔쳤다. / Yet ye have robbed me 주님께서 대언자를 통해 자신의 질문에 자신이 답하셨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것을 훔쳤다고 그 선민을 고소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두 가지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1.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2. 사람은 이를 양심도 없이 자신이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 하였나이까? / But ye say, Wherein have we robbed thee? 말라기 1장에서 시작되었던 패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역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이 백성들이 주님을 책망하며 그분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빗나간 길에서 무모해졌습니다. 그들은 아주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언자들에게도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굽히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십일조와 헌물”**에서 강도질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 율법을 받아들여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율법 안에는 주님께 무엇을 바쳐야 하는지 정확한 규례들이 나와 있었고 그 헌물들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27:30-33에 히브리 민족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땅의 모든 십일조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십일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십일조는 ‘땅의 십 분의 일’이라고 했으니 돈과는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그 땅에서 그들의 삶이 어찌되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율법을 따르는 데 실패하면 그들은 그 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나서도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부동산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이 생산해내는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바쳐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십일조 중에서 조금이라도 무르려면 그는 거기에 그것의 오분의 일을 더할 것이요,”** 만약 농산물이나 가축을 팔았다면 돈으로 십일조를 내되 판매금액의 30%를 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래 십일조는 성막과 제단에서 섬기는 레위 족속들을 부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음식 대신에 돈을 내게 되면 그 사역자들이 그들의 가족을 위해 음식을 사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1/5(20%)의 가격을 덧붙여 내야 하는 것입니다.

“소 떼나 양과 염소 떼의 십일조에 관하여는 어떤 것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든지 열째 것이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는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살펴보지 말고 그것을 바꾸지 말지니라. 그가 그것을 바꾸면 그것과 또 그것을 바꾼 것이 다 거룩하게 되리니 그것은 무르지 못할지니라.” (레27:32-33)

이번에는 가축에 대한 십일조 얘기입니다.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것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때에 그들이 결점이 있는 헌물들을 바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께 바치는 헌물이 아니고 사역자들에게 바치는 십일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검사할 필요가 없고 분류할 필요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냥 기준선을 통과하다가 열 번째의 것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들에서 짐승에게 먹이를 먹이다가 울타리 안으로 들여보낼 때 짐승의 숫자를 세어서 앞에 아홉 마리는 자기의 몫으로 두고 열 번째로 들어오는 짐승은 따로 분류해서 하나님의 곳간인 성전에 있는 가축 우리에 들여보내야 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도저히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는 가축들을 십일조 헌물로 드릴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열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짐승을 들여보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열 번째에 해당되는 짐승만 하나님의 울타리에 들여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십일조로 바쳐질 동물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십일조는 본디 가축과 곡물이 그 대상일 뿐, 돈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8:25-28에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침이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현대의 기독교 사역자들만 이를 읽고도 잘못 해석하려는 유일한 자들인 것 같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분명히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했지, 설교자에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해 너희에게 상속재산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로부터 취할 때에(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십일조를 취한다고 했지 교회로부터 취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일조에 해당하는 돈은 레위인들에게로 갔습니다.) 그 십일조의 십분의 일을 그것의 거제 헌물로 주를 위하여 드릴지니라.” 주님께서 레위인에게 그가 받은 십일조의 십분의 일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그 어떤 설교자도 거제 헌물을 드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십일

조의 또 십일조를 레위인들은 주님께 바쳤는데, “이것은 누구 것이냐? 네가 바치는 거제 헌물은 네가 바친 것으로 간주되리니 타작마당의 곡식이나 포도즙 틀의 충만한 것 같이 여기리니” 레위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받아서 바쳐도 농사지은 것으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명이 밭에서 일하거나 가축들 가운데서 일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친 거제 헌물을 그가 한 것처럼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너희가 받는 너희의 모든 십일조에서 주께 거제 헌물을 드리고 그 중에서 주의 거제 헌물을 제사장 아론에게 주되(결국은 제사장이 주님을 대신해서 받았네요. 백성은 십일조를 바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일요일마다 그것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잘 모아두었다가 3년마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 십일조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공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14:22, 28-29이 이 사실을 분명히 해 줍니다.

제사장들은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으로부터 나는 소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형제 즉 제사장들에게 신실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땅의 소출들 중의 십일조를 잘 내었다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실하고 지속적인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져서 mammon에게 자신을 바치면 mammon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율법을 모두 내던지겠죠.

히스기야 왕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역대기하 31:1-6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 있던 온 이스라엘이 나가서 유다의 도시들에 이르러 형상들을 산산조각내고 작은 숲들을 베어 내며 온 유다와 베냐민과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무너뜨려 마침내 그것들을 다 진멸하고(이처럼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들을 스스로 파괴합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도시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계열대로 그들의 계열을 지정해 주고 각 사람의 섬기는 일에 따라 각 사람을 지정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리며 주의 장막 문들에서 섬기고 또 감사를 드리며 찬양하게 하고(이처럼 하나님과 백성이 올바른 관계가 되면 그들은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배하기 시작하면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자기 재산 중에서 번제 헌물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 헌물과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명절들에 드리는 번제 헌물로 쓸 왕의 몫을 지정하고(이처럼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되면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극빈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에 거하던 백성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도록 명령하여 그들이 주의 율법 안에서 용기를 얻게 하니라. 그 명령이 밖으로 나가매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출의 첫 열매를 풍성히 가져왔고 또 그들이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더라. 유다의 도시들에 거하던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에 관한 한 그들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왔고 또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거룩히 구분하여 드린 거룩한 것들의 십일조를 가져와 그것들을 무더기로 쌓았는데(이처럼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바쳐야 하는 것들을 제대로 바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바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돈을 사랑하는 목사들은 이렇게 논쟁할 것입니다. 당시에는 곡식이나 가축을 현금처럼 사용하였으니 현대에 와서 현금을 바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런데 이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돈과 관련된 수없이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분명히 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돈을 내라고 하지 않고 가축이나 곡식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 당시의 사람들이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땅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내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부흥 또한 히스시야 왕의 때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느헤미야기 10:38-39에 보니 말라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취할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십분의 일을 우리 하나님의 집의 방들로 가져다가 보고 집에 돌지니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의 현물을 가져다가 성소의 기구들과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방들에 돌지니라. 이로써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아니하리라.”(느10:38-39) 여기에서 우리는 십일조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그것을 받았고 그리고 이를 쌓아 두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기 13:12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때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보고에 두므로”(느13:12)

다시 한번 복습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에게 자신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민족은 바로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 지파들 중의 한 지파를 택하셔서 거룩한 것들을 섬기는 일에 그들의 삶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일에 종사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나머지 열한 지파들은 자신들의 모든 식량의 십분의 일을 가지고 와서 레위인들의 일용할 양식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십일조를 가져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아 그들이 굶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성경이 십일조에 대해 무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야기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저한테 험악한 편지나 전화를 거는 그리스도인 형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제가 쓸데없는 것을

가르쳐서 교회 예산이 다 날아가 버렸다고 화내는 목회자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 욕심 많은 탐욕스러운 설교자들은 제가 그 동안 만났던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도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한 교회의 재정부서에 간섭을 해서 예수님께서 환전상의 책상을 뒤엎어버리신 것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어떤 욕을 먹을지 상상해보십시오.

지금 읽은 성경구절에서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간단합니다. 3년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한 장소에 그들의 농산물과 가축 떼를 가지고 와서 레위지와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어려우십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십일조의 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평생 한 번이라도 이것을 제대로 지켰던 분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모두 돈으로 십일조를 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 Ye are cursed with a curse: for ye have robbed me, even this whole nation.”(말3:9)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계신건가요? 그리스도의 몸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저주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율법 아래에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갈3:10-13). 구약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축복을 거둬들여 이스라엘에 기근을 내려 식량을 빼앗기도 하시고 원수들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십일조를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그것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 또한 마땅했지요.

이런 도둑질이 말라기 시대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순간이 아주 중요한 순종의 원칙을 토론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무

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 순위가 사람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께 복종하는 것을 머뭇거리는데, 그 계명과 연관된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 때문입니다. 설명을 좀 더 해보자면, 우리는 말라기 1장과 2장에서 제사장과 영적 지도자들이 완전히 타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하게 비난하셨고 너무나 더러워서 무시해 버리셨으며 백성들마저도 그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기에 형편없는 목사들에게 열심히 번 돈을 바치는 것이 싫은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타락해서 그들에게 십일조를 바칠 수 없다고 하자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며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십일조를 가져 오지 않는다면, 사악한 지도자들에게 가져가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져가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꼴입니다. 이것은 백성들 역시도 그들이 무시하는 영적 지도자들과 똑같이 율법을 어기는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나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비록 죄인들이 우리의 의로부터 유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제시된 세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에 대한 종의 순종입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벧전2:18-19)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 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골3:22)

이 말씀들을 보니 누군가가 잔인하고 불의하나 권위를 가진 자 밑에서 노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인이 전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 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딤후2:4-5)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 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벧전3:1)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일지라도 그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여인이 남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핑계 삼아 자기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는 인간 정부에 순종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매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마22:21)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벧전2:13-14)

지금 이 세 가지 예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본이 보이십니까? 만약에 당신의 피고용인이, 주인이, 배우자가, 부모가, 정부가 그리고 사역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들의 불순종을 우리의 불순종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거리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역시 적절히 다루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 십분의 일을 가져와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십일조와 연관된 축복을 그들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물론 이 축복도 당연히 땅과 연관 되어 있겠지요.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다.”(말3:9) 이 구절을 살피기 전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구절이 아직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전 민족이 십일조를 당신의 교회로 가지고 와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저주하실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술주정뱅이나 LA의 갱단 조직이 십일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임스 형제! 설명을 듣고 보니 나도 이해가 되는데, 어째서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이 구절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켜서 가르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목사들을 비방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갈 때 자신의 생각을 꺼버린 상태로 갑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믿도록 인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은 사역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십일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어 삼키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못하리라. 또 너희 포도나무가 때가 이르기 전에 자기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심히 기쁜 땅이 되므로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 받은 자라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 Bring ye all the tithes into the storehouse, that there may be meat in mine house, and prove me now herewith, saith the LORD of hosts, if I will not open you the windows of heaven, and pour you out a blessing, that there shall not be room enough to receive it. And I will rebuke the devourer for your sakes, and he shall not destroy the fruits of your ground; neither shall your vine cast her fruit before the time in the field, saith the LORD of hosts. And all nations shall call you blessed: for ye shall be a delightsome land, saith the LORD of hosts.” (말3:10-12)

성경에서 이 부분을 가르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일들 중 한 가지는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을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그 지도자들이 부패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생산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바치는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구절은 분명히 히브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교회를 위해 끌어낼 수 있는 교훈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거나 곧 죽는다는 식의 교훈은 아님

니다. 12절을 어떻게 주님의 몸인 교회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기쁨의 땅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교회에 적
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교회는 결코 기뻐하는 땅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교회를 복 받은 자라고 부르는 것은 신약의 가르침과 정반
대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땅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가
받는 축복과 보상 역시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가 하늘에서 떨어져 곡
식이 잘 자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이고 우리가 바라는 수확은 혼의 구원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교회에 가
져오는 십일조나 헌물과는 전혀 상관없는 구절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예
물을 바치는 그릇에 계란 한 꾸러미를 가져오거나 닭을 가져오거나 오렌
지, 감자를 가져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당신의
수표책을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에게 돈을 교회로 가져오지 않으면 하
나님께서 당신을 저주하실 것이라며 협박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모든 면
에서 거짓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두려워 그릇 위에 십일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저주는 까닭 없이 임하지 않
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 임하지 아니하리로다.”(잠26:2)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율
법들 중 어느 것이라도 어기게 되면 저주를 받습니다. 단지 십일조에 관련
된 것만으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저주를 완전히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 그리스도께서 우
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갈3:10,
13)

어떤 설교자가 교회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협박하는 이유는 그 설교자가 고의적으로 돈을 사랑하여 거짓말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 역시 성경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재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성경을 잘못 이용했다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롬8:1)

은사주의 집회나 교회에서 집회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시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든 저렇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십일조를 거두어가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만일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병원 신세를 지거나 팔이 부러지거나 아내가 암에 걸리거나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치는 등의 사고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면서 그냥 좋게 내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이는 협박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언급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당신은 그런 식의 하나님밖에 모르는 겁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롬5:8)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데도다.”(롬5:1)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분인가요? 하나님께서는 20달러의 십일조를 내지 않았다고 제 아내와 자식을 죽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 가지 경우의 사람을 모두 보았습니다. 첫째, 십일조를 했지만 여전히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가는 등 삶에서 끔찍한 비극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 십일조를 하지 않았음에도 돈도 많고 건강하며 좋은 집도 있고 착한 자녀를 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가 맞네요. 십일조라는 율법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인 것이죠. 십일조를 내지 않았음에도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시고 저주를 내리지 않으셨으니 거짓말하신 셈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교회나 우리 교회나 이 땅에서 살면서 십일조를 하지 않고도 아주 풍요롭게 잘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십일조를 꼬박꼬박 내는데도 매우 가난하여 형편없는 음식을 먹고 낡은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진실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십일조를 가지고 오신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 십일조를 바침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어디에도 구원받은 거둬난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것의 십분의 일을 가져와야 한다고 명령한 구절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십일조를 하는 것이 좋은 행동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매우 존경할 만한 실행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내면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서 경배하기 위해 십일조를 내시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십일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려는 시도일 뿐 하나님께서는 이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서 십일조를 낸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목숨을 구하려는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혜 안에 있는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에 관한 우리의 가르침은 자유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고, 이 가르침은 이전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돈을 내는 문제 역시 하나님께서 자유

롭게 맡겨주셨습니다. 신실하게 진리 안에서 진실로 시간과 돈, 사랑과 순종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분께서는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테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섬기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게 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행한 일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당신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십일조를 가져온다면 그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십일조를 가져오면서 하늘의 창문이 열려 당신에게 축복이 쏟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가져왔다면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저 십일조를 가져오되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사역이 당신이 드리는 헌물로 인해 성취되기를 원해서라면 그때에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에 대한 교리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신실함으로부터 드리라.

주께서 우리를 번영시키신 그대로

풍성하게 주신 그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 바치라.

이것이 끝입니다. 바쳐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바치지 마십시오. 바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라면 바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며 바치지 마십시오.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면 바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예물과 희생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치십시오.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한 논의를 끝내기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그들이 첫 번째로 정복한 성읍은 여리고 시

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그 도시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간이라는 자가 아이 성에서 금과 옷을 훔쳐서 자기 텐트 안에 숨겨 놓았다가 자기 자신과 가족, 나아가 민족 전체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한 추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경험한 승리는 총 열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홉 번의 경우에는 어디든지 가서 노략물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승리를 거두었던 여리고 성에서만 노획물을 취하는 것을 금지 당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 사이에 맺은 십일조에 관한 율법의 언약과 관련된 진리가 드러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더 넓은 문맥에서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말라기 3:1-6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말라기 3:8-12의 십일조에 관한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뒤이어서 바로 나오는 구절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환난 동안 유대인들은 그들의 반역과 불순종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네 머리 위의 네 하늘은 낯이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쇠가 되며 주께서 먼지와 티끌을 네 땅에 비처럼 내리시리니 하늘로부터 그것이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신28:23-24)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시므로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굶어져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신11:16-17)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천

이백육십 일 동안 대언하리라 /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계 11:3, 6)

하나님께서 42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야기될 사망과 파괴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2-3은 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눈을 들어 높은 곳들을 향하게 하고 내가 눕지 아니한 곳이 있는지 보라. 내가 광야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같이 길에 앉아 그들을 기다렸나니 내가 네 행음과 네 사악함으로 그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소나기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렘3:2-3)

이 끔찍한 형벌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회개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우상숭배와 반역으로부터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이 회심으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드디어 돌아오시게 됩니다(단9:24-27, 롬11장, 마24장).

왕의 귀환과 함께 있게 될 그 위대한 축복들 중의 하나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대환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처음 비와 나중 비가 첫째 달에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로 말미암아 땅이 회복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재생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이 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내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리니 내가 네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네 가축을 위하여 네 들에 풀을 보내리니 네가 먹고 배부르리라.”(신11:13-15)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에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를 위해 비

를 내려 주시되 이른 비와 첫째 달의 늦은 비를 내려 주시리니 그런즉 타작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즙과 기름이 넘쳐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 가운데로 보낸 나의 큰 군대 곧 메뚜기와 자벌레와 썩기벌레와 털벌레가 먹은 햇수를 내가 너희에게 되돌려 주리니 너희가 풍족히 먹고 만족하며 너희를 놀랍게 대우한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내 백성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욥2:23-26)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약5:7)

다른 이들의 범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남아 있는 소수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땅은 회복되어 새롭게 될 것이며(렘8, 스4), 현재 메마르고 황폐한 이스라엘 땅이 아주 풍요로운 열매 맺는 들로 변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호14:4-8). 소출이 얼마나 풍성한지 수확을 하는 동안에도 그 다음 수확이 시작되어 다 거둬들일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암9:13-15). 이때가 되면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복 받은 자라고 부를 것이며(신28), 그들은 더 이상 꼬리가 되지 않고 모든 민족들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말라기 3장의 경고 역시 약속의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심히 기쁜 땅이 되므로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 받은 자라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말3:12)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어 삼키는 자를 꾸짖으리니 / I will rebuke the devourer for your sakes”(말3:11) 우리가 이 부분을 다 마치기 전에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키는 자”에서 삼킨다는 것은 아주 탐욕스럽게 먹어 치운다는 뜻이 있고, 엄청난 식욕을 가지고 먹어 치운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파멸시킨다는 뜻과 신속하게 폭력을 동원하여 소멸시켜버린다는 뜻, 멸절시킨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142번이나 사용되었는데 여섯 개의 형태 중의 하나

로 반복되어 나옵니다. 주로 삼키는 자, 삼키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씩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칼(신32:42)	인간의 칼(삼하2:26)
죽음(욥18:13)	불(시50:3)
야수(대하7:13)	교만(시80:13)
기근(잠30:14)	전염병(겔7:15)
시간(호5:7)	종교적 지도자(마23:14)
형제들(갈5:15)	마귀(벧전5:8)
나무(삼하18:8)	파리(시78:45)
췌기벌레(시105:34-35)	저주(사24:6)
수치(렘3:24)	군대(렘50:17)
타국인들(호7:9)	벌레들(암4:9)
새들(마13:4)	창녀들(눅15:30)
사악한 자의 입(잠19:28)	사악한 자들(합1:13)
말씀들(시52:4)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
히 여기심이 끝이 없도다.”**(애3:22) 우리도 예레미야의 말처럼, 삼켜지지
않음에 대해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13 부 완악한 말로 주를 대적하는 백성들 (3:13-15)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고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세워지며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심지어 구출을 받았다, 하였느니라.”(말3:13-15)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해 요약된 이 문서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의 상태를 쉽게 엿볼 수 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 Your words have been stout against me, saith the LORD.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주님이신 분께 끊임없이 반역을 저지르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정죄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은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분을 존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특히 그들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자신들이 당하는 그 고난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저주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는 등 끊임없이 헛소리를 지껄이면서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선언을 어떤 식으로 조롱하는지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공개적으로 비웃으면서 하

나님의 규례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스리는 방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징징대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스리실 능력이 없다고 수군대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아름다움과 힘, 초자연적인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천사들이 듣는 가운데 자신을 만드신 분께 대적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도 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온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단지 나무 한 그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만족스러워 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께 쓴 뿌리를 내면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우를 죽이고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하나님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히브리 민족은 기적적으로 자신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신 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자신들을 먹이시고 물을 주시고 옷을 입히시는 등 매일의 삶에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평해했습니다.

현대인들도 다를 게 없습니다. 아름다운 태양이 비치는 좋은 날이 주어진 것은 어머니 자연으로 불리는 이교도의 신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재산과 생명을 앗아가 버리는 끔찍한 폭풍우가 닥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갖다 붙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복음 증거도 하지 않고 경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훌쩍거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라며 불평합니다.

젊은 시절에 마약과 술, 게으름과 스포츠에 힘을 몽땅 쏟아 부어놓고 중년에 가난하게 되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여자들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육신의 욕심에 다 바쳐놓고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 Yet ye say, What have we spoken so much

against thee?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대적하여 말했다고 꾸짖으시는데, 그들이 바로 또다시 하나님께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말했노라.”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은 “예. 주께서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할 행동은 회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음을 지적하니 그에 대해 또 반역을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인간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넘어서서 더 위에 자신을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쉽게 증명됩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이 그런 무모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하나님께 대적했습니까?” 이것으로 그들의 반역하는 마음이 충분히 드러나는데, 그들은 이 말을 뱉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들켰다는 사실을 눈치 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죄와 함께 느긋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주 설교는 들으려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할 필요를 깨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속박하고 속이는 힘은 다름 아닌 ‘우리가 그렇게나 많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조금만 한 것 같은데요.’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우리 스스로가 의의 수준을 다 정해놓습니다. 그 수준은 우리에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편안하게 현신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우리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스스로에게, 동료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하나님께까지 어느 정도까지 죄를 지어도 괜찮은지

를 자기가 정한 다음, 그 수준을 넘지만 않는다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합니다. 그때에 설교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촉구하면 이미 자신이 정한 거룩함의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설교자의 말과 자신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교자가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요청하는데도 자신은 이미 목표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요청은 자신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매주 계속해서 교회에 앉아서 설교는 듣지만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합법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나 마약을 하는 등 불법적인 삶을 사는 자들 모두 하나님께서 이런 정도의 중독은 문제 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군수군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개의치 않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넘지 않으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라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대적하여 말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의 행동이 죄가 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 Ye have said, It is vain to serve God: and what profit is it that we have kept his ordinance, and that we have walked mournfully before the LORD of hosts?”(말3:14)

저는 따로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을 공부한 적은 없지만 인간들의 잘

못된 행위를 기술했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에게는 성경이 있고 저는 그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위의 습관을 성경 말씀과 비교해 보면 누구나 이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 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멸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히4:12-13)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분별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행위 뒤에 숨어 있는 생각과 의도를 다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다 드러냅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구절에서 이것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 무슨 유익이 되리요.” 그런데 그들은 그분의 규례를 실제로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그들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그들이 스스로 자만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행위의 수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말라기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 생각으로는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바라는 좁은 길을 걷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면서도 자신들의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육신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정죄하

시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섬기지도 않았으면서 말이죠.

그들은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을 버느라 평안도 기쁨도 가족도 간증도 다 잃게 되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조금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아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이 하는 행동들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영과 오만한 이기심을 가지고 자신들은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수확을 거두기 위해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 대가를 충분히 치르지 않으셔서 불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지금 스스로의 삶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정직하다고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추어 순종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교만해서 자신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한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혀를 통제하여 입을 다물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그녀는 자신이 정한 기준은 충분히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한 남자를 보십시오. 일도 하지 않고 복음증거도 하지 않으며 담배를 피우면서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랑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굉장히 뛰어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다른 사람들은 다 보는데 자신만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보지 못할까요? 자기가 하나님께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언제나 화가 나 있고 쓴 뿌리로 가득한 한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불만족을 표현하고 또 형제들 간에 불화의 씨를 심고 성도들을 공격하면서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만큼이면 되었다고 이미 스스로 기준을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듯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돕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들은 아주 완벽하게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울 수 없습니다. 잠언 26:12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잠26:12)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고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세워지며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심지어 구출을 받았다, 하였느니라.”(말3:15)

말라기 3:15은 육신적인 반역을 하는 자의 논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자도 아니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위치에도 있지 않다. 그렇다면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잘못된 일이었다. 교만하고 사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러한 비이성적인 사고방식의 어리석음을 들춰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고 / now we call the proud happy

진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 말한다고 해서 교만한 자들이 정말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진실: 물론 몇 몇의 교만한 자들은 실제로 행복할 겁니다.

거짓: 이러한 행복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진실 : 여기에서 “지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최후가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가 지금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그의 최후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 교만한 자들이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 모든 인류 중에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워야 하는 침대마저도 혐오스러운 비참한 자들입니다. 세상은 소수의 교만하고 행복한 자들을 텔레비전으로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만이 행복으로 이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 주변에 있는 교만한 자들의 찌푸려진 얼굴을 보십시오. 지하철을 타고 가는 외로운 혼들을 보십시오. 당신과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의 움푹 들어간 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벧전5:6-7)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세워지며 / they that work wickedness are set up

진실: 본문을 보니 사악한 자들은 세움을 입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실: 이 세상에서 사악한 일을 하면서도 상당히 잘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악이 번성하고 승리자가 되도록 권력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짓: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권력은 영원합니다.

거짓: 한 10년 동안 이 온 세상을 얻는 것이 영원히 지옥불에서 혼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의 신이 있습니다. 그는 아담이 그에게 왕좌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을 때 사람들의 혼을 정죄할 권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골 2:15). 그는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신뢰하는 사람들을 파멸시킬 수 있는 권능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히2:14-15). 그러나 그는 지구 상에서 왕좌를 다스릴 일시적인 권능까지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고후 4:4).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이 세상의 왕국들은 다 자신의 것이라고 하며 자기가 택한 사람은 누구에게든 그 왕국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아직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 옳습니다(마태복음4장, 누가복음 4장).

어떤 한 인간이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영원한 파멸에 처해질 운명인 제국에서 잠시 동안 다스릴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무궁토록 다스리고 통치할 것인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너무나 선명하지만, 놀랍게도 육신적인 사람들은 눈 앞에 보이는 순간만을 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세워졌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습니다.

밀주로 돈을 벌고 있는 아버지를 봅시다. 그는 밀주 생산을 통해 획득한 부로 국가 권력의 상층부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배가 파선했지만 여러 사람을 구조하여 상을 받

았습니다. 또한 그가 실제로 쓰지 않았지만 그가 쓴 책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또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밀주를 제조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지위에 오르는데 도움을 줄 여자를 골라 그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 명의 여자와 간음을 저지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저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쯤에서 딱 멈춰서 “보시오! 여기 사악한 일을 한 자가 분명히 세워지지 않았소? 여기 사악한 일을 한 자가 세워졌다는 증거가 명백히 있소!”라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세월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은 그 아들인 케네디가 달라스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중에서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사람에 의해 결국 물러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을 주었던 마귀가 결국은 그의 두려워하는 혼을 그 타고르는 불길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것을 보십시오.

알링턴 국립묘지로 가서 서 있어 보십시오. 그리고 온통 쾌락 속에 빠져 살았던 타락한 영웅의 묘비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순간적인 명예만을 추구했던 자들을 묘지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많은 것을 얻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들의 뼈가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 그 무덤에 해 놓은 표식을 보십시오!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요.

여러분은 돈과 권력, 명예, 여자 그리고 지배력 등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그 밀주 공장 주인의 아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결국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은 그의 타는 혀를 적셔줄 단 한 방울의 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심지어 구출을 받았다. / they that tempt God are even delivered.

이 구절은 우리가 성경으로 성경 용어를 정의하는 고전적인 방식을 선택하게 합니다.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통해 성경이 성경으로 어떻게 푸는 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라는 시험을 받으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약1:12-15). 그리고 죄를 지어보라는 제안은 그분께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마4장, 눅4장).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지지하는 다른 성경구절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말라기에 있는 문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멸해달라고 시험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사용법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간에 관한 첫 번째 언급은 출애굽기 17:7에 나옵니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맛사와 프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출17:7)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이집트에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밤에 지켜내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육지처럼 통과하여 그들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적절하게 돌보아주지 않는다고 하며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시험에 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민수기 14:22-23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격노하게 한 사람들 중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

라.”(민14:22-23) 이 문장을 보니 그들이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평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광야에 쓰러졌습니다.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여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상을 준비할 수 있으리요? 하였도다.”(시78:18-19)

“그들이 얼마나 자주 광야에서 그분을 격노하게 하고 사막에서 그분을 슬프게 하였던가! 참으로 그들이 뒤로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제한하였도다. 그들이 그분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분께서 자기들을 원수로부터 건지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시78:40-42)

신명기 6:16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에게 이렇게 경고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맛사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그분을 시험하지 말라.”(신6:16)

시편 95:8-11에서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격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퍽하게 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내가 행한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사십 년 동안 이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마음속으로 잘못하는 백성이요, 그들이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시95:8-11)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어조의 단호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그분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그들 중의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

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의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고전10:9-10)

“격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사십 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히3:8-9)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잘 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그분을 시험하는 꼴이 됩니다.

“아, 하나님 저에게 너무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럼요.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셨잖아요.”

“정말 그러니?”

“네, 정말 끔찍해요.”

“그렇다면 안전벨트를 좀 매겠니? 정말로 끔찍하고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테니.”

하나님께서 내리치셨습니다.

그들이 말라기에게 답변하기를,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심지어 구출을 받았다, 하였느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분의 길들을 비방하거나 모든 필요를 제공하신 하나님께 불평하던 자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심지어는 잘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여 말한 자들에게 어떤 위험이나 피해가 없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욥기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항변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살아 남고 늙도록 지내며 참으로 권세도 강하나? 그들의 씨가 그들의 눈앞에

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의 눈앞에서 그러하다.”(욥21:7-8) 욥은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전혀 의롭지 않고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째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불평등을 허락하시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웃을 바라보며 외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이르되,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는 주의 길들 알기를 원치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리이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겠나이까? 하는도다.”(욥21:14-15)

참으로 인간들의 역사란 무지몽매한 인간이 하나님께 책임추궁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겨 봐야 이익되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보라, 그들의 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악한 자의 계략은 내게서 매우 멀리 있도다. 사악한 자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는가! 그들의 멸망이 그들에게 얼마나 자주 닥치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분노하사 고통을 나누어 주시는도다. 그들은 바람 앞의 지푸라기 같고 폭풍에 휩쓸려가는 겨 같도다.”(욥21:16-18)

욥은 그 어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진정으로 심판하실 그날, 잘못된 것이 바로잡히는 바로 그날을 욥은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라기에게 불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소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친구여, 번쩍거리는 화려함 뒤를 보십시오. 플래쉬가 터지는 그 뒤를 보십시오. 빌보드 차트나 여성잡지 겉표지 그 너머를 보십시오. 인기 있었던 그 시간들의 복도 끝에 사악한 자들의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그 기록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곧 바른 자들의 마지막은 어떤지 보십시오.

제 14 부 주께서 기록하신 기념 책(말3:16-18)

“그때에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매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 책을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 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말3:16-18)

드디어 제가 언급했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앞서 말하기를 말라기에는 부정적인 내용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할 아름다운 말씀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러한 구절들을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라기 2:17과 3:14에 대한 답변도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지요. ‘심판의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은 지금 돌아오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그분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아주 큰 유익이 될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때에 주님을 두려워했던 자 / Then they that feared the LORD 잘못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훑어보시다가 그 속에 남은 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책에서만 두 번이나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을 고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배교의 중심에서도 참된 마음과 통회하는 영으로 주님 앞에서 걷는 자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Then 아무리 때가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증인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 보십시오. 남은 자들이 아주 소수이거나 나약할지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 spake often one to another 여기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 설교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며 예언의 말씀을 외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교제하며 소통하는 것으로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갈망하시는 것은 우리의 빈번한 교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구절은 우정과 교제, 모임, 논의, 격려, 서로의 믿음을 세워 주는 것,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것, 축 처진 자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등의 의미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교제와 확고한 우정, 마음이 서로 엮이고, 서로 같은 끈으로 묶이며, 서로 목표와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교제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5:19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네 스스로에게 말하기를**”과 같은 표현은 성도들의 특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18에서 우리는 “**이 말들로 서로를 위로하라**”는 말씀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나 모임장소 바깥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분께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1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살5:11)

완전히 통제불능인 세상에서, 그리고 너무나 부패한 종교들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여 우리의 육체를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길로 우리의 생각들을 이끌어줄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

여 너희 중의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박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히3:13) 이 말씀에서 ‘날마다’라고 했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매일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빨리 완악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교제를 하면 우리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10:24-25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지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로를 살피보아**(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우리는 올바른 일을 행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며 구원자이신 그분의 눈앞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격려해줄 친구들과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믿는 자들이 규칙적으로 꾸준히 모이면 주의 길을 걷고자 갈망하는 자들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임을 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권면하되**(우리는 서로를 독려하고 격려하여야 합니다.) **그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말라기 3장의 말씀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더욱 그리하자**.(때가 점점 부패할수록 우리가 저 자주 힘써 모이도록 해야 합니다.)”(히10:24-25)

어느 작사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친구가 되라.’ 어린양께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과의 사귄에서 오는 기쁨과 그 가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홀로 이 땅에 굳게 설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좋은 교회들에는 하나님을 위해 뭔가 더 하고자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더 빠른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셨도다 / the LORD hearkened, and heard it
우주를 만들고 유지하고 계시는 그분께서 이 미미하고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들의 음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놀랍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기 위해 마치 카메라 줌을 당기듯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온갖 서로 다투는 소리가 시끄럽게 공중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그분의 관심은 딱 한 곳을 향해 있습니다. 아담 무리들의 따분하고 시끄러운 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의 모임을 아주 잘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작은 소모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작은 시골 교회에도 찾아오시며 정글 속에 있는 선교단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십니다.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신 그분은 자신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길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기쁨으로 이와 같은 대화를 듣고 계십니다.

부패와 배교의 시절에도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께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도 주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신음하던 때의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출 2:23-24)

모세가 울부짖을 때에 주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되”(출 14:15)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느 2:4)

우리는 한나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성전에서 소리 내어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55-56에서 예레미야는 그저 숨을 내쉬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 2:2에서 요나도 큰 고래에게 삼켜져 죽어가는 마지막 호흡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울부짖음과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조용한 신음과 그분을 생각하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조차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눅24:15, 38)

고통스럽고 슬픈 일들이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교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주님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눕니다. 그분께서도 언제나 이 교제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그분 앞에 기억에 관한 책이 놓여있더라 / and a book of remembrance was written before him for them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립니다. 두 사람이 거실에 앉아서 혹은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혹은 자동차를 타고 같이 가면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 뿐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후에 이것을 다 보상하기 위해서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설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가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단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교제의 시간을 갖을 때 그분께서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them that feared the LORD 우리는 앞선 두 장에서 말라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 무리들을 책망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올바른 마음자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라기가 즐겁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 / and that thought upon his name.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을 향하여 축복을 부으시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 강렬하셔서 단지 그분에 대하여 생각만 하는 자들에게도 보상을 하십니다. 이 멋진 계시야말로 그분께서 교제를 하고자 만드셨던 그 창조물에 대한 그분의 진정한 사랑과 깊은 갈망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해 살기 원하십니까? 그분께서는 그러한 삶을 보상하십니다. 그분을 섬기고자 하십니까? 그와 같은 섬김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분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단지 그분의 이름에 대해 생각하고자 하십니까? 그것까지도 보상받으실 것입니다.

죄와 인간의 습성을 정복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기쁘고 즐거운 승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삶을 풍성하게 향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대한 전투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정서적 상태를 결정짓습니다.

생각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창세기 6:5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창6:5) 생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81번이나 사용되었는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구절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인간이 무엇인가 생각했다 하면 항상 잘못된 것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에 기반을 두지 않

고, 자신의 생각을 행동의 기초로 삼는 자들은 미친 자들입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시94:11)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허탄한 생각들은 미워하나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시119:113)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사55:8-9)

생각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마태복음 9:4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마9:4) 인간이 하나님과 관련하여 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네가 이 일들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고 그것들을 네 눈앞에 차례대로 놓으리라, 하시는도다.”(시50:21) 그런데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 한 생각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고전 10:12) 올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적절하지 못한 생각과 악한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경 말씀들에 순종하도록 할 때에만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절차를 밟아야 넘어지지 않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고린도후서 10:3-6에 나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고후10:3-6)

여러분의 생각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 생각들을 즐기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예수님께로 가져오십시오. 우리의 생각들이 주님께 복종하도록 합시다. 우리 세대 중에 경건치 못한 세대가 있는데 그들은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에 근거해서 행동합니다. 우리의 악한 사회는 뭔가를 잘못 상상하고 있고, 그 상상을 바로 그들의 삶의 기초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바뀌는 것에 따라 즉흥적으로 행동합니다. 교회의 회원 중에도 패역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제멋대로 생각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승인이라도 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면서 논쟁을 펴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 다툼과 싸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어떤 여자는 자기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중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교회가 분열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생각이 바로 원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즉시 사로잡아 주님께로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말씀에 순종해야지 너희 자신의 상상에 순종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형편없는 사례는 자기 상상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상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악한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령께서 내 생각을 그분의 생각으로 바꾸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곱곰이 생각하라.**”(빌4:8) 나의

게으른 마음속에 들어온 것들에 흔들리다가도, 의도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관한 생각과 그분의 축복과 권능에 관한 생각과 그분의 선하심과 엄하심과 다양한 은사들의 선물들에 대한 생각과 주께서 나를 신실하게 징계하신다는 생각들을 하면, 주님께서 나의 생각을 육신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걸으시면서 생활하셨을 때 이 본질적인 진리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셨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관해서 사람들과 끊임없이 다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8에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묵상 내용들과 일치하도록 바꾸셨습니다.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마3:9)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마5:17)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마9:4-5)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마10:34)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눅13:4-5)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니라.”(요5:45)

그 진리가 보이십니까? 주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면 우리의 생각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실제에 맞게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단계는 연구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히4:12)**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아는 자를 깨우치게 하는 유일한 길은 그 생각을 성경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살이 뒤져서 그 모든 생각들을 성경 안에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모든 생각은 짝 지워버려야 합니다. 성경과 일치하는 생각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면 이 과정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내 생각들은 내 길을 바르게 인도할 만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로 가져오면 나의 헛된 상상들이 그분의 말씀들로 바뀝니다.

마지막 단계는 좁은 길로부터 내 생각이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사26:3)

어째서 승리하며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은지, 그 이유를 알기란 매우 쉽습니다. 주께로 생각을 고정시키려는 헌신과 노력은 무의미한 갈망보다 훨씬 낫습니다. 영 안에서 걷기를 원하고 더 풍성한 삶을 알기를 원한다면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십시오. 이것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꾸준히 지켜서 좁은 길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경구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말라기의 상당한 분량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 4:3에 이르기까지 쪽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교리적, 그리고 예언적 요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인 적용을 여러분에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라기 3:17-18을 읽고 그것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구절들을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살펴보시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두려운 때가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그분의 율법을 지키기를 거부했던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21가지의 끔찍한 심판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야곱의 고난이라 불리는 때에 그분에 대해 생각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남은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그분의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택함 받은 사람들(이스라엘 민족)의 일부가 아니라 참된 이스라엘이 된 몇몇 사람들을 말합니다. 로마서 9장에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곧 육체의 아이들이나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롬9:6-8).

“그 날에”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 있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날은 끔찍한 살육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일지라도 이 남은 자들은 메시아에게 소중한 자들이 될 것이고 그분의 보물로 간주될 것이며 그 불 같은 시험을 잘 견뎌내어 결국 그분의 면류관에 쓰일 보석으로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원수들이 사방에서 멸망하는 가운데 이 신실한 자들은 보존될 것이고 아들들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 광야에 흩어진, 숨어있는 모든 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짐승이 권력을 잡게 되었을 때 그를 피해 도망가 상당 기간 살았던 바로 그 장소에서 말입니다(마4). 이로써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들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구출해내어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주님의 천년왕국에서 재판관의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에 대한 참되고 적절한 해석입니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성경구절에는 교회의 미래와도 관련된 내용이 여럿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배교의 시대에도 주님의 참뜻을 알고 따르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영원히 그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어서, 그들도 종들이 아닌 아들들로서 그 왕관과 보상이 분배될 것입니다(갈4장). 하늘에서는 보상이 주어지고, 땅에서는 환난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그분의 원수들을 므깃도에서 불태우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대장을 뒤따라 말을 타고 지나갈 때에 채들 밖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터인데, 천년 동안(계20), 그분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실 그 도시들에서 그분을 대신하여 의로운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눅19:17). 이 두 가지 각도에서 지금 이 성경구절을 조심스럽게 읽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많이 기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 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 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같이 자라리라.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그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가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말3:17-18, 4:1-3)

그들은 나의 것이 될 것이라 / And they shall be mine 이 말씀을 보면 인간에 대한 주의 갈망은 한결같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을 구속하기를 원하시고 자신과 화해하기를 원하시며 인간들의 죄로 인해 단절된 교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리 되도록 허락하십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 saith the LORD of hosts 이 이름은 싸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전사로서의 이름인데, 그분께서 전쟁을 수행하시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구출하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자유를 빼앗기고 순교하는 이 모든 현상들에는 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출15:3). 이들은 하나님의 강한 팔에 의해 언젠가는 구출되어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간 옛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날 / in that day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구절인데 스가랴에서 좀더 철저하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보석들을 만들 때 / when I make up my jewels 성경 역사에 나오는 엄청난 위기들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의 진노가 전례 없이 쏟아 부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분의 은혜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과 물 속에 빠져서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죠.

소돔 평야에 있는 도시들에 내린 그 불덩어리들은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볼 수도 있고, 그분의 긍휼의 증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쏟아지는 불 아래에 있는 소돔의 주민들이 바라보는 불과 안전한 곳에서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불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고라와 그의 동료들이 떨어진 땅의 갈라진 틈은 모세와 신실한 자들에게는 아무런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그 날이 있는데 그 날은 그 전과 그 이후의 어떤 때보다도 잔혹할 것입니다. 환난의 공포를 견디어내야 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심판을 받게 될 자들에게는 이날이 아주 무서운 악몽처럼 도래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숨겨주시는 때가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 날은 파괴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구원자께서 선물을 제공해주시는 축복의 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둘 중에서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보석을 획득하는 세 가지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보석을 직접 찾아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보석들을 살 수 있을 것이며 선물로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석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언급된 세 가지 방법들을 모두 동원해서 그 보석들을 획득하셨습니다.

“내 보석들”이라고 주님께서서는 그 백성을 언급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비싼 진주를 사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아버지

께서는 그분의 마음속 갈망을 그분께 허락하심으로써 그분의 신실한 순종에 대해 보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복된 진리를 우리 앞에 제시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그의 가슴에 두른 흉배 위에 보석을 박아 지니고 다녔던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자신의 마음 곁에 항상 우리를 데리고 다니십니다.

보석을 소유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석을 투자의 목적으로 소유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가치가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백성인 진주입니다. 인생의 헛된 보석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한 쪽에 놓고 우리의 혼을 또 다른 쪽에 놓으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느 쪽을 향하는지에 따라 균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막8:36).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석으로 치장하는 이유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부를 지니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람들의 눈앞에 드러내셔서 그분의 지위와 탁월함에 대해 충분히 놀라워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보석들을 만드노라” 우리는 보석이 아니라 진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가치나 우리의 소중함, 우리의 영적인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우리 안에서 그분께서 역사하신 결과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보석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께서 행하신 것들로 인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내 보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주 하나님의 개인적인 재산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나 경이로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라. / and I will spare them 여기서의 “그들”의 후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정하게 적절히 또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우리는 이 성경구절과 장 그리고 말라기 전체의 문맥을 고려해야 합니다. 말라기가 기록한 말씀들의 대상자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언도 그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적절하고 올바르게 영적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약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과 잘 대응되는 내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합니다.

우선, 유대인과 관련지어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490년 동안 4개의 이방 왕국들이 등장하여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임을 다니엘서 2장과 9장에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네 개의 왕국 중 네 번째 왕국으로부터 전 세계를 지배할 독재자가 한 명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분명하게 지적하시기를, 이 통치자는 7년 동안 권력을 장악하게 될 것이며 이 7년 중간쯤부터는 평화의 사람으로 위장한 가면을 벗어버리고 그 사악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형상을 세울 것이며 모든 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우상숭배하도록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지막 시대의 독재자의 활동이 다니엘서 3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형상에 절하는 것으로부터 야기될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형상을 세울 적그리스도의 손아귀로부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유대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만 합니다. 그분은 한때 거부당하셨던 메시아이신 분입니다(단11:31).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

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마24:15-16)

유대인이 야곱의 고난의 기간에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뿐입니다(렘30:7). 도망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계12:14-16, 눅21:21) 숨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호2:14)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대환난이 끝날 때까지 있게 될 것입니다(사26:20-21).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3년 반 동안 부양하실 것입니다(계12:14). 과거에 이들의 조상이 이집트로부터 구출될 때처럼 말입니다(호2:15).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서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순종하지 않고(호13:13) 머뭇거리다가 파멸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예루살렘은 사망이 사방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암5:19).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다른 믿는 자들과 함께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피뎌는 기간이 되면 자신들이 남겨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인 적용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임한 마지막 심판에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단9:24-27). 우리는 그 진노의 때가 오기 전에 반드시 들려 올라갈 것이며(살전4), 끔찍한 환난 때의 공포로부터 면제받을 것입니다(살후1-2).

자신을 섬기는 자기 자신의 아들을 사람이 아끼는 것처럼 / as a man spareth his own son that serveth him.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고전10:32)를 구분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거짓 교리는 이 세 그룹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한 그룹을 다른 그룹으로 대체시키면서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이스라엘은 종으로 언급된 반면, 거듭난 자들은 아들로써 다루어지고 있다는 일반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요 1:12, 요3:1-2). 교회시대에 유대인들은 율법하에 머물러 있는 종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그들도 거듭난다면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갈4:1-6).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날 때 이미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된 자로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종이 되어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가장 진실되고 영적인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은 하늘에 있는 문을 통과하여(요10:1-10) 들려 올라가게 될 것(살전4:13-18)이라는 것과 하늘에 가서 왕좌 주변에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계 4-5). 이것은 환난 때 심판이 시작되기 전입니다(계6).

말라기의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 민족에 속한 자들로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던 자들은 주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예언하신 70째 주 기간에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돌봄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때는 이들의 몸이 새롭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이미 부르심을 받아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두려운 때에는 다니엘과 대언자들의 예언이 하나씩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녀가 주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산으로 도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분의 교회를 아끼신 것처럼 그분의 진노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자신의 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은혜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봉사도, 선행도, 성과도, 호의도 베풀지 못했던 행함 없는 자들에게 바로 이 생명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믿게 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을 다 한 것으로 간주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환난 기간에 남자든 여자든 청년이든 그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

겠습니다. 이 사람은 선하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환란 기간에 살고 있는 이 지구 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생존하기 위해 겨우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점점 심판과 어두움 그리고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 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순간 두 명의 증인이 설교를 합니다(계11). 그들 중 한 명이 아주 무섭게 생겼는데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혼들을 의로 이끌고자 애쓰는 증인(겔9, 단12:3)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도망쳤습니다.

말라기는 이런 경우, 이들이 믿음으로 도망을 간다면 아들로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아들이었던 적이 없고 주님을 섬긴 적 또한 없지만 단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간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섬긴 자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십시오. 그곳에는 실패와 수치, 부족함과 오류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던 이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보상들을 읽어 보십시오. 이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는, ‘믿음으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순종한 것처럼 그들을 대해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신뢰했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한 민족 중에 몇 사람이 이 비뚤어진 세대로부터 구원받을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집으로 가지 말고 빨리 도망하라는 경고를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그 경고를 믿고 따를 순간에, 예루살렘이나 유대로부터 도망을 친 그 순간에, 그리고 잘 알지 못하

는 산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한 그 순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받은 날부터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민족적인 범법들의 무계를 지워버리셨습니다. 한순간에 그분께서는 심판의 내리침을 제거하시고 영원한 팔을 벌려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죄인인 친구여, 여러분도 주 예수님께로 돌이켜 그분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일어나셨다는 단순한 진리에 믿음을 얻기만 하면 이와 동일한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당신의 현재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과 앞으로의 모습으로부터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진실로 구원자 앞으로 돌이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무계를 지워 버리실 것입니다. 순식간에 영원한 정죄의 심판이 제거되며 영존하는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 Then shall ye return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이를 영적으로 적용해 보고 싶은 유혹을 경험합니다. 이를 적용해 보면 주님의 몸 된 교회의 미래에 관련된 계시와 딱 들어맞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라기3:16에서처럼 함께 교제하고 있고 진노를 면제 받습니다(17절). 그리고 환난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게 되며(17절)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돌아옵니다(18절). 그리고 그분의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통치합니다(18절). 모든 것이 영적으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실제적인 알맹이에 의해 드리워진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교리적으로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맥으로 보자면 온 이스라엘의 집에 주신 수십 여 가지의 성경적 약속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가장 참되고 적절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야곱의 흠어진 자녀들을 땅끝에서부터 모아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심으실 것이라는 그 약속보다 미래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축복들이 대언자들에 의해 더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성경구절들을 읽어보십시오. 이 성경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자녀들에게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약속들 중 몇 가지를 꼽은 것입니다. 이 구절들 전부가 결국은 땅 끝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약속의 땅에 안전하게 거하게 해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날들에 그것이 이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의 눈에는 놀랍게 보일지라도 내 눈에야 그것이 놀랍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데려와 구원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스8:6-8)

“보라, 내가 내 분노와 격노와 큰 진노 중에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모으고 이곳으로 다시 데려와 안전히 거하게 하리라.”(렘32:37)

“또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처소를 정하고 그들을 심으리니 이로써 그들이 자기 처소에 거하며 다시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또 사악한 자손들이 다시는 예전과 같이”(삼하7:10)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사 여러 땅에서 곧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부터 모으셨도다.”(시107:2-3)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그 날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 중의 남은 자들 곧 남게 될 자들을 되찾되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

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되찾으실 것이요.”(사11:9-12)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네 씨를 동쪽에서부터 데려오고 너를 서쪽에서부터 모으리라.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붙잡아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 끝에서 데려오라, 하리니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사43:5-7)

“그러므로 주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오리니 영존하는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요, 그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터인즉 슬픔과 애곡이 달아나리이다.”(사51:11)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다시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 계신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과 모든 땅 곧 친히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 계신다, 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다시 데려가리라.”(렘16:14-15)

“내가 내 양 떼를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나라에서 그들의 남은 자를 모아 그들의 양 우리로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다산하고 번창하리라.”(렘23:3)

“내가 내 눈을 그들에게 고정하여 복을 주며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데려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그들을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과 내가 주인 줄 아는 마음을 주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리라.”(렘24:6-7)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의 포로 된 것을

되돌리고 모든 민족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곳
으로부터 너희를 모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
오되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떠나게 했던 곳으로 데
려오리라.”(렘29:14)

“보라, 내가 그들을 북쪽 나라에서 데려오고 땅의 경계들에서 모으되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와 아이 뱀 여자와 아이를 배어 산고를 겪는 여
자를 그들과 함께 모으리니 큰 무리가 거기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슬피
울며 올 것이요, 내가 간구를 듣고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물
있는 강가에서 곧은길로 걷게 할 터인즉 그들이 거기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 자
니라. 오 민족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듣고 먼 섬들에서 그것을 밝히 알
리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홀으신 이께서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 떼를 지키듯 그를 지키시리니 주께서 야곱을 구속하셨고 그보다 강
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속하셨도다.”(렘31:8-11)

“그러므로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심지어 너
희를 백성들로부터 모으며 너희가 흩어져서 거하던 나라들로부터 너희
를 소집하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라.”(겔11:17)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을 그들이 흩어져
함께 거하는 백성들로부터 모으고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될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땅 곧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에 거할 것이요,”(겔28:25)

“내가 그들을 백성들에게서 데려오며 그 나라들에서 그들을 모아 그
들의 땅으로 데리고 가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와 그 나
라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먹이되”(겔34:13)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가리라.”(겔36:24)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이 가서 함께 거하던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려오리라.”(겔37:21)

이 사실들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성취되어 히브리 민족들은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과 사악한 자들 사이를 구별하리라. / and discern between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이 책의 제1부에서 읽은 것과 비교해보면 정말 즐거운 말씀들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죄들이 다 끝났고(단9:24), 그들이 구약의 진리에 의해 그들의 눈을 떴고 있던 베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제거되어 치유 받았습시다(롬11, 고후3:14). 이제 귀환하게 될 남은 자들은 통치하시는 메시아와 함께 거하면서 그분의 거룩하신 율법의 교훈들을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순수한 명령들을 시행할 것이며 모세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이 받아들였던 그 언약의 모든 명령들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다니엘의 70째 주 끝까지 잘 견디는 자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된 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동안에는 악한 자들과 악한 행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태어나게 될 사람들도 오늘날의 사람들과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때의 그들은 더 철저하게 통제될 것이며 더 신속하게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갈망을 성취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몸과 혼까지 내어 맡기는 위험을 감수하는 자들이 지금과 똑같이 있을 것입니다.

말라기 3:18의 말씀은 이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속 받은 자들은 왕국시대에 일정량의 통치권을 행사하게 되어 천년왕국의 순수성을 더럽히는 자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다스

리는 12사도와 같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게도 영적인 적용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시대 성도들 또한 누가복음 19:11-27에 나와 있듯이 주님의 왕국 때에 몇 몇 도시들에 대해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사이를 분별하게 될 것이다. / between him that serveth God and him that serveth him not.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남에서 북까지 온 지구 상에 펼쳐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분의 왕좌로부터 율법이 온 사방으로 펼쳐지며 교회가 그 구원자와 함께 통치하고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의 땅에 안전하게 거하게 될 때 그래서 민족들이 영광의 빛으로 걷게 되는 그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공개적으로 그분께 도전하다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시 2:12). 많은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두려워 그분의 율법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으로 그 왕국에 들어가게 된 자들은 천 년이라는 기간에 태어나는 자들과 반대로 분별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환난 성도나 그리스도인은 천년왕국에서 분별력 있게 행동하지만 천년왕국에서 양들로 분류된 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오늘날의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타고난 자들이므로 분별력이 없어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죄를 지어 심판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때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며 분별하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은 말라기 2:17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가 주를 섬겼는데 무슨 이익을 보았느냐?”라며 히브리인들은 대들었습니다. 그 때가 되면 남은 자들이 입증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에는 분명히 유익이 있으며 대들던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입니다.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제가 한 말

숨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에도 구원받은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어느 경륜에 속해 있는지 모르고 빗나가 있습니다. 교회에 앉아서 자신들의 엄청난 영성을 기초로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시대는 그와 같은 판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천년왕국 때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갖추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 역시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주 초신자였을 때에는 길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누가 구원받았고 받지 않았는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목사들이 예배당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여자의 옷감이 무엇인지 남자는 어떤 식으로 머리를 빗고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에 근거하여 손가락으로 지적하며 누가 의로운지 사악한지 분별해 내는 것을 보며 그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이들 목사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그저 자아도취에 빠져 성령님과 자신의 상상을 혼동하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착각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형편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기쁘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눈에는 매우 훌륭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30% 정도밖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모습에는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들의 내적인 면은 많은 경우에 무시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신실하게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쓴 뿌리나 불평,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욕심

이 가득 차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시대에는 알곡 중에 가라지가 들어 있음을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가려서 뽑아내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쁜 것 중에서 좋은 알곡을 구별해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아주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든 비판적으로 보든 우리는 잘못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사실 그들 스스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주어진 능력에 비해 아주 작은 것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빛 가운데서 걷고 있는 반면에, 훨씬 더 성숙한 자매가 실제로는 아니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미혹 당하기도 하고 자신을 배반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머리 길이 혹은 자녀들의 수로 아니면 홈스쿨링을 하는지의 여부로 어떤 유형의 옷을 입는지 등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매우 어리고 얇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점잖게 차려입고 홈스쿨링 하는 부모들에게서 아주 끔찍한 거짓말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또 저는 훌륭하게 구령을 잘하지만 넥타이를 매어 본 적이 없고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는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시대의 우리는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단할 만큼 충분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누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분명하게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들에 대해 반드시 설교해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사악함과 세리의 의로움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중에 뭇이 의인
이므로 구출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교회에 두 여인이 있습니다. 그 중 한 여인이 옷을 잘 차려입은 자매가 뒤를 도는 순간 수군거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집에서 내쫓고 교회에 와서는 자신이 버림받았다면서 사람들의 동정심을 구합니다. 또 다른 여인은 이제 막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바지를 입고 있고 지갑에는 담뱃갑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와 같은 모습이 주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과연 누가 의롭고, 의롭지 못한 것입니까? 판단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낫겠지요.

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선택한 음악이 너무 세상적이라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이제 막 10대가 된 아이들이 프로 농구장에 경기를 보러 가도록 허락했군요. 그곳에서는 3시간 여 동안 시끄러운 로큰롤 음악이 나오고 타임아웃 동안에는 거의 별거벗은 여인들이 춤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의, 세상적인 음악을 교회 안에서 선택한 사람들보다 더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옳은지 그른지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다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난 후 올바른 판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겠으나 지금의 교회시대에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그와 같은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제 15 부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리니...(말4:1-3)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 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같이 자라리라.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그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가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말4:1-4)

우리는 말라기의 책 뒷부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 때에 겪을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공부로 다니엘의 69번째 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함께 마무리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70째주가 대환난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됨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시대 전 기간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전혀 흘러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시계는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 멈추었고, 교회가 휴거됨과 동시에 다시 작동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라기에서 읽은 내용들은 마태복음과 내용이 연결되고 바로 대환난을 다루는 성경과 연결이 됩니다. 교회시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기간 사이에 있기 때문에 괄호 안에 해당합니다. 이 내용은 대언자들이 충분히 잘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매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 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

이 밝히 말하였는데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기록된 바, 이 일 뒤에(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로부터 한 민족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이후라는 말입니다.)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의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환난 끝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사입니다.)”(행15:13-16)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으로 연결되는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예루살렘에 왕좌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그의 선택한 백성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핵심 주제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행15:17)

보라, 그 날이 오리니 / For, behold, the day cometh 성경에 예언과 관련된 구절 중에서 ‘그 날’ 또는 ‘바로 그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시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듭난 우리들에게 인생의 가장 위대한 날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바로 그 날이겠지요. 아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에 대해 논쟁하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구원받은 그 날 말고 또다른 위대한 날은 첫째 구원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그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죽으셨던 그 날이 우리에게는 위대한 날일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위대한 날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휴거날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관점입니다. 이를 보면 우리는 여전히 자아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독생자이자인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에게서 죽으신 날은 위대한 날이 아닙니다. 그 날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날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달력에 있어서도 주님이 죽으신 날은 중요

한 날이겠지만 가장 위대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에게 가장 위대한 날은, 그분의 아들이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 이 땅에 돌아오셔서 영광의 예루살렘에 왕국을 세우시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왕과 왕국, 그리고 왕좌라고 하는 문제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공통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언급한 성경구절과 왕좌와 관련된 성경구절의 비율은 1:20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돌아오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왕께서 진노하심으로 돌아오셔서 그의 원수들을 벌 주시는 그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의 왕좌가 세워지는 날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부릅니다(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칭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신약적 용어로, 그분께서는 이방인들의 시대를 마감하고 사탄의 통치를 마감하시는 분으로서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던 정복하시는 왕이십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나오는 책, 스가랴를 잠깐 살펴봅시다. 스가랴 12장에 보면 그날에(3절), 그날에(4절), 그날에(6절), 그날에(8절), 그날에(9절), 그날에(11절), 그날에(13:1,2,4), 그날에(14:6,8,9,13,20-21) ... 가 계속 해서 반복됩니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품고 계신 날인 것입니다. 그분의 달력에서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그날이 온다 / the day cometh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마음이 흔들릴까봐 주님께서 수백 번에 걸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경고에 대해서, 이 약속에 대해서, 즉 그 날이 올 것을 밝혀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날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점점 나아지니 다시 오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권능이 너무나 강력해져서 하나님께서 물러나실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담의 자녀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너무나 실망하신 나머지 관심을 끄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절대 바

꿀 수 없었습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엄청난 문제가 인류에게 발생했지만 그래도 그분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짓 종교를 만들고 이단들을 만들어내고 종파들을 만들어내는 배교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들을 조롱하려고 사람들이 힘을 합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교도들은 아마 분노하고 사람들은 헛된 것들을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깊이가 없는 자들이 장난감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상실된 자들이 하늘이 없다고 떠들어떨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께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날은 옵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자적으로 오신다는 것에 대해 의심하는 모든 분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도 사람들은 그분께서 죽으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시리라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라고 칭하신 성전을 내려놓고 다시 몸을 입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그 위대한 십자가와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부활하시리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지만, 그분은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도 저는 그 사실을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전혀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 그분이 하시겠다는 방식 그대로 이루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했던 일이나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일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교만한 자들과 실로 사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 / all the proud, yea, and all that do wickedly 패망에 앞서 교만과 사악함은 늘 먼저

있기 마련입니다. 말라기 3:15 말씀을 보면, 반역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을 행복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자들을 불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반역자들은 사악한 일들을 하는 자들이 세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그들은 뿌리와 가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은 하나님의 관점과 대부분 다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공통된 견해를 갖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일시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그루터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 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 하노라.”(말4:1)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태우는 일과 항상 같이 등장하여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자처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삼키시고 소멸시키기 위한 불 같은 심판이 늘 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로서 자유주의 노선을 걷는 사역자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개념에 대해 굉장히 분노합니다. 보수적인 목사들도 예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는 내용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재림에 관련된 이와 같은 심판의 내용들이 성경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회중에 이 정보를 실제로 전달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우리가 경배하는 센터에 와서(그들은 교회라는 말도 싫어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를 듣게 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 생각해야 하는거 아니냐? 얼마나 황당하겠는어? 꼭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해야겠어?”라고 말할 것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왔다가 그런 진리를 듣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런 얘기는 교회에서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본주의자들은 “만약 그런 진리를 선포했다가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져서 교회에 다시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교회의 운영비는 무엇으로 감당하겠는가?”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이렇게 타협하는 자들은 진리보다 mammon을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미국이 망하는 길로 들어선 것에는 이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진리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을 마음대로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드높이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 아니면 돈을 얻기 위해 혹은 둘 모두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어떤 이상한 예수라는 이름의 우상을 양 무리들에게 팔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고르신 단어들을 조심스럽게 살피십시오. “**그들을 태울 것이요**” 왜 계속해서 태운다는 말을 강조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게 될 때 그분은 사람들을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혼을 지옥에서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자신의 택함 받은 백성을 대적하는 살아있는 남녀들을 다루실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욥2:30-31) 매우 끔찍하게 들리지만 이는 서곡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실제로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기 위해 돌아오시는 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이,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계19:11,15) 요한 복음 1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들 즉 히브리서 4:12-13에 나오는 말씀의 칼로 내리치실 터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 앞에서 불이 나와 그분의 원수들을 소멸시킬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와 같은 동일한 권능으로 재림 때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해와 땅, 지구, 달, 별들과 식물과 동물들을 말씀으로 존재케 하셨던 그 권능이 재림 때에도 동일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마겟돈에서도 그분의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라, 태우라!” 주님과 주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모여 있는 모든 자들이 타오르는 불길에 소멸될 것입니다. 그 불길은 그분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올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7-9, 2:8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살후1:7-9)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살후2:8)

불은 오랫동안 심판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불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들은 문자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에서도 문자적으로 타오르는 불이 있으며

불뭇에도 실제 타오르는 불이 있을 것이고 민족들을 심판하는(마13:25) 그 때에도 타오르는 불이 있을 것이며 그분의 진노의 날에도 주님의 입술로부터 실제로 타오르는 불이 나올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의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지만 그 조롱을 받으시는 그분께서 언젠가는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분 원수들의 피를 가르고 말을 타고 오실 것이며(시68:23),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분을 대적하여 악을 꾸미는 자들을 삼키실 것입니다(시21:8-11). 그리고 민족들의 군대에 혼돈과 멸망을 가져오실 것입니다(사34:1-8). 그분께서는 그들이 기절할 때 비웃으시며(시2:1-9), 높임을 받을 것이요, 인간들은 낮아질 것입니다(사2:10-21).

주의 날에 임하게 될 불은 핵폭풍과 같습니다. 미국이 2차 대전을 끝내기 위해 일본에 떨어뜨린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친 영향과 그 모습을 종합해보면, 주님께서 그분의 원수들에게 사용하실 그 불로부터 나타날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받으며 모든 얼굴이 검게 되리라.”(요엘2:6) “그녀가 텅 비고 비어 피폐하게 되었도다. 마음이 녹으매 무릎들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에 큰 고통이 있고 그들의 얼굴이 다 검게 되는도다.”(나훔2:10)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불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분께 감히 대적을 시도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싫습니다.”라며 불법의 사역자들 편에 섰던 자들이 징징거립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자들을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분께서 은혜로 다가올 모든 진노로부터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거룩하신 이름에 찬양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20장 47-49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남쪽의 숲에
 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네 속에 불을 붙이리니 그것이 네 속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
 든 마른 나무를 삼킬 것이요, 그 타오르는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며 남쪽
 에서 북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얼굴이 그 안에서 불태워지리라. 나 주가
 그 불을 붙인 줄을 모든 육체가 알게 되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시기에 그때에 내가 이르되, 아, 주 하나님이여! 그들이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비유들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나이다, 하니
 라.”(겔20:47-49) 여호와와 증인들은 그분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주
 장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 오늘날 여호와와 증인들이 주장하는 그
 말이 4,000년 전에도 있었던 아주 구태의연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
 습니다.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4,000년 전에도 이스라엘은 그분의 말씀
 이 비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을 태워버리시겠다고 말씀
 하실 때마다 사악한 자들은 모든 말이 다 비유적인 말이고, 하나님께서 그
 런 말씀을 실제적 의미로 하실 리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 문자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
 께서는 그 의미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겟돈에서 사람들의 몸을
 태워버리실 것이며 사람들의 혼은 지옥에서 태우실 것입니다.

스가랴 14:12를 보면 이는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열에 의해 걸어가던
 사람이 그대로 타서 순간적으로 새까맣게 타버리는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
 합니다.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설 때에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
 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소멸될 것
 이요.”(슥14:12) 엄청난 열과 폭풍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서 있는
 채로 녹여버리십니다. 최초로 원자폭탄을 실험했던 그 장소 이름이 삼위
 일체라고 하는 것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그분의 말씀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히1:3). 따라서 그분께서 정하시는

때에 그 원소들을 다 해체하실 수도 있습니다(벧후3:10-11). 저는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친절한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와 같은 일을 하시려는 걸까요? “보라, 주가 불과 함께, 회오리바람 같은 자신의 병거들과 함께 임하여 격노로 자신의 분노를, 불꽃으로 자신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주가 불과 자신의 칼로 모든 육체와 변론하리니 주에게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라.”(사66:15-16)

말라기 4:1에 당신이 원하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니 참으로 교만한…그 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이는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기름부음 받은 그룹이었던 루시퍼를 높고 높은 곳에서부터 밑바닥으로 끌어내렸던 무서운 죄입니다. 또한 이브와 그의 남편을 함께 끌어내린 죄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모든 타락한 자녀들의 멸망은 교만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교만이야말로 가장 혐오스러운 죄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최후는 오븐에 굽듯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실로 그러하도다, 사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은 모두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 yea, and all that do wickedly, shall be stubble 지금 말라기가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도전장을 던졌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했고 하나님은 결코 죄를 심판하지 않으실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그들이 연루된 사악한 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모래시계의 마지막 모래 한 알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분의 긍휼의 시간을 끝내고 심판하실 것을 정해두셨습니다. 그때에 아들 하나님께서 흰 말 위에 올라타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입으로부터 그분의 진노와 심판의 불길을 내뿜어 그분을 대적했던 이들을 치실 것입니다

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큰 진노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후서에 따르면 교회시대는 구약시대의 마지막과 같은 모습으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심판이 온다고 하면 장난거리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벧후3:3-4) 조롱하는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은 신경쓰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분은 돌아오십니다.

“그들은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 곡식을 낫으로 베고 남은 밀등을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그것은 딱히 쓸 곳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생산해내지도 못하고 건축 자재로 쓸 수도 없습니다(출5:12). 그것들은 너무나 쉽게 타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그리스도가 결전의 골짜기에 모아놓은 일억 명 군사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그 용이 마지막으로 히브리 민족을 멸하도록 저 땅 끝으로부터 행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말라 있는 나무 그루터기를 사나운 불길이 소멸시키듯이 그들을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출되던 그 날에 모세는 노래하기를,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군대를 다음과 같이 다루셨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주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주의 크신 위세로 엎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를 보내시매 그것이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소멸시켰나이다.”(출15:7)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 자신에게 대적한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행9:5).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가던 도중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그루터기처럼 소멸시켜버렸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말라기가 말씀을 전했던 청중들은 욥기 시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했던 신성모독적인 발언과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이르되,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는 주의 길들 알기를 원치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리이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겠나이까? 하는도다.”(욥21:14-15)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답변입니다. “사악한 자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는가! 그들의 멸망이 그들에게 얼마나 자주 닥치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분노하사 고통을 나누어 주시는도다. 그들은 바람 앞의 지푸라기 같고 폭풍에 휩쓸려가는 겨 같도다.”(욥21:17-18)

아삽은 하나님의 원수들에 관해서 시편 83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시83:2) 그분의 원수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고자 했습니다.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그들을 끊어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시83:4) 머리가 열 개 달린 민족들의 연맹체(5-9절)를 만들었죠(계17). 아삽의 기도에서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열 개의 민족으로 연합된 연맹을 그루터기처럼 만드시고 태워버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도 말라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슷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불이 지푸라기를 삼키는 것 같이, 불꽃이 겨를 태우는 것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고 그들의 꽃이 먼지처럼 날리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사5:24)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굉장히 현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구식인 어리석은 죄인들의 집단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네가 너의 수많은 계획으로 인하여 피곤하게 되었도다. 이제 별을 살피는 자

들과 별을 바라보는 자들과 달마다 예언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내게 임할 이 일들로부터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지푸라기같이 되어 불에 탈 것이요, 그 불꽃의 위력에서 자신을 건져 내지 못하리라. 옆에서 몸을 따뜻하게 할 솜도 남지 아니하고 앞에 앉을 만한 불도 남지 아니하리라.”(사47:13-14)

요엘은 주의 날에 대해 가장 완벽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엘이 말하기를 그날(2:1)에는 타오르는 불길(2:3) 말 위에 타고 계신(2:11) 그분으로부터(2:3-4) 나와서 그분의 원수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루터기를 삼켜버리는 시끄러운 소리처럼” 말이죠.

물론 우리 거듭난 믿는 자들도 우리들이 행한 일 중의 일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체는 불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요.

그루터기라는 단어는 성령님께서 안전하게 선택하신 단어입니다. 밭에서 곡식을 수확하고 난 후 남아 있는 줄기가 바로 그루터기라는 점을 상기해볼 때 요한계시록 14:14-20에 나와 있는 이삭 줍기 수확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구절들에서 낫이라는 단어가 일곱 번 사용됩니다. 이방 민족들이 수확되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14:14에서는 땅의 수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확되는데 이는 포도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알곡이 다 수확되고 난 후의 나머지 그루터기는 불태워집니다(계19).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 that it shall leave them neither root nor branch.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성경구절입니다. 뿌리와 가지까지 완전히 소멸시킨다는 것은 회복의 소망이 전혀 없는 완전한 멸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기 5:3은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뿌리 내리

는 것을 내가 보았으되 즉시 그의 처소를 저주하였노라.”(욥5:3) 사악한 자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그가 어떤 변명을 할지라도 언젠가는 갑작스럽고 신속하게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욥기 14:7-9를 보면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게 소망이 있나니 그것은 베일지라도 다시 움이 돌아 그것의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것의 뿌리가 땅 속에서 오래되고 그것의 줄기가 흙 속에서 죽을지라도 물 냄새에 싹을 내고 초목처럼 가지들을 낼 것이로되”

정원사가 가지치기 한 식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겨울에 앙상한 그 모습을 보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되면 다시 초록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 눈에는 가지를 모두 잘라냈기 때문에 그 식물이 되살아날 수 없을 것처럼 보였겠지만 뿌리만 튼튼하게 살아있다면 거기에 물이 닿아 태양의 따뜻함으로 새로운 싹이 나고 다시 가지를 뻗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묘사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 번에 걸쳐 그의 옛 포도원의 나무를 가지치기를 하셨습니다(요15).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자주 정화시키셨습니다. 저는 제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잘라버리시지 않을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말씀의 생명수가 저에게 임했을 때 저는 소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4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나무를 잘라버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뿌리까지도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뿌리까지 완전히 소멸되면 부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라기에 나와 있는 약속을 바탕으로 우리는 신약성경으로 직접 가서 말라기 3장에 말했던 앞선 선두 주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침례인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7-10에서 침례인 요한이 한 말을 살펴봅시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의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

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유대인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가지도 아니고 줄기도 아니고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마3:7-10)

침례인 요한은 만약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역사에 등장한 그 메시아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아무런 치료책도 없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요한의 경고는 말라기가 경고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며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켄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마 3:10-11)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물 속에서 침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믿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행19). 만약 어떤 사람이 성령침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지만 가르시는 것이 아니라 줄기도 자르시고 뿌리에까지 도끼를 대실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치유책도 없이 완전히 파멸시키실 것이고 그 멸하신 것을 불 속에 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주절주절 헛소리를 반복하는 자들과 불침례를 받았으며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해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얼마나 부끄럽고 형편없게 다루고 있는지 정말 그들이 불쌍할 지경입니다. 제 말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은 절대로 불침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적용을 해 봅시다. 이 성경구절들로부터 우리가 취해야 할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멸망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행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분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마른 땅의 뿌리이셨습니다(사53:2). 그분은 이기는 다윗의 뿌리로서 교회에게 자신을 계시합니다(계5:5, 22:16). 또한 그분은 모든 영적 생명의 뿌리이십니다(롬11:16-18).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는 이새의 뿌리이십니다(사11:10). 이 뿌리가 없이는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막4:17).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우신 가지”이시며(렘23:5), “하나님의 종이신 가지”이시며(슥3:8), “그 이름이 가지이신 분”이시고(슥6:12), “주의 가지”이십니다(사4:2). 뿌리와 가지가 없이 남겨진다는 것은 영원히 정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 But unto you that fear my name 말라기 3:15에서 교만한 자들은 자신을 행복한 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태우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세움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뿌리와 가지까지 소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께서 동일한 상황을 보는데 관점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일시적인 것을 봅니다. 따라서 그의 시각에는 선명도와 인식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니다.

의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 shall the Sun of righteousness arise
성경에는 두 번에 걸쳐 크고 위대한 아침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삼일 후 일어나셔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날이 있습니다. 또 미래의 어느 날 21번에 걸친 환난의 심판들이 다 끝나고 여전히 남은 유대 민족을 치유하는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태양은 일반적인 태양이 아니라 대문자로 쓰인 'SUN'으로 이것은 주님의 이름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이 거룩한 성경에는 참으로 놀라운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단어 자체는 태양입니다. 태양은 하늘에 떠 있는 엄청나게 크고 둥근 구체인데 여기에서는 철자가 대문자로 쓰여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한 사람의 이름을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은 의의 태양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마겟돈에서 엄청난 21번의 대환난 심판 후에 돌아오실 것입니다. 민족을 치유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하나님의 막대기로 아주 심하게 징계를 내리신 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백성을 치유하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비유하는 것은 예언을 다루는 성경구절에 자주 등장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작별 노래를 살펴봅시다.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릴지니라. 그는 해가 돋을 때의 아침 햇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가 온 뒤 맑게 비침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연한 풀 같으니라, 하셨도다.”(삼하23:2-4)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

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 같이 기뻐하는도다.”(시19:1-5) 시편 19:1-5절에서는 태양이 소문자 “s”로 시작합니다. 이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하늘에 떠있는 둥그란 구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태양은 신랑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으니 경주하고자 하는 강한 자와 같이 기뻐하리라” 이 구절에서 하늘에 있는 그 태양은 어떤 것에 대한 비유이거나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은 무엇을 묘사하는 것일까요? “방에서 나오는 신랑”같다고 했으니 ‘신랑’이 묘사된 것입니다(엡5장).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지으신 적도 없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환난 끝무렵에 돌아오시는 것은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신혼방에서 신부와 함께 지내다 오시는 신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양의 혼인식과 교회의 휴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살상이 있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다마스쿠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기억해봅시다.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와 및 나와 함께 길가는 자들을 둘러 비추었나이다.”(행 26:13)

이 묘사는 요한계시록 1:16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분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계1:16)

재림에 관한 묘사에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모형을 사용하셨습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리하리라.”(마24:27) 누가복음 17:24도 이와 비슷합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빛을 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자기 날에 그리하리라.”(눅17:24)

이 진리에 비추어 볼 때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이나 혹은 주님께서 다스리러 오시도록 요청하는 것과 관련된 기도에 사용됩니다. 다음 시편 구절들을 읽어보면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일어나서 우리에게 오시라’는 기도에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시3:7, 7:6, 9:19, 10:12, 17:13, 44:23-26, 68:1, 74:22, 82:8, 102:13, 132:8).

그분의 날개에는 치유함이 있다. / with healing in his wings 이 땅에 모든 환난과 심판과 재앙이 지나고 나면 얼마나 치유함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 모든 분노가 지나간 후에 회복과 치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땅은 스스로 치유될 것입니다. 물과 나무와 풀도 치유될 것이며 대기 역시 치유될 것입니다. 사막은 장미꽃으로 덮히고 젖과 꿀이 흐르며 모든 사람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창세기 이래로 가장 길게 연장될 것입니다. 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의사이신 분에 의해 낫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비극적인 일 중에 하나는, 자신들을 믿음 치유자라고 부르면서 성경 구절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들에게 육체적인 치유의 약속으로 해당되는 것인 양 교묘히 속이는 자들에게 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너무나 무지한 나머지 자신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채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치유에 관한 현대 교회의 가르침은 심각한 두 가지 오류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다른 거짓교리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배운 바가 없는 자들이나 의도적으로 속이려는 교활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육체적인 치유의 약속을 교회에게 해당하는 것처럼 해석하려는 시도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오늘날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척 고백하는 영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물질적으로 변하여 결국 치유와 번영이라는 물질적 약속이 청중들을 더 많이 사로잡기 위해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의 일상적인 기도모임에 가서 앉아 있어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아니라 뭔가 자신의 몸이 좀 더 낫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불뭇으로 떨어질 이웃들에 대한 관심보다 자신의 감기와 귀가 먹먹한 증상을 빨리 치유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친척은 날마다 술에 취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기도는 자신의 기도제목 목록에 올려두지 않습니다.

당신이 종교 TV 채널만 켜면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외투를 휘두르며 사람들의 이마를 내리치고서 기적을 베풀었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연극 공연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런 속임수에 말려듭니다.

첫 번째 집단은 너무나 아파서 괴로우며,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아픕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인해 희망 따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실된 믿음이나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치유하는 자에 대해 완전한 확신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이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리를 절거나 암에 걸리거나 등등의 문제를 가진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기꾼들의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치

유한다는 그 사기꾼들의 사기극이 사실로 밝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참그리스도인은 곁에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 집단은 그냥 어리석은 자들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그들은 전체 쇼를 다 보고 나서 그들이 합법적으로 치유하고 있다고 믿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유 받는 모습에 흥분하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도 아니고 복음의 원수들도 아닙니다. 그저 어리석어서 누군가가 그들을 상품화하여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전혀 분별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쓸데없는 책들이 서점에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기 전에 다음과 같은 단순한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그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사기극 같은 그런 집회들도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1. 만약 진실로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당신에게는 어떤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믿음이 없더라도 그가 당신을 치유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적어서 치료가 안 된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2. 만약 어떤 사람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단순한 자들의 돈을 훔칠 생각이 없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병원이나 양로원 같은 곳에서나 자신의 은사를 발휘할 것입니다.
3. 만약 속죄 안에 건강이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안경을 쓸 필요도 없고 병원에 갈 필요도 없으며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그렇습니까?
4. 소위 믿음으로 치료한다고 하는 자들 중, 그 어떤 자도 진정으로 육체적인 질병이나 몸의 어떤 장애를 완전히 치유했다고 확실히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암환자도, 골절도, 흑색종도, 대머리도, 뽕힌 이도, 백혈병도 완전히 치유된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나 아픈 사람이 있는데 자신이 그들을 확실하게 치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려고 한다면, 그자는 이 지구를 기어 다녔던 것들 중 가장 저급하고 혐오스러운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대부분이 가난한 여인들임)의 갈망을 먹이로 삼아 버립니다. 그들은 24시간 내내 밤낮 손을 흔들며 찬양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건강과 부에 대한 약속들을 받아내려면 당신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자에게 당신의 복지 기금이나 은퇴 기금 중에서 상당한 액수를 보냅니다. 당신의 돈을 받은 그는 아마 5만 달러짜리 차를 몰고 하룻밤에 500달러짜리 스위트룸에 묵으면서 당신에게 이런 것들을 줄 겁니다. 그가 보낸 것이 당신의 마음에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보낸 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가 보낸 것은 다름 아닌 봉투 하나입니다. 그 안에는 아마 현금을 좀 더 하라는 내용의 통보가 들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런 사기꾼들은 다른 모든 잘못된 요소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지난 1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해악을 많이 끼친 은사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모든 영적인 혹은 초자연적인 권능과 은사를 다 합쳐도 안쪽 살을 파고 들어가는 발톱 하나조차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전략이 먹히는 이유는 이들이 성경에서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약속들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킨다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지키시켰다고 하신 그 약속 말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달리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눌 것입니다. 메시아에게 그들의 믿음을 두는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때 완전한 건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거둬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년왕국 때 이보다 더 뛰어난 영광스

러운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했던 히브리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며 오직 그들을 철저히 뒤엎고 그들의 형상들을 완전히 부술지니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네 빵과 물에 복을 줄 것이요, 내가 네 한가운데서 병을 제거하리라.”(출 23:24-25)

우리가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이 구절이 실제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치유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외에는 어떤 신에게 속한 것이든 다 버린다는 조건하에 치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형태로든 우상을 다 버리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12월 동지쯤에 상록수를 장식하여 트리를 만드는 일 따위를 한다거나 봄에 풍요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에 계란을 숨기는 행사를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둘째로, 당신이 살고 있는 그 땅의 모든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상을 찾아내어 부숴 버려야 합니다. 셋째로, 당신이 치유를 받으려면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플 때나 무일푼일 때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말고, 진심으로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질병을 치유해주실 것이며 이는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민족 전체에 병이 없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든 어떤 나라든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누구도 이 구절로 치유하겠다고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총 68절 중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고 나머지 68절까지는 계속해서 저주의 목록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만일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 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 주

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칼과 마름병과 곰팡이로 너를 치시리니 그것들이 너를 따라가서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신28:15, 22)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을 때 건강이 약속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불순종 했을 때는 질병이 그들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고전1:22)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시니라.)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 곧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말씀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매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하셨기 때문이라.”(행10:36-38) 주님께서는 한 번 이 땅에 오셨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육신 안에 나타난 여호와이심을 입증하셨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들의 메시아가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건강과 치유에 대한 약속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35:3-6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들에서 그분의 초림 당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입증하셨는지 볼 수 있고 또한 그분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로 말라기에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이사야서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눈 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에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사35:3-6)

놀랍게도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에게 시각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성경구절을 알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백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모든 귀머거리의 귀가 열렸고 다리 저는 모든 자들이 걷게 되었습니다. 모든 불구자들이 치유 받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사야서 35장에 계시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그분께서 다시 오시게 되실 때에는 히브리인 중에 남은 모두에게 치유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치유가 항상 죄사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께서 네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시103:1-3) 그러나 신약성경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약속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활을 베푸사 복을 주시고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셀라. 이로써 주의 길을 땅 위에 알리시며 주의 구원의 치유를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소서.”(시67:1-2) 주님이 오신 이후에 개인이 아닌 민족 전체에게 건강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 당신이 살고 있는 나라와 주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치유 받았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모든 민족들의 치유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치유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족을 향한 것입니다. 이는 복종과 순종이라는 조건하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 이외에 이 약속을 주장하는 자들은 스스로에게 해를 끼칠 뿐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아갈 것이며 / and ye shall go forth 이 문제도 문맥에 맞게 다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짐승을 피해 에돔땅의 페트라에 숨어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이 구절이 해당합니다. 그들은 숨어 있는 은밀한 장소로부터 그들의 왕이 오시면 환영하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뒤따라 예루살렘의 동문을 통과해 올리브 산으로 갈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도 영적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린양의 혼인식을 마치고 (계19), 이 지구 상으로 신랑과 함께 교회는 말을 타고 내려와 선물들을 개봉하고(단7) 1,000년 동안 결혼잔치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마22).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자라나리라. / and grow up as calves of the stall. 가축을 키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축을 아주 자유롭게 키웁니다. 그러면 동물들은 먹이를 찾아 여기저기로 돌아다닙니다. 플로리다에서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은 곡물과 먹이, 여러 보충제, 미네랄, 그리고 소금 덩어리도 사야 합니다. 그 땅의 풀은 질이 낮고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따로 영양적인 부분을 공급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벌레나 기생충의 방제에도 힘써야 합니다. 이와 같은 돌봄이 없이는, 파라오의 꿈에서 보았던 암초처럼 바짝 마른 짐승들밖에 키워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다른 여러 주에서는 플로리다보다 풀도 좋고 벌레도 적어서 좀 낫긴 하지만, 추기 때문에 얼음과 눈이 들의 짐승들에게 해를 끼치며 미국의 서부지역은 포식동물들이 어린 송아지를 잡아먹으려 옵니다. 방목으로는 짐승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반면 외양간에서 보존이 잘 되고 그 곳에서 보호를 받고 먹이를 먹고 물도 잘 먹으며 자란(눅13:15) 황소들은 살진 황소(잠15:17)가 됩니다. 이 소들은 잘 자라서 아주 크고 살진 소가 됩니다. 주인들이 특별히 잘 돌보았기 때문입니다(암6:4). 그들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었고 위험을 겪지도 않았으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주인들이 돌보는 소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방황은 끝날 겁니다. 방목한 짐승들처럼 필요한 것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원수들에 의해 위협을 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영광스러운 태양이 떠오르는 그곳에서 그들은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으며 먹을 것과 마실 것 등 모든 필요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사악한 자들을 밟로 짓밟을 것이며 내가 이 일을 행할 때에 너희 발 밑에서 그들이 재가 될 것이라. / And ye shall tread down the wicked; for they shall be ashes under the soles of your feet in the day that I shall do this, saith the LORD of hosts. 2절에서 아주 긍정적인 약속이 끝난 후에 말라기 대언자는 다시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결과를 살펴봅시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을 따르는 두 무리의 믿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무리는 그의 친구요, 신약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듭난 믿는 자들입니다. 하늘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보상을 받고 어린양의 혼인식이 끝난 후 말을 타고 그분과 함께 돌아올 것입니다(계 19). 두 번째 무리는 에돔의 산들에서 보호 받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사63:1). 이 두 무리는 주께서 그분의 원수이자 그들의 원수들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삼키는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멸망당할 모든 이들의 시체는 다 재가 되어있을 것이므로 그 재를 밟로 밟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재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구절을 읽게 되면 상당히 불쾌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고쳐보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내용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진리라는 사실을 부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순교자들의 이야기나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대신해, TV를 보고 신문이나 읽으며 인생을 보내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심한 말씀이라고 여겨지겠지요.

그러나 나치시대나 일제시대에 고통당하고 두려워하며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이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고자 할 것입니다. 공산 주의자들 앞에서 잔인하게 학대당하고 고통당했던 사람들 역시 주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의 칼 앞에 놓여졌던 사람들 역시 주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의 헤드라인과 기상보도를 보며 또 다른 재앙이 닥칠 것에 대한 경고를 읽고 시대의 표적을 살피는 사람들 역시 주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비밀조직인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 검은 교회, 즉 예수회의 수장들과 적그리스도가 만들 그림자 내각들, 보이지 않는 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역시 모두 주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더 실감이 날 것입니다. **“그 모든 자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것이다.”**

다니엘서 2장의 위대한 세계 제국들에 대해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돌이 날아와 모두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내용을 읽어보았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악한 자가 푸른 월계수처럼 뻗어 나가리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를 읽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푸른 월계수의 마지막이 정원사가 순식간에 베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읽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1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데살로니가후서 2:2에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롯에 대한 거북스러운 이야기 속에서 상당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었다는 사실 하나로 어른이 되었을 때 그의 삶이 죄와 수치로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롯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변하는 자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한때 이

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스스로가 많은 고난들을 초래했습니다. 그 평야 즉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들에 큰 불의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롱하며 멸망의 자리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않고 머물렀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롯과 그의 두 딸은 그 경고에 주의를 기울였고 피신처로 도망을 가 생명을 구했습니다.

바로 이 롯의 경험이 이스라엘의 미래와 과거의 역사에 정확하게 대응합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후서 2:6-9을 살펴봅시다.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재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 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멸할 줄 아시되”(벧후2:6-9)

너희 발바닥 / soles of your feet 성경에서 발바닥으로 언급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1:24에, 만약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 위에 스스로 발을 올려놓고자 하면 다 그들의 땅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다 너희 것이 되리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또 강 즉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맨 끝 바다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신 11:24)

그런데 지중해의 바다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

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물길을 멈추시고 그들이 강바닥을 밟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주 곧 온 땅의 주의 궤를 메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르단의 물들 속에서 멈추어 서면 곧바로 요르단의 물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로부터 끊어지고 일어서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리라, 하니라.” (수3:13) 그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수4:18).

이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용어는 정복이나 지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열왕기상 5:3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자기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주 곧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건축하지 못하였는데 마침내 주께서 그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셨나이다.”(왕상5:3) 바로 이 단어의 의미 그대로 말라기에서도 사용된 것입니다(사60:14, 겔43:7).

그리고 너희 사악한 자들을 발로 밟을 것이요. 내가 이것을 행하리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 And ye shall tread down the wicked ... I shall do this, saith the LORD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임에도 사람이 한 것으로 간주해주시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섬긴 그분의 몸 된 교회의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왕관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든 우리로부터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고 올바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일이 가능했음에도 우리가 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들을 자신들의 발 밑에 두고 밟는다고 하셨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그들이 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일하셨지만 그들이 한 것으로 간주해 주셨습니다.

미가 7:8-11에서 말씀하십니다. “오 내 원수야, 나를 치며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쓰러질지라도 일어날 것ियो, 어둠 속에 앉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빛이 되시리로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의 격노를 담당하려니와 마침내 그분께서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를 위하여 심판을 집행하시며 또 나를 빛으로 데려가시리니 내가 그분의 의를 보리로다. 그때에 내 원수인 여자가 그것을 보고 수치로 자기 몸을 덮을 터인데 그녀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여자니라. 내 눈이 그녀를 바라보리니 이제 그녀가 거리의 진흙같이 짓밟히리라.”(미7:8-11) 그리고 다음 문맥을 보십시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그 칙령이 멀리 옮겨질 것ियो,”(11절) 이로써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거저 받을 것입니다.

제 16 부 구약성경의 마지막 단어 - “저주:curse”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말4:4-6)

이 부분은 말라기뿐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에 대한 아주 위대한 결론을 보여줍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 Remember ye the law of Moses my servant, which I commanded unto him in Horeb for all Israel, with the statutes and judgments.(4절) 말라기와 예언에 관한 성경구절들과 신약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들입니다. 이 진리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자리잡지 않으면 아마도 수백 가지의 오류와 거짓 교리들과 실제적인 범법행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누구에게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의해 속박(束縛)당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확신하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투며 논쟁을 벌이고 헐박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과 말씀을 듣는 자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도대체 율법의 어느 부분이 의식법인지, 도덕법인지, 사회법인지, 희생법인지 아니면 위생법인지 그 어떤 것이 신약시대 교회 안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과 다툼, 거짓 교리가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율법의 어느 부분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지와 같은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 자들은 결코 사역자나 성경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한 민족은 신약 교회가 아닙니다. 그 한 민족은 미국도, 캐나다도, 영국도, 필리핀도, 아프리카의 어느 국가도, 남미의 국가도 아닙니다. 그 한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율법 전체 중에 아무리 작은 한 가지라도 모두 이 히브리 민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신명기 4:5-8에 걸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것은 너희가 들어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니라. 그 민족들이 이 모든 법규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민족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고요? 침례교를 믿는 민족입니까? 감리교를 믿는 민족입니까? 장로교? 아니면 하나님의 성회에 속한 민족인 걸까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예,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신4:5-6)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 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 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신4:7-8)

분명하게 이해가 되시겠지요? 율법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 그 외에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7-8절). 그런데도 그 율법에 근거하여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하면 되고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필요합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며 힘써 네 혼을 지키라. 네 눈이 본 일을 네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 평생 동안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염려하노라. 오직 그 일들을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특히 네가 호렘에서 주 네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여 그들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며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셨으므로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 산 밑에 섰는데 그 산은 하늘 한가운데까지 불이 붙었고 어둠과 구름과 짙은 어둠으로 덮였느니라. 주께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매 너희가 그 말소리는 듣되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며 다만 음성만 들었느니라.”(신4:9-12)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너희에게 밝히 보여 주시고 그것을 수행하라고 너희에게 명령하셨으니 곧 열 가지 명령이라. 그분께서 두 돌 판에 그것들을 쓰셨느니라.”(신4:13)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말1:1). “내 종 모세의 율법을 … 기억하라.”(말4:4) 신명기 4장에 따르면 규례들과 판단들과 함께 이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으며 다른 민족들에게는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그 민족의 생활 전반에 걸쳐 통치하는 법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살게 한 땅에서의 삶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을, 그 어떤 민족에게도 그와 같은 것을 주신 적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율법이 유대인 외에 그 어떤 민족에게도 주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박탈하고 구약 시대의 일부인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그 어떤 사람도 결코 강단에 서서 설교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보라. / Behold 이 용어는 말라기에서 네 번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5절에서 ‘너희’는 명백히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 약속은 성경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이미 이 예언을 성취해버렸기 때문에 엘리야가 다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같은 성품과 영성을 가진 누군가가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영을 보내 그의 백성에게 집어넣으실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군의 주께서는 대언자 엘리야를 보내고자 하십니다. 그가 오는 까닭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설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오는 목적은 그들의 자녀를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 시대에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과 전쟁을 벌였던 그 인물입니다. 아합이 여기저기 사람을 보내 죽이려던 그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서 다소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길르앗 거주민들 중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합에게 자신이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닫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했고,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갈멜산에서 있었던 위대한 모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왕상18). 그때 바알의 대언자들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 내렸고 백성들이 이를 보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는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의 하나로 서 있습니다. 율법이 모세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대언자는 엘리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야고보서에서 효과적이고 뜨거운 기도를 드리는 예로 인용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전혀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을 뿐 아니라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역시 일으켜지게 될 것이며 그분과 함께 올 것입니다. 다윗은 천년왕국 때 왕좌에 앉기 위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늘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왜 어려운 일이어야 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눈 앞에 놓여있는 이 구절은 조금 호기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대언자 엘리야’라고 성경에서 말했는데, 실제 엘리야에 대해 언급할 때는 딱 두 번만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말4:2, 역하21:12). 다른 모든 곳에서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언급 됩니다. 이를 두고 어떤 이는 이 표현이 개인의 인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닌 ‘대언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영접했다라면, 요한이 엘리야로 간주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타당한 주장인지 확인해 봅시다.

침례인 요한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른 일에 대해 책망한 것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마14). 마태복음 11:2-3은 말씀합니다. “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들 중의 두 사람을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니”(마11:2-

3) 그리고 이어서 7-10절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님께서서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들의 집에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자가 곧 이 사람이니라.”(마11:7-10) 이것은 말라기 3장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11-15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마11:11-15) 바로 이 진술로 말미암아 다음과 같은 사상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면 그래서 그분을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했더라면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에 관한 말라기 4장 예언을 성취했을 것이며, 예수님께서서는 그 순간에 왕국을 세우셨을 것이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관점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대언들과 모든 율법에 기록된 내용과 이 해석은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대언들과 율법이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미리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강조하여 말씀하셨는데, 이는 곧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가복음 24:25-27에 걸쳐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분

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눅24:25-27)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의 화신(化身)이 될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예언이 침례인 요한이라는 인물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니까? 당연히 아니며, 여기에는 명백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1:13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예언적 사실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십자가에서 그가 당할 고통에 대한 언급이라고 주님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즉, 십자가 없이는 결코 왕국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등 모든 대언자들이 다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왕국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을진대,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인다고요?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마11:1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믿는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마11:11)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문맥은 침례인 요한이 왕이 이제 곧 무대에 등장할 것을 알리는 선두주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일 백성들이 선두주자의 선포를 믿었더라면 하늘의 왕국은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에서 보니 하늘의 왕국은 결코 그렇게 수립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관련된 예언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 침례인 요한의 선포에 대해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왕 또한 받

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오는 문제와 관련된 예언의 성취에 있어서, 침례인 요한이 그 엘리야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논쟁은, 모든 사람이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날들에 그 홍수를 멈추셨을지 아닐지에 대해 논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면 만일 아담과 이브가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도 여전히 동산에서 살고 있을까에 대한 논쟁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것이 이미 과거의 확정된 사건이므로 이러한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이 지상에서 두 번째로 등장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마태복음 17:3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무슨 내용을 논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니”(눅 9:30-31)

이 구절을 보아도 분명히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자 하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주시는 분이시오, 대언자이시며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구원자로서 세상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변화산에서의 모임이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아래로 내려오셔서 혼란 가운데 빠져 있던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온 것이 왕국의 수립을 알리는 것이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엘리야가 왔다가 그냥 갔는지 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혼란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기다린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

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마17:11)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왔었고, 그의 사역을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처형당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묻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엘리야가 실로 먼저 올 것이니,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침례인 요한은 말라기 4장을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변화산에서 만나시고 난 후에 말씀하시기를 “그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말라기 4장은 아직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하시매 그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마17:12-13)

여기에 말라기 4장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견해를 따르고자 합니다.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야 안에 살아있던 그 영이 침례인 요한의 영 안으로 들어가 산 것도 아닙니다. 침례인 요한은 왕을 선포하는 선두주자로서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수치스러운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왕이 오셨는데, 그분 역시 수치스러운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왕국의 수립은 엘리야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진정으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법적인 의를 회복하게 될 때까지는 여전히 기다려야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들이 오기 전에 / before the coming of the great and dreadful day of the LORD ‘두려운(dreadful)’이라는 형용사는 아주 큰 무서움, 끔찍함, 무시무시함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무서움을 넘어서 더 강조된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었는데 그 두려움 속에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에게 보여줍니다(창9:2, 출15:16, 사8:13).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 오시는 그 날, 그분의 원수들은 이처럼 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전쟁의 사람으로(출15:3), 용사로서 오실 때에, 그들은 그들의 적의 무시무시함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분의 위엄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저는 성경에서, 구약성경 구절들을 다른 방식으로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신약에서 인용할 때 약간씩 바꾸어서 인용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와 같은 사실은 성경이 어떤 사람의 음모나 그의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음을 입증해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신약 성경을 기록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다면, 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 그대로 가져오지 결코 다르게 기록하는 부주의는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보니까 약 80군데에 걸쳐 구약의 말씀들을 가져왔는데 살짝 다른 형태를 보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말씀들이 전달된 자들의 역사적 입장과 하나님의 경륜적, 교리적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2장에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 주의 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원수들에게는 그야말로 끔찍한 날이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요엘2:31)

앞서 대환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우리는 그 기간이 길진 않지만 그 땅 위에 거주하게 될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그야말로 두려움과

끔찍함으로 가득 찬 날이 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요엘서 구절들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행2:20)

구약에 **‘크고 두려운 날’**을 베드로가 신약에서 인용할 때, 성령께서 이 단어를 조금 바꾸어 **‘주목할 만한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날은 무섭고 끔찍한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 구원자로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날은 단순히 주목할 만한 날일 뿐, 두렵고 끔찍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다가올 진노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기쁩니다.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가고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그 날이 저에게는 성경 옆에 표시를 하거나 달력에 표시를 하는 정도의 날 일 뿐입니다.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21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행2:21) 또한 로마서 10:9-13 말씀이 바울에 의해서 주어진 계시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성경구절을 살펴보면 환난 기간에 우리의 목적과 관심은 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 환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혼의 구원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지만, 여기에서는 혼의 구원이 아니라 짐승의 유린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요엘 2:32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욥2:32) 여기서 주님은 남은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은 구출될 것입니다.

이렇듯 베드로가 똑같은 구절을 인용했지만 신약시대는 ‘**혼의 구원**’을 말했고, 구약시대에는 짐승으로부터 목숨을 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출**’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40에서 구약에 해당되는 사람들보다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더 나은 것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히11:40)

(역자 첨언:이런 구절이 의외로 많습니다. 약 8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유명한 구절이 신약 성경에 3번 정도 언급됩니다. 로마서 1:17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히브리서 10장에서 한 번씩 더 나옵니다. 이것은 하박국 2:4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는 ‘believe’라는 동사는 많이 나와도 ‘faith’라는 명사는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믿음이 없는 족속’이라고 야단칠 때 나오고 하박국에게 비록 상황이 어렵더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며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 때 하박국의 경우에는 ‘자기의 믿음으로 살리라’고 해서 ‘his ’가 추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신약에서 ‘his’가 의도적으로 빠진 이유는 경륜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 And he shall turn the heart of the fathers to the children, and the heart of the children to their fathers (말4:6) 이 구절과 2장에 나온 이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내용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시

대에는 가정이 온전히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벽돌에 해당하는 가정, 즉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가 망가져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21세기로 접어든 이 시점에서 서양 문명을 바라보면, 한때 부강했던 나라들이 완전히 파멸에 이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요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쾌락적인 성관계를 즐기는 현상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사생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아버지 없는 아이들과 미혼모들에 대해 아무런 인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렇듯 아버지 없는 가정이 늘면서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사랑받으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워 생산적인 시민으로 자라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주님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자매라 성경적 원칙에 충실하게 자녀를 양육했다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 혼자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고전7).

이에 덧붙여서 돈과 쾌락을 너무나 사랑해서 결국 부모들이 자녀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밖으로 나가 자녀들을 방치하며 함께 있더라도 각자의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TV를 봅니다. 아버지는 더 많은 일을 해야만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핑계일 뿐 아버지 자신이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집이나 자동차를 구입함으로써 빚을 갚아야 할 상황에 놓여 바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즐기는 스포츠나 오락을 포기할 수 없어서 자녀들을 충분히 양육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회 생활을 포기할 수 없어서 자기 태에서 난 열매를 소홀히 하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남녀들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는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

겠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합니다. 그들은 결혼하자마자 그들의 부모님이 평생토록 일해서 얻은 모든 것을 뜯어냅니다. 그 돈에 모자란 돈을 대출 받아 큰 집을 사고 각자 통근할 때 쓸 차도 두 대를 구입합니다. 요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식사는 대부분 밖에서 해결합니다. 출근복으로 입을 좋은 옷도 사야 합니다. 이 모두를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하나, 둘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간 빚을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두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여자도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 나가야 하므로 자녀들을 주간 탁아소에 맡깁니다. 이제 아버지는 추가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이 크면 주간 탁아소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센터(사람들이 공공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지 않으려고 공립학교라고 부릅니다)로 보냅니다. 성경과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된 이 곳에서 아이들은 14년 동안 사회주의와 여성 해방 운동과 다문화 사회와 성교육을 배웁니다. 그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우리도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좋은 곳이에요.” 그들은 학교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단 하루도 학교에 직접 가서 관찰해 본 적은 없지만 말은 그렇게 합니다.

10년 동안 돈을 버느라 투쟁해온 아버지가 직장에서 다른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자동차와 집, 아이들이 남겨집니다. 자동차와 집은 아직도 빚을 갚는 중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재혼을 하고 자녀를 둘을 더 낳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 그랬듯이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이제 십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쪽과 다른 한쪽의 부모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도록 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며 자기 멋대로 삽니다.

사람들은 이 엄청난 소용돌이와 파멸 속에서 살면서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록음악 콘서트

장에 가서 술에 취한 채 머리를 흔들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캠페인에 참여하고 할리우드의 추악한 영화들에 심취하는 것은 내버려 두면서, 성경을 선포하는 교회에 충실하게 다니는 것은 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통치하시게 되면 그분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라기는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 때에는 부모들의 마음이 욕심과 자기 사랑과 쾌락 숭배와 맘몬신과 부주의함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여 자신들의 소중한 자녀들로 돌이켜지게 될 것입니다.

(공립학교에 관해: 공립학교는 나쁘고 사립학교와 기독교 학교와 홈스쿨은 다 올바르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50년 동안이나 진화와 오락, 패션만 가르치는 공립학교의 모든 결과가 눈을 뜬 사람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공립학교의 폐해에 대해 강조했을 뿐입니다.)

저는 남자든 여자든 주 예수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의 거처에 자리잡게 되면 아들과 딸들의 마음을 회심한 부모에게로 돌이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과 돌봄과 적당한 지도와 훈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완전히 채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미국에 있는 감옥에 가 보면,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거나 아버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이혼 법정에서 가 보면 여자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여자들은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고 남자를 존경해본 적도 없습니다. 자랄 때 도대체 아버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깡패들은 거의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거리를 행보하는 성도착자들은 아버지의 모습 대신 어머니를 아버지인 것처럼 보고 자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정말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께 순종하면 당신의 가정을 다른 가정들과 다르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들에게로 돌이키실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반항하는데 이는 세상적인 음악이나 영화나 TV에서 반항하는 모습이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학교에서도 이를 강화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다 보니, 어머니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다가 비참한 꼴이 되어 버리는 자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아버지 몰래 숨어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는 아이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보았습니다. 부모에게 대항하면서 성적 타락에 빠지고 은밀하게 낙태를 하며 그 누구도 자신을 제재할 수 없다며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또래 사이에서는 무슨 영웅이라도 된 듯 떠받들여 지지만 옆에서 응원하던 바보 같은 친구들은 곧 다 흩어져 버리고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교만한 마음과 인두로 지진 양심과 더러운 생각만 가득한 채 혼자 남아 자신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었다고 항변합니다. 그들은 너무 어리석어서 알 수 없고 너무 교만하여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오늘날의 이 결과는 그들의 반역함으로 인한 대가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비난하고, 가난을 저주하며, 마약상들을 욕하고 옛날의 나쁜 친구를 욕하는 등 자신을 제외한 다른 것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소년, 소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환영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그들을 겸손하게 할 것이요, 그들을 지혜롭게 할 것이며,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타락한 세상의 악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며 의와 소망의 길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말라기에 나오는 그분의 약속은 아주 분명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들을 향해 돌이켜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복음을 믿어 거듭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기 위해 들어오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길을 가도록 허락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이 부모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저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십대가 부모님을 아주 경멸하고 경시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는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진정으로 계신다면 그 마음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태도를 바꾸실 것입니다. 그분은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옛 성품인 고집스럽고 도전적이며 대항하고 뒤에서 사람들을 욕하며 뽀로통해하는 영은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건전한 용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주이신 분께서 여러분의 삶의 왕좌에 계시기만 한다면 분명 그리 될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 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잠21:1)

만약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능을 가진 왕의 마음도 돌이키실 수 있다면, 아주 부드럽고 친절함 방법으로 그 마음을 흘려보내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틀림없이 돌이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오지 않도록 / lest I come 이 구절은 주님이 오시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때 있게 될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한 마디로 경고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질서가 바로 잡히기 위해 끔찍한 결과가 펼쳐질 것입니다.

저주로 땅을 치지 않도록 / and smite the earth with a curse. 내리친다는 것은 때리는 것이요, 던지는 것이요, 몰아내는 것이요, 밀어붙이는 것이요, 손과 주먹 그리고 돌과 무기를 사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내리친다는 단어는 어떤 종류의 무기를 사용하여 때리든지간에 결국은 생명을 멸하거나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민35:16-21). 단 한 번 내리쳐서 사람

의 생명을 멸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연한 사고에 의해 일어나는 일을 가리킬 때 쓰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해를 가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노아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무기로 사용하시어 살아있는 생명체를 내리치셨습니다(창8:21). 소돔에서는 눈 멀게 하는 것을 무기로 사용하셨습니다(창19:11). 이집트에서는 개구리들과 파리와 역병과 어둠과 사망을 무기로 사용하셨습니다(출3:20, 7-12). 하나님께서 내리치실 때 사용하는 그 재앙의 도구는 질병이나 사망일 수 있고(대하21:14), 때로는 눈이 머는 것일 수 있고(왕하15:5), 창자가 터져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대하21:18).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놀람과 미치는 것으로 내리치실 수도 있고(스12:4),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의 몸을 녹여 버리실 수도 있고(스14:12), 그의 증인들로 하여금 모든 재앙들을 그 반역자를 위해 가져가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계11:6). 그분께서 돌아오실 그 때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은 민족들을 내리치실 것입니다(계19:15, 히4:12-13).

이것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고 인내가 많으시며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주님이 정하신 한계선을 넘어서면, 은혜의 때가 지나가 버리면, 거룩하신 그분은 진노를 집행하십니다. 너무나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너무나 압도적인 무기를 사용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으로 아무도 그분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이제 내가 곧 내 격노를 네 위에 붓고 내 분노를 네 위에서 이루어 네 길들에 따라 너를 심판하며 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게 보응하리라.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길들과 네 한가운데 있는 네 가증한 일들에 따라 네게 보응하리니 내가 너희를 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겔7:8-9)

이제껏 언급한 모든 종류의 저주들 중에서 마지막 날들에 어떤 저주를 사

용하실지, 또 한가지를 사용하실지 몇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실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는 진노도 하지 않으시고 악한 세력 앞에 무기력하시고 오직 사랑만 있으신 그런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왜곡된 모습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내리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오셨고 다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심판과 진노와 분노와 복수라는 성품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을 조롱한 모든 자들에게 내리침을 가하실 것이며 그것으로부터 누구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거역하기위해 아주 온 힘을 다해 애쓴 자들을 저주하시며 그들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흔한 이름 중에 ‘smith’가 있습니다. 이는 내리치는 자, 대장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센 대장장이가 우람한 팔로 망치를 들어 올려 있는 힘껏 쇳덩이를 내리치는 모습을 상상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팔을 생각해보십시오. 우주를 창조하는 강한 팔, 죄인들을 구원할 만큼 강한 팔. 자신의 아들의 피의 언약과 권한을 거룩하지 않다고 여기는 자들 위에 진노로 내리치실 두려운 주님의 팔을 말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손 없이 큰 세계 제국들을 내리치는 돌입니다. 므깃도 골짜기에서 원수들을 아예 증발시켜버리는 흰 말 타신 그분입니다. 현대의 미국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주로써 땅을 내리치다.” 이 예언은 주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다루시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예언과 다른 예언들은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말라기가 선포한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2. 엘리야는 아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3. 엘리야는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4. 그런데 엘리야가 이 일을 성취하지 못하면 주께서 땅을 저주로 치실 것이다.

조심스럽게 스가랴 14:12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밭로 설 때에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소멸될 것이요,”(슥14:12)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분께서는 실로 땅을 저주로 치십니다. 여기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 증인이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로 보입니다.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닥없는 구렁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계11:6-8)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야는 설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저주로 예루살렘을 내리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엘리야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스가랴 1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백성들을 아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땅이 저주로 내리침을 당하지만, 예루살렘은 그분께서 아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들은 모순되지 않고 서로 보완이 됩니다.

저주로 / with a curse. 저주는 어떤 사람에게 해나 상처나 불운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가나안에게 저주를 선포했고(창9:25), 이삭

은 야곱을 저주하는 모두에게 저주가 임하도록 선언했습니다(창27:29). 모압왕 발락이 고용한 점쟁이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를 했습니다(민22-24). 갓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은 자신의 신들을 걸고 다윗을 저주했고요(삼상17:43). 성경시대에는 저주가 악한 일이 발생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타락에 관한 이야기에서, 하나님 자신도 뱀과 땅을 저주하시고 계십니다(창3:14-17).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 그 나무가 즉시로 시들었습니다(마21:19, 막11:14). 그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주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저주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눅6:28).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저주가 율법이라는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갈3:10)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심으로써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갈3:13)

하나님께서서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계22:3).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이 놀라운 축복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악한 일이 다른 이에게 생기길 바라는 마음 역시 저주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주는 보통 말로써 하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출21:17). 백성의 통치자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출22:28). 귀머거리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라고 했습니다(레19:14).

인생에서 성경적인 인도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주를 두려워하고 때로는 자신들이 저주를 선언할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면 그들은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일이 꽤 자주 있지만 저는 단 한 순간도 제가 진짜로 저주를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주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제가 많이 듣는 저주 중 하나는 영원한 정죄를 받으라는 식의 말입니다. “지옥에나 가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웃으면서 “저는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저주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 성격적 근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 없는 저주가 오지 않는다고 잠언 26:2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갈3:13). 셋째, 저주를 선언하는 그 사람의 저주가 실행되려면 그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약속과 임재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만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저주하는 것을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성경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상력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 남자든 여자든 누가 저주할까 조심하라고 경고한 구절이 있습니까? 그러한 저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를 역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저주와 또 저주 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잘 다룰 수 있는지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

둘째, 성경 어디에도 없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수준이 한참 낮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치 자신들이 영적 전사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노라.”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자동차로 길을 가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12년 동안 땀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때 기독교 방송 설교와 은사주의적 설교를 밤낮 들어온 어떤 거둬난 사람이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으로 지금 느낌이 오는데, 이 차에는 저주가 걸려 있어.” 아마 여러분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코웃음을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경건하게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합니다. 저주를 한다고 해서 자동차가 고장날 리도 없고, 아무리 자동차에 씌인 저주를 풀 수 있다는 주문(呪文)을 외워도 고장난 자동차가 고쳐질 리 없습니다. 이렇게 미혹당한 혼들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에도 저주를 당할 수 있고, 때로는 사티루스, 부엉이, 올빼미, 보이지 않는 도깨비 같은 것에 자신이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들의 정사와 권능, 더러운 영들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다 이기셨고(골2:15), 그들을 완전히 궤멸하셔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나에게 전적인 승리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엡6장).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약4장, 벧전5장). 그러나 신약성경 그 어디에도 그 누가 나에게 저주를 했다고 언급한 구절은 없기에, 있을 수 없는 일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우리가 생각할 때 교황을 믿는 가톨릭 신자들만 부두교라든가 마술,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에 성경적 진리를 섞어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짓날 동지 때에 상록수를 가지고 장식하는 사람들은 요

정과 귀신들과 도깨비들이 식기 세척기를 망가뜨리거나 문틈에 숨어 들어 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믿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12월 말 경 정복당하지 않은 태양신의 생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어째서 기독교 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적 욕구를 증가시키는 발렌타인 축제에 참여하여 소위 영을 부리는 자, 손바닥을 읽는 자, 수정구슬을 보는 자, 드림을 치며 점을 치는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 것보다 TV보는 것에 더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이 <반지의 제왕>, <앤디 그리픽 쇼>, <나니아 연대기>가 기독교 진리를 증거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왜 놀라십니까?

저는 기독교 신자라고 고백하면서 입술에 거룩한 기름을 바르면 더러운 영들이 소유할 수 없다고 믿고, 악한 영들을 쫓기 위해 문설주에 허브를 걸어놓아야 한다고 믿으며, 어떤 특별한 사진이나 모양을 보게 되면 지옥으로부터 마귀들을 소환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지금부터 휴거 때까지 성경을 다 뒤져본다고 한들 이와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뭔가 기이한 현상과 영성을 항상 혼동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주를 하시고 그 저주들로 해를 입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저주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저주를 해 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저주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저주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저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발 땀고 편안하게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저주’ 히브리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의 구약성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서는 조금 다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교황을 믿는 자들입니다. 교황을 믿는 자들 말고는 외경에 신뢰를 두지 않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하로 끝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겔장부터 겔장까지 성경을 다 읽게 되면 마지막이 역대기하 36:22-23입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일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시매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대하36:22-23)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이방인 왕이 한 말인데, 그 왕은 온 땅을 다스리고 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보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단어는 ‘저주’입니다. 구약 성경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으로(창5:1), 아담의 족보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은 죽었더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에녹과 같은 예외가 있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어쨌든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 즉 구약성경은 ‘저주(말4:6)’라는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주 적절합니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자들이 죽기 때문입니다(롬5:12-14). 참으로 슬픈 모습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따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족보를 읽다 보니 아무도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살기 때문입니다(고전15:22, 롬5:17).

신약성경은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시록 22:21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똑같이 아멘으로 응답하고자 합니다. 저는 신약 그리스도인으

로서 은혜로 끝나고 싶지, 구약성경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 저주 아래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저주를 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들이 4,000년 동안이나 그 동산으로부터 말라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말라기 4:6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명령들이나 규례들은 그 어떤 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 모든 율법들은 어떤 것도 저주로부터 구출해 내지 못했습니다. 말라기가 자신의 책을 쓴 지 400년이 지났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태를 취하시고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로 인해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죄들을 지고 가셔서 고난을 견뎌내셨으며 심지어는 아버지께 버림까지 받으시며 젖값을 모두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범법에 대한 젖값을 치르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려놓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적 구원자로 알고 있는 우리 모두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救贖)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돌아오셔서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땅 위에 왕국을 세우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년왕국이 끝나는 무렵에 사탄이 잠시 동안 놓이게 될 것이며 또 다른 반역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반역의 끝 무렵에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 반역의 무리들을 정복하여 무너뜨리시고 불못에 그들을 던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에 따르면 그 때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불로 태워버리시고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계22:20-21) 저주로 끝나는 구약성경과 비교해 볼 때, 신약성경의 마지막 모습은 얼마나 다른지요!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안내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Samuel C. Gipp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68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80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80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28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8	1000
22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32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48	15000
30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Jeffery Tibbetts	96	4000
31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 우 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0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4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92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40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32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96	4000
43	합당한 헌신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 우 진	48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 우 진	24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0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2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40	5000
55	두 본성	George Zeller	60	1000
56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s	60	1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57	거리 설교의 유익	James W. Knox	52	1000
58	레위기 개요	James W. Knox	48	1000
59	히브리서 연구	M. R. De Haan	336	12000
60	천년왕국	Keith Piper	32	1000
61	창세기 주석	James W. Knox	536	18000
62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Samuel C. Gipp	168	6000
63	두 홍수(간극이론)	James W. Knox	32	1000
64	예수 및 여호와인가 아니면 '야훼'와 '야호'커백션인가?	Gail A. Riplinger	48	1000
65	하나님의 모든계획	김 영 균	272	8000
66	Dino 박사의 창세기 간극이론의 비판에 대한 전면 반박	Gaines Johnson	56	1000
67	간극이나 아니냐에 대한 창세기 1:1~2의 연구	David F. Reagan	48	1000
68	영원히 살려면	John Phillips	112	4000
69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Timothy P. Rose	208	8000
70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김 영 균	64	-
71	성경과 지질학	Gaines R. Johnson	304	10000
72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James W. Knox	256	8000
73	간극은 있다.	Perry Demopoulos	416	15000
74	욥기 연구	Dr Ken Blue	376	13000
75	로마서강해	김 영 균	368	13000
76	영어성경의 감추어진 역사	Gail Riplinger	128	6000
77	성경은 음악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James W. Knox	88	3000
78	깨어진 것들	M.R. DeHaan, M.D.	120	5000
79	욥기	Dr. Samuel C. Gipp	48	1000
80	사무엘 김의 설교 - 1. 성경을 읽는 방법	Dr. Samuel C. Gipp	32	1000
81	최고(Highest) 수준의 생활(生活)	Ruth Paxson	24	1000
82	말라기 강해	James W. Knox	456	16000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31종과 소책자 43종 등 74종의 도서를 총 13만 3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가량 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

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롬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2:9)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 영 균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ib.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지은이

James W. Knox

제임스 닉스 형제는 1958년 2월 26일 루이지애나 배턴 루지에서 태어나
줄곧 플로리다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영어와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닉스 형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76년 12월 17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이듬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닉스 형제는 1987년 미국 플로리다의 달랜드에 성경침례교회를 세운 목회자입니다.
그는 109개 나라에 성경공부 자료와 설교 테이프 자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세계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1988년부터 지금까지 백 30만 개의 자료들을 보급해 왔습니다.
닉스 형제는 테이프 사역과 문서사역을 통해
세계 곳곳의 지체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들을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하도록 올바른 지침을 마련하고
지금도 그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http://www.jameswknox.org>

옮긴이

김영균

- 前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강사
- 前 단국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
- 現 진리침례교회 담임 목사
- 現 킹제임스성경신학원 원장
- 現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역 서

- 척 스미스 〈창세기〉, 〈출애굽기〉 / 도서출판 포도원
- L. E. 맥스웰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채 태어났다〉 / 도서출판 킹제임스
- 제임스 W. 닉스 〈성령의 열매〉, 〈성경적 종말론〉, 〈창세기 주석〉

도서출판 킹제임스

- 엠. 알 디한 "히브리서 연구" / 도서출판 킹제임스
- 사무엘. 김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 도서출판 킹제임스
- 키스 파이퍼 〈천년왕국〉,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 도서출판 킹제임스
- D. L. 무디 〈심음과 거둬의 법칙〉 / 라온누리